

시민을 위한
이천시지



테마로 보는
이천의 문화

CONTENTS

1편 이천의 아이콘

01 이천 시민들의 휴식처, 설봉공원

1. 설봉산, 설봉공원으로 피어나다 / 14
아늑한 어머니의 품 공간 / 설봉산의 꽃 설봉공원
2. 설봉공원에서 축제를 만끽하다 / 18
3. 설봉공원의 사계를 누리다 / 20
4. 설봉공원, 천 배로 즐기소서 / 26
마전터 골목길 벽화와 설봉역 / 설봉호수와 힐링로드 / 장미정원 / 문학동산과 다래헌 /
곰방대가마 / 도자예술공원 세라피아 / 만화당, 만권당, 레스토랑M이 있는 토야지움 /
월전미술관과 무궁화동산 / 커피와 음악, 정다운 대화가 있는 곳 / 충효동산 / 레포츠시설들
5. 설봉공원, 새로운 밀레니엄 파크를 상상하다 / 40

02 공예문화의 허브, 박물관과 미술관

1. 도자의 상상이 펼쳐지는 이천세라피아(cerapia) / 47
2. 이천의 역사가 살아있는 이천시립박물관 / 51
3. 현대 한국화의 멋과 맛, 이천시립월전미술관 / 55
4. 끊임없는 용기와 도전의 장, 서희테마파크 / 56
5. 종교를 뛰어넘은 역사사료의 보고,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 59
6. 과거와 현재, 미래의 동요를 만날 수 있는 한국동요박물관 / 60
7. 사람 · 문화 · 예술이 함께 숨 쉬는 샘표스페이스 / 63
8. 만화와 만난 청강만화역사박물관 / 65
9. 한국 도자기의 중심, 해강도자미술관 / 67

03 임금님도 맛있다고 칭찬한 이천쌀

1. 이천의 쌀과 자채쌀 / 72
2. 그 옛날도 지금도 이천의 랜드마크 ‘구만리뜰’ / 76
3.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우뚝 선 이천쌀문화축제 / 78

4. 자채쌀, 아끼바리, 그리고 고시히카리 / 81
5. 이천쌀의 공출기차였던 수여선 / 83
6. 임금님표 이천쌀! 탄생은 이천농협, 발전은 이천쌀사랑본부 / 85
7. 이천쌀의 내일을 본다 / 88

2편 도자기 굽는 마을

01 이천도자기 60년, 그 변화와 비전

1. 이천과 도자기 / 94
 - 1) 도자기의 도시, 이천 / 94
 - 2) 한국 근현대 도자역사와 이천도자의 의미 / 96
 - 3) 이천도자기 탄생의 전주곡, 대방동가마 / 98
2. 전승도예의 중심이 된 이천 / 100
 - 1) 도자장인들의 유입과 칠기가마 / 100
 - 2) 전승도예의 뿌리를 이천에 심은 장인들 / 103
 - 3) 전승도예의 중심, 이천 / 104
 - 4) 이천도자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모색 / 107
3. 이천도자기의 도약과 비전 / 110
 - 1) 이천도자기의 새로운 전환점,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 / 110
 - 2)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와 이천도자기축제 / 113
 - 3) 이천도자의 새로운 비전-유네스코 창의도시와 도자산업특구, 그리고 에스파크 / 116

02 이천도자기와 도예촌

1. 이천도자기 / 120
 - 1) 이천도자기의 유래와 성장 / 120
 - 2)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와 세계도자비엔날레 / 122
 - 3) 과제와 전망 / 124
2. 사기막골도예촌과 이천도자예술마을 ‘에스파크’ / 127
 - 1) 이천도예촌 탄생 배경 / 127

- 2) 이천 제9경 사기막골도예촌 / 137
- 3) 새로운 도자랜드마크, 이천도자예술촌 ‘에스파크’ / 136

03 흙으로 보물을 빛는 사람들

- 1. 숨 쉬는 보물창고, 이천 도예 / 152
 - 1) 도자기, 청자와 백자, 분청사기 / 152
 - 2) 이천의 도자기명장들 / 154
 - 3)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에 관한 조례 / 156
- 2. 신품을 만드는 이천 도자기명장들 / 158
 - 1) 대한민국 공예부문(도자기·세라믹) 명장 / 159
 - 2) 이천시 도자기명장 / 165
- 3. 도예가들과 이천도자기의 미래 / 177
 - 1) 지금은 명장이 아니어도 괜찮아 / 177
 - 2) 도자기명장들의 사회공헌활동과 이천 도예가 나아갈 길 / 178

3편 즐거움이 넘치는 곳

01 모두가 즐거운 축제

- 1. 이천백사산수유꽃 축제 / 186
 - 1) 이천백사산수유꽃 축제의 탄생 / 186
 - 2) 산수유꽃축제가 걸어 온 길 / 187
- 2. 이천도자기축제 / 193
 - 1) 도자기축제의 탄생 및 정체 / 194
 - 2) 도자기축제의 도약 / 196
 - 3)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 와 이천도자기 축제 / 201
 - 4) 2000년대 이후의 도자기축제 / 204
- 3. 장호원복숭아축제 / 208
 - 1) 복숭아축제의 탄생과 걸어온 길 / 208
 - 2) 장호원복숭아의 새로운 이름 ‘햇사레’ / 210

4. 이천쌀문화축제 / 212
 - 1) 이천쌀문화축제의 태동 / 213
 - 2) 이천쌀문화축제의 도약 / 214
 - 3) 이천쌀문화축제의 성장 / 215
5. 효양산 전설문화축제 / 216
 - 1) 효양산 전설문화축제의 탄생 / 216
 - 2) 축제의 시·공간과 인적·물적 기반 / 218
 - 3) 축제의 문화적 기반 / 219
 - 4) 서희 선생 역사 콘텐츠 확대 / 220

02 이천 시민기록자의 문화유산 답사기

1. 이천을 하루 이틀에 둘러보기 / 224
2. 아름다운 설봉산 / 229
3. 설봉서원 답사기 / 234
4. 이천9경 중 제8경 노성산 말머리바위 / 239
5. 노성산과 원경사, 그 품에서 자란다 / 243
6. 백사면의 느티나무와 소나무의 꿈 / 248
7. 효자와 돼지의 전설을 품은 이천 도드람산에 대하여 / 252
8. 도심 속의 정원 안흥지와 애련정 / 256
9. 역사와 전설이 공존하는 마을, 율면 산성리와 어재연 장군 / 261
10. 이천의 숨은 보석, 도니울마을 / 266
11. 이천에서는 조각에게 말을 걸 수 있다 / 272
12. 시민이 직접 쓴 이천의 문화유산답사기 / 277

03 이천의 '리얼' 핫플레이스

1. 온 가족 주말나들이,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이천점 / 285
2. 커피향이 가득한 문화공간, 이진상회 / 291
3. 이천에서 우주를 만나다. 별빛정원 우주 / 295
4. 어둠에서 빛으로, 에덴파라다이스 메모리얼리조트 / 301

4편 함께 사는 세상

01 특산품과 향토음식

1. 이천의 맛! 이천의 자랑! 특산품 / 310
 - 1) 임금님께 진상된 이천쌀 / 310
 - 2) 맛과 향이 독특한 이천계절무 / 316
 - 3) 전국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장호원복숭아 / 318
 - 4) 이천산수유 / 320
 - 5) 그밖의 특산품들 / 323
2. 시민들의 식생활과 절기음식 / 324
 - 1) 음식문화와 주식 / 324
 - 2) 이천지역의 절기음식 / 327
3. 향토음식과 특산품을 이용한 음식 / 328

02 이야기가 익어가는 농촌체험마을

1. 농촌 현실과 체험마을의 등장 / 340
 - 1) 위기의 농촌 / 340
 - 2) 농촌에 대한 새로운 인식 / 340
 - 3)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등장 / 343
 - 4) 새로운 가능성, 농촌체험마을 / 345
2. 100가지 체험여행, 이천농촌나드리 / 346
 - 1) 이천 농촌체험마을 / 346

울면 부래미마을 / 백사면 산수유마을 / 모가면 서경들마을 /
대월면 도니울마을 / 대월면 자채방아마을 / 노송산 우무실마을
 - 2) 농촌마을 체험기, 우무실마을에서 메뚜기를 잡다 / 361

03 무인농장시대, 첨단을 달리는 농부들

1. 첨단농업과 무인농장시대 / 368
 - 1) 스마트 팜과 이천 / 368
 - 2) 첨단농업의 미래 / 373
2. 첨단을 달리는 이천 농업인들 / 374
 - 1) 이천 스마트 팜의 대부, 동산농원 김성도 대표 / 374
 - 2) 융·복합 농업을 선도하는 산수유농자 이미순 / 381
 - 3) 이천쌀의 미래, 청년농부 김상훈 / 387

04 태어난 곳은 달라도 우리는 이천 사람

1. 하이닉스 입사로 이천 사람이 된 직장 이주민 김영덕 씨 / 394
 - 1) 하이닉스 입사로 시작된 이천살이 / 394
 - 2) 사내 연애에서 결혼까지 / 397
 - 3) 길 위에 서서 나를 만나는 순간 / 398
 - 4) 사랑하는 내 아이들의 고향, 이천 / 400
2. 다문화가족 모범 1세대, 고세키 에미 씨의 33년 이천사랑 / 401
 - 1) 나의 꿈, 나의 청춘 / 401
 - 2) 이천의 봄, 잊지 못할 진달래꽃 / 404
 - 3) 제2의 직업과 함께 찾아온 또 다른 인생 / 406
3. 캄보디아에서 온 7년차 외국인여성노동자 소완티의 이천정착기 / 410
 - 1) 스무 살의 가혹한 선택 / 410
 - 2) 친절한 사장님과 농장 사람들 / 411
 - 3) 이천에서 살고 싶어요 / 414
4. 이천에 심은 노년의 꿈, 전원주택을 짓고 귀촌한 이경택 씨 / 416
 - 1) 20년 전, 이천에 심은 꿈의 씨앗 / 416
 - 2) 땅을 일구고 직접 집을 짓다 / 417
 - 3) 온화한 시간 속에 흐르는 자유로운 삶 / 419

일러두기

1. 구성 및 기획 방향

- 본책은 2001년 7권으로 편찬된 『이천시지』를 기초로 하여 시민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대중서로 기획되었으며,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권 ‘테마로 읽는 이천의 뿌리’는 이천시의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의 역사와 자연 지리를 비롯하여 인물, 세거성씨, 문화유산, 교육, 민속 등을 주제별로 나누어 한눈에 이천의 뿌리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제2권 ‘테마로 보는 이천의 문화’는 이천시를 대표할 만한 아이콘(icon)과 랜드마크(land mark)를 분야별로 선정하여 현대 이천의 문화상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제3권 ‘꼭 읽어 알려주는 이천 길잡이’는 이천시의 연혁과 인문지리, 그리고 현대 이천의 변화상을 간략하게 다루었다. 또한 이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지리 등 전 분야에 걸친 내용을 백과사전 형식으로 요약하여 수록함으로써 시민들이 이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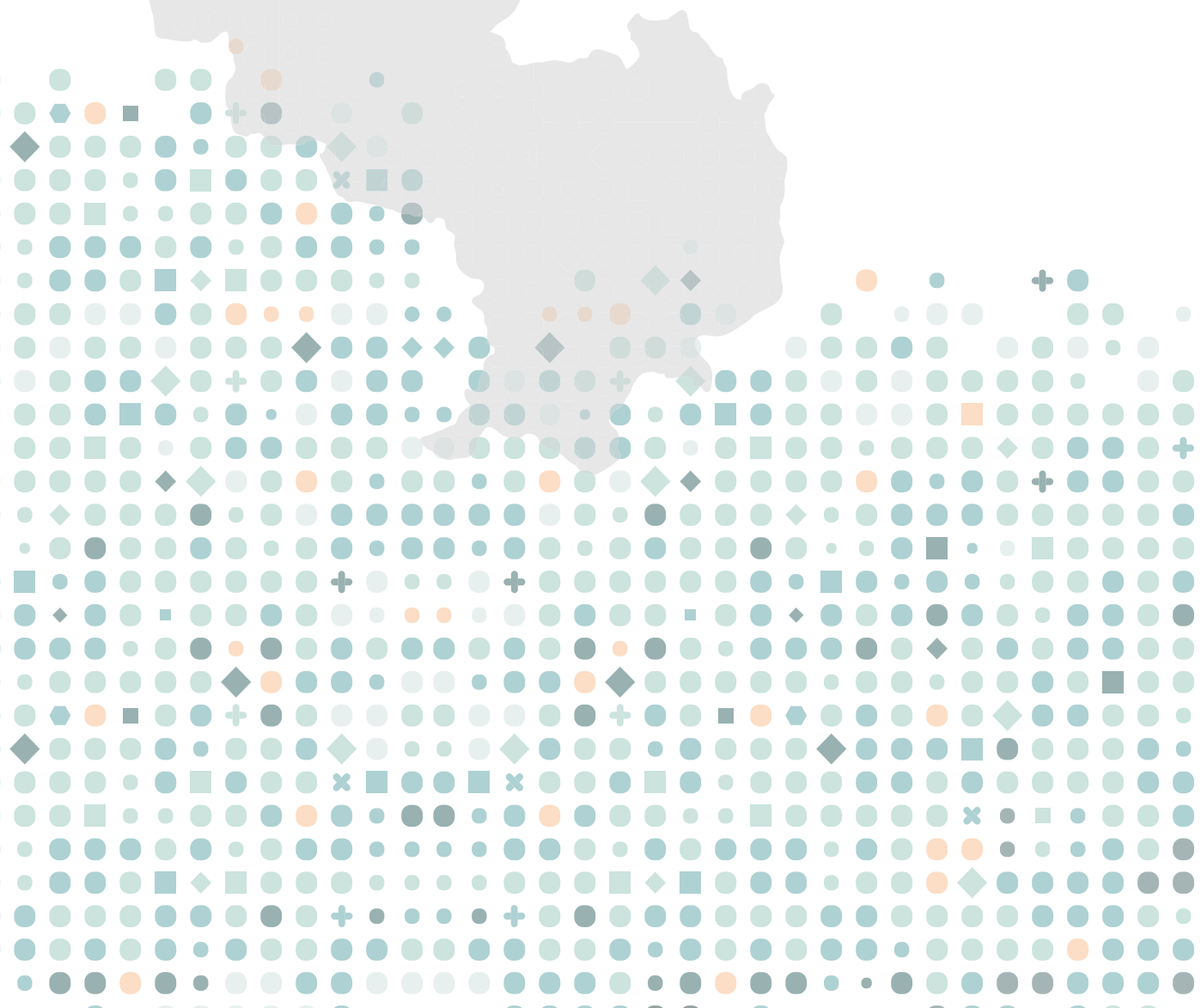
2. 서술 범위와 원칙

- 공간적 범위 : 행정구역상 이천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과거 음죽현에 속하면서 청미천을 경계로 충청도와 생활권을 함께한 장호원읍처럼 역사적 이해와 설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영역을 인근으로 확대하여 적용하였다.
- 시간적 범위 : 기획과 집필 시점을 고려하여 선사시대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편찬 시점과의 차이를 또한 고려하여 항목별로는 2017년과 2018년까지도 확대하여 서술하였다.
- 내용적 범위 : 본책의 편찬 의도와 각 편·장의 주제 및 기획 의도를 고려하여 해당 주제가 요구하는 범위에 부합하도록 서술하였다. 또한 내용의 일관성과 통일성, 그리고 충실성을 기하기 위하여 집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윤문과 교열, 첨삭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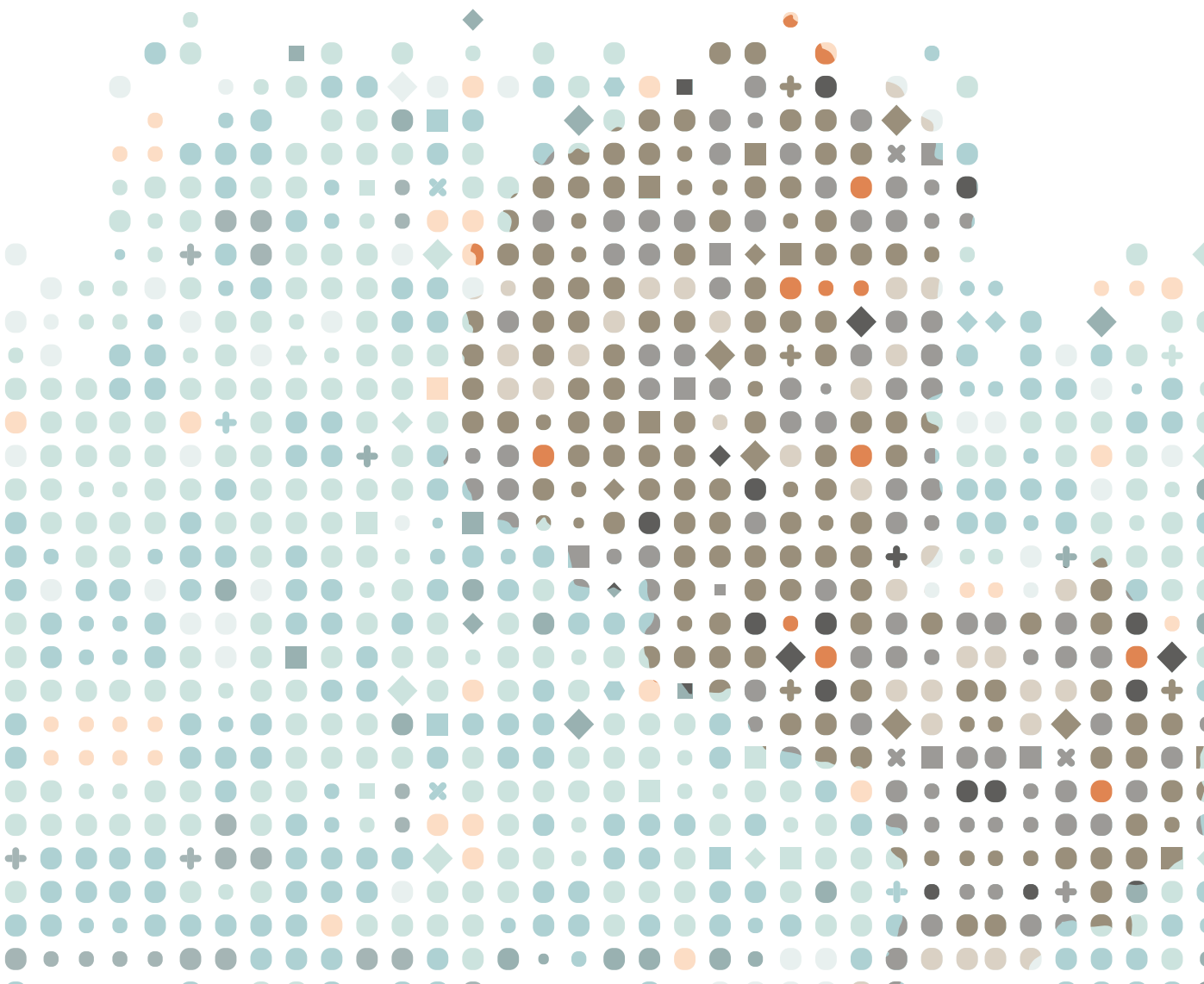
3. 저작권과 출처

- 이 책의 저작권은 이천시에 있다.
- 수록된 내용과 도표·사진 등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그 외의 타당한 사유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천시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서 안 된다.
- 사용된 사진과 자료에 대해서는 제공자 또는 출처를 표기하였으며, 집필자가 직접 촬영하거나 제출한 자료, 이천시청 미디어자료실 자료, 그리고 이천시지편찬위원회에서 직접 생산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기를 생략하였다.
- 집필자가 제출한 자료로 발생하는 저작권 및 관련 문제의 책임은 해당 집필자에게 있다.

이천의 아이콘



1편



01

이천 시민들의
휴식처, 설봉공원





이동준 | 이천문화원 사무국장

제1장 이천 시민들의 휴식처, 설봉공원

1. 설봉산, 설봉공원으로 피어나다

아늑한 어머니의 품 공간

설봉산은 이천 시내권을 포근히 둘러싸고 있는 산이다. 옛 문헌에는 주로 부의 서쪽 5리에 있는 산으로 기술하고 있다. 설봉산은 ‘북악산’ 北嶽山이라 부르기도 했고, 산세가 학이 날개를 편 모습과 비슷하다 하여 ‘무학산’ 舞鶴山 · ‘부학산’ 浮鶴山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 설봉산은 객관적으로 보면 그리 대단한 산이 아니다. 해발 394m 정도로 그리 높지 않으며 기암괴석이나 대단한 절경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설봉산은 이천 사람들에게 가장 고향을 생각나게 하는 산이다.

산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산은 아니다. 올라야 좋은 산도 있고 바라보아야 제격인 산도 있다. 그리고 느껴야 좋은 산도 있다. 어떤 산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푸근한 느낌을 주는 산이 있다. 바로 설봉산이 그렇다. 가장 좋은 풍수는 좌청룡 우백호 같이 격식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장소라 했다.

예로부터 이천부의 관아가 들어서기 위한 풍수적 배후를 이루는 산이었다. 그렇다면 먼저 설봉산의 풍수적 지세를 이해해야 한다. 그 뿌리가 되는 산과의 지맥이 어떻게 닿아있는지, 또 어느 곳으로 그 기운이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한다. 뿌리가 되는 산을 조산 祖山 또는 종산 宗山이라 부르는데, 이천의 풍수형국을 그린 조선 후기의 『해동지도 海東地圖』를 보면 원적산 · 정개산 · 둔지산 · 양각산 · 보현산 등이 조종산 祖宗山이 된다. 이들 산이 바깥쪽으로 이천을 둘러싸서 바람을 간직하고[藏風], 다시

관고저수지(1989)



관고저수지(1993)



그 안쪽으로 설봉산이 이천고을을 진호하고 있다 하여 설봉산을 이천의 ‘진산’으로 보았다.

산의 풍수적 지세가 그치고 진혈이 맺히는 그곳이 명당이 된다. 명당이란 이를테면 어머니가 잉태하여 기르는 곳이다. 어머니의 자궁처럼 편안하고 아늑해야 한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조祖 · 종宗 · 태胎 · 식息 · 잉孕 · 육育이란 개념을 쓴다. 명당이란 어머니가 잉태하여 자식을 열 달 동안 기르는 과정과도 같다. 땅이 조상(祖)으로부터 전

해진 정기[稊]를 받아서[胎] 숨을 띄우고[息] 배에서 품어[孕] 생명을 기르는[育] 것처럼 설봉산은 이천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품 그 자체이기도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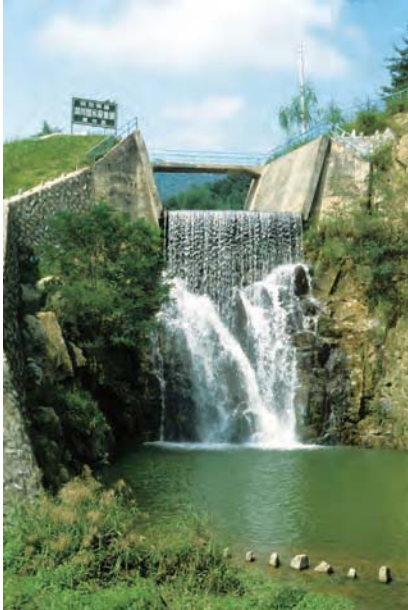
설봉산의 주맥은 기치미고개를 넘어 ‘이천시립도서관’이 있는 망현산으로 이어진다. 그 망현산 아래 이천부의 관아가 자리 잡고 있었다. 지금의 창전동주민센터 위쪽의 ‘서희평생학습센터’ 인근이다. 풍수적 개념으로 보자면 ‘관아’ 보다는 사람을 기르는 ‘교육기관’이 자리 잡은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평생학습센터는 절묘한 명당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일대의 옛 관아터 지역에 속하는 창전동주민센터와 이천문화원, YMCA착한가게, 서희평생학습센터, 옛 경찰서, 유도관, 이천초등학교 등을 묶어서 시민들을 위한 알찬 교육문화공간으로 조성하면 좋지 않을까.

설봉산의 꽃 설봉공원

설봉공원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다. 물론 과거에도 설봉산에는 관고저수지^{지금의 설봉호수}가 있었고, 풍성한 수림과 골짜기, 곳곳의 물 좋은 약수터와 천년사찰 영월암이 존재했다. 하지만 1980~1990년대까지만 해도 설봉산 일대는 그저 저수지와 논밭이 있는 시골 산간지에 불과했다. 관고저수지는 원래 관개 및 관광개발 목적으로 농림부와 경기도에서 저수지 조성 승인을 받아 1970년에 만들어진 저수지다. 그러다가 1972년 낚시터를 개장하면서 휴일이면 낚시꾼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이 지역에 살던 길상기⁸⁷ 옹은 1970년대부터 저수지 정화운동에 앞장 서오기도 했는데 주민들에겐 설봉산 산신령으로 통한다.

이 일대에 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 계기는 1998년 제1회 국제조각심포지엄이 열리면서부터다. 이 국제조각행사를 통해 만들어진 작품을 설봉공원에 배치해 세계적인 예술도시로 가꾼다는 취지로 공원 조성의 청사진을 그렸다. 1999년에는 삼국통일의 거점이 되었던 설봉산성의 발굴조사와 함께 사적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발표되기도 했다.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주행사장이 설봉산 호수 주변 일대로 확정되면서 설봉공원이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했다.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앞두고 설봉공원과 세계도자센터, 곰방대가마, 토야테마파크가 들어섰다.

2004년에는 충효동산 안에 시민의 모금운동으로 서희동상을 건립했다. 그리고



		3
1		5
2		
4		

1. 관고저수지 수문(1984.5)
2. 관고저수지(설봉호수)의 봄(1986.5)
3. 관고저수지 낚시터 풍경(1986.5)
4. 관고저수지 낚시터 풍경(1989.4)
5. 설봉공원 전경(1990)

그해에 이천시는 이천9경을 선정 발표했다. 23곳의 후보지 가운데 인터넷 여론조사를 통해 9곳을 뽑았는데 설봉호수, 삼형제바위, 설봉산성이 들어갔다. 9경 중 3경이 설봉산에 있는 경승지다. 설봉호수에는 80m까지 치솟는 분수가 설치됐고 1km에 이르는 산책로도 만들어졌다. 2007년 4월에는 설봉서원이 현재의 위치에 복원되었고, 그해 8월에는 이천시립월전미술관이 문을 열었다. 설봉산산림욕장과 자연생태학습장도 이즈음 단장을 마치면서 등산객과 가족단위로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기 시작했다.

설봉공원은 이제 이천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설봉산에는 영월암과 설봉산성, 설봉서원과 같은 유서 깊은 문화유적이 있다. 그리고 시립월전미술관과 충효동산, 시립박물관, 세계도자센터와 도자공원 세리피아 같은 문화시설들이 들어서 있다. 설봉호수와 설봉산 곳곳의 약수터는 휴식과 건강을 위해 시민들이 매일 찾는 곳이다.

2. 설봉공원에서 축제를 만끽하다

설봉산 계곡물이 모여 이루어진 설봉호수와 호수를 끼고 있는 설봉공원은 이천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휴식처이자 사계절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열리는 장소이다. 설봉문화제, 이천도자기축제^{2018년부터는 에스파크에서 개최}, 쌀문화축제, 설봉산별빛축제, 이천인삼축제 같은 이천의 대표적인 축제들이 해마다 설봉공원을 무대로 열고 있다. 설봉공원은 우리나라 도자문화의 대표적인 명소이기도 하다. 지난 2001년 경기세계도자엑스포가 설봉공원에서 열린 이후 2년마다 한 번씩 세계도자비엔날레가 설봉공원을 주행사장으로 해서 열리기 때문이다.

설봉공원을 주무대로 하는 가장 오래된 축제는 설봉문화제다. 이천의 진산인 설봉산의 이름을 붙여 시작된 설봉문화제는 1987년 이천의 전통문화를 잇고 새로운 문화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축제의 오랜 연륜이 말해주듯 이천의 전통문화와 민속예술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향토문화제로 자리매김을 했다. 초기의 설봉문화

제는 거리 가장행렬과 퍼레이드로 이천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든 축제였다. 도자기축제, 도자기아가씨선발대회, 국제조각심포지엄, 설봉음악제 같은 축제들이 설봉문화제를 통해 만들어졌다.

설봉문화제는 민속행사, 문예행사, 청미문화제를 아우르는 종합문화예술축제로 1990년대 말까지 이천에서 열렸던 유일한 축제이기도 했다. 행사기간 동안 설봉산 일원에서는 허수아비가죽축제, 이천거북놀이와 정승달구지 시연, 학생국악경연대회, 이천민속축제 한마당 행사가 진행됐고 서예전, 사진전, 시화전 등 다채로운 종합예술 전시행사가 시내 곳곳에서 열렸다. 2018년 32회째를 맞는 설봉문화제는 2016년부터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다. 부침개장터, 벼룩시장, 이천역사여행, 조각작품해설, 작은 생활문화공연과 퍼포먼스 등 주민참여와 학습체험 위주의 콘텐츠를 대거 도입해서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킨 새로운 축제문화를 선보이고 있다.

이천쌀문화축제는 이천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이천쌀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수확기에 개최되고 있다. 축제에서는 명식 만들기, 새끼 꼬기, 쪼신삼기 등 쪼풀공예 체험과 쌀가마니 지게지기, 재래식 탈곡하기, 모내기하기, 가마솥 햅쌀밥 짓기, 임금님 쌀 진상행렬 등 다양한 전통농경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천’ 원으로 맛보는 이천쌀비빔밥 행사, 이천 명이 참여하는 무지개 가래떡 뽑기 같은 재미난 이벤트가 펼쳐지기도 했다. 2018년 20회째를 맞이하는 이천쌀문화축제는 한층 더 내용이 풍성해질 것으로 보인다.

별빛축제는 한여름밤 별빛 아래 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 공연과 대중연예인 초청공연을 통해 한여름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휴식을 주고자 시작된 공연축제다. 별빛축제는 7~8월 매주 토요일 설봉공원 대공연장에서 진행되는데 이천 시민들 사이에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천도자기축제는 1987년 설봉문화제의 일부행사로 시작이 되었다. 1995년 문화체육부 시범축제가 되면서 독자적인 축제로 전환하였고,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와 도자비엔날레로 확대되면서 한국도자의 메카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0년에는 이천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되면서 이천도자기축제도 행사 내용이 한층 더 풍부해졌다. 2018년부터는 지난 20년간 설봉공원에서 열렸던 축제의 무대를 에스파크*이천도자예술마루*로 옮길 예정이다.

춘사영화제도 설봉공원에서 열렸던 영화제다. 35세의 짧은 생을 영화와 독립운동을 위해 바쳤던 춘사^{春史} 나운규^{羅雲奎, 1902~1937}의 삶에 대한 열정을 기리고자 시작된 영화제인데, 2006년부터 ‘이천 춘사대상영화제’로 이름을 바꾸어 설봉공원에서 개최되었다. 2006년^{14회}부터 2010년^{18회}까지 다섯 차례 열렸던 이 영화제를 통해 유명한 영화배우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호사도 누렸다. 「한반도」, 「그해 여름」, 「국가대표」, 「크로싱」, 「킹콩을 들다」, 「이끼」 같은 작품이 이 영화제를 통해 수상했다.

3. 설봉공원의 사계를 누리다

설봉공원을 멋스럽게 즐기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 과실도 제철 맛이 최고라 했는데 바로 철따라 달라지는 설봉산과 설봉공원의 모습을 완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사계를 따라 설봉공원이 연출하는 자연의 아름다운 품속에 들어가 보기를 권한다. 그리고 숨 깊이 느껴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한다.

봄 : 플라워파크(Flower Park)

설봉공원의 봄은 진달래와 벚꽃으로 시작된다. 4월 설봉산의 산세를 온통 뒤덮는 진달래 군락이 영월암에서 장승이마을로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펼쳐진다. 상춘객들이 설봉의 진달래를 놓칠 리 없다. 아직 겨울나무의 잠에서 깨지 못한 설봉산을 이 파리지차 거추장스러운 듯 진달래가 그 붉은 빛깔로 물들인다. 마치 화선지에 물감이 번지듯 그렇게 설봉의 4월은 오롯이 진달래의 몫이다.

진달래꽃에는 애잔한 전설이 서려있다. 그 옛날 중국 촉나라의 두우^{杜宇}라는 황제가 나라를 잃고 억울하게 죽어 새가 되었는데 이 새가 밤낮으로 “귀촉, 귀촉” **고향인 촉으로 돌아가고 싶다**하며 슬피 울어 ‘귀촉도’ ^{歸蜀道}라고도 부르며, 두우의 이름을 따서 ‘두견’ ^{杜鵑}이라고도 부른다. 이 새가 너무도 한이 맺혀 피눈물을 흘리며 울어서 그 주위에 핀 진달래 꽃잎이 붉게 물들었다고 하여 진달래를 ‘두견화’ ^{杜鵑花}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2003년에는 설봉산 자락에 흰진달래가 자생하고 있다는 지역신문 보도가 있었

봄꽃이 싱그러운 설봉
공원의 봄



다. 설봉공원 월전미술관 쪽 무궁화동산 위로 100여m를 올라가면 왼편으로 서식지가 있다. 구암약수터 부근이다. 흰진달래 *Rhododendron mucronulatum for. albitlorum*는 희귀 변이종으로 알려진 꽃이다. 혹시 설봉산에 날아든 한 마리 두견이 설봉의 아늑한 품속에서 안식을 찾았기에 잠시 그 붉은 눈물을 거둔 것은 아닐까?

4월의 설봉산이 진달래로 물들고 있는 반면 아래쪽 설봉공원은 온통 벚꽃세상이다. 벚나무로 가득한 공원의 벤치에 앉아 본, 한줄기 바람이 지날 때마다 벚꽃 잎이 꽃비로 흩날리는 장면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명장면의 하나로 꼽힌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공원 자투리녹지에 돛자리를 펼치고 앉아 점심을 먹거나 세라피아에 있는 레스토랑 M에서 알뜰한 점심을 먹는 즐거움도 바로 4월이다. 라일락 꽃향기도 번지기 시작한다.

여름 : 레이크파크(Lake Park)

설봉공원하면 반드시 설봉호수가 함께 떠오른다. 80m의 고사분수가 하늘 높이



설봉공원의 명소가 된
'소리나무(풍경나무)'

숫구치면 주위에 무지개가 아른거리며 한여름 찌는 듯한 더위도 씻어낼 듯하다. 설봉 호숫가를 따라 도는 둘레길과 순환도로는 조깅하거나 산책을 나온 시민들에게 인기가 높다. 설봉호수는 40여 년 전 만들어진 호수로 당시엔 낚시터로도 유명해서 강태공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철인트라이애슬론 경기수영, 싸이클, 마라톤이 열리는 장소이기도 했다.

한여름 밤 열대야를 이기려고 서울 사람들이 한강고수부지를 찾고, 부산 사람들이 해운대나 광안리를 찾듯이 이천 사람들은 설봉공원을 찾는다. 설봉공원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주 정겹고 운치 있는 여름밤의 피서지를 제공한다. 설봉호수 주변의 조각공원과 체육시설, 숲길 곳곳에 있는 벤치와 정자, 푸른 잔디 위에 돛자리 하나 깔면 가족나들이와 피서는 그만이다. 게다가 7~8월 여름밤에는 토요일마다 별빛축제가 열린다.

설봉공원에는 설봉호수 위쪽에 또 다른 산정호수가 있다. 바로 세라피아에 있는 구미호九尾湖다.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이 인공호수에는 호수를 가로지르는 징검다리도 있고 충주호의 도담삼봉을 축소한 듯한 멋스런 풍경도 볼 수 있다. 창조센터 2층의 세라피아가케도 시원하게 커피를 마시며 설봉산의 여름풍경을 잘 감상할 수 있는 지점이다.

때로는 한여름 밤 설봉공원의 명소가 된 ‘소리나무’의 세라믹 풍경소리를 들으며 이천의 야경과 설봉호수를 바라보는 것도 이천 시민이 된 즐거움이다. 조각가 성동훈의 소리나무Singing Tree는 2007개의 도자 풍경風聲을 매달아 바람이 불면 소리가 울리는 일종의 도자악기다. 풍경에 매달린 물고기와 구름 모양의 종들은 빛과 조명에 반사되어 보석처럼 빛난다.

가을 : 힐링파크(Healing Park)

가을을 독서와 사색의 계절이라 했던가. 설봉공원은 가을을 맞아 사색의 길로 우리를 이끈다. 가을의 설봉공원이 축제로 넘친다면 공원 위쪽으로 조성된 사색의 길을 걸어보면 어떨까? 설봉서원이 출발점이다. 설봉서원에 배향된 4현의 한 분인 최숙정의 호가 바로 소요재逍遙齋다. 소요逍遙란 마음이 가는 대로 이리저리 자유롭게 거닌다는 뜻이다. 설봉서원에서부터 구암약수터까지 이어지는 설봉산 산책로는 누구나 편안하게 사색에 잠겨 거닐기에 좋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고성 위로 나있는 ‘철학자의 길’Philosophenweg을 걸어보았지만 설봉산 ‘사색의 길’에 결코 미치지 못한다.

서원에 배향된 또 한 분이 모재慕齋 김안국이다. 모재는 선비의 책읽기를 유난히 강조했던 분이다. 안정복에 따르면 모재는 ‘글을 읽으려면 일만 번을 읽어야 그 경지에 통할 수 있다’[讀書必萬遍然後 可以通神]고 했다. 또 선비로서 삶의 첫 번째 필수품으로 한 시령의 책을 꼽고 있다. 선현의 가르침대로 단풍이 물든 가을, 한 권의 책을 들고 설봉서원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설봉산의 깊은 가을단풍을 완상할 수 있는 곳도 설봉서원에서 영월암에 이르는 길이다. 특히 영월암 경내에 들어설 때 수북이 쌓인 은행잎 밟는 소리와 목탁소리, 열굴에 와 닿는 바람의 반가움.

영월암은 1774년영조 50 영월대사 낭규朗奎가 중창하였다고 전해지는데 그 법호를



완연한 가을정취 가득
한 영월암

따서 영월암으로 부르게 되었다. 영월암을 거닐다보면 아미타전 주련에 새겨진 한 글귀와 만나게 된다. “설산[雪峯]에서 수련하니 마음달[映月]이 밝았도다.” 고즈넉한 가을 밤 설봉산 영월암에서 스님께 차를 한 잔 청해보면 어떨까. 달빛 어린 차 한 잔을 마시며 그 속에서 마음 달도 밝히 찾을 일이다.

영월암에서 내려오는 길에 월전미술관에서 그림을 감상하는 즐거움을 놓쳐서는 안 된다. 월전 장우성의 작품을 종합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인터넷 회원에 가입하면 무료티켓을 받을 수 있다. 월전 선생은 새로운 한국화의 길을 모색하고 한국 문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연 대가다. 낭중지추[囊中之錐], 천의무봉[天衣無縫], ‘주머니 속의 송곳’, ‘재봉한 곳이 없는 옷’ 이란 뜻으로 월전의 탁월함과 선구자적인 업적을 의미하는 말이다. 사색의 길은 월전미술관에 있는 예쁜 미술관 카페에서 지인들과 길고 긴 대화의 길로 이어진다.

설경이 더욱 어울리는
설봉공원의 겨울



겨울 : 스노우파크(Snow Park)

설봉이란 말 자체가 눈 덮인 설경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말이다. 금강산의 겨울을 설봉산이라 불렀던가. 새해 첫날 영월암에서 올리는 새벽 타종을 듣거나 가족과 함께 칼바위에 올라 새벽 일출을 기다리는 경험도 가슴 설레는 일이다. 정월 대보름엔 자녀들을 데리고 설봉공원으로 출동하는 기쁨도 누려볼 만하다. 이천문화원이 주관하는 대보름 민속놀이행사에서는 제기차기, 연날리기, 옷놀이, 달궁만들기, 장작가마 불 지피기, 달집태우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와 호두와 땅콩 등 부럼 깨기 체험을 할 수 있다.

나름으로 겨울을 맞이한 설봉공원에서 조각작품을 감상하는 것도 쏠쏠한 재미를 준다. 1998년 이천문화원이 처음 시작한 국제조각심포지엄은 해월리, 장암리에서 열리다가 4회부터는 줄곧 설봉공원에서 열리고 있다. 설봉공원 대공연장에서 세라피아

로 올라가는 왼쪽 길에 조각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000년도 작품이 설치되어있다. 이태리 작가 주세페 부르나의 ‘연인의 목상’, 미국작가 팀 커티스의 ‘영혼의 배’, 질주하는 남자의 속도감을 표현한 구본주의 ‘라피도 라피도’, 성동훈의 ‘뿌리’ 등은 그중에서도 백미인 작품들이다.

설봉산의 품속에서 보다 정직해진 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만나고 되돌아 볼 수 있다. 지금이라도 가족과 휴일 하루를 함께 할 수 있는 멋스런 설봉의 오솔길을 걸어 보면 어떨까.

4. 설봉공원, 천 배로 즐기소서

마전터 골목길 벽화와 설봉역

설봉공원으로 들어가기 전 관고3통 옛 지명 마전터 굴다리 앞에서 설봉산을 올려다보면 설봉산은 한 폭의 그림이 되는데 연둣빛으로 점점이 번져가는 4월의 산빛은 가슴을 설레게 한다. 그 산빛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노라면 눈도 한결 맑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눈이 맑아질 즈음 굴다리에서 설봉호수 제방 아래에 있는 작은 마을을 둘러본다. 낮은 지붕, 낮은 담벼락, 낡고 오래된 집 몇 채가 오밀조밀 모여 있다.

관고3통에 무슨 진귀한 게 있을까 싶는데 좁은 골목길을 걷다보면 세월을 훌쩍 건너뛰어 7080세대가 지나온 추억을 만날 수 있다. 팔방놀이, 나무철봉에 매달리기, 한겨울 난로 위에 올려놓던 양은 도시락, 검정 교복을 입고 버스에 올라 학교에 가던 풍경, 설봉다방 등……. 가난했으나 그림고 정겨운 풍경이 골목길을 따라 벽화로 펼쳐진다.

그 골목 끝은 설봉역 힐링스테이션역과 맞닿아 있다. 관고동은 2016년 이름 모를 풀이 무성한 터와 노후된 다리에 작은 철길을 내고 역을 설치했다. 힐링 쉼터, 책을 볼 수 있는 서재를 들여놓고 나무도 심었다. 건강계단과 ‘바라만 봐도 좋은 그대’ 같은 메시지 조형물도 설치했다. 힐링스테이션역은 밤풍경이 멋스럽고 근사하다. 밤에는 은은하고 따스하게 퍼지는 조명으로 마치 동화 속이나 영화의 한 장면을 걷고 있는 듯하다. 걷고 있노라면 행복하다.

마전터 골목길 벽화 중
관방놀이



힐링스테이션(설봉역,
출처 : <http://blog.naver.com/hying>)



설봉호수와 힐링로드

설봉산과 설봉호수의 아름다움을 완상하려면 호수 제방을 따라 걸어보아야 한다. 설봉산을 스치고 내려오는 바람, 호수에서 떨어지는 물소리에 귀를 쫓고 제방에 서서 이천9경 중 제2경인 설봉호수를 바라본다. 호수에서 폭포로 이어지는 수로 벽면의 벽화도 눈에 들어온다. 호숫가에 마을이 있는 듯 벽화는 생생하다. 호숫가를 따라 걷다보면 국내·외 유명 조각가들의 조각작품도 만날 수 있다.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에 참여한 작가들의 작품이다. 작품들은 오가는 이에게 끊임없이 말을 건네며 가만히 서서 바라보면 문득문득 영감을 주기도 한다.

호숫가를 걸을 때는 ‘힐링로드’도 꼭 걸어야 한다. 야간에 산책하는 이들을 위해 조명이 설치돼 있는 이 힐링로드는 2015년 관고동 주민들의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힐링로드에 설치돼 있는 팻말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다. “고마워”, “안아줄게”, “행운을 빌어”, “힘내”, “토닥토닥”, “잘하고 있어”, “같이 걸을까”, “응원할게”, “물들면 사랑” 등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으나 평소 잘하지 않았던 말들……. 설봉호수 둘레길에 있는 힐링 메시지를 읊조리며 나에게 그 말을 해준 사람을 생각하면 힘이 난다.



설봉호수와 힐링로드
의 힐링(healing) 팻말

장미정원

장미정원은 연인들이 데이트하기 좋은 장소다. 연인들이야 어디에 있는 설레지 않겠냐마는 장미정원에서 사랑을 고백하여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커플들도 꽤 있다. 장미정원은 설봉호숫가에 있는 ‘이천 시민의 탑’에서 도로를 건너 공원 쪽으로 계단을 올라가면 있다. 겨우내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을 감춘 장미는 5월이면 어김없이 본연의 아름다운 자태와 매력을 선보인다. 장미정원은 느릿느릿 걸으며 자세히 바라보아야 한다. 그래야 장미꽃의 신비와 향긋한 매혹에 흠뻑 취할 수 있다.

장미정원에서는 프랑스가 원산지인 디저트 피스, 일본의 오렌지색 히오기 등 여러 나라의 특색 있는 장미꽃을 감상할 수 있다. 정원 곳곳에 이천문인협회 문인들의 시詩도 감상할 수 있다. 비오는 날이든 화창한 날이든 밤이든, 어느 날이라도 좋다. 장미정원을 거닐면 누구라도 시인이 된다. 사랑을 하게 된다. 근처에 있는 야간 조명도 환상적이다. 붉은 장미와 어우러진 조명은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감수성을 깨워 줄 것이다. 장미와 시, 햇살과 바람과 호수, 그리고 그다음은 정원을 찾는 이의 몫이다.

설봉공원 내 장미정원



문학동산과 다래헌

문학동산은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를 기념해 설봉공원에 조성되었다. 이 동산에서는 바람이 불 땀 멋진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을 수 있다. 천상의 지휘자 바람씨가 지휘하고 2007개 도자풍경 연주자가 연주하는 소리나무의 음악공연이다. 물론 무료 입장이다.

문학동산을 소요하다 만나는 윤동주의 「서시」는 늘 가슴 시리게 다가온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동산을 거닐며 시를 짓고 생각을 정리하고 글을 구상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

문학동산 바로 위쪽에는 다래헌이 있다. 이곳에 들러 차 한 잔을 얻어 마시며 목을 축인다. 다래헌에서는 다도 수업을 받을 수 있다. 다래헌 마루에 앉아 소소하고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고, 어느 한가롭고 한적한 가을날 마루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면 맑고 착한 표정의 하늘이 뜻밖의 선물처럼 가슴 가득 스밀 것이다. 불을 스치는 산바람은 덤이다.

곰방대가마

문학동산과 다래헌까지 이어지는 길 옆에는 곰방대가마 조형물이 있다.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열렸을 때 이 곰방대가마는 단연 최고의 볼거리였다. 곰방대가마에 입장하기 위해 연일 관람객의 줄이 끝없이 이어졌다. 곰방대가마는 길이가 50m나 되는 거대한 가마조형물로 매병의 긴 목을 물레질 할 때 꼭 필요한 물레성형 도구인 곰방대와 전통 오름가마 형태를 형상화했다. 가마는 6봉 형태로 흙벽돌을 사용해 만들었고, 가마 내부도 흙 특유의 자연스러운 질감을 그대로 살려 제작했다.

가마 안에서는 2009년 경기도세계도자기엑스포 때 도자성형부터 번조까지 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영상으로 제작되어 있어 새로운 도자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다양하고 환상적인 전시 콘텐츠 공간에 들어서면 현실의 세계는 어디론가 사라지는 듯하다. 어느 순간 불이 활활 타오르는 가마 안에 들어가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새로운 세계로 여행을 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색다른 가마로의 여행이다.



곰방대와 전통가마를 형상화한 곰방대가마

이천세계도자센터(이천관광사진대전)



세라피아 내 전통장작가마



도자예술공원 세라피아

설봉공원의 위쪽에 자리 잡은 세라피아는 아주 특별한 도자예술공원이다. 세라피아는 세라믹 Ceramic과 유토피아 Utopia의 합성어로 ‘도자로 만든 유토피아’를 뜻한다. 그래서 세라피아 공원은 아주 오밀조밀한 세라믹 조형물로 가득하다. 예쁜 연못 ‘구미호’ 九美湖 주변으로 오르락내리락 연못을 건너는 다리가 있고 ‘구미정’이라는 정자가 있으며, 특별전시관 ‘파빌리온’, 도자아트샵 ‘도선당’ 외에도 아름다운 야외 도자조형물과 콘텐츠가 곳곳에 즐비하다. 2007년 성동훈 작가가 만든 ‘소리나무’는 세라피아의 명물이다. 바람이 불면 나무에 매달린 2,000개의 풍경 風景들이 내는 소리가 아름답기 그지없다.

세라피아 공원 안에는 둥글게 생긴 노란색 건물이 있다.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창작레지던시’ 공간이다. 어린이와 가족단위의 관광객을 위해 토라교실이 열리기도 하는 도자체험장은 공작소, 체험시설 등의 기능까지 갖추고 재능 있는 신진작가를 키우는 산실이 되고 있다. ‘아생의 딸’은 소리나무와 도선당 사이에 있는 잔디밭이다. 벚꽃 잎이 눈처럼 흩날리는 날, 소풍 나온 아이들이 비눗방울을 불고 바람개비를 날리며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이나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돛자리를 깔고 앉아 도시락을 나눠먹는 풍경도 정겹다.

‘이천세계도자센터’는 세라피아의 중심건물이다. 현대적 창조융합 예술공간으로 ‘세라믹스창조센터’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도자기만이 아니라 세라믹과 다른 장르의 공예를 융합하는 신개념 창작활동을 보여주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1층에 마련된 ‘세라믹스 창조공방’은 도자뿐 아니라 블로잉, 램프워킹 등 유리공예 작가들의 작품시연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다. 2층과 3층에서는 세계적인 도자예술을 볼 수 있는 상설전이 열리며 도자비엔날레가 열리는 해에는 이곳에서 다양한 기획·특별전시가 진행된다.

세계도자센터 뒤편으로 돌아가면 ‘전통장작가마’를 볼 수가 있다. 이곳에서는 일 년에 몇 차례 도예작가들이 도자기를 굽기 위해 장작가마에 불을 지핀다. 장작가마 뒤편에는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쌓아둔 ‘도총’ 陶塚이 있다. 가마에서 소성을 한 후 작품성이 부족한 것들을 깨버린 것인데, 실제로 옛 가마터에서 발굴된 도자기 조각들은 당시의 도자기를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



토야지움 2층에 있는 도
자전문도서관 '만권당'

만화당, 만권당, 레스토랑M이 있는 토야지움

토야지움TOYASEUM은 어떤 공간일까? 토야지움은 한국도자재단의 심볼인 토야 TOYA와 뮤지엄MUSEUM의 합성어로 전시공간이 좁아서 빛을 보지 못한 작품들을 전시하여 관람객들에게 공개하는 새로운 형태의 수장고형 미술관이다. 1,300여 점의 세계적인 현대도자 작품들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 3층에 올라가면 국제회의, 세미나, 음악회 등을 할 수 있는 멋진 예술복합공간 '만화당'과 유럽의 도자작품들도 꼭 감상해야 한다. 토야지움에 있는 화장실도 놓칠 수 없는 명소공간이다. 예술화장실이다. 가히 세라믹예술의 결정체라 말하고 싶다.

토야지움 2층에 있는 '만권당'은 국내외 도자 및 공예분야의 도서와 잡지, 시청각자료 등 도자문화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도자 전문도서관이다. 2018년 4월에 새롭게 단장을 했는데 미니 카페가 있어서 차를 마시며 답소를 나눌 수 있다. 미세먼지 '나뭇'인 날엔 책 한 권 들고 혈령한 차림으로 만권당에 들어서 폭신한 의자에 몸을 맡기고 책 속으로의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

토야지움 1층에는 '레스토랑 M'이 있다. 사계절 신선한 제철재료를 이용해 만들

어 어머니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식당이다. 세라피아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레지던시 작가들이 주로 이용하는 식당이지만 누구나 편하게 와서 멋진 레스토랑에서 아름다운 도자작품을 감상하면서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다. 한식뷔페로 다양한 메뉴가 있어 취향에 따라 골라 먹을 수 있다. 식사 값도 6,000원~8,000원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다.

월전미술관과 무궁화동산

월전미술관에서는 미술관만 보면 안 된다. 미술관 건물에 들어가서 여러 전시실을 둘러보는 것도 좋겠지만 미술관이 있는 주변 경관들도 미술관이다. 경관과 소소한 미적 공간들을 발견하는 재미를 놓친다면 재대로 월전미술관을 즐겼다고 할 수 없다. 월전의 숨어있는 공간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길을 안내하고자 한다. 먼저 미술관 위쪽으로 올라가면 매화정원이 모습을 드러낸다. 정원에는 월전의 홍상과 월전 선생이 쓴 화비書碑와 서비書碑가 있다. 그 앞에서 정성을 다해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예쁜 성취탑도 있다. 성취탑과 그 앞에 있는 소나무를 함께 사진에 담아보면 어떨까?

미술관 앞 원형광장 주변에 있는 조각작품도 수작들이다. ‘대지의 틈새’ 강신영, ‘문의 이미지-생명’ 안병철, ‘세대’ 토벌, ‘빈공간’ 김일용 등 2006년 국제조각심포지엄에 참가한 작가들의 작품이다. 미술관 옆 나무들도 풍채를 뽐낸다. 미술관 정문 앞에 세워진 월전 소나무, 월전 선생을 기념하는 언덕 위의 두 갈래 소나무, 월전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심은 수사해당화, 그리고 세라피아로 갈 수 있는 무궁화동산도 산책로로 걸어볼 만하다. 월전미술관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이천 출신의 농학자인 성천 유달영 선생이 기증한 무궁화 220주가 식재되어 있어서 8월에는 무궁화가 만개한 길을 산책할 수 있다.

커피와 음악, 정다운 대화가 있는 곳

‘미술관’ MISULGWAN : 시립월전미술관 건물 안 1층에 있는 카페다. 옛 명칭은 데이빈, 새롭게 단장하고 명칭이 변경됐다. 날씨가 좋은 날엔 야외테라스에서 월전의 그림을 감상한 뒤 월전月田 선생의 아호인 달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광장과 학의 날갯짓을 모티브로 한 상징적인 미술관 진입로인 물의 다리를 보며 차를 마시기에 좋은 장



월전미술관 주변 경관(왼쪽부터 '매화정원 가는 길', '월전 장우성 흉상', '월전 장우성 화비', '성취탑')



월전미술관 원형광장 주변 조각작품. 왼쪽부터 '대지의 틈새' (강신영 작), '빈공간' (김일용 작), '문의 이미지-생명' (안병철 작), '세대' (토벨 작)



설봉공원 커피숍
'그레이시 커피'

소다. 음악소리뿐만 아니라 산새소리, 산물소리를 들을 수 있다. 천정이 높아 탁 트이고 시원한 느낌이다. 설봉산을 등산하고 내려와 계곡에서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다.

‘세라피아 카페’ CERAPIA CAFE : 이천세라피아 세계도자센터 내 2층에 있다. 도자예술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분위기, 푸른 하늘이 비치는 산정호수 구미호의 아름다운 경관과 웅장한 자태를 뽐내는 메타세쿼이아 나무 길을 내려다보며 여유와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카페테리아 ‘소풍가는 날, 꽃다방’ : 이천세라피아 구미호 광장에 위치한다. 아름다운 야외경관과 함께 관람객의 다양한 먹거리로 즐거운 식사를 하고 커피와 차를 마시며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그레이시 커피’ GRACY COFFEE : 설봉공원 입구 주차장과 암벽등반장 근처에 있다. 설봉공원을 산책하거나 등산을 하고 내려와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다. 아담하고 아늑한 실내에 조명은 은은하다. 야외테라스 햇살 아래서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즐겁고 유쾌한 수다를 나눌 수 있는 곳이다.

충효열 및 애국지사의 행적을 기리는 충효동산



경기도 소방공무원 추모동상과 기도문

충효동산

충효동산은 월전미술관에서 길을 하나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위치해 있다. 충효동산은 이천 시민들에게 충효의 정신을 되새기게 하자는 취지에서 건립되었다. 동산의 중앙에는 장위공 서희 선생의 동상이 있고 뒤쪽으로는 고려부터 구한말까지 이천이 배출한 충신, 효자, 열녀, 애국지사 72명의 행적을 기리고 있다. 충효동산에는 현충탑을 비롯한 여러 기념비들이 모여 있다. 현충탑은 원래 안흥동 방죽에 세웠던 조형물인데 1978년 관고저수지 입구로 이전했다가 세계도자엑스포를 앞두고 이곳으로 옮기게 되었다.

여러 조형물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추모동상과 기도문이다. 2007년 호법면에 있는 식품공장 화재진압 때 산화한 고 윤재희 소방교와 경기도 순직 소방관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세운 조형물인데, 「소방관의 시」를 읽으면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제가 부름을 받을 때는/ 신이시여/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떨고 있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저의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제 아내와 가족을 지켜 주소서” 구불구불한 길가에 핀 영산홍과 진달래가 운치를 더한다.

레포츠시설들

설봉공원 인공암벽등반장

설봉산은 활짝 열려있는 어머니의 품이다. 누구라도 반가이 맞이한다. 무한히 사례 깊고 따뜻한 자연의 문이다. 이른 새벽, 아침, 환한 대낮, 캄캄한 밤에도 사방팔방이 환하게 뿜려 있다. 설봉공원에는 다양한 운동시설이 있다. 호수에서 유유히 놀고 있는 물오리를 보며 간단한 스트레칭을 할 수 있고 운동기구를 가지고 운동을 할 수도 있다. 사방이 탁 트인 공간에서 하늘과 구름을 쳐다보고 스쳐지나가는 바람의 감촉을 느끼며 즐기는 운동은 몸도 마음도 한결 가뿐하게 해준다.

첫 번째 주차장에서 설봉산으로 올라가는 방향에 어린이 놀이터와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이 있다. 어린이 놀이터에서는 여름 낮이나 밤이면 가족단위의 시민들을 만날 수 있다. 준비해온 도시락을 나눠먹고 아이들은 지칠 줄 모르고 신나게 논다. 어린이 놀이터 건너편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어르신들이 아이들처럼 시간가는 줄 모르고 게이트볼을 즐길 수 있는 장소다. 우리나라 전통 활을 쏘는 무술인 국궁을 할 수 있는 국궁장, 공을 쫓아 부단히 몸을 움직여야 하는 테니스와 배드민턴장도 있다.

‘인공암벽등반장’은 이천시등산학교에서 생활체육 스포츠클라이밍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비는 무료다. 그리고 장미정원을 지나 설봉공원 안 시립박물관을 조금 못간 지점 오른쪽에 농구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다. 건너편 화장실 앞쪽에는 추운 겨울에 눈썰매장도 운영한다. 이곳은 축제를 할 때는 축제공간이 되고 평소에는 청소년들과 운동을 즐기는 이들에게 한없이 자유로운 운동장소가 된다.

나집 히크매트는 그의 시詩「진정한 여행」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씌어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어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 / 어느 길로 가야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설봉공원의 진정한 여행도 지금부터다. 위에서 소개한 곳 말고도 설봉공원을 산책하다보면 각자만의 사연과 추억, 아픔과 고뇌, 사랑과 꿈과 새 힘을 얻는 곳이 있을 것이다. 찾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설봉공원의 어느 길, 어떤 장소든 여러분과 함께 걷는 사람, 첫눈에 반한 풍경, 머물러 정을 준 공간, 장소, 건축, 작품 등에 의미를 부여하면 그곳이 곧 꽃이 된다.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꽃길이다. 앞으로 설봉공원에서 어떤 여행을 할지, 어떤 최고의 날들을 만들지는 각자의 몫이다.



5. 설봉공원, 새로운 밀레니엄 파크를 상상하다

설봉산은 이천의 진산이다. 진산이란 이천부를 수호하는 산이란 뜻이다. 어느 지역이나 진산은 있는 법. 그렇다면 설봉산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 설봉산은 이천 사람들이 가장 즐겨 찾는 산이다. 왜 즐겨 찾을까? 도심에서 제일 가까워서? 바로 설봉공원이 있기 때문이다. 4월초가 되면 화려한 봄꽃으로 뒤덮인 설봉공원은 상춘객들로 뒤덮인다. 한여름 밤엔 더위를 피해 시민들이 설봉공원으로 몰려든다. 그리고 가을 설봉공원은 그야말로 축제의 장소가 된다. 겨울은 산의 이름처럼 겨울왕국이 된다.

설봉공원이 있는 설봉산에는 희귀변종인 흰진달래 서식지와 야생화 군락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천시립박물관과 월전미술관, 그리고 설봉서원 뒤쪽 계곡 인근에서는 반딧불이가 서식한다는 보고도 있었다. 여름 장마철에 영월암으로 올라가는 쪽 물 흐르는 계곡에 돌을 들춰보면 그 속에서 가재가 발견되기도 한다. 또 여름 새벽에 산을 오르다 보면 딱따구리가 나무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고라니도 자주 눈에 띈다. 등산객들이 화두재 고개 쪽에서 여러 번 보았다는 목격담이 있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앞 주차장에서는 새벽에 어슬렁거리는 고라니를 이따금 볼 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설봉공원을 즐기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 설봉산이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봉공원을 더 이상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설봉공원은 녹지면적보다 주차장과 도로 면적이 더 많다. 이 말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뒤덮인 공원이란 뜻이다. 수많은 방문차량으로 인한 분진, 매연, 소음 등으로 설봉산의 자연환경은 점점 훼손되고 있다. 설봉공원에서 벌어지는 수백 개의 행사들과 축제, 그리고 설봉공원에 위치한 시설들로 인해서 설봉산은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엔 등산객의 편의에 따라 새로운 등산길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새로운 시설들이 산속 깊숙이 들어서고 있다.

2000년대 초부터 매년 1월 1일 새해 해맞이 행사가 설봉산 정상에서 열렸다. 수천 명의 시민이 새벽부터 산행에 오르고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장비와 시설을 설치하느라 차량까지 동원되기도 했었다. 차와 음료수, 덕담과 정을 나누며 뜻깊은 새해를 맞이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대규모 인원이 산에 몰리는 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생태적 발자국을 최소화하는 움직임과는 정반대의 방향이기 때문이다.

설봉산은 현세대의 당장의 편익을 위하여 개발과 자원이용을 맘대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미래세대 역시 설봉산의 혜택을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설봉산은 나무와 꽃들, 곤충과 짐승들도 살아갈 권리가 있는 산이다. 인간 중심의 개발행위로 인한 일부 자본이익만을 앞세우기보다는 설봉산에서 태곳적부터 살아왔을 수많은 생명에게도 그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하고, 우리의 미래 후손들에게도 어머니의 품이 되고 삶의 휴식처가 되는 장소로 설봉산을 물려주어야 하지 않을까?

이천은 설봉공원 밀레니엄 파크 개발로 또 들쭉이고 있다. 1990년대 말부터 있었던 위락시설단지에 대한 논란이다. 연간 천만 명 관광객 유치를 위한 야심찬 계획일까? 호시 에버랜드 같이 위락시설만 가득한 파크를 옆두에 두고 있는 건 아닐까? 몇 가지 신나는 상상을 떠올려본다. 10년 후 세계적인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한 설봉공원의 모습이다.

공원으로 들어서는 길이 우선 달라졌다. 미란다호텔과 이천터미널, 이천성당으로 이어진 북개천도로가 사라지고 생태하천길이 나타난다. 설봉호수에서 시작된 종리천이 생태하천으로 돌아온 것이다. 우중충한 콘크리트 덮개를 벗어던지고 옛 모습 그대로 종리천이 시민들에게 돌아온 것이다.

공원 안엔 신기하게도 차가 보이지 않는다. 자전거와 호수 주변을 뛰거나 걷는 사람들이 오밀조밀하게 교차하면서 눈인사를 나눈다. 여기서만 탈 수 있는 공공자전거는 매우 독특한 생김새다. 어느 예술가가 디자인한 자전거라고 한다. 스마트폰과 위치정보서비스를 공유해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용자 위치에 가까운 시설과 예술작품을 찾아주고 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도 제공해준다. 공원 안엔 수많은 벤치가 놓여있다. 형태와 기능도 제각각이다. 알고 보니 세계적인 조각가들이 만든 예술벤치다. 마크 디 수베로가 만든 벤치에 한번 앉아보려고 멀리 아이슬란드에서 오는 관광객이 있을 정도다.

공원에는 자연과 예술이 어울린 세계적인 야외 조각미술관이 조성되어 있다. 이곳에서 시민전문가로 구성된 도슨트들이 관광객과 어린이들에게 작품들을 소개해주고 있다. 여전히 공원에서 벌어지는 축제는 많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축제가 사람 실어 나르기 축제가 아니



다. 시내와 공원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그럴 필요가 없다. 공원에 수천 명이 운집하는 대 공연장은 없다. 대신 시설 곳곳에서 오밀조밀한 전시와 공연, 퍼포먼스가 이어진다. 시설마다 벌어지는 공연과 전시를 보려고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린다. 공간에 들어간 관람객이 나오면 그 수만큼 입장이 가능하다.

설봉공원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가 있다. 바로 '숲속의 삼형제'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이다. 설봉공원 위쪽 숲길에 설치된 이 거대한 나무꾼 형제들은 설봉산에 전해 내려오는 삼형제바위 이야기를 형상화한 것이다. 이천시가 국제조각심포지엄의 일환으로 세계적인 환경예술가들을 주축으로 5년 동안 진행한 재활용 예술**업사이클링 아트**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폐목재와 일상생활의 폐기물들을 작품의 소재로 활용했다는 점이 새롭고 감동적이다. 이천 이야기꾼들이 이 프로젝트와 설봉산이야기를 구수하게 풀어놓는다. 3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들어갈 수가 있다.

개발 이전 생태적으로
잘 보전된 모습의 설
봉산(1995)

아, 이런 공원이 정말 가능할까? 꿈을 실현시키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먼저 설봉공원의 불투수층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지면에 비가 스며들 수 있게 해야 한다. 차를 공원 깊숙이 끌어들여 인파로 북적이는 공원이 아니라 사람이 편히 걷고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설봉공원에서 시민들이 어머니의 품 같은 아늑



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설봉산이 수백 년 동안 이천 사람들에게 아늑한 어머니의 품을 느끼게 해주었다면 이제 조성하려는 밀레니엄 파크는 치유의 장소, 생태공원으로 콘셉트를 잡아야 하지 않을까?

공예문화의 허브, 박물관과 미술관



김금향 | 건국대학교 아시아콘텐츠연구소
선임연구원

제2장 공예문화의 허브, 박물관과 미술관

유네스코 창의도시답게 이천시에는 도예촌을 비롯하여 다양한 박물관과 미술관, 테마학습장이 있으며, 그 테마 또한 역사문화를 시작으로 도자기 · 문화예술 · 종교 · 만화 등 다채롭다. 특히 이천을 대표하는 시립박물관과 시립미술관, 이천세라피아가 설봉공원에 모여 있어 설봉공원에 가면 이천의 역사와 문화를 만날 수 있다. 또 전시뿐만 아니라 체험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이천에 위치한 박물관과 미술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관람예절을 알 필요가 있다. 최근 문화에 대한 가치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발길을 옮기는 사람이 많아졌지만, 관람방식에 대한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화를 즐기는 데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절과 재미있는 관람 방법에 대하여 이천시립박물관의 학예사가 알려주는 관람 팁을 먼저 알아보자. 좀 더 즐거운 박물관 관람을 위해서는 관람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기본적인 내용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다. 이후 박물관의 유물을 관람한다면 조금 더 유익한 관람을 할 수 있으며, 박물관의 동선에 따라 관람을 하고 전시장의 체험존과 퀴즈존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보다 재미있게 관람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람 시에 지켜야 하는 예절로, 전시실 안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면 안 되며,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하고 만일 통화를 해야 할 경우에는 전시실이 아닌 공간으로 이동하여 조용히 해야 한다. 박물관 전시장 유리에 기대거나 손으로 만지면 안 되며, 박물관에서 이동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지 않도록 앞사람의 뒤로 이동해야 한다. 특히 박물관에서의 사진촬영은 박물관 측에 허용여부를 확인한 후 가급적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고 조용히 촬영해야 한다. 간혹 삼각대를 설치하고 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이동에 방해로 주는 행위이므로 사용을 금해야 한다. 자, 이제 관람예절을 숙지했으면 이제 이천의 박물관 여행을 떠나 보도록 하자.



설봉산에 둘러싸인 이
천세라피아 전경

1. 도자의 상상이 펼쳐지는 이천세라피아cerapia

이천세라피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자테마파크로, 설봉공원이 감싸 안은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제도자협회의 공인을 획득한 ‘세계도자기엑스포2001경기도’의 엑스포장으로서 설봉공원은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2001년 엑스포 개최를 위한 장소 확보 및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였는데, 당시 청소년 범죄지역의 개선을 위하여 미개발지역이었던 설봉공원 내 통일교 소유 부지를 매입하여 엑스포장으로 사용하였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테마파크 구성에 따른 관람객 유치와 명소화에 힘을 기울였다. 이곳에는 이천세계도자센터를 비롯하여 수장고형 미술관 토야지움, 도자 체험 토라교실, 도자아트숍 도선당, 산정호수 구미호, 도자풍경 소리나무, 사색의 길 등 보고 배우고 생각할 수 있는 30개 이상의 재미있는 콘텐츠가 가득하다.

세라피아cerapia는 세라믹ceramic과 유토피아utopia의 합성어로 판매가 어려운 불량



이천세계도자센터

엑스포2001의 벤치로 사용된 작품
'I ♥ U'오름가마와 공방대를 집목한
곰방대가마

도자를 활용하여 야외환경을 조성한 도자테마파크다. 호수 구미호와 반달무대를 중심으로 호수 외부경관, 화장실, 벤치, 놀이터, 조형물 등이 모두 도자로 만들어져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어 가족뿐 아니라 연인들의 주말 방문이 많다. 특히 세라피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도자재단은 2017년 11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 대중과 함께 하는 ‘행복한 동물원’ 전을 열고 있다. 이 전시는 강아지·돼지·고양이·말·펭귄 등 친숙한 동물을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을 통해 생명의 존엄성과 공존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기획되었다. 또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자체험 프로그램 ‘토락土樂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흙을 빚고 850도로 구워낸 그릇에 그림을 그리거나, 물레로 도자기를 만드는 체험을 통해 참가자의 창의력과 상상력,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감성교육 ‘찾아가는 도자’ 사업을 무상으로 진행하여 약 2만 5,000명이 참가하였다.

세라피아의 중심인 세계도자센터는 2,000여 점의 세계적인 현대도자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데, 우수한 현대도자 작품전시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획전과 특별전을 기획하고 있다. 1층에는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라믹스창조공방과 레지던시홀이 자리하고 있다. 그중 세라믹스창조공방은 도자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분야가 공존하는 창조공간으로서 재능 있는 신진작가를 발굴·육성하고, ‘공예문화 콘텐츠의 중심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곳에는 도예작가뿐 아니라 유리공예와 같은 타 장르의 작가들도 활동하고 있으며, 작가의 작업공간을 보면서 작가와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자재단의 마스코트인 토야Toya와 박물관Museum의 합성어인 토야지움Toyaseum은 작품을 보관하는 수장고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국도자재단의 소장품을 조명하는 전시를 통해 현대도자의 경향과 도자예술의 다양성을 대중에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조선 후기 양식으로 제작된 전통장작가마에서는 도예가들이 가마를 이용하여 직접 불때기 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

이천세계도자센터를 오르는 통로에 위치한 조형물 곰방대가마는 전통가마인 오름가마와 도자제작도구인 곰방대 형태를 접목하여 제작되었다. 곰방대가마 내부

는 시청각 자료의 전시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가마는 전부 6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봉의 지하에 타임캡슐을 매설하였다. 일반적인 타임캡슐과 구분되도록 흙으로 만든 타임캡슐의 본체는 80cm 두께의 생석회조합 흙을 몰드진공다짐 방법으로 시공되었다. 타임캡슐의 내부에는 엑스포의 마스코트인 ‘토야’와 한국의 도자기가마 100선 요장도자기 굽는 곳에서 기증받은 도자기 100점, 그리고 도자기 재료 10종이천청자토 · 이천백자토 · 밀양백토 · 산청토 · 무안점토 · 서산물토 · 하동고령토 · 규석 · 석회석 · 장석, 도자문화선언문, 엑스포 관련 자료 등을 매설하였다. 이곳의 상부에는 유리를 이용한 표석의 설치 및 조명처리로 타임캡슐이 매설되어 있음을 관람객에게 알려 호기심을 유발시킨다.¹⁾ 이 타임캡슐은 2001년 10월 28일에 매설되었으며, 3001년 8월 10일 개봉될 예정이다.

이천세라피아에는 도자 관련시설과 조형물뿐만 아니라 야외에도 다양한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다. 세라피아의 중심부에 있는 아름다운 산정호수인 구미호는 SBS TV 예능프로그램 「런닝맨」과 「작」을 촬영한 장소로 유명하며, 관람객의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학생들과 단체가 놀이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넓은 잔디밭 야생의 뜰, 창조센터 벽을 따라 조성된 수많은 유리풍경과 아름다운 벽화들 속에서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사색의 길이 있다. 그리고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도 완비되어 있는데, 생활소품부터 액세서리 · 식기 · 장식용 도자기 등 다양한 도자 및 공예상품을 전시 · 판매하는 도선당 아트숍이 그것이다. 그밖에도 이천도자센터 2층에는 커피와 베이커리를 판매하는 카페가 있어 설봉공원의 경치를 감상하려는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진다.

겨울에 비해 전시회 개최가 많은 봄과 가을에 이곳을 찾으면 자연친화적인 설봉공원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문화적인 향유를 즐길 수 있다.

1)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세계도자기엑스포2001 경기도 백서』, 2002, 71쪽.

2. 이천의 역사가 살아있는 이천시립박물관



창경궁 외관을 본뜬
‘ㄱ’자 구조의 이천시
립박물관 전경

설봉산 자락에 위치한 이천시립박물관은 이천의 역사와 도자문화를 알 수 있는 수많은 유물자료를 보관하고 전시를 통해 이천의 정체성과 창조성을 시민에게 홍보하는 교육의 장이다. 1,000년 도자문화의 역사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2년 5월에 건립되었다. 부지 6,732㎡에 역사문화실·도자문화실·기획전시실·수장고 등이 조성되었으며, 박물관의 외형은 창경궁의 외관을 본떠 ‘ㄱ’자 형식으로 지어 한국적인 미와 고풍스런 경관을 보여준다. 무료로 개방되는 시립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은 평일은 유치원·초·중·고 단체가 많고, 주말은 가족단위나 설봉공원으로 등산 온 단체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1년에 4만 명 정도가 찾는다.

이천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역사문화실은 ‘이천’의 지명유래를 시작으로 고지도를 통해 이천의 변천과 고대 이천인들의 생활, 조선시대부터 한말에 이르는 충효열 인물과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상 등 이천의 변천사를 전시하고 있다. 특히 사적



이천시립박물관 입구



2017 기획전 혼례 '연지끈자' 전
(이천시립박물관 제공)



'문화의 날' 저녁 행사(이천시립박물관 제공)

제423호인 설봉산성에서 출토된 한성백제기 토기 및 기와, 보물 제982호로 지정된 ‘태평흥국명마애여래좌상’의 탁본 등 귀중한 유물은 물론, 이천의 인물인 고려시대 서희의 외교 답판과 안흥사지 출토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천년 이천 도자문화의 역사를 담은 명품도자기를 전시하고 있는 도자문화실에는 선사시대의 토기부터 청자·분청사기·백자가 전시되어 있으며, 도자문화의 메카로서 도자기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명장의 작품과 도자기 번조^{燻造}과정을 볼 수 있다. 또한 이천시 도자클러스터산업과 첨단 세라믹산업이 융합된 미래비전을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기획전시실에서는 1년에 2~3회 정도 다양한 주제로 기획전시를 개최하고 있는데, 2017년 10월부터 박물관의 소장품 기획전인 ‘도자일전^{陶器一轉}’을 개최하여 청자·백자·분청사기 등 30여 점을 선보이고 있다.

이천시립박물관은 해외 문화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 일본의 세토시^[瀬戸市]와 함께 ‘세토 도자전’이라는 특별전시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전시는 세토시와의 자매결연 10주년과 제30회 이천도자기축제를 기념해서 열렸는데, 일본의 6대 도요지 중 한 곳이면서 일본 도자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세토시의 명품도자 전시를 통해 일본의 기예와 예술적 아름다움을 한국에 소개하는 등 한일 간 도자문화 교류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밖에 이천시립박물관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먼저, 탐방프로그램인 ‘이천의 뿌리를 찾아’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재연 장군 생가’를 탐방^{2016~2017}하는 등 이천의 문화유적지를 찾아다녔다. 교과서 속 문화재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이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의 날’에는 다양한 공연·체험·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천 시민을 비롯하여 박물관을 방문한 모든 사람의 참가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이천시립박물관은 이천 시민에게 친숙하고 열린 박물관의 이미지를 구축함과 동시에 지역 중심 문화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면서, 이천의 문화예술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월전 장우성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전경



월전미술관 기획 전시 '먹의 멋과 맛'
(2018)

3. 현대 한국화의 멋과 맛, 이천시립월전미술관

한지에 먹과 붓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전통 한국화의 대가, 한국의 마지막 문인화가 월전 장우성(張遇聖)은 이천시 설봉공원에 고즈넉이 자리 잡고 이곳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화의 아름다움과 귀중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 한문을 수학하였던 월전 선생의 작품에는 시와 글이 함께 담겨 있어 그림에 대한 월전의 열정과 깊은 사고력을 느낄 수 있다. 많은 후학을 배출하면서 그림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탄생시킨 수많은 작품들은 이천시립월전미술관에 보관되어 관람객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처음 월전미술관이 건립된 것은 1991년 서울시 종로구 팔판동이었으나, 이천시립미술관으로 전환한다는 월전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2007년 8월 이천으로 이전하여 새롭게 개관하였다. 미술관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에 5개의 전시실과 강좌실·뮤지엄샵·카페테리아가 있으며, 별도로 월전 선생의 생전 작업실을 재현한 기념관 월전관이 옆에 자리하고 있다. 건물은 설봉공원의 자연적인 입지를 고려하여 양의 건물과 음의 외부 자연공간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하였다. 미술관의 진입로인 우드데크는 학이 비상하는 날갯짓을 모티브로 삼아 한국화의 새로운 형식과 방향을 모색하려는 월전 선생의 기품을 표현하였다. 가운데의 원형인 월전광장은 달을 좋아했던 월전 선생의 예술세계를 의미하며, 원형의 광장을 통해 수면에 비친 달의 이미지가 떠오르도록 공간을 조성하였다.

현재 미술관은 월전 선생의 유작과 월전미술관의 소장품 1,532점을 보관하고 상설전시를 통해 누구든지 월전 선생의 예술세계와 만날 수 있도록 하였다. 고미술 소장품 전시를 통해서 유물의 소중함과 가치를 인식하는 문화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월전 작품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는 학술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이천시립월전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으로 열린 ‘먹의 멋과 맛 : 현대수묵화 다시보기’라는 기획전에서는 월전 선생을 포함하여 한국화를 대표하는 작가 23명의 40점 작품이 소개되었다. 다채롭고 화려한 색채가 두드러진 작품들 속에서 채색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한 수묵화는 언뜻 보면 단순한 흑

백작품으로만 보인다. 그러나 수묵화에도 다섯 가지의 먹색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이 기획전에서는 하얀 바탕에 검은 먹만으로도 얼마든지 시각적 아름다움과 생동감, 그리고 감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번에 참가한 작가들은 한국화의 원로·중진작가들로 전통적인 먹의 특징을 살리면서 각자의 개성과 시대성을 입혀 수묵화를 재해석하여, 때로는 생동감을 때로는 고요함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사색하게 만든다.

4. 끊임없는 용기와 도전의 장, 서희테마파크

한민족 역사상 최고의 외교협상가로 평가되는 서희(徐熙)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서희테마파크는 부발읍 효양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서희 선생의 호는 복천(福川)인데 이천의 젓줄인 복하천에서 따다가 지은 이름으로 여겨진다. 성종 때 거란의 소손녕이 80만 대군을 앞세우고 고려를 침공했을 당시 뛰어난 협상력을 발휘하여 고려를 전쟁의 위기에서 구하고 압록강변까지 영토를 확장시킨 최고의 외교가로 2009년 외교통상부의 ‘우리 외교를 빛낸 인물 1호’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서희 선생의 외교적 리더십과 역사체험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2016년 6월 서희테마파크로 개관하였다. 이곳은 서희 선생의 일대기를 따라 4단계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다. 국내 유명조각가들이 ‘인연의 시작’, ‘서희의 성장’, ‘여요전쟁’, ‘영웅의 활약’ 등으로 나누어 표현한 30종 74개의 조각품이 서희역사산책로에 설치·조성되어 있다. 입구부터 세워져 있는 동상들을 따라 걷는 것만으로도 서희 선생의 일대기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고 이색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는데 충분하다.

테마파크 내에 위치한 서희역사관은 크게 전시관·영상관·추모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관은 서희 선생의 업적과 활약을 자세히 알 수 있으며, 곳곳에 재미있는 퀴즈 코너가 설치되어 있어 이야기의 흥미를 더해 준다. 특히 ‘외교관 임명 전자방명록’은 외교관이 된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메일로 보내면 전자방명록



서희테마파크



서희테마파크 서희역사관 상량식(2015)

서희 선생 영정

에 기재가 되고, 임명장도 받을 수 있는 체험코너로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데, 어른들도 적지 않은 것을 보면 누구에게나 인기가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영상관에서는 서희 선생의 탄생부터 충신으로 성장한 과정과 서희 담판의 위대한 업적을 애니메이션으로 볼 수 있고, 서희 선생의 영정을 모신 추모관도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하다.

효도와 관련된 전설을 품고 있는 효양산에 위치한 서희테마파크에서는 이천의 대표 축제인 ‘서희문화제’도 개최된다. 2005년 ‘효양산전설문화축제’로 시작되었으며, 2017년부터 현재의 이름으로 바꾸어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이색적인 문화예술 체험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 기간에 추모관에서는 제1019주기 서희추모제가 열렸는데 복하천에서 서희테마파크까지 이어진 이섭대천² 퍼포먼스 행렬과 효양산의 금송아지 전설을 계승한 ‘효양산의 금송아지를 찾아라’ 행사 등을 진행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하였다.

그밖에 서희테마파크는 서희를 테마로 콘텐츠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캐릭터 ‘서희’를 개발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이모티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야외축제마당은 시민들에게는 무료 결혼식장으로, 유치원·어린이집의 경우 체육행사장으로 사용되며, 외교관 후보관의 교육 및 외교관의 재교육을 위한 학습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서희테마파크는 ‘서희’가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닌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인물로 구체화시키고 있으며, 항상 이천 시민에게 열려있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2)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이 후백제를 정벌하기 위해 출정에 올랐다가 장마로 물이 불어난 남천(복하천, 福河川)을 건너지 못해 곤경에 빠졌을 때 점을 쳤는데, ‘이섭대천(利涉大川, 큰 강을 건너 이로움을 얻는다)’의 점괘가 나왔다. 이에 왕건과 그의 군사들은 이천 사람 ‘서목’의 도움으로 무사히 복하천을 건넜고,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다. 훗날 왕건은 남천을 건널 당시 도움에 대한 보답으로 고을 이름을 ‘이섭대천’의 첫 글자와 끝 글자를 따 ‘이천(利川)’이라는 이름을 하사했다고 한다.

5. 종교를 뛰어넘은 역사사료의 보고,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종교에 대한 관심은 종교인들만이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종교가 그 나라 또는 지역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면 조금 달라질 것이다. 특히 한국기독교는 한국근대사와 근대여성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은 말할 필요가 없는데, 종교를 초월한 한국기독교 역사사료의 보고가 대월면 초지리에 있다. 바로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이다.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은 1995년 한국기독교 문화창달이라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독교문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초교파적 문서선교기관으로 설립된 기독교문사는 1985년 한국기독교 선교100주년기념사업으로 편찬한 『기독교대백과사전』^{전16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독교 양서를 출판해 왔다. 그 과정에서 한국교회의 신앙·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전경



축소 복원된 평양
장대현교회 예배당
(체험학습장)



역사·문화와 관련한 10만여 점의 자료를 수집하게 되었고, 기독교문사의 설립자인 향산 한영제 장로가 이 자료들이 학계와 교계의 연구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1995년 향산기독교역사자료실을 개관하였다. 이후 1997년 향산기독교문화연구원으로 체계화시켰으며, 2001년 11월 11일에는 일반인들을 위해 무료 사립박물관으로 개관하였다.

박물관은 3개의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1전시장은 상설전시로 19세기부터 6·25전쟁 이후의 기독교 역사물을 전시하고 있고, 라틴어 양피지 성경^{본문}, 평양장대현교회 길선주 목사의 친필 병풍, 한글로 번역된 이수정 역의 마태전, 언더우드 의 타자기 등이 전시되어 있다. 2007년 평양대부흥운동 100주년을 맞아 축소 복원된 ‘평양장대현교회’는 제2전시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매년 1~2회 기획전시가 개최되고 있다. 이 교회는 남자와 여자의 출입문과 자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특성을 그대로 살려 복원하였으며, 관람객들에게 초대교회의 신앙회복과 문화를 체험하는 학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제3전시장은 현대자료전시장으로,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루터종교개혁 500주년기념 ‘구한말 이후 기독교학교 사진전’을 열었다. 초기 한글번역 성서 등 실물자료 60여 점과 초기 기독교회사 사진자료 120여 점을 전시하였는데, 특히 이 전시는 이천시의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사업으로 개최되었다.

그밖에 교육사업으로 도예 현장과 접목시킨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체험을 하고 싶다는 관람객의 신청이 있으면 도자기에 성경말씀을 새기는 ‘도판에 새긴 신앙글과 그림’이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6. 과거와 현재, 미래의 동요를 만날 수 있는 한국동요박물관

동요란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에 의해 불리는 어린이의 노래를 말하며, 그 속에는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다. 얼핏 주인공이 어린이기 때문에 어른들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동요는 어른들에게 옛 추억을

한국동요박물관 내부
전경(한국동요박물관
제공)



소생시키는 마력이 있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동요를 즐기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에 개관한 한국동요박물관은 대한민국 최초의 동요박물관으로 동요를 테마로 한 독자적 박물관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기에 충분한 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한국동요박물관은 한국동요문화협회 윤석구 회장과 조병돈 이천시장이 협력함으로써 동요계의 오랜 꿈과 숙원이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동요박물관은 이천시가 재정을 지원하고, 전시는 한국동요문화협회가 담당하여 2014년 4월 21일 서희청소년문화센터 1층에 개관하였다. 한편, 이 박물관 개관은 한국동요문화협회가 창작동요 90주년기념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박물관을 개관하는데 동요작곡가이면서 기업가인 김방옥을 비롯하여 동요작곡가 김애경·손정우·조원경과 한국동요음악협회 오세균 회장, 조병돈 이천시장, 한국동요문화협회 윤석구 회장 등이 중심이 되었다.

동요박물관은 역사적 사료 가치가 높지만 개인소장으로 자칫 유실되기 쉬운 동요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 보관 및 전시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면서 후세에 전하는 것에 설립의의가 있다. 현재 전시되어 있는 자료는 일본어로 된 초기 동요집인 『조선동요선』¹⁹³⁷을 비롯한 고서적과 각종 악보집, 음악회와 동요대회 팸플릿, 시대별 음악교과서와 친필 악보, 음반CD·카세트테이프·LP판 및 풍금, 악기, 80년 된 축음기 등 500여 점이 넘는다. 이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9가지 테마로 나누어 전시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 동요가 걸어온 역사를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 시



한국동요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동요책

대별로 소개하면서, 그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들의 사진과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둘째, 동요에 담긴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 각 동요마다 만들어진 사연을 소개한 공간에서는 동요의 숨겨진 이야기를 가슴으로 느낄 수가 있다. 셋째, 우리 귀에도 익숙한 영국·멕시코·프랑스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동요를 소개한 공간이 있으며, 넷째, 오래전부터 구전되어 온 전래동요를 모아놓은 공간은 특히 어른들에게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놀이동요들로 전시되어 있다. 다섯째, 사계절의 아름다움과 특성을 노랫말로 만든 동요들의 소개와 여섯째,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음악교과서를 소개한 공간은 교과서의 변화를 보면서 어른들이 초등학교 시절을 떠올릴 수 있는 추억의 공간이다. 일곱째, 1950년대부터 동요가 실린 LP판을 전시하고 있으며, 여덟째, 동요음악회와 콩쿠르의 팸플릿 및 상패·작곡집·음반 등의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옛 교실에서 선생님이 사용하던 풍금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의 타악기·관악기·현악기 등 30여 점을 전시하는 등 동요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와 악기를 시대와 상관없이 총망라하여 보관하고 있다.

박물관은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발성법과 표현력 등 노래를 배우는 동요부르기를 비롯하여 피폐를 이용한 피폐동요, 플루트를 이용한 플루트동요, 동요에 맞추어 율동을 배우는 율동동요, 동요에 맞추어 난타 연주를 배우는 리듬난타, 동요를 이용한 치어리딩 등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동요프

로그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향후 한국동요박물관은 어린이문화의 거점이 되기 위해 현재 보유한 자료를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어린이는 물론 국민정서 함양에 일익을 담당하며, 한국동요의 메카로서 동요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이천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되도록 전국 동요 관계자들의 소통과 모임, 발표의 장소로 활용함은 물론이고, 크고 작은 동요 세미나와 음악회 등을 개최하며,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다양한 동요강좌를 개발 및 운영할 계획이다.

7. 사람 · 문화 · 예술이 함께 숨 쉬는 샘표스페이스

이천에 있는 문화공간 중에서 기업이 운영하는 독특한 곳이 있다. 그곳은 (주)샘표식품이 운영하는 샘표스페이스Sempio Space, 호법면 매곡리라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샘표스페이스는 2004년부터 사내 임직원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 미술작품 전시를 비롯하여 퍼포먼스 · 이벤트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갤러리는 본사 또는 서울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샘표의 경우에는 이천공장 내에 조성되어 있다. 그 이유는 구성원인 직원들의 행복추구에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문화생활이 쉽지 않으므로 1년에 8~10회 정도 회화 · 조각 등의 전시를 통해 직원들의 행복을 추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문화교육 측면에서 창의적인 작가의 작품을 통해 변화되는 사회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시야의 확대를 가져오는 등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 갤러리의 위치 또한 누구나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직원식당 옆에 자리 잡고 있으며, 전시 오프닝도 점심시간에 맞춰서 개최하여 작가의 설명과 함께 진행한다. 샘표스페이스에서는 그동안 200명 이상의 젊고 다양한 작가의 작품들을 전시해 왔는데 객원 큐레이터를 여러 명 확보하여 사회적 메시지나 이슈 등에 맞춰서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서울 창동에 있던 공장을 2002년 물이 좋은 이천으로 이전시키면서 갤러리의 조



샘표 이천공장에 남겨진 초등학교 학생의 낙서 벽화



샘표스페이스 전시실
(샘표스페이스 제공)

성도 함께 진행되었다. 특히 친환경을 고려한 ‘아트팩토리’ 또는 ‘그린팩토리’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지역주민을 배려한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1년 샘표 65주년 기념사업으로 이천공장 외벽 벽화 프로젝트를 운영하였는데, 지금까지 전시회 중에 최다 관객을 동원한 프로젝트라고 한다. 지금도 이천공장의 큰 건물에는 주변 초등학교 학생들이 낙서한 그림이 그대로 벽화로 남아있어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한편, 이천공장은 사전 예약을 한 일반인 40여 명을 대상으로 공장견학을 실시하고 있다. 간장을 비롯한 제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견학과 더불어 예술작품의

관람도 할 수 있다. 관람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인데, 일반인의 관람은 사전문의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전화문의의를 하는 것이 헛걸음하지 않는 비결이다.

8. 만화와 만난 청강만화역사박물관

어렸을 때 읽었던 만화를 기억 속 어딘가에 간직한 채 우리들은 어른이 된다. 성인이 된 지금, 가끔 옛날 만화와 애니메이션 · 그림들을 보게 되면, 깊숙이 숨어있던 기억이 숨을 쉬며 우리들을 추억이라는 따뜻한 방으로 안내 한다.

이러한 따뜻함을 선사하는 곳이 청강만화역사박물관이다. 이 박물관은 1996년 청강문화산업대학교가 개교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수집해 온 희귀만화를 바탕으로 2002년 12월 10일에 개관하였다.

청강만화역사박물관은 1909년 『대한민보』 신문 삽화, 1920년대 『조선일보』 안석주 삽화 등 일제강점기 이후 한국 최초의 만화 사료 2,688점을 소장하고 있다. 박물관 내부는 상설전시실 · 기획전시실 · 학예연구실 · 열람실 · 수장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입구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만화를 읽을 수 있도록 청강만화방이 마련되어 있다.

그동안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만화의 역사를 개별 작가나 작품중심으로 전시를 기획하고 있으며 한국만화를 시사만화 · 명랑만화 · 스포츠만화 · 순정만화 등으로 나누어 전시하고 있다. 또한 대표작가 32명을 선정하여 작가들의 원화와 당시에 출간되었던 대표 단행본을 상설전시실에 전시하고 있으며, 이외의 작품들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다. 이밖에도 소장품의 훼손을 막기 위해 박물관에 소장 중인 유물들을 디지털에 맞게 편집 · 복원하여 복간하고, 디지털 아카이빙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현재 책으로 만나볼 수 있는 복간 단행본으로는 「오손이 도손이」, 「울 밑에 선 봉선이」, 「말광량이 합창단」, 「박김이 삼국지」, 「괴상한 지남철」, 「명견 루비」, 「콩생원」 등이 있다.



청강만화역사박물관
상설전시관

상설전시 코너에는 만화 출판물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발간된 다양한 형식의 만화와 관련된 기계기구, 작화 도구, 설정자료집도 전시하고 있다. 그리고 만화와 캐릭터, 만화와 움직임을 한 칸씩 혹은 연속된 칸으로 보여주는 동세, 만화의 원리와 구성요소를 알기 쉽도록 전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100여 년 된 우리 만화의 발전과정과 최근 작품들도 함께 전시가 되어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만화의 작품을 세세히 살펴볼 수 있다.

박물관은 대학교내에 건립되어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평일에만 오픈하고 있다. 박물관에서의 사진촬영은 담당자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다.

9. 한국 도자기의 중심, 해강도자미술관

청강만화방

해강도자미술관은 신둔면 수광리에 위치한 도자 전문 미술관으로 1990년에 개관하였다. 고려청자 재현에 한평생을 바친 고故 해강海剛 유근형柳根溎과 2대二代 해강 유광열柳光烈 부자에 의해 설립되었다. 1대 해강 유근형 선생은 청자 대가로 100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단절된 고려청자 재현에 평생을 바치는 한편 해외 전시회와 박람회를 통해 한국의 도자를 세계에 널리 알렸다. 그러한 노력에 힘입어 해강의 청자는 1992년 한국을 방문한 다이애나 영국 왕세자비에게 선물로 전달되기도 하였다.

해강도자미술관은 보물 제1573호 ‘청자양각연판문점시고려시대 제작’를 비롯한 도자 유물과 해강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자박물관이다.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도자유적을 조사하고, 도자관련 유물수집과 전시·보존에 힘쓰는 한편, 다양한 학술활동과 자료제공, 도예교실을 통한 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등 한국의 도자문화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국내 최초의 도자기 전문미술관으로서 한국 전통미술의 정수인 청자·분청사기·백자 등 도자공예품을 상설 전시하고 있으며, 전시실 규모는 약 300평 규모이



해강도자미술관 전경



이천도자기축제 도자명장
특별전(2012, 해강도자미
술관)

다. 1층에는 도자문화실, 기념품 판매실, 해강기념실이 있다. 도자문화실은 도자기의 개념을 비롯하여 한국 도자기의 발달사와 도자기 제작과정 및 방법에 관한 그림과 사진이 전시되어 있으며, 해강기념실에는 현대 전승도자 분야의 초석인 고 해강 유근형 선생의 유작이 전시되어 있다. 그리고 2층의 유물전시실에는 고려시대 청자·백자·흑자, 조선시대의 분청사기·백자 등이 전시되어 있다. 작품 전시 외에도 도예를 기초부터 배울 수 있는 전통도자 체험 프로그램이 있으며, 해강의 청자작품과 생활자기, 소품류까지 구입 할 수 있는 온라인 명품관과 작품 판매실이 있다. 한편, 동서양 건축의 틀을 조화시킨 미술관 본관 건물은 관람객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소장품은 청자 405점, 백자 426점, 흑자 9점, 분청사기 89점 등 수천 점에 달하는데, 이 중 대표적인 유물을 엄선하여 상설 전시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소장유물과 해강 작품을 전산화하였으며, 인터넷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유물과 작품의 설명 및 사진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해강도자미술관의 도자유물은 한동안 일반 관람이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그 이유는 2대 해강 유광열선생이 2008년 5월에 미술관 소유권을 국제대학에 넘기고 박물관 관장을 맡으면서 도자박물관을 운영했으나, 국제대학이 운영난을 이유로 2009년 6월부터 미술관 휴관을 결정하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2017년 12월 현재까지 해강도자미술관은 개관과 휴관을 반복하고 있는데, 현재는 휴관 상태이다. 비록 내부의 세세한 사정이야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강도자미술관이 단순한 도자전시관을 넘어 강진 청자도요지, 광주 백자가마터 등 도요지 발굴과 학술조사를 추진하면서 한국 전통도자의 맥을 이어왔다는 점이다. 또한 외국 국민들의 단골 방문지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아 우리나라 도자문화의 수준을 알리기에 손색이 없는 곳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천시청 관계자를 비롯한 도자 관계자와 시민들의 관심이 특히 필요해 보이며, 후세에게 물려주어야 할 도자문화의 가치가 살아있는 해강도자미술관의 유리문이 다시 열릴길 기대해 본다.

03

임금님도 맛있다고
칭찬한 이천쌀





채기순 | 자유기고가 · 이천문화원 편집위원

제3장 임금님도 맛있다고 칭찬한 이천쌀

1. 이천의 쌀과 자채쌀

이천 토박이인 필자는 부모님이 쌀농사를 비롯한 농업에 종사하였기에 모판에 흙을 담거나 벼씨를 뿌리고 모내기를 하는 등, 봄부터 추수하는 가을까지 집안 식구들과 함께 농사를 도왔다. 일할 사람 구하기 힘든 여느 농촌이 그렇듯, 봄날 이천의 논과 밭에서는 대채에 나간 자식들까지 모여 못자리도 하고 적당히 키운 어린 모로 모내기를 한다. 요즘에는 몇몇 이천의 지역농협에서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육묘장을 만들어 모를 길러내기 때문에 못자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큰 고무통에 벼씨를 소독하는 것으로 1년 벼농사를 시작한다. 쌀을 도정하여 나온 껍질인 왕겨는 연료가 되거나 퇴비로 쓰인다. 쌀겨는 미강이라고 해서 사료나 비누를 만드는 용도로 쓰인다.

어릴 때 살던 동네에 정미소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방아를 찧는 날에 경운기에 벼가마니를 실어 정미소로 가셨다가 쌀가마와 다른 종류의 가마도 가져 오셨다. 나락을 까고 나온 껍질 왕겨는 소죽을 끓이는 큰 가마솥 자리로 갖다 놓으셨고, 우리는 무쇠풍구로 바람을 일으키며 왕겨를 던져 소죽을 끓이며 구들에 불을 덥혔다. 축축하고 보드랍던 노란 가루 쌀겨는 잘게 썬 짬과 콩 껍질을 섞어 소죽을 끓였고, 어느 집에서는 천연 갯물을 받아 쌀겨를 섞어 까만 빨래비누를 만들기도 했다.

어느 농산물이 그렇듯 최고의 품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작물이 자라는데 적합한 기후와, 온도, 습도, 토질 등 자연환경이 중요하다. 특히 벼의 생육은 날씨와 토양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는 토양의 구조는 물론 기온·일사량·강우량 등도 중요하지만, 담수되어 있는 논에서 오랫동안 자라야 하는 벼는 특

성상 수온과 지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천의 지형이 내륙 중앙에 위치한 분지형이고, 계절차가 뚜렷하며, 밤낮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결실도 품질도 좋다. 또 벼가 자라기 좋은 토양은 수분 및 영양분의 흡수와 통기성이 중요하기에 점토와 모래가 적절해야 하는데 이천의 토양은 점토 함량이 높고 마사토로 이루어져 생육 후기까지 영양분 공급과 물 조절이 잘되는 천혜의 환경이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인에게 밥은 먹는 밥, 끼니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건네는 인사로 ‘밥 먹었어?’, ‘점심은?’ 이라 하고, 오랜만에 만났거나 헤어질 때, 어찌먼 꼭 지켜지지 않을 약속인 줄 알면서도 ‘언제 밥 한번 먹자.’ ‘시간 좀 내. 밥 한끼 하자’ 라는 약속을 한다. 또, 측은지심일 수도 있는 지청구 지청구의 말로 ‘밥은 먹고 다니냐?’, ‘밥값 좀 해라’ 는 말을 하기도 한다. 밥에 관련된 속담과 옛말은 또 얼마나 많은가. 넉넉해야 남도 도울 수 있다는 뜻의 ‘쌀독에서 인심난다’ 도 있고, 완성된 일을 어이없이 망쳐놓을 때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라는 속담도 있으며, 게으른데다가 어리석은 사람을 보고 ‘밥 벌어다가 죽 쑤어 먹는다’ 고 한다. 이렇게 우리 한국인은 밥을 같이 먹어야 친해지는 관계가 되고, 한술밥이라는 표현으로 연대감·공감대, 또는 친밀도의 척도나 일체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말을 대명사라고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이천을 표현할 수 있는 말에는 무엇이 있을까? 도자기, 복숭아, 온천, 설봉산, 복하천…… 등이 떠오르기도 한다. 그렇지만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고장 이천의 제일 앞에는 밥, 쌀이 빠질 수 없다. 이천은 쌀의 고장, 쌀을 상징하는 고장이다. 쌀의 산출량이 가장 많아서가 아니라 고품질, 밥맛이 좋기로 유명한,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어서 더 귀하고 자랑스럽다.

이천쌀이 어떤 연유로 이천의 대명사이자 대한민국 최고 쌀의 대명사가 되었는지는 조선시대 문헌에서 그 일단을 살필 수 있다. 조선시대의 문신 강희맹 姜希孟이 지은 농서 『금양잡록』 1491과 실학자 홍만선이 엮은 『산림경제』 17세기 후반, 문신 서명응의 『고사신서』 18세기 후반 등에는 여러 종의 벼가 등장하는데, 이천쌀 품종의 조상이라고 하는 ‘자채쌀’ 에 대해서도 나온다. 또 『임원경제지』를 저술한 19세기 실학자 서유구가 농촌생활을 하며 경험한 농법을 토대로 만든 농서 『행포지』 1825에도 “이천지역에서 쌀이 잘 된다” 라는 기록이 있는 등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자채벼 품종이 나오

양녕대군 관련 유적과
전설이 전하는 자채방
아마을



는 것으로 보아, 우리 지역은 이천쌀, 즉 자채쌀의 특산지였음을 알 수가 있다. 『성종실록』 1490년 **성종 21** 윤9월 15일자 다음의 기록을 보자.

호조戶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영릉英陵을 배알하고 여러 고을을 순수巡狩해 살피니, 경기의 백성이 모두 그 폐단을 받았다. 그러나 어가가 머문 땅에는 노고와 소비가 더욱 많았으니, 사리로 보아 마땅히 넉넉하게 돌보아야 할 것이다. 여주驪州·이천利川·양지陽智·용인龍仁·광주廣州의 인민들에게는 금년의 전조田租를 절반으로 감할 것이며, 여주·이천향교에 각각 쌀 30석을, 용인향교에는 20석을 내려 주어서 유생들의 학과를 권장하는 바탕으로 삼게 하라.”

조선의 제9대 왕 성종은 이천과 이웃한 여주의 영능**세종대왕** 능으로 성묘를 왔다 환궁하던 길에 이천에 머무르게 된다. 이때 이천부사 복승정이 이천쌀로 수라를 올렸는데 밥맛이 뛰어난 이천쌀을 성종이 칭찬하였다고 한다. 또한 예로부터 이천지역에 전해 오는 말에 이천의 자채쌀이 임금님께 진상되었다고도 한다. 한편, 19세기 말에서

한중가서命脈이신
進上米 紫彩쌀

3百坪에 심어 早期收穫 利川郡 林推復 氏

벼대와 잎은 보라빛...쌀알엔 기름기 흘러 別味
多收穫에 밀려 자취감쥔 순수한 利川재래種



이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진상미 자채쌀'은 벼대와 잎은 보라빛...쌀알엔 기름기 흘러 別味 多收穫에 밀려 자취감쥔 순수한 利川재래種이다. 이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진상미 자채쌀'은 벼대와 잎은 보라빛...쌀알엔 기름기 흘러 別味 多收穫에 밀려 자취감쥔 순수한 利川재래種이다.

‘진상미 자채쌀’ 다섯 가마를 수확했다는 『동아일보』 기사(1977. 9. 2)

수확에 관한 마지막 기록으로 보인다.

이천이라고 해서 모든 지역에서 자채쌀을 재배할 수는 없었다고 한다. 조선시대의 경우 이천 전체 쌀 재배지 중 불과 4~5%의 지역에서만 겨우 자채쌀이 재배되었다는데, 토질이 비옥하고 관개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하는 까다로운 이유 때문이었다. 정리하면, 자채쌀은 바닥이 깊고 물길이 좋은 기름진 고래실논에서 재배되었으

20세기 초 경기사당패에서 형성되어 유래된 경기민요 중 사설방아타령에서도 이천 자채쌀에 대한 가사가 나온다.

경기도라 여주 이천 물방아가 제일인데 오곡백곡 잡곡 중에 자차벼자채벼만 짚어 보세

그렇다면 자차벼라고 불리는 자채쌀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이천대관利川大觀』 1955 명승 고적편에 자채쌀은 “전국에서도 유명한 특산물이며 음력 6월 15일이면 왕에게 진상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벼 잎은 자색이고, 재배법과 관리가 까다롭고 불편하며, 수확량은 많지 않고, 자채쌀을 길렀던 논을 ‘진상따라기’라고 한다는 내용도 나온다. 그러나 아쉽게도 당시에 자채쌀은 이미 찾아보기 힘들다는 내용과 함께 ‘노인벼와 일본산 개량종의 올벼를 이천 사람들이 재배하였는데, 이것을 자채쌀이라 했지만 엄연히 자채쌀과 품종자체가 다르다’고 했다. 반면, 2001년에 편찬된 『이천시지』 4권 지역특산물에는 비록 적은 양이지만 1960년대 중반까지 일부 농가에서 자채쌀을 재배하였고 품종도 보존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한편, 1977년 9월 2일자 『동아일보』 기사에는 부발읍 가좌리 박치득 씨가 자채벼를 300평 심어 다섯 가마를 수확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아마도 이천 자채쌀

며, 이천에서도 일부지역에서만 재배되었던 품종이다. 또 수확량은 적지만 품질이 좋고 성숙기가 매우 빠른 양질의 올리브^{국조생종}이다. 구만리뜰의 여름풍경

2. 그 옛날도 지금도 이천의 랜드마크 ‘구만리뜰’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새주소가 시작된 지 5년 정도 지났다. 이천의 새주소에는 많은 길이 등재되어 있다. 서울과 충주를 잇는 3번국도의 경충대로, 창전동의 서회로, 이천시청과 경찰서가 있는 행정타운의 부악로, 호법면 일대의 이섭대천로, 이천 시내의 애련정로, 복하교를 지나 장록동부터 설성까지 이르는 진상미로, 장호원 어디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는 복숭아로, 이름도 맑고 예쁜 샘재로, 그리고 이름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 것 같은 구만리로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만리로는 정말 그렇게 아득히 길고 먼 거리여서 생긴 이름일까? 물론 그것은 아니다. 사실 구만리로는 이천중학교와 이천제일고등학교, 안흥 주공아파트 앞의 도로로 그 앞의 들판이 구만리뜰이어서 생긴 이름이다. 그런데 진리동이나 부발읍 마암리의 일부분까지도 구만리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등 부르는 이들에 따라 범위가 조금씩 다르지만, 주공아파트를 기준으로 안흥동 일대에 펼쳐진 넓은 들을 구만리뜰이라고 보면 될 듯하다.

구만리뜰은 이천의 젓줄인 복하천 지류가 실거미처럼 펼쳐져 있고, 넓은 지대에는 곳곳마다 이천쌀과 농작물이 자라고 있다. 복하천의 풍부한 수자원 덕분에 예나 지금이나 맛 좋은 이천쌀이 생산되는데, 재미있는 전설도 전한다.

옛날 부발읍 효양산^{孝養山}에는 해마다 풍년이 들게 하고 죽은 이도 살릴 수 있는 신묘한 능력의 금송아지가 있었다. 이 소문은 중국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가 황제는 사신을 보내 금송아지를 가져오게 했다. 중국의 사신이 마장면 작촌리 부근에서 짧은 지팡이를 든 백발노인을 만나 효양산이 어디냐고 물었다. 노인은 자기가 지금 효양산에서 오는 길이라며, 오천역을 지나, 억억교^{회억리}를 건너고, 다시 이천역을 지나 구만리^{九萬里} 벌판을 지나야만 갈 수 있는 곳이 효양산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천신만고 끝에 이천에 왔지만 효양산에 가려면

구만리뜰의 가을풍경
(출처 : 제2회 이천관
광전국사진공모전 당
선작, 일부 트리밍)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다(?)는 말에 중국 사신은 금송아지를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렸다고 한다.

이천쌀문화축제 가마
술 쌀밥 짓기 명인전

구만리뜰에서는 문화예술 행사가 펼쳐지기도 한다. 2014년에는 이천문화원 주관으로 구만리뜰에서 대보름행사를 개최하였으며, 2017년 제19회 이천쌀문화축제 때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소원햇불을 들고 구만리뜰을 행진하는 대동놀이를 처음으로 진행하였다.

3.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우뚝 선 이천쌀문화축제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는 성경구절은 비록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흔히 사용하는 말이자 쉽게 이해되는 말이다. 필자는 이천쌀문화축제를 보면 문득 이 성경구절이 생각이 난다. 물론 이천쌀문화축제는 끝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발전하는 진행형이기는 하다.

이천쌀문화축제 쌀문
화 마당

이천쌀문화축제는 1999년 10월 30일 늦가을, 이천의 농부들과 이천시, 농협, 이천의 농업관계 단체들이 협력하여 1년 농사의 수고로움을 푸는 소박한 행사로 시작되었던 ‘이천농업인의축제’가 그 뿌리이다.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발전과 성과를 내보여 왔으며, 이제는 이천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할만한 축제가 되어 경기도 10대 축제이자 2018년 2월 현재 6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되었다. 이에 이틀간 진행됐던 행사는 5일간의 행사로 확대되었고, 2018년에는 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최한 제6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에서 ‘축제글로벌 명예 전당’을 수상하였다.

이천쌀문화축제의 개최시기는 수확의 계절인 가을로, 그해 생산한 이천의 특산물인 이천쌀과 잡곡·농산물·정육·한과·떡 등의 판매로 농가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대형가마술밥 2,000명 이천 원’과 ‘600m 무지개 가래떡 만들기’는 이천쌀문화축제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고, 이천쌀밥명인전, 용



줄다리기, 글로벌 세계 쌀요리 경연대회, 거북놀이공연, 마당극, 농업 관련 전시회, 임금님 진상마차 행렬 등 다양한 행사로 꾸며져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먹을거리·살거리가 풍부한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2017년 제19회 이천쌀문화축제 5일 동안 약 41만 2,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햅쌀과 농산물 매출액은 약 13억 2,000만 원으로 집계되어 전년보다 관람객과 판매액 모두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도별 이천쌀문화축제 현황

연도	행사명	주제(슬로건)	날짜
1999	제1회 1999이천농업인축제		10/30~31
2000	제2회 2000이천농업인축제		10/31~11/1
2001	제3회 이천햅쌀축제 2001		10/24~28
2002	제4회 이천햅쌀축제 2002	하늘의 美 + 땅의 味 = 이천의 米	10/25~27
2003	제5회 이천햅쌀축제 2003		10/23~26
2004	제6회 이천쌀문화축제	쌀은 생명이다!	10/21~24
2005	제7회 이천쌀문화축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	10/6~9
2006	제8회 이천쌀문화축제	멋스러운 이천! 맛깔스러운 쌀!	10/26~29
2007	제9회 이천쌀문화축제	흐드러진 풍년마당 멋드러진 잔치마당	10/25~28
2008	제10회 이천쌀문화축제	풍요의 땅 생명의 씨앗	10/23~26
2009	제11회 이천쌀문화축제	행복이 넘실거리는 흥겨운 풍년잔치	10/22~25
2010	제12회 이천쌀문화축제	예스런 잔치마당, 탐스러운 이천쌀	10/21~24
2011	제13회 이천쌀문화축제	고향의 정취, 어머니의 손맛	11/3~6
2012	제14회 이천쌀문화축제	쌀로 빛은 구수한 세상	10/25~28
2013	제15회 이천쌀문화축제	맛스런 내음이 너울~ 흥겨운 어깨는 둥실~	10/30~11/3
2014	제16회 이천쌀문화축제	풍년은 나누고~ 행복은 쌓이고~	10/22~26
2015	제17회 이천쌀문화축제	흥겨운 만남~♪ 행복한 나눔~	10/21~25
2016	제18회 이천쌀문화축제	이리 오너라~ 먹고 놀자~♪	10/19~23
2017	제19회 이천쌀문화축제	오! 행복한 밥상~♪ 쌀 맛 나는 세상♪	10/18~22

2018년 제20회 축제는 ‘쌀 맛 나는 세상~ 구수한 인심~’을 주제로 정하고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 동안 이천설봉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천쌀문화축제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아 농경문화와 관련된 체험·전시·공연·대동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풍부한 축제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설봉공원 등 기존 주행사 공간 위주에서 좀 더 확대하여 풍년마당·공연마당·농경마당·문화마당 등 14개 테마별 마당에 관고전통시장과 사기막골 도예촌, 구만리뜰을 포함시켜 기존프로그램을 보완하고, 2017년에 이어 구만리뜰에서의 야간프로그램 등과 신규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행사준비를 하고 있다.

4. 자채쌀, 아끼바리, 그리고 고시히카리

앞에서 거론한 자채쌀은 이제 멸종이 되었다. 그러나 이천은 여전히 대한민국 최고의 쌀의 고장이다. 2017년 이천에서 현재 생산되고 있는 쌀의 주요 품종은 추청과 고시히카리이다. 추청은 아끼바리 또는 아끼바레라고도 불리는 품종으로, 1969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1970년 장려품종이 된 이래 많이 재배되고 있으며, 특히 이천쌀의 주종이 되었다.

이천시농업기술센터의 2018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교재에 보면 2017년 한 해 이천쌀의 재배면적은 전년도 8,060ha보다 약 4% 증가한 8,356ha이고, 10a당 생산량은 전년도 538kg보다 약 5% 감소한 511kg이지만 경기도 전체에서는 1위의 생산량이다. 이천에서 생산하는 벼의 품종은 80% 이상이 추청이다. 추청은 포기당 이삭수가 많고 쌀의 빛깔이 좋으며, 백미는 경우 투명도가 높고 단단해서 밥을 하면 식감도 좋지만 밥에 윤기와 찰기가 있어 밥맛이 좋다. 이런 이유로 고시히카리가 일부 생산되고는 있지만 이천농민에게 사랑받는 쌀은 추청벼가 압도적이다. 이천의 농민들은 거의 대부분 해당지역의 농협에서 구매하는 계약 재배이기 때문에 품종부터 계약된 벼를 생산하고 있다. 다른 품종의 쌀이 섞이면 같은 밥맛과 품질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재배되어 철저하게 벼씨부터 관리를 받는다.

연도별 이천쌀 생산량 및 면적

단위 : t · kg · ha

연도	생산량			10a당 생산량			논벼 재배면적		
	이천	경기	전국	이천	경기	전국	이천	경기	전국
2017	42,716	379,989	3,971,609	511	484	527	8,356	78,483	754,339
2016	43,425	413,912	4,194,618	538	512	539	8,060	80,748	777,872
2015	41,096	420,672	4,323,078	528	512	541	7,788	82,067	797,957
2014	41,839	426,404	4,237,537	523	493	520	8,003	86,457	832,625
2013	40,463	407,201	4,227,358	491	457	508	8,234	88,916	831,355
2012	46,051	420,700	4,006,000	494	464	473	8,716	90,824	849,172
2011	41,656	405,422	4,224,019	475	442	495	8,768	91,727	853,823
2010	41,090	417,293	4,295,413	438	435	482	9,382	95,970	892,074

비고 : 생산량은 백미 92.9% 기준임.

아끼바리 추청벼가 1970년 장래품종이 된 이래 거의 모든 농가에서 추청벼를 심었고, 또 그레야만 농협에서 수매를 했으니 근 50년간 이천은 추청벼를 생산한 셈이다. 1970년 새마을운동과 함께 미곡증산을 위한 다수확 품종으로 통일벼가 보급되었고, 이천에서도 통일벼를 심기는 했다. 그러나 50여 년간 밥맛 좋은 이천쌀의 품종은 아끼바리라는 농민들의 인식이 확고해 다수확에 밥맛 좋은 신품종이 있어도 이천지역 거의 대부분의 농민들은 중만생종의 아끼바리와 조생종인 고시히카리만을 생산하고 있다. 이에 이천시는 2016년 국립식량과학원과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와 함께 ‘이천벼 품종개발 시험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천에 적합한 쌀 재배와 생육평가부터, 밥맛 평가까지 폭 넓게 하고 있고, 새로운 신품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국립식량과학원과 공동으로 2016년부터 마장면의 시험포장에서 새로운 품종을 시험재배하고 있다. 지금까지 햅쌀로 고시히카리가 주종이었는데 이를 대체할 조생종 계통으로 수원588호를, 추청을 대체할 중만생 계통으로는 수원600호를 재배하고 있다. 이 품종의 쌀과 다른 계통의 쌀을 재배한 뒤 이천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정해 2020년부터는 농가에 점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다수확이었으나 쌀의 가장 중요한 밥맛이 떨어져 보급에 실패한 통일벼도 반강제적으로 정부에서 수매하는 방식으로 보급하였듯이 아무리 좋은 밥맛과 다수

확의 벼품종을 내놓아도 이천농민들의 추청과 고시히카리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6일 이천시에서는 시험 재배한 수원588호와 수원600호에 대한 품종명 선정심의회를 열어 이천쌀의 캐릭터 ‘아리’를 수원588호 품종에 적용하여 ‘아리·고슬미’로, 수원600호 품종에는 ‘알찬미·고우미’로 이름을 지었다. 그리고 이천벼 선정 밥맛평가회와 농업기관, 농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이천쌀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여 밥맛을 평가했다. 그 결과 수원588호와 수원600호가 고시히카리와 추청보다 밥맛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5. 이천쌀의 공출기차였던 수여선

경기도 성남 판교에서 여주 종점까지 11개 역의 경강선 복선전철이 지난 2016년 9월 13일 추석맞이 시험운행을 시작으로 그해 9월 24일 개통되었다. 그동안 이천에서 서울을 가는 방법은 대중교통인 시외버스와 승용차로 이천IC와 서이천IC에서 고속도로로 올라가거나 3번국도를 이용하는 방법뿐이었다. 그런데 수도권 전철이 개통됨으로써 출퇴근 시간이나 명절연휴 등에도 성남시는 물론 서울 강남으로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게 되었다. 비록 4량의 작은 열차지만 자동차와 버스가 아닌 다른 교통편으로 빠르고 쾌적하게 수도권으로 진출함으로써 이천 시민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있다.

필자도 그렇지만 50대 이하부터 어린 학생들의 대부분은 아마도 경강선을 이천에 처음 생 열차로 알고 있을 것 같다. 하지만 50여 년 전 이미 이천에 수여선이란 협궤열차표준열차보다 선로 폭이 작은 기차가 다녔고, 철로가 있었다고 하니 상상이 가질 않는다. 사실 수여선은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 12월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에서 이천과 여주지역의 쌀을 수탈하려는 목적으로 부설하였다. 처음에는 수원부터 이천까지 53.1km만 운행되었다가 여주까지 연장을 하여 총 73.4km의 거리를 왕복하였는데, 이천과 여주의 쌀을 수원수여선과 인천수인선을 거쳐 일본으로 공출하였다. 또한 이천에서 나를 똑똑하고 공부 좀 잘한다 싶으면 수원의 좀 더 큰 학교로 유학을 보냈



철도박물관에 전시 중인 옛 수여선 협궤열차



옛 수여선 노선도

는데, 수여선은 그렇게 통학의 열차이자 용인과 수원으로 장을 보는 여객의 열차로도 활용되었다. 당시 이천에는 오천역-표교역-유산역-이천역-무촌역-죽당역 등 6개 역사가 있었다. 그러나 1971년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도로의 교통량이 증가한 반면, 수여선의 수요가 급감하자 1972년 4월 1일 운행을 중단하였다. 이후 2015년 마장택지지구가 개발되면서 오랫동안 남아 있던 오천역이 마지막으로 철거되었다. 이제 수여선의 자취라고는 분수대오거리의 역전빌딩이 이천역의 역사가 있던 자리였다는 걸 알려주는 명칭과 표지석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6. 임금님표 이천쌀! 탄생은 이천농협, 발전은 이천쌀사랑본부

배하면 나주배, 꽃감하면 상주꽃감, 참외하면 성주참외처럼 언제부턴가 지역의 이름 뒤에 농·특산물이 마치 자체 브랜드처럼 불리곤 하더니 이제 전국 대부분의 농·특산물에는 각자의 브랜드가 당연한 듯 자리를 잡고 있다. 이처럼 농·특산물이 브랜드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임금님표 이천쌀’이 그 효시라 말할 수 있다. 이천농협은 조선시대 임금님께 진상했던 이천쌀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임금님표 이천쌀’ 브랜드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지대포장을 했다.

필자는 2014년 『이천농협 50년사』를 집필할 때, 이태용 전 이천농협 조합장을 인터뷰하며 ‘임금님표 이천쌀’의 탄생에 대해 질문했었다. 지금이야 농민들 대부분이 지역농협과 계약재배를 맺고 생산부터 수매까지 농협을 통해 진행하지만, 예전에는 농협을 통해 수매하기도 하지만 좀 더 비싼 가격을 받기위해 일반 도매상에게 개별판매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도매상들이 타지역의 쌀을 이천쌀과 섞고는 이천쌀이라 속여 파는 경우가 많았고, 그 때문에 이천쌀의 유명세만큼 가짜 이천쌀이라는 오명도 함께 받아 판로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이에 이천농협에서는 안정적인 판로 및 진짜 이천쌀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농민들에게 쌀을 수매하여 도정하는 지대포장지에 세종대왕의 모습을 그려 넣고 ‘임금님표 이천쌀’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한 것이다. 지금의 로고

와 비교해보면 조악해 보일 수도 있지만 나름의 비책이었던 셈이다. 이렇게 이천농협이 탄생시킨 ‘임금님표 이천쌀’ 브랜드와 로고는 지금의 농산물 브랜드의 시초였으며, 그 브랜드와 로고를 디자인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것은 ‘이천쌀사랑본부’였다.

이천쌀사랑본부는 ‘고품질 쌀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천쌀 판매창구를 단일화 하는 쌀유통의 혁신적인 실천으로 이천쌀의 성가보호와 쌀 농가의 부가가치를 증대한다’는 목표로 1996년 12월 농업회사법인 ‘이천쌀사랑본부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이천시의 지원금으로 탄생하였지만 이천농업인,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와 각 지역 회원농협(이천농협, 모가농협, 대월농협, 호법농협, 신둔농협, 부발농협, 마장농협, 설성농협, 장호원농협, 울면농협 등)이 출자한 민간 농민운동의 성격도 포함된 단체였다.

이천쌀사랑본부에서는 이천쌀 홍보와 판매를 위해 이천 농산물로는 최초의 브랜드인 ‘임금님표 이천쌀’을 1997년 가을 서울 코엑스에서 홍보 및 판매하였고, 서울 강서구 가양동을 비롯한 직판장과 여러 직거래장터를 통해 이천쌀을 판매하였다. 또 TV홈쇼핑에 대한 인식이 미미했던 때 39쇼핑(현 CJ쇼핑)을 통해 판매하는 등 당시로는 획기적인 홍보와 판매를 시도하였다. 특히 앞에서도 언급한 ‘임금님표 이천쌀’이라는 브랜드와 로고를 만드는 등 이천쌀의 가치를 높여 전국 최고가의 쌀로 만든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임금님표 이천쌀은’ 2001년, 2003년 2005년 농림부 주관 농산물 브랜드파워 대상을 수상하였고, 2005년에는 농림부와 한국소비자단체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역 혁신 박람회 특산물 브랜드상과 브랜드쌀 품질평가 우수 브랜드상을 수상하였으며, 산업정책연구원에서 선정하는 브랜드올림픽에 2003~2010년까지 8년 연속 1위, 2007~2016년까지 KMAC 한국농률협회 브랜드파워 농산물 부분 10년 연속 1위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지금은 ‘임금님표 이천’을 이천쌀뿐만 아니라 한우, 계란, 인삼 등 이천에서 생산하는 품질 좋은 다른 농산물에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이천 농산물의 대표브랜드가 되었다.

한편, 이천쌀사랑본부는 참여한 시민들이 1~2만 원씩 소액 출자한 출자금으로 만든 주식회사의 형태였지만 이천시의 예산지원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했다. 이에 여러 가지 자구책을 강구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쌀 판매와 품질

‘임금님표 이천쌀’ 옛 브랜드·로고 및 지대포장에 적용한 모습



‘임금님표 이천’으로 변경된 브랜드·로고 및 지대포장에 적용한 모습



KMAC 한국농물협회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1위’ 6년 연속
수상 기념식(2012)



관리 등의 문제를 두고 지역 농협과 갈등이 빚어지는데다 이천시의 예산마저 삭감되면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러다 결국 2006년에 청산되었다. 그리고 2008년에 사단법인 임금님표이천쌀운영본부로 새출발을 했다가 사단법인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로 변경하여 쌀뿐만 아니라 이천에서 생산한 품질 좋은 농산물에 ‘임금님표 이천’ 통합브랜드를 사용·관리하는 기관으로 새롭게 탄생하였다.

7. 이천쌀의 내일을 본다.

이천쌀은 여전히 전국 최고의 쌀이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이천을 롤 모델로 지역 쌀을 브랜드화 하는 곳이 많아졌다. 철원 오대미가 그렇고 경남 산청의 산청미, 해남의 한눈에 반한 쌀, 안성의 안성맞춤쌀, 그리고 ‘임금님표 이천쌀’ 과 느낌이 비슷한 ‘대왕님표 여주쌀’이 그렇다.

임금님께 진상했다는 자채쌀 품종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하지만 이천쌀은 천혜의 기후와 환경 덕에 ‘추청’ 벼로도 자채쌀 못지않은 인기와 명성을 유지하며 50년 가까이 전국 최고의 쌀 자리를 지켰다. 그로 인해 이천은 타지역보다 높은 수매가를 받고 있으며, 쌀농사 하나만을 단순 비교했을 때, 농가소득은 타지역보다 좋은 편에 속한다. 물론 농산물 브랜드가 무엇인지 인식조차 없던 때에 ‘임금님표 이천쌀’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다른 곳보다 발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이천쌀의 가치를 높였던 선구자적 노력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은 두말하면 잔소리가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노력으로 지금 같은 이천쌀의 꾸준한 사랑과 명성을 이어 나갈 것인가? 이천시는 ‘이천쌀’의 국민 관심도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2017년 1년에 걸쳐 키워드 데이터 분석과 빅 데이터 분석을 한 바 있는데, 이를 살펴보며 해법을 찾아보자.

이천은 매년 전국 최초로 모내기를 한다. 2017년에도 2월 1일 호법면 안평리 비닐하우스에서 극조생종의 벼를 심어 뉴스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 홍보를 했고, 2018년에도 2월 12일 안평리 일대의 비닐하우스 논에서 모내기를 했으며, 2018년 6월에는 전국 최초 수확으로 약 320kg 정도의 쌀을 수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임금님표 이천쌀’의 브랜드 홍보차원으로 국내산 2세 수말인 경주마에 ‘이천쌀’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는데, 경주말 이천쌀은 2017년 7월 24일 경주에서 역전승을 하였다. 같은 날 온라인 쇼핑몰에서 ‘임금님표 이천쌀’을 특가 판매함으로써 이천쌀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다.

2017년 상반기^{1/1~6/30}의 주요 키워드는 ‘창의’ · ‘축제’ · ‘최선’ · ‘기원’ · ‘행복’ · ‘성장’ · ‘맛나’ · ‘노력’ · ‘관심’ 등이 있었는데, 가장 많은 키워드는 ‘최고’ · ‘명품’ · ‘창의’ · ‘노력’ · ‘기대’ 였다. 이어 하반기^{7/5~12/4}에는 10월에 이천쌀

이천쌀축제 때 전통적인 탈곡기를 이용해 탈곡을 체험하는 관광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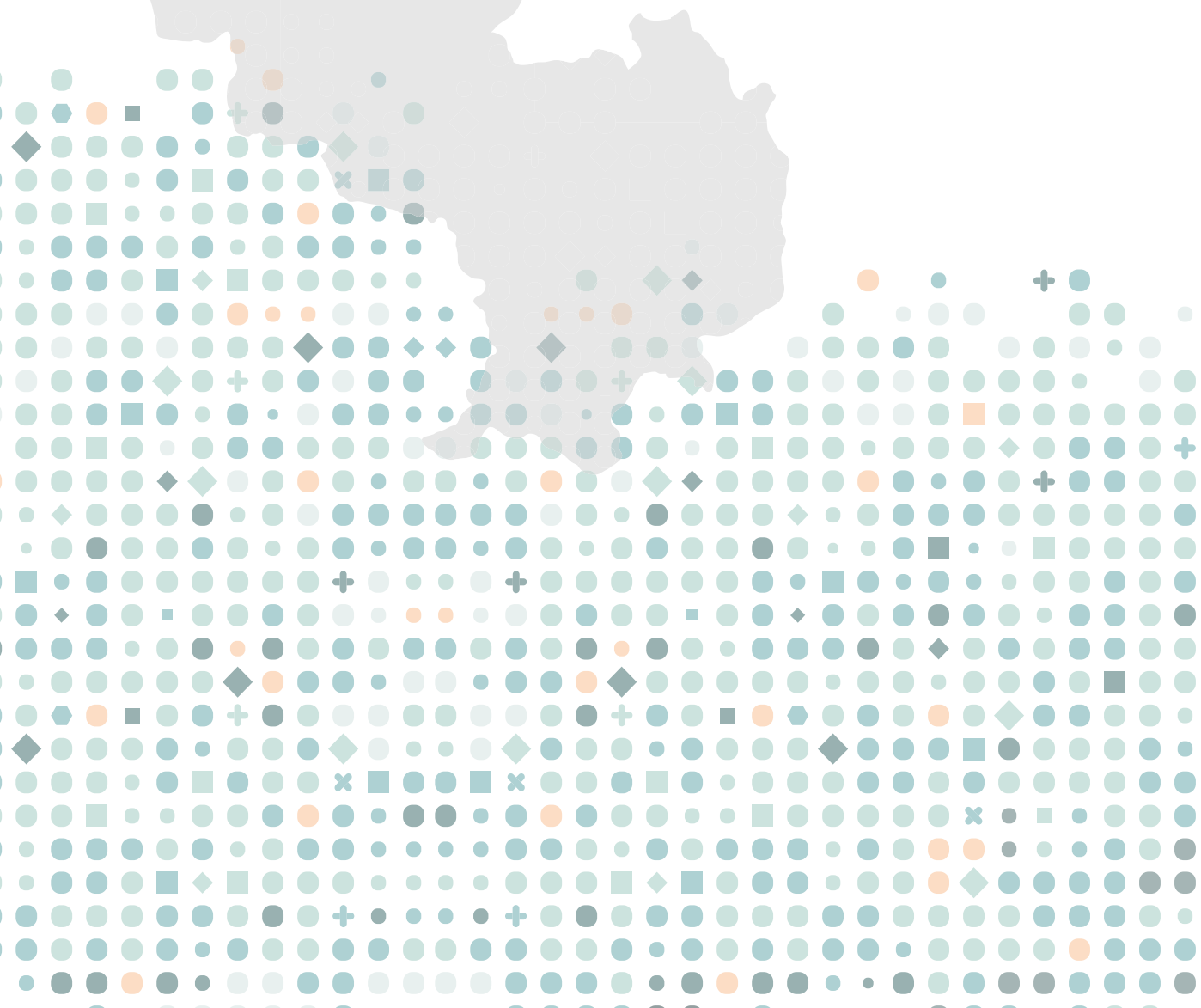


문화축제가 개최되어, ‘최고’의 뒤에 ‘즐거기’·‘축제’·‘행복’의 키워드가 분석되었다. 좋은 쌀 관련한 주요 키워드에는 ‘완전미 비율’·‘우수성’·‘생산비’·‘고품질’·‘소비자’·‘경쟁력’이 있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밥맛’이었고, 그 뒤를 이어 ‘농업인’과 ‘소비자’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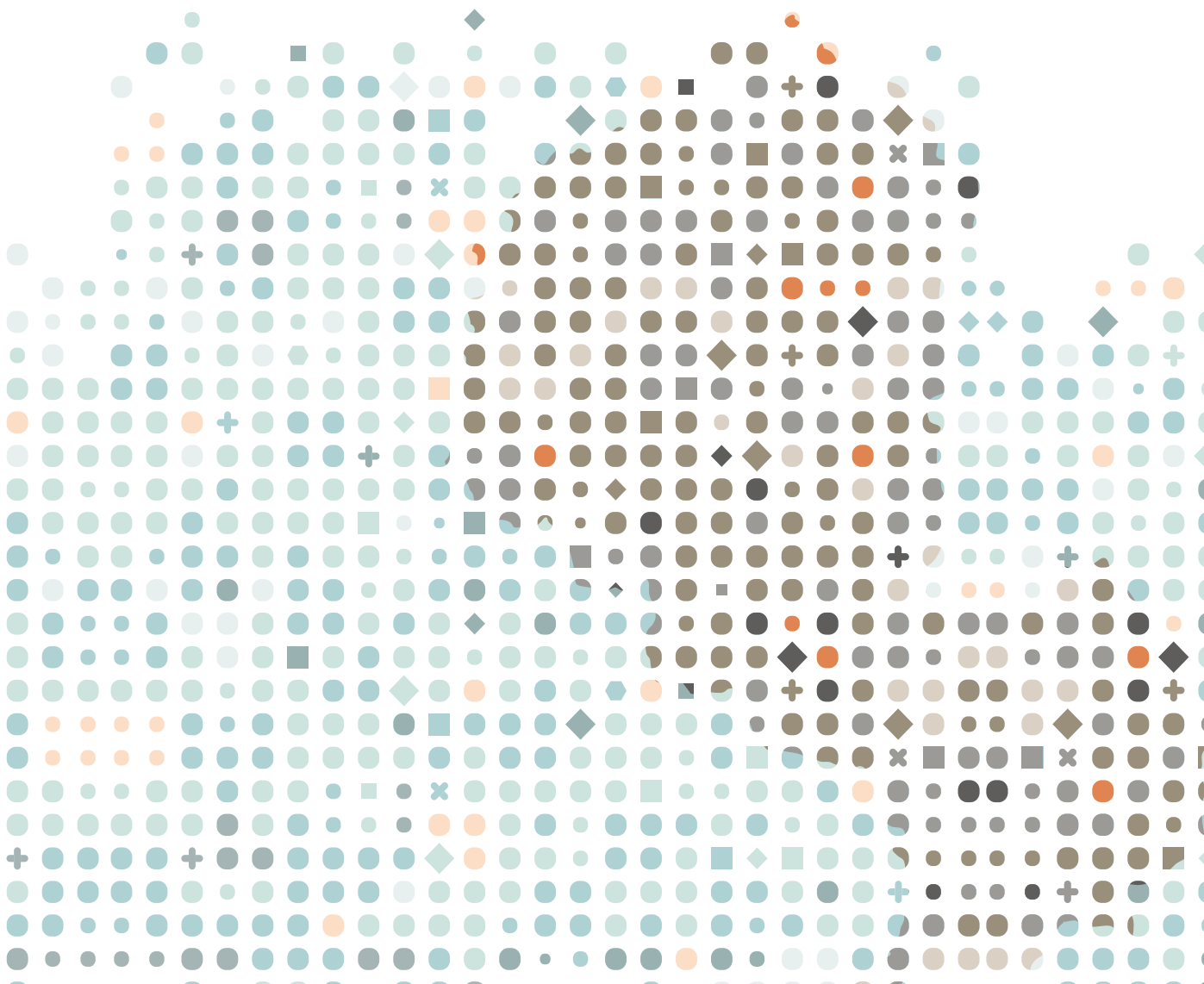
1인 세대의 증가와 혼자 밥 먹는 ‘혼밥’족들이 늘어나는 요즘, 예전에 비해 주식은 쌀에서 빵이나 다른 음식으로 점차 대체되고 있고, 이러한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 쌀 소비량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미국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와의 FTA자유 무역협정 확대 강화로 쌀시장의 개방도 점차 그 폭이 넓혀질 것이 자명한 상황이라 쌀 농가의 어려움 역시 충분히 예상 가능한 현실이다.

그동안 이천쌀하면 떠오르는 ‘최고’, ‘명품’, ‘밥맛’의 모든 단어에는 지금까지 보이든 보이지 않았든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 수확이 많이 나오고 무엇보다 밥맛이 뛰어난 새로운 품종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재배하였던 추청벼와 고시히카리로 안주했다가는 최고와 명품이라는 이천쌀의 명성을 잃을 수 있다. 단번에 새로운 품종으로 바꾸기는 어렵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천시와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에서 연구하고 보급하는 신품종으로 점차 바꾸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주식으로 소비되는 이천쌀이 아닌, 쌀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상품과 메뉴 개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로 보인다.

도자기 굽는 마을



2편





01

이천도자기 60년, 그 변화와 비전



서정걸 | 한국도자재단 대표

제1장 이천도자기 60년, 그 변화와 비전

1. 이천과 도자기

1) 도자기의 도시, 이천

이천은 한국을 대표하는 도자도시이다. 세계 유명 도자도시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을 만큼 이천은 도자도시로서의 확실한 면모를 갖추고 있다. 오히려 규모에 있어서나 질적 수준에 있어서나 이천을 능가할 도자기 고장을 발견하기 어렵다. 일본이나 유럽 등지의 유명 도자도시들보다도 훨씬 발전 가능성이 높은 이천은 가장 주목할 만한 도자도시 중 하나로 앞서가고 있는 것이다.

이천은 중국의 경덕진景德鎮이나 일본의 아리타[有田], 이태리의 파엔차Faenza 같은 세계적 도자도시에 비해 뒤지지 않을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바로 지금 가장 활발한 활동과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내용적으로도 전승이나 산업도자 등에 치우치지 않고, 전승과 전통, 조형과 실용도자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종합적인 도자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이천은 전승도예의 발전에 의해 도자기 고장으로서의 이미지가 형성되었지만, 이제는 전승과 전통뿐 아니라 현대가 어우러진, 살아있는 도자도시로서의 이미지가 확립되었다.

이천은 21세기가 시작되는 지난 2001년 대규모 국제행사인 ‘세계도자기엑스포’를 통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은 바 있다. 2001년을 기점으로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라는 국제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천도자기축제’도 국내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자리를 잡아 이천도자 발전의 중심축을 이루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경기도 마스코트
‘토야’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



고 있다. 또한, 지난 2005년 재정경제부로부터 ‘도자산업특구’로 선정되어 도자도시로서의 기반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0년에는 이천이 한국 최초로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됨으로써 한국도자의 메카로서 위상을 더욱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천이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된 데는 이천도자기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 이천은 많은 도자예술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세계적인 도자예술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교육기관과 세라믹기술원 등 도자와 관련된 기반시설인프라스트럭처가 잘 구축되어 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가입됨으로써 이천시는 한국의 도자를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세계 각국의 다양한 도시들과의 문화교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도자문화 예술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변화는 이전 50년의 변화보다도 훨씬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2001경기도’라는 대규모의 국제행사를 기점으로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었고, 많은 새로운 도예인들이 유입되었으며,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이루어짐으로써 전통뿐만 아니라 현대도자의 발전이 비약적으

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천은 고려청자와 조선백자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도자의 산지에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국을 대표하는 도자도시로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변화는 아마도 과거 같으면 몇 세기에 걸쳐 일어날 수 있는 변화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번 논고에서는 지난 60여 년 간의 변화에 대한 연대기적 정리와 그 변화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앞으로 이천도자가 나아갈 방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2000년대 이전의 내용에 대한 것은 2001년에 발간된 『이천시지』에 이미 다른 연구자들이 게재한 내용이 있으므로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는 수준에서 다룰 것이다. 다만, 한국 도자사적 측면에서 이천도자의 역사적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하겠다.

2) 한국 근현대 도자역사와 이천도자의 의미

이천도자기의 시작은 전승도자였다. 이천도자기가 전승도자로 출발한 것은 도자역사의 시대적 요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이천도자기가 시작될 무렵은 한국 전통도자의 맥이 끊어져 있던 때였고, 전통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선구적 도예가들이 이천으로 모여들면서 이천도자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천도자기는 전승도예로 시작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이천은 고려청자 이래 분청사기와 조선백자의 시대로 연결되는 한국도자의 역사적 맥락을 새롭게 살려낸 의미 깊은 도자도시인 것이다.

19세기 조선 왕조의 쇠퇴와 일제강점기를 거쳐 우리 도자기 전통의 맥이 완전히 끊겼기 때문에 근대기 우리 도자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전승이었다. 그것은 단절이라는 상황을 극복해야만 하는 시대적 요청이었다. 고려청자는 시대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된 양식이었지만, 분청과 백자로 이어져 변화 발전되어 오던 도자기 흐름이 왕조의 쇠락과 외부의 강압된 힘에 의해 일시에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 따라서 우리의 아름다운 도자전통을 다시 재현하고 계승하는 것이 20세기 전반기의 역사적 사명이었던 것이다.

이천의 전승도자에 대한 평가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역사적 안목으로 살펴보면 우리 도자역사의 전통을 재현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

도자기에 그림을 넣고
있는 한말의 도공



기에 매우 의미 있고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전의 논고들은 사실적 고증에 그쳐 역사적 평가 또는 해석이 미비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역사적 맥락에서의 이천도자 생성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다.

우리 도자의 맥이 끊긴 역사적 시점은 1884년이라 할 수 있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1884년은 한국 도자역사에서 하나의 변곡점이라 할 수 있다. 발전의 변곡점이 아니라 쇠락의 변곡점이다. 그해는 바로, 조선시대 500년 동안 왕실도자를 제작했던 사옹원 분원이 문을 닫고 민영화된 해이다. 유럽의 경우는 로열Royal이란 이름이 붙은 각국 왕실도자의 제작소들이 번성하고 있을 때, 중국과 함께 도자 종주국인 조선은 왕실도자 제작소마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당시만 해도 왕실은 도자 제작의 절대적인 후원을 담당했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왕실도자 제작소의 폐쇄는 그야말로 도자사에 있어서 커다란 사건이었다. 또한 분원의 폐쇄는 국력의 쇠퇴와 국가운영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한 국가의 운영 면에서 왕실이 사용할 그릇을 제작하는 분원을 운영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은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비슷한 시기에 유럽의 로열 킬른Royal Kiln들은 자본을 쌓고 기술을 발전시켜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었고, 우리에게 도자기술을 전수받은 일본은 유럽으로 도자기를 수출하여 근대화의 발판을 만들었다. 그런

데 우리는 왕실도자를 만들던 분원이 문을 닫아야 했으니, 우리나라 도자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대목이다. 도자기술을 전수해 준 나라는 그 전통을 계승·발전시키지 못하고, 그 기술을 전수받은 나라는 그 기술을 바탕으로 유럽으로 도자기를 수출하여 부를 쌓고, 유럽의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아시아의 맹주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19세기 말, 우리 도자의 맥은 완전히 끊긴 것이나 다름없었다. 당시 왕실과 상류 계층들은 우리 도자가 아닌 일본인 사업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일본풍의 도자를 애호하기에 이르렀고, 일본도자의 수입량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이 세운 도자기공장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런 면에서, 늦었지만 이천이 한국도자의 전통을 재현한 새로운 역사적 장소로 부각되었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이웃 도시인 경기도 광주가 조선시대 500년 동안 왕실도자의 터전이었지만, 근현대 한국도자 발전의 터전은 이천이다. 광주의 옛 도요지들이 있던 자리는 도자기 파편만 흩어져 있을 뿐 그 화려한 역사의 자취는 찾을 길이 없다. 그 역사의 뿌리는 이웃 이천으로 옮겨져 새로운 꽃을 피우고 있는 중이다. 광주 분원리의 도자유적이 갖는 역사적 가치는 크고 귀한 것이지만, 이천의 도자가 갖는 미래의 역사적 가치 또한 크고 귀한 것이 될 것이다.

3) 이천도자기 탄생의 전주곡, 대방동가마

도자전통의 단절은 해방 이후, 이천도자기가 탄생하기 직전까지 계속되었다고 보아 무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자의 전통적 맥을 잇기 위한 선구적 노력들이 존재하였다. 그 노력의 한 축이 이천에 뿌리를 내리고, 이천을 도자의 도시로, 한국 현대도자의 메카로 발전시킨 것이다. 대략 20세기 초부터 중반까지의 상황은 이천도자기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미약하지만, 이천도자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 전개와 전승도예의 선구적 역할을 했던 도예가들의 이야기를, 꼭 필요한 내용에 국한하여 간단하게 서술할 것이다.

19세기 말 관요에서 활동하던 그 많은 도공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그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 옹기나 칠기를 만들거나, 전국에 산재한 도기나 자기공장의 직공으로

이천도자의 선구자
해강 유근형의
한국미술품연구소
(대방동가마) 시절
작업 모습



흩어졌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6·25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전쟁을 겪은 후에 민족 문화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고, 그와 맞물려 우리 도자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 움직임을 주도한 것은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설립된 ‘한국조형문화연구소’와 조각가 윤효중이 설립한 ‘한국미술품연구소’였다. 이 두 단체는 우리 도자의 전통을 복원하고 계승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것을 완성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단절된 전통을 되살리기 위한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국조형문화연구소’는 성북동에 위치하여 ‘성북동가마’로 불렸으며,¹ ‘한국미술품연구소’는 대방동에 위치하여 ‘대방동가마’라는 명칭으로도 알려져 있다. 성북동가마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연구소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었고, 우리 도예의 전통을 계승하여 발전시키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에 반해 대방동가마는 도자기 생산을 통한 수익창출이 목적인 기업의 형태였고² 성형부·조각부·소성부 등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전승도예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장인들은 대부분 이곳 출신이다.

‘성북동가마’와 ‘대방동가마’는 우리 도자의 전통 계승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

1) ‘성북동가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신상호, 『한국도예』, 홍익대학교 도예연구소, 1996, 33~34쪽.

2) ‘대방동가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신상호, 『한국도예』, 홍익대학교 도예연구소, 1996, 35쪽.

미를 갖는다. 안타깝게도 시대적 한계와 자본의 미흡 등으로 길게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우수한 도자기 장인들을 집결시키고 뜻을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두 가마는 한국 전승도예의 현대적 출발점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천도자기의 시작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방동가마라 할 수 있다. 대방동가마의 주 생산품은 청자였으며, 백자와 분청사기도 부분적으로 제작하였다. 그들이 제작한 작품들은 1956년 12월에 동화백화점 화랑에서 ‘제1회 도자공예전’을 통해 발표되었다. 이 전시는 아마도 우리나라 최초의 도예전시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듬해에 또 한 차례의 전시를 개최하였으나, 안타깝게도 경영난으로 설립 2년 만에 문을 닫았다. 또다시 대방동가마에 모여들었던 장인들은 흩어지게 되었고, 그들 중 몇몇이 이천에 내려와 뿌리를 내림으로써 이천도자기가 비로소 시작되었다.

2. 전승도예의 중심이 된 이천

1) 도자장인들의 유입과 칠기가마

오늘날 이천은 한국을 대표함은 물론 세계적인 도자기 도시로 발전 중이다. 불과 60여 년의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변화이다. 1950년대 말부터 도자 장인들이 하나둘 이천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이천도자기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처음 이천에 정착한 도예인들의 삶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도자기 수요가 미미했던 시대였으므로 매우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작업을 이어갔다. 그럼에도 그들이 도자기 작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도자기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전후에 모든 분야가 열악하긴 했지만, 제작환경이 영세하고 미흡했던 시절에 도자기를 제작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이후 도자의 수요가 급증하는 일련의 사회적 변화가 없었다면, 이천도자기의 발전도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는 이천도자기의 시대를 만들었고, 오늘날로 이어지는 결과가 되었다.

평주요 초창기 칠기가
마와 도공들(1960년
대 초)



신둔면 남정리의 칠기
가마(1960년대)



이천 관내 요업공장 현황¹⁹⁵⁵

공장명	소재지	대표	공장명	소재지	대표
신둔토기공장	신둔면	이현승, 高長根	백사토기공장	백사면	朴氣淳
신둔토기공장	신둔면	韓寅錫	마장토기공장	마장면	黃龍善
검호토기공장	장호원읍	鄭炫永	마장토기공장	마장면	金基榮

출처 : 이천시지편찬위원회, 『이천시지』 5권, 2001.

대방동가마의 장인들은 왜 이천으로 내려오게 되었을까? 대방동가마가 문을 닫음으로써 그곳에서 근무하던 도자장인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아 흩어졌고, 그들 중 몇몇이 도자기 작업을 지속하기 위해 모색하다가 이천으로 내려오게 된다. 이천은 이

미 삼국시대부터 토기를 만든 흔적이 나오고, 조선시대에도 백자 요장이 존재하였지만 도자기의 집산지는 아니었다. 조선 말기 백자의 쇠퇴와 함께 일반용기로 인기를 얻었던 칠기요장들과 옹기요장이 존재하는 정도였으나, 칠기요장의 경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칠기를 생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칠기요장이 보유하고 있던 칠기가마는 도자기를 소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대방동가마에서 나와 도자기 작업을 지속하고자 했던 장인들에게는 바로 활용 가능한 시설이었다.

도자기 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설은 바로 도자기를 소성할 수 있는 가마였다. 도자기 성형과 관련된 시설은 어디에든 갖출 수 있으나, 도자기 소성용 가마를 짓는 일은 기술적으로나 비용적인 면에서 쉬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우수한 칠기를 소성하는 가마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장인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요소였다.

당시 이천에는 2기의 칠기가마가 운영되고 있었다. 칠기는 도자기와 옹기의 중간 정도 수준의 광택이 있는 그릇으로서 가격이 저렴하므로 상당히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당시 이천으로 내려온 대표적인 도자장이었던 해강 유근형의 회고에 의하면 “당시 칠기가마는 두 개지만 점주가 네 사람이라 한 달에도 뺄질나게 5~6차례씩 굽기 때문에 …… 또 6·25사변 이후에 칠기가 세월이 있어 선돈을 내고 기다려서 그릇을 가져가는 상태여서 제법 활기가 있는 듯 했다”³고 한다. 칠기가마의 활기는 도자기를 구울 수 있는 가마를 제공함은 물론, 칠기를 빚는 장인들의 일자리가 제공되었으므로 도자산지로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칠기가마를 이용해 자기를 구워낼 수 있다는 장점이 대방동가마의 장인들이 이천으로 내려오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다.

칠기는 백자보다 질이 떨어지지만, 값이 싸고 자기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요가 꾸준하였고, 1960년대 초반까지 활발하게 제작되었다. 칠기가마에서 일하던 장인들 중에는 이후 도자기 제작의 핵심 기술자들이었던 고승술·이현승·홍재표·고영재·이정하·안동오 등의 도공들이 포함되었다.⁴ 칠기를 제작하던 장인들은 사실 이전에 백자를 제작하던 장인들이 전환한 경우가 많았다. 칠기가 백자

3) 이천문화원, 『이천도예촌』, 1994, 29쪽에서 재인용.

4) 이천문화원, 『이천도예촌』, 1994, 30~31쪽; 신상호, 『한국도예』, 홍익대학교 도예연구소, 1996, 53쪽.

가마에 불을 지피기 전
가마고사를 지내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모습
(고려도요, 1970년대 초)



와 유사한 기술과 기법으로 제작되었으므로 칠기의 수요가 늘자 자연히 칠기장인으로 전환했던 것이다. 이후 칠기를 제작했던 장인들은 다시 자기를 제작하는 핵심기술자들이 되었다.

2) 전승도예의 뿌리를 이천에 심은 장인들

도자기 고장 이천의 생성 배경에는 이처럼 칠기가마의 활성화가 있었다. 1차로 고명순 · 김완배 · 지순탁이 내려와 수광리 칠기가마에 합류했고, 윤석준 · 박수만 · 현무남 등이 뒤따라 내려왔으며, 이듬해에 유근형도 수광리로 내려왔다.⁵ 이들이 이천에 내려와 자리를 잡게 된 것은 당시에 호경기였던 칠기가마에서 일할 수 있는 동시에 칠기가마 시설을 이용해서 자기를 구워 시험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초에 칠기가마의 호황과 함께 일어났던 변화는 도자산지로서의 필요충분조건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전승도자의 붐을 주도함으로써 이천이

5) 신상호, 『한국도예』, 홍익대학교 도예연구소, 1996, 53쪽; 이천문화원, 『이천도예촌』, 1994, 29쪽.

도자기의 최대 산지로 자리 잡는 기틀이 되었다. 당시의 장인들은 칠기가마를 이용하여 분청사기와 청자·백자 등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때마침 칠기가 쇠퇴하자 모두 자기가마로 변신하게 된다.

초창기 주요 요장들의 설립과정을 살펴보자. 1958년에 홍재표가 지순탁·고영재와 손을 잡고 부친이 경영하던 칠기가마 자리에 수금도요水鎭陶窯를 열고 자기 생산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곳에는 현무남·김홍준·서인수·이종렬·박부원 등이 함께 일했다. 수금도요는 1963년에 당시 제일교포로 일본을 왕래하던 조소수가 인수하여 이름을 광주요로 바꾸었으며, 본격적으로 도자기를 제작하였다. 수금도요에 있던 지순탁도 독립하여 고려도요를 설립하였으며, 유근형은 1960년에 아들 유광렬과 함께 해강고려청자연연구소를 설립했다. 이어서 방철주가 고영재를 공장장으로 동국요를 설립했으며, 1965년에는 신상호가 이현승의 칠기가마를 인수하고 다음 해에 정규가 운영하던 남정리의 가마도 인수하여 도방요를 세웠다.

3) 전승도예의 중심, 이천

1960년대 초에 이처럼 여러 요장들이 설립됨으로써 전승도자기 붐의 기반이 다져졌지만, 초창기 도자장인들의 환경은 매우 열악하였다. 수요가 많지 않아 경기가 좋은 형편도 아니었고, 시설이 영세하고 재료의 수급과 기술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그러한 상황에 반전을 제공한 것은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로 인한 일본관광객의 유입이었다. 한일협정 체결로 일본인들의 한국방문이 자유롭게 되고 우리의 전통 도자기를 선호했던 일본관광객들이 몰려오면서 전승도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수요의 증가는 이천에 자리 잡은 요장들을 안정시키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으며, 향후 이천도자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60년대의 요장 발전의 중심에는 유근형·지순탁·조소수 등이 운영하던 요장들이 있다. 유근형은 해강요를 설립하여 고려청자를 완벽하게 재현하여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켰으며, 지순탁 역시 고려도요를 설립하여 우리 도자의 맛과 멋을 잘 살려내는 뛰어난 감각과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전승도자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광주요 설립자 조소수는 일본 시장



신둔면 수광리 옛 해강고려청자연구소(1973)

초기 이천도자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장인 홍재표
(1970년대 초)



대한민국 공예부문 명장 김세용의 세창도예연구소 시절(1978)



을 개척하고 일본인 관광객들이 이천으로 몰려오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함으로써 이천도자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된다.⁶ 이들은 요장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여러 도공들을 양성함으로써 이천도자의 토양을 튼튼하게 했다. 그리고 칠기장인으로 출발했던 홍재표·이정하·고영재 등과 이천에 정착하여 활동했던 고명순·김완배·김종호·김문식·현무남·윤석준 같은 장인들이 전승 도예의 발전과 확산에 큰 몫을 담당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⁷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이천도자 발전기에 도자의 양상은 어떠했느냐이다. 양식은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이들이 초창기에 추구했던 과업 중에 하나는 과거의 우리 전통도자를 재현하여 전승하는 일이었다. 전통의 맥이 끊겼기 때문에 일어난 당연한 현상이었다. 바로 우리의 옛 도자를 재현한 도자기들이 감상용 또는 선물용으로 관심을 받게 되었고, 일본인 고객들에게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다. 일본인 고객들은 고려청자 또는 조선백자의 아름다움에 대한 선호가 매우 컸다. 따라서 이천의 도자발전과 함께 생산되었던 도자의 양식은 고려청자와 조선백자의 재현에 맞추어졌던 것이다.

이천도자기의 전성기는 1970년대와 1980년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계속되는 수요의 증가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양적·질적 성장을 보였다. 일본관광객뿐만 아니라 국내수요까지 증가하면서 호황을 이루었다. 아마도 유사 이래 우리 도자기시장이 이렇게 호황을 누렸던 적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런 영향으로 1970년대부터는 타지역의 도예인이나 지방생들이 이천으로 모여들어 도자기 업체 종사자들이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고려도요·해강요·광주요 등 대표적인 요장은 많은 장인들을 고용하여 규모가 커지고 동국요 등 새로운 요장이 생겨남으로써 1960년대에 비해 도예인의 수가 몇 배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전통도자기에 대한 수요는 1980년대 후반까지 계속 증가했다. 그러자 유명 요장에서 경력을 쌓은 장인들이 하나둘 독립하여 새로운 요장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해강요 출신으로는 이연휴·여천요·김종호·송월요·김복한·한청요·엄기환·해주요·이기휴·부림요·양명환·청진요·광주·이정수·비봉도요·안성 등이 있으며, 광주요 출신의 이은구는 청과

6) 조소수와 관련된 내용은 신상호, 『한국도예』, 홍익대학교 도예연구소, 1996, 54쪽.

7) 이천문화원, 『이천도예촌』, 1994, 31쪽. 이인수가 작성한 이 글에서 이천도예촌 형성의 공로에 대한 의견들 참조.

요를 열었고, 고려도요 출신인 서광수는 한도요를 열었으며, 같은 고려도요 출신인 박부원과 이광은 이천과 인접한 광주에 각각 도원요와 백담도요를 설립했다. 수광도요의 임항택은 향산요를 열었고, 도방요에서 일했던 김세용은 세창도요를 설립하여 자신의 작품세계를 개척하였다. 그밖에 방철주의 동국요, 김정묵의 한국도요, 한보란의 삼보요가 설립되었다.⁸

1980년대 중반까지는 전승도자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여 절정기를 맞았다. 공급이 수요를 받쳐주지 못할 정도였으므로 신규 요장이 계속 증가하였고, 도예인의 수도 따라서 증가하였다. 1960년대 말에 5개에 불과했던 요장이 1970년대 전반기에 4개소가 늘어났고, 1976년부터 1980년까지는 18개소가 늘어났다. 1981년부터 1985년까지는 무려 26개의 요장이 새로 문을 열었고, 1986년부터 1988년까지 2년 사이에 무려 27개의 요장이 새로 문을 열었다.⁹

이렇게 요장수가 급증한 것은 폭발적인 수요의 증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지만, 초창기 요장의 성공적 운영과 거기에서 기술을 익힌 숙련된 장인들이 배출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1970년대 중반에 가스가마가 공급되면서 소성이 용이해졌고, 전기물레, 토련기 등 시설과 장비가 현대화되고 재료의 공급이 분업화됨으로써, 숙련된 장인이라면 독자적으로 요장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요장 설립이 쉬워진 탓도 있다. 아마도 1980년대는 이천도자기 역사상 가장 좋은 경기를 누렸던 시기일 것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그 정점이었다고 도예인들은 회상한다.

4) 이천도자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모색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기 마련이다. 정점은 곧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대의 변화는 도자기의 전성기를 계속 유지시켜 주지 않았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의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애호가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한국도자기 붐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국내수요도 각종 수입명품들이 등장하고 백화점들의 선물 마케팅이 이루어지면서 도자기가 차지했던 시장의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결국 수요와 공급

8) 경기도자박물관, 『경기근대도자100년의 기록』, 전시도록, 2011, 48쪽.

9) 이천문화원, 『이천도예촌』, 1994, 32쪽.

이 반전되기 시작했다. 수요는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공급은 한껏 늘어나 있었기 때문이다. 요장들은 자구책을 찾기에 급급했고, 가격을 지나치게 내려 판매하거나, 가마재 중간상인에게 넘겨주는 일종의 덤핑이 성행하였다.¹⁰ 기술이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너도나도 요장을 개설함으로써 품질이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전승도예의 특성상 오랜 숙련을 필요로 하는 기술습득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생산에 급급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요의 감소, 사회적 변화, 급격한 공급의 증가에 따른 질적 하락 등 모든 면에서 하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1980년대의 호황의 여파가 남아 있었다. 수요가 감소하였지만, 그래도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던 요장들은 잘 유지를 해 나가고 있었다. 다만 1980년대 같은 호황국면이 이어지지 못했을 뿐이다. 그러나 1980년대의 호황은 몇 가지 부작용을 낳았다. 그 부작용의 중심에는 상업주의의 범람이 자리 잡고 있다. 아무리 격조 높은 도자기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도 판매가 없이는 운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오로지 판매만을 목적으로 도자기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으로써 마구잡이식 대량생산을 초래했고, 수요가 줄어들자 소위 가마떼기 같은 덤핑행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편에서는 지나치게 가격이 비싸고 한편에서는 덤핑이 판을 치는 이러한 현상은 애호가들에게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전승도자의 침체를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

1990년대는 이전 30여 년 동안 진행되어 온 이천도자의 눈부신 발전이 주춤한 시기였다. 그것은 사회문화적 변화와 수요의 감소 등 외부요인에 따른 것도 있지만, 도예계 자체의 문제인 내부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보다는 품질을 저하시켜 가격을 내리는 상업주의가 만연하고, 시대미감을 반영한 새로운 창작의 길을 모색하기보다는 카피에 안주함으로써 전승도예에 대한 인식을 안 좋게 만들었다. 이천도자기가 점차 어려운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는 인식은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어졌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로 탄생된 것이 ‘이천도자기축제’ 행사라 할 수 있다. 물론

10) 신상호, 『한국도예』, 홍익대학교 도예연구소, 1996, 103~104쪽. 신상호는 1980년대 전승도자에 대한 문제점과 반성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이천문화원 주관 설봉문화제의 일환으로 시작된 제1회 도자기축제(1987, 왼쪽 설봉문화제 포스터)와 독립적인 행사로 처음 시작된 제9회 도자기축제 개막식

이천도자기축제의 시작은 이미 1987년 가을 9.28~10.9에 12일간 제1회 설봉문화제의 일부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1995년 이천도자기축제가 순수한 도자기축제로 독립하기 전까지는 20여 개의 도자기 요장들이 소규모로 참여하는 정도였다.¹¹⁾

1990년대 중반이 되면 이미 도자기시장이 발전을 멈추고 소강상태로 접어든 상황이었다. 영원히 호황을 누릴 것 같았던 도자기시장이 점차 활기가 떨어짐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었다. 여러 요장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일본 관광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요를 개척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나게 된다. 도예인들은 도자기협동조합을 결성하고 독립적인 도자기축제를 개최하게 된다.¹²⁾ 그것이 1995년 가을에 개최한 제9회 이천도자기축제이다.

이천도자기축제의 발전과 관련하여 1995년 제9회 이천도자기축제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였다. 설봉문화제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인 축제를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지원 받아 행사의 규모와 내용면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천문화원의 역할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천문화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문화체육부 관광국을 설득해 도자기축제를 문화체육부 시범행사로 지정하도록 하였고, 도자기축제가 독자적인 행사로서 국내를 대표하는 지역축

11) 이천도자기축제의 발전과정에 대해서는 『이천시지』 5권 9장 「도예문화」 3절 도자기축제(이인수, 이천시지편찬위원회 상임위원)의 글에 회차별로 상세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12)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의 설립과 도자기축제의 독립적 개최 부분에 관한 내용은 이대영 도자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의 증언에 따른다.

제행사로 발전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것은 도자기협동조합 설립 이전에 이미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의 역할을 문화원에서 주도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¹³⁾

이천도자기축제는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제로 여러 차례 선정된다. 도자기축제는 단순히 지역의 특산물을 소개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도자문화라는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도예인들이 창작해 낸 다양한 도자예술품을 선보이는 장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축제 기간 동안 매출도 많이 올라 참가 도예인들에게는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었다. 도예인들은 작업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축제장에서 고객과 직접 대면하면서 작품에 대한 고객 반응도 알게 되고, 축제장을 통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천도자기축제는 여타의 지역축제와는 차별화된 내용으로 전개되었으며, 이천도자기축제의 활성화는 이후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 개최의 도화선 역할을 하였다.

3. 이천도자기의 도약과 비전

1) 이천도자기의 새로운 전환점,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

전승도자의 침체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지만, 한편에서 이러한 상황에 반전을 줄 대대적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도자기축제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적인 도자기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났다. 그러한 희망은 이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경기도까지 전달되어 ‘세계도자기엑스포2001경기도’라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13) 제9회 이천도자기축제의 주최는 이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였으며, 이천문화원과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주관했고, 축제의 실무 역할은 이천문화원이 담당하였다. 당시 초대 조합장은 청파요를 운영하던 이은구 씨였으며 문화원장을 겸직하고 있었다. 9회 때부터 처음으로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았으며, 문화체육부를 설득하여 예산 지원은 물론 문체부 시범행사로 지정받았다. 이천도자기축제의 괄목할만한 성과에 고무되어 이듬해인 1996년부터 가능성 있는 지역축제를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도자기축제를 포함한 8개의 축제를 선정해서 발표하였다(이인수 당시 이천문화원 사무국장 인터뷰 요약).



‘세계도자기엑스포2001경기도’의 마스코트인 토야를 넣은 축제 포스터(왼쪽)와 개막식에서 도자 불씨 점화행사를 진행하는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호 여사

‘세계도자기엑스포2001경기도’ 행사는 우리나라 도예계의 일대 사건이었다. 전 세계 84개국의 도예가들이 참여하였으며, 600만 명의 관람객 방문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다.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는 단순히 많은 관람객을 유치한 행사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행사를 기점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엑스포 행사의 주요 성과와 엑스포 행사로 인한 향후 변화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할 것이다. 참고로 필자는 세계도자기엑스포 당시 전시분야를 총괄하는 디렉터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다.¹⁴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는 경기 동부지역이 이천을 중심으로 이미 도자기 고장으로 특화되었기 때문에 구상이 가능했던 행사였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중국과 함께 도자기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1세기 도자문화와 산업을 이끌어갈 선도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행사였다. 이 행사의 성과를 논하기에 앞서 그 의미를 설명하자면 매우 장문의 글이 필요하지만, 이 행사를 계기로 선포했던 도자선언문에 그 내용이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14)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세계도자기엑스포2001경기도 백서』(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 편, 2002)를 참조했다. 이 백서에는 엑스포 행사 준비과정부터 결과에 이르는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산업기술은 인류에게 많은 것을 주고 또 많은 것을 빼앗아 갔다. 하지만 흙과 인간의 손으로 빛나는 도자의 기술은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편하고 아름다운 삶을 창조해 내는데 기여해 왔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지난 도자문화를 되돌아보고 새천년의 기술문명이 나아갈 지평을 밝히고자 '흙으로 빛나는 미래'를 주제로 '세계도자기엑스포2001경기도'를 개최한다.¹⁵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는 2001년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80일간 개최되었다. 이 행사의 모토는 인류가 빚어낸 도자문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명하고, 도자기를 통한 세계인의 창조적인 교류의 장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었다. 시대별·대륙별·장르별로 도자기의 문화·예술, 그리고 도자기와 생활을 총체적으로 조명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는 한국의 도자기, 특히 이천도자기를 세계에 알렸고, 이천도자기를 전 국민이 인식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이천을 명실상부한 한국을 대표하는 도자도시로 인식시켰다. 1조 2,000억 원이라는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함은 물론 도자기류 매출액도 약 780억 원으로 추정되었는데, 이 행사로 인해 많은 도예인들이 엑스포 특수를 크게 누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의 성공은 이천 도예계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주었다. 전승도자 위주의 요장 구성에서 생활도자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대학졸업자로 이루어진 젊은 도예가들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주로 공방생산방식의 생활자기를 생산했으며,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방식을 비롯한 다양한 기법으로 작업하면서 예술과 생활이 접목된 실용적인 도자기를 제작했다. 즉, 전에는 아주 미미하던 생활 및 실용도자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승도자분야는 엑스포 행사를 전후한 시기에 특수를 누렸을 뿐 침체가 오히려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전승도예를 추구하던 도예가들 중에는 엑스포가 전승도예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엑스포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전승도예는 이미 88올림픽을 기점으로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수요의 감소가 더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1980년대 우후죽순처럼 설립되었던 요장들

15) 도자선언문은 이천행사장에 새겨져 보관되어 있으며, 『세계도자기엑스포2001경기도 백서』에 수록되어 있다.

제2회 세계도자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이 전통가마 앞에서 도자시유를 체험하는 모습(2013)



대다수가 폐업했으며, 그들 요장의 자리는 실용자기를 제작하는 젊은 도예가들에 의해 채워졌다. 따라서 엑스포 이후 이천도예계의 가장 큰 변화는 전승도예가들 중 가장 핵심적이며 탄탄한 실력을 기반으로 하는 도예가들 위주로 재편되었다는 점과 대다수의 요장들이 전승에서 생활로 옮겨갔으며, 외부에서 유입된 젊은 도예가들로 채워졌다는 점이다.

2)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와 이천도자기축제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는 세계 도자기 역사상 최대 규모의 행사로 치러졌고, 그 파장은 전 세계 도예인들에게 미쳤다. 한국도예의 위상이 올라가고 국민들의 의식 속에도 이천도자기에 대한 인식이 매우 견고하게 각인되었다. 2004년 한국도자재단에서 최초로 실시한 도자 관련 통계자료인 도자센서에 의하면 90% 이상의 국민들이 이천도자기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세계도자기엑스포는 1회로 마감되는 행사여서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 행사였다. 그래서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의 의미와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를 계획하게 된다. 엑스포 행사 속에 제1회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를 동시에 기획해서 병행함으로써 엑스포 행사 이후에도 계속적인 국제행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비엔날레 행사는 2년마다 도자기축제와 병행해서 개최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다. 국제행사로서 해외의 우수한 도

예작품들을 매회 선보임으로써 우리 도자가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했다.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이천도자기축제와 비엔날레 행사는 도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우수한 도자작품 관람을 통해 안목을 높여줌으로써 도자기 수요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천도자기축제는 국내의 수많은 축제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행사로 최근에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2018년 32회를 앞두고 있는 이천도자기축제의 발전 과정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초창기 설봉문화제와 함께 개최되던 시기를 태동기라고 볼 때, 조합이 결성되고 단독 축제로 독립했던 9회 때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해서 국내의 대표적인 축제행사로 발돋움하는 2000년 14회까지를 성장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와 함께 개최된 15회부터 2007년 제4회 비엔날레와 함께 개최된 21회 행사까지가 가장 왕성한 매출이 일어나고, 양적·질적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인 전성기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후 더 이상의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쇠퇴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전체적인 행사의 기획력이나 참여 요장들의 전시 수준과 다양성 등에서는 현저한 발전을 보였음에도 축제의 성장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11년 조합 주관으로 2001년 이후 10년간의 행사를 돌아보고 미래 10년을 준비하자는 취지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토론회에서 논의된 행사의 미성장 요인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이 지적되었고, 세계도자기엑스포 성공 이후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유사한 행사양식을 반복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수많은 축제가 생기고 축제공화국이란 말이 나올 정도여서 축제에 대한 인식과 인기가 떨어졌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제 이천도자기축제는 한 세대가 바뀌는 30년을 넘어 32회를 맞고 있다. 2018년부터는 신문면에 새롭게 조성된 이천 도자기예술촌인 에스파크藝'S Park로 행사장을 옮겨 개최한다. 아마도 장소가 바뀌고 행사성격도 바뀔 것으로 예상돼, 또 한 번의 모험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험을 감수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이천시가 의욕적으로 개발하여 완성단계에 있는 에스파크가 국내 유명 관광명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도자기축제와 결합한 홍보마케팅도 매우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이천도자기축제 연도별 현황

단위 : 개소 · 명

회차	연도	날짜 (일수)	장소	참가 요장	관람 객수	비고
1	1987	9.28~10.9 (12일)	설봉호텔행사장	25	70,000	설봉문화제
2	1988	9.13~10.2 (12일)	이천민속도예촌	22	70,000	"
3	1989	9.24~10.2 (9일)	중리천 복개지	20	100,000	"
4	1990	수해(水害)로 행사 취소				
5	1991	10.2~10.10 (9일)	온천광장	22	120,000	설봉문화제
6	1992	10.2~10.10 (9일)	"	21	180,000	"
7	1993	10.2~10.10 (9일)	"	21	210,000	"
8	1994	10.1~10.9 (9일)	"	28	450,000	"
9	1995	9.30~10.9 (10일)	"	54	530,000	문체부 시범행사
10	1996	9.6~9.22 (17일)	"	116	854,000	전국 8대 관광축제
11	1997	9.26~10.5 (10일)	"	122	957,000	전국 10대 관광축제
12	1998	9.18~9.27 (10일)	"	130	980,000	문광부 집중지원 5대축제
13	1999	9.8~9.19 (12일)	설봉산 및 도예촌 일원	169	1,023,000	문광부 집중지원 6대축제
14	2000	10.10~10.22 (13일)		138	905,000	"
15	2001	8.10~10.28 (80일)	설봉공원 EXPO 단지	184	3,065,007	2001세계도자기엑스포
16	2002	9.6~9.29 (24일)	"	173	512,960	
17	2003	9.1~10.30 (60일)	"	177	2,443,878	제2회 세계도자비엔날레
18	2004	9.17~10.10 (24일)	"	127	659,240	
19	2005	4.23~6.19 (58일)	"	178	2,533,630	제3회 세계도자비엔날레
20	2006	4.21~5.14 (24일)	"	138	1,271,480	
21	2007	4.28~5.27 (30일)	"	172	2,521,000	제4회 세계도자비엔날레
22	2008	5.10~6.1 (23일)	"	162	1,900,439	
23	2009	4.25~5.24 (30일)	"	156	1,553,394	제5회 세계도자비엔날레
24	2010	4.24~5.16 (23일)	"	143	1,008,251	
25	2011	9.24~10.23 (30일)	"	157	1,109,754	제6회 세계도자비엔날레
26	2012	4.28~5.20 (23일)	"	137	166,767	
27	2013	9.27~10.20 (24일)	"	155	111,052	제7회 세계도자비엔날레
28	2014	8.29~9.21 (24일)	"	116	328,244	
29	2015	4.24~5.17 (24일)	"	129	435,809	제8회 세계도자비엔날레
30	2016	4.29~5.22 (24일)	"	122	448,252	
31	2017	4.28~5.14 (17일)	"	121	417,566	제9회 세계도자비엔날레

3) 이천도자의 새로운 비전 - 유네스코 창의도시와 도자산업특구, 그리고 에스파크

되돌아보면 이천도자기 60년의 역사는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의 태동기를 거쳐 1970년대의 성장·발전, 1980년대의 폭발적인 수요에 의한 전성기를 구가함으로써 이천 전승도자시대의 한 사이클이 완성되었다.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는 이천도자기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으며,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의 정착과 이천도자기축제의 발전은 이천이 도자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국제적으로 알려지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아직도 이천이 세계적인 도자도시로서의 명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21세기 들어 사회문화적 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도자기는 그 속성상 아날로그적인 미적세계를 보여주는 분야이다. 그렇다고 도자기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한 사회와 문화 속에서 사라져가는 항목은 절대 아니다. 산업도자가 사양길로 접어들었지만, 공방도자의 수요는 차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1세기 들어 도자기시장의 상황은 급변했다. 상품의 성격을 시장이 결정하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음식문화의 변화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이천도자기의 경우 전승도자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실용도자의 비중이 현저히 늘어나는 현상을 보인다. 이것은 자연스런 시대의 흐름이고 요구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전승은 매우 가치 있고 의미 있지만, 대량으로 소비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통문화의 정수를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도예가들의 몫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간의 급격한 수요의 감소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향후 인정받은 전승도예가들에게 더 좋은 시장환경이 주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현대 생활도자의 영역은 아직도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대학에서 조형교육을 받은 많은 젊은 도예가들이 이천에 유입됨으로써, 이천은 새로운 도자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다. 현대성과 조형성, 그리고 전통적인 요소들을 바탕으로 생활식기 또는 실용도자기를 만드는 작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그러한 현대적 느낌의 공방도자를 선호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예술적인 생활도자의 발전 가능

이천도자예술마을 '에스파크' 상징 조형물(출처: 프리로드 블로그)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된 이천시(2010)

성은 아직도 많은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전승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이천 도자기는 이제 전승과 현대, 예술과 생활이 어우러진 종합적 성격의 도자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전승이라는 뿌리와 현대라는 줄기, 그리고 예술과 생활이라는 가지와 잎이 잘 조화됨으로써 이천의 도자기는 보다 가치 있고 품격 있게 발전되어 가리라 생각된다.

이천시가 그동안 추구해 온 여러 가지 정책은 큰 방향에서 시대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도예공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에스파크의 설립이라든지, 도자산업특구 선정,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파리의 메종오브제 참여, 이천도자기축제의 민간 이양, 홈페이지블데코 행사와 함께 개최하는 아이세라페어 등 여러 사업들이 현재의 문화적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고 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 그리고 세계적인 도자기 도시로서 이천의 정체성을 더욱 발전시키고 세계 여러 나라와의 문화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간다면 한국의 한 지방도시가 아닌 세계 속의 이천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The background is a light-colored map of Jeonju and the surrounding region, including Jeollanam-do and Jeollabuk-do. The map shows major roads, rivers, and administrative boundaries. Overlaid on the map are several thick, dark gray vertical bars of varying heights and positions. The text '02' is prominently displayed in the upper left quadrant.

02

이천도자기와
도예촌



최의광 | 이천문화원 이사, 공주대학교 겸임교수
김희정 | 자유기고가, 전 이천시·경인일보 시민기자

제2장 이천도자기와 도예촌

1. 이천도자기

1) 이천도자기의 유래와 성장¹⁾

이천의 도자기는 오래전부터 이천의 특산품으로 주목받아온 것이 도자기다. 과거 한때는 이천도자기의 명성이 이천쌀을 제치고 선두를 차지할 정도였다. 우리 민족에 있어 도자기 공예는 천 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신라 토기를 계승한 고려청자는 송나라의 영향 속에 성장하였으나 고려 고유의 기법인 상감기법이 가미되었다. 비취색과 세련된 형태의 고려청자는 고려 말 사회 변화 속에서 분청사기로 변화하였고,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소박하고 서민적인 백자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뛰어난 공예기술은 한말의 내외외환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그 전통이 단절되었고 쇠퇴의 길로 접어드는 듯하였다. 해방 후 역시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도자문화는 좀처럼 다시 회복될 기미가 없었으나 1960년대에 이르러 이천지역에서 다시 재생의 불씨를 지피게 된다. 이곳이 바로 신둔면 수광리의 도자촌이다.

처음 갖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문을 연 고려도요 · 광주요 · 동국요 · 해강고려청자연구소 등이 선두 그룹으로 출발하였다. 출발은 미미했으나 1975년까지만 해도 10개소 미만에 머물렀던 것이 1980년대 후반 82개소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

1) 이 글 내용 중 특히 2000년 이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천시지』(4권, 「제2절 도자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축약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1980년대 신둔면 수광리의 전통가마

년이 채 안 되는 사이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던 것이다. 1990년대에 이르면 양적 팽창이 더욱 가속화되어 1999년 초 이천 통계에 의하면 32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도예공방들은 90% 이상이 대체로 수광리를 중심으로 한 신둔면 일대와 사음동지역에 집중 형성되어 있어 양대 도예촌을 형성하고 있다.

이천도자기는 점차 국내 시장을 넘어서 해외로 그 영역을 넓혀갔는데, 일본을 비롯한 주변 여러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지역 도예인들의 역할과 열정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아야 하겠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초창기부터 묵묵히 작품활동에 열정을 바쳤던 유근형·조소수·지순탁 등 원로들과 이들의 뒤를 이어 활동한 많은 도예인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이어졌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들은 전통도예전승도예의 재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천도자기의 성가를 알리기 위해서 헌신해 왔다.

또 이천 도자산업 발전에 주목해야 할 것은 1987년부터 시작된 도자기축제이다. 이 축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성장하여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문화관광축제로 알려졌다. 1999년에 개최된 제13회 축제 때는 방문객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고 했는데 그중 외부 관광객수를 절반만 잡아도 50만 명이 방문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렇듯 도예촌과 도자기축제의 좋은 평판은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지 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도자기축제 개최는 지역경제나 문화발전에 영향을 준다고 보아야 한다. 도자기축제가 개최되고 이천의 도자기가 명성을 얻어감에 따라서 이천지역의 문화행사는 도예부분이 그 중심을 이루어가고 있다. 도자기축제 때 많은 관련 공연들이 이어지고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의 참여 기회도 늘어나게 되었다. 우리 지역이 문화도시라는 인식 속에 시민들의 자긍심이 생겨나게 된 것도 하나의 성과라면 성과이고 외부인들의 이미지에도 문화도시로서의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2)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와 세계도자비엔날레

꾸준히 발전해 오던 이천도자기축제는 2001년 경기도가 주최한 ‘세계도자기엑스포’를 계기로 또 한 번의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흙으로 빛나는 미래Shaping the Future with Earth’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 행사는 세계 80개국 이상이 참여한 세계적인 도자행사로서 다양한 도자 전시와 국제회의 및 공연 이벤트를 개최하여 한국도자예술과 도자산업의 획기적인 진흥 계기를 마련했다. 이 엑스포에서 이천은 주 전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수행하였다. 따라서 목표 관람객수도 600여 만 명으로 설정함으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 공식
개막식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 관람
객 500만 돌파 축하행사



로써 이천도자기축제와 세계도자기엑스포 모두 성공적 성과를 거두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지대한 것이어서 생산유발효과는 총 1조 2,000억 원이나 되었고, 고용유발효과는 약 4만 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² 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익 면에서 도자기 매출액은 약 780억 원으로 우리나라 가정용 도자기 생산액의 11%에 해당하며, 이천쌀밥집 등 지역경제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엑스포 특수효과를 크게 누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이천IC가 개통된 것도 엑스포를 통해 얻은 부수적 효과로 볼 수 있다. 도자축제는 지금까지 이천

2) 한국지역문화 이벤트연구소에서 편찬한 『지역이벤트』(2008, 커뮤니케이션북스 출판)의, 「한국최고의 도자기 축제로 지역을 활성화한 이천」 등 이천도자기 축제 관련 부분에서 축약 발췌한 것임을 밝힌다.

지역에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2003년 17회부터 이천도자기엑스포는 세계도자기비엔날레와 격년제로 동시 개최되고 있다. 2007년 21회까지의 관람객 현황을 보면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시기 300여 만 명으로 정점을 이룬 이래 250만 명 내외의 상향 안정선을 유지하고 있다.

도자기축제의 성공 요인으로는 한국관광공사나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잘 유도했다는 점, 도자기를 소재로 특화주제를 제시했으며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도예 요장들을 최대한 참여시켜 경제효과를 유도한 점, 도자체험관 설치 등 수요자 중심 환경조성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하여 수요자 만족도를 높인 점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성과에 따라 이천시는 2005년 6월에 도자특구로 지정되었다. 그러자 이제는 도자특구에 걸맞는 도자 관련시설의 집약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도자산업 클러스터가 어느 정도 완성되어가고 있다. 즉, 국내 유일의 도자 특성화고등학교인 한국도예고등학교를 비롯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이천분원}, 이천세라피아, 월전미술관 같은 전문 전시관과 연구기관들이 설립되었을 뿐 아니라, 공예 관련 창의적 인재^{대한민국명장 및 이천시 도자기명장} 발굴 및 육성은 또한 이천의 자랑거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3) 과제와 전망

이천의 도자기산업은 2000년대 접어들면서 화려한 외적성장 이면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 내수시장 쇠퇴와 수출 부진으로 도자산업이 침체되기 시작한 것이다. 운영비를 견디지 못한 대형업체들이 약화되고, 영세업체들이 소규모 요장을 운영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요장수는 줄지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침체되기 시작했다.³⁾ 특히 2010년대로 접어들면 서울의 도자기 판매상이었던 진

3) 이천의 경우 요장수에 큰 변화가 없으나 대형 요장들이 침체되었다 한다. 이천 및 인근 지역의 최근 도예 요장수 변화 현황은 표와 같다.(이천시, 『도자센서스』, 2015, 15쪽 및 이천시 신문면 수광리 박○○ 중언)

연도	이천	여주	광주	합계
2004	287	362	68	717
2006	274	315	71	660
2009	298	314	67	679
2015	298	321	57	676

이천시, 국내 최초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2010)



양상가와 남대문의 도자기시장이 불경기로 문을 닫았고, 부산의 중앙시장이나 대구 시장 등도 역시 수요자의 발길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천의 도자기업체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판로개척에 부심하였으나 열세를 면치 못하였다. 2010년대로 접어들면 문화관광부 등 외부지원에 있어서도 이천의 도자기축제는 쌀문화축제에 비해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한편 이천의 도자기산업 회복을 위해 이천시는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설정하고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이천의 도자산업은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도자기업체의 판로 쇠퇴는 이천의 도자기 판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따라 이천도자기 홍보를 위한 시청 문화관광과의 노력은 다양한 전략을 강구하기에 이른다.

우선 2010년대 초반부터 본격 추진된 국내 ‘박람회’를 통한 판매전략이 주목된다. 서울 코엑스를 비롯하여 부산·대구 등의 박람회를 찾아 이천의 도자기 전시판매공간을 확보하고, 이 비용을 이천시가 일부^{50%} 부담하는 것으로 판로를 열어 준 것이다. 이천의 다양한 업체들이 이 기회를 활용하고 있다. 또 이천시는 해외시장 개척에도 주력하여 프랑스 파리메종오브제에도 ‘I-CERA이천도자기’ 브랜드로 이천도자기를 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 뉴욕 컬렉티브 디자인페어²⁰¹⁷, 런던 컬렉트²⁰¹⁴,

중국 징더전 국제박람회^{2013~2016}에도 이천도자기가 세계인들을 유혹하고 있으며, 일본 세토 도기제^{2013~2017}에도 매년 참가하여 일본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그동안 찾아 오게 하는 도자기에서 이제 찾아가는 도자기로 판매전략의 근간을 바꾼 것이다.

2010년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이천시가 선정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한국에서는 7개 지역이 선정되었는데 이천은 민속공예-도자기공예-민속예술 : Crafts and Folk art 분야의 창의문화도시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선정되었다.⁴ 이천의 도자산업이 국내를 넘어 이제 세계인이 찾는 명품으로 발돋움하였음을 명실공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무엇보다도 최근 이천도자예술마을인 ‘에스파크^{ye's park}’ 조성은 국내외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 350억 원을 투입하여 기반공사를 추진하였고, 12만 3,000평의 공간에 공방 221개를 유치하였다.⁵ 국내 최대이며 아시아는 물론 세계 어디에 내놔도 전혀 손색이 없는 이 ‘에스파크’는 2017년까지 모든 공사가 완료 예정이며, 2018년부터는 이천도자기축제 행사장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⁶

그러나 전국적인 도자기 수요 쇠퇴와 이에 따른 시장감소는 이천 도자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을 근본부터 수정해야 하는 큰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천의 명품인 전통도자기가 쇠퇴하고 생활도자기로 변화해 가는 것도 문제이다. 요장수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내부로 들어가 보면 대형업체가 소멸되고 소규모의 영세업체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선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천 도자산업 발전을 위한 도자업체의 운영시스템이나 방법을 효율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대인들의 소비패턴은 빠른 유행을 추구하고, 트렌드에 민감하여 소비 주기가 짧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며, 1인 가구의 증가로 식생활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이천도자기는 다품종 소량생산을 추구함으로써 수요자의 다양한 디자인 요구에 부응하고, 인테리어 소품이나 오브제 등으로 도자의 쓰임새를 확대해야 한다.⁷

4) 이외에 부천(문학), 전주(음식), 서울(디자인), 부산(영화), 광주(미디어아트), 대구(음악) 등이 선정되었다.

5) 신둔면 도자예술로5번길 109 일원에 조성되었다.

6) 이천 도자산업 발전을 위한 이천시의 지원 정책 소개에는 이천시청 문화관광과 김○○의 자문이 큰 도움이 되었음을 밝힌다.

7) 이천 도자산업 발전을 위한 이천시의 지원 정책 소개에는 이천시청 문화관광과 김○○의 자문이 큰 도움이 되었음을 밝힌다.



이천도자예술마을 카페 거리 조감도

비록 이러한 방식이 도자산업 발전과는 역행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도도한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따라서 이천의 도자산업 발전전략을 근본부터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최의광 | 이천문화원 이사 · 공주대학교 겸임교수

2. 사기막골도예촌과 이천도자예술마을 ‘에스파크’

1) 이천도예촌 탄생 배경

사람들은 예로부터 무리를 지어 살았다. 마을이 형성되는 경우는 다양하다. 마을은 자연스럽게 형성되기도 하고, 씨족이나 자연지리적, 생태적 환경, 먹거리, 정치적인 조건 등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 가기도 한다.

이천시에는 도자기를 굽던 옛 가마터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천에서 도자기를 굽게된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고 이천의 도예촌 가운데 사기막골도예촌^{이하 사기막골}과 이천도자예술마을^{이하 예스파크}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사기막골’은 ‘도예’라는 공통점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마을이고, ‘예스파크’ 역시 ‘도예’를 시작으로 현재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천시에는 도자기를 제작하며 작은 마을을 이루고 산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⁸ 이천은 지석묘시대인 청동기시대부터 토기 제작이 활발했다. 1530년^{중종 25} 제작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이천도호부의 특산품으로 백옥^{白玉}과 도기^{陶器}를 들고 있다.

또 조선시대 이천에서 도자기를 제작했다는 근거를 뒷받침해 주는 5개 유적지가 있다. 관고동 사기막골, 마장면 해월리 사기실^{砂器室}, 마장면 해월리 점말, 모가면 산내리 마옥산, 마장면 관리^{冠里}의 가마골 등이다. ‘사기막골’에서는 문양이 없는 순백자 조각이 주로 출토됐다. 청화백자 파편도 눈에 띄었다고 한다. ‘사기실’은 조선 초기 백자편들이 널려 있었다. ‘점말’에서는 순백자와 석기^{石器}, 흑색이나 녹색 계통의 잡유 등 다양한 종류의 자기가 발견됐다. 또 산내리 ‘마옥산’ 기슭은 백자 파편과 사발·접시·주병 등이 출토됐고, ‘관리’에서는 막사발류와 백자편, 인화분청자편들이 출토됐다. 이러한 유적지에서는 모두 가마터가 발견됐다. 그밖에도 신둔면 수광리·지석리·남정리·도암리·장동리, 모가면 소고리, 백사면·현방리·점말·우곡리, 부발읍 신원리·효양산, 대월면 군량리, 설성면 행죽리, 장호원읍 오남리 등에 자기와 옹기, 칠기 등을 제작한 흔적이 있다.

이 사례는 조선 초기나 그 이전부터 이천의 도자기 제작수준이 뛰어났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뿐만 아니라 도자기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음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천의 도예마을이 변화를 겪은 시기도 있었다. 임진왜란 때 도공들이 일본으로 대거 끌려가고 조선 조정의 왕실용 도자기를 생산하는 사옹원 분원이 광주군에 자리 잡으면서 사기막골의 도공들이 차출된 것이다. 또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민족문화말살정책은 우리 전통도예의 단절과 이천 도예마을에 파장을 일으켰다. 그럼

8) 이천문화원, 『이천도예촌』, 1994.

에도 불구하고 이천 사람들은 한국전통도자의 맥을 이어갔다. 해방 이후 1950년대 말 신둔면⁹ 수광리 일대에는 칠기생산이 활발했고 그 후 수광리를 중심으로 민속 도자공예운동이 싹트기 시작했다. 해주 엄기환¹⁰ 도예가는 그의 자전적 에세이 『도자 혼 불꽃』 2006에서 어린 시절 칠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당시 도자기가 나오기 전에 옹기, 칠기는 우리네 생활용품으로 사용됐다. 칠기는 부엌에서 깨소금, 간장, 고춧가루 등 양념그릇으로 많이 쓰였다. 할머니와 나는 아궁이에 불을 땀 뒤 나온 재유약을 만들 때 재료로 사용했다를 지게에 담아 점촌지금 우 성김이 있던 자리에 가서 칠기와 바꿔왔다.

이천의 칠기생산이 호황이던 시절, 서울에서는 학계와 예술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신둔면 고척리 에스파크의 1990년대 모습
(1997)

9) 이정희, 『한국전통도자의 현황』, 『도예연구』 10, 이화여자대학교 도예연구소, 1988, 41쪽. 수광리에서는 1900년대 이전부터 칠기를 제작했다.

10) 엄기환(남, 1946년생)은 신둔면 수광리 출생으로, 신둔초등학교를 졸업했다.



로 한국 전통도예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었다.¹¹ 1955년 ‘한국조형 문화연구소 韓國造形文化研究所, 세칭 성북동가마’를 설립됐다.¹² 이 연구소에서는 백자를 비롯한 전통도자기를 재현하고 새로운 도자기를 제작했다. 이듬해 1956년 윤효중 조각가는 ‘한국미술품연구소 韓國美術品研究所, 세칭 대방동가마’를 설립했다. 두 연구소는 얼마 못 가 문을 닫았고 1958년 이후 당시 대방동가마에서 도자기를 제작하던 1급 도예가들이 일자리를 찾아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그중 몇몇은 이천으로 모여들었다. 수광리는 서울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했고 도자기를 구울 수 있는 칠기가 마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대방동가마에서 내려온 유근형·지순탁·조소수 등 우수한 도예인들이 도예소를 차리고 전통도자기 제조기법을 연구한 끝에 고려청자·조선백자·분청 등 한국 전통자기의 재현에 성공했다.¹³ 한편 이즈음 1965년 한일교

11) 이천시, 『이천도자』, 2006, 23쪽.

12) 1955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전통문화 연구기관이다.

13) 지정희, 『한국전승도자의 현황』, 『도예연구』 10, 이화여자대학교 도예연구소, 1988, 43쪽. 1988년 이천 일대에서 도자기를 만드는 도예가들 상당수는 이들 요장에서 근무했고, 2017년 현재까지 신둔면 일대에서 고려시대 청자와 조선시대 분청사기·백자 등을 재현하고 있다.

에스파크의 마을 신문
면의 1990년대 모습
(1999)



류협정으로 일본인의 한국 방문이 자유로워지고 일본인들의 우리 고려청자·백자 분청 등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승도자 생산이 활발해졌다.¹⁴ 또 1965년 당시 도예과 대학생이던 신상호 도예가가 이천에 마지막 남아있던 칠기가마(이현승 도예가 운영)를 인수하고, 비슷한 시기에 관화가 정규가 수광리에 등요를 축로하였으며, 현대 도예가인 강수화가 수광리에 가마를 마련하면서 이천은 각 대학 도예전공 학생들과 고등학교 요업과 학생들의 기능 연수와 작품제작을 위한 실습장 역할을 했다. 이렇게 대방동가마에서 내려온 도예가들과 그들로부터 도예기술을 배운 후세대 도예가들, 그 후 대학이나 요업계 고등학교에서 도예공부를 한 젊은 도예인들이 이천으로 계속 모여들면서 전통도자기는 물론 다양한 현대자기와 생활자기를 제작하는 도예촌을 형성했다. 이렇게 이천은 한국도자의 중심지가 됐다.

2) 이천 제9경 사기막골도예촌

사기막골은 지명에서 보듯 ‘도자기를 굽던 막이 있던 곳’이라는 뜻이며 ‘점뚝’이라고도 불린다. 사읍동에 위치한 사기막골은 설봉산이 아늑하게 감싸고 있다. 그래서 도자기를 제작하는데 꼭 필요한 흙과 가마부터 불을 때기 위한 나무, 도자기에 색을 내기 위한 유약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갖췄다. 3번국도변에 위치하여 중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다. ‘사기막골 도예촌’은 이천의 9경 중 한 곳으로 국내 유일의 도자전통시장이기도 하다. 1988년 이천의 도자요장 분포는 두 지역에 밀집되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곳이 사기막골이다. 당시 사기막골에는 13개 도자요장이 있었고, 2018년 현재 사기막골에는 요장 및 도자기 판매장이 총 50여 개 밀집해 있다.¹⁵

사기막골도예촌의 풍경과 사람들

조형물이 있는 입구를 지나면 구불구불한 곡선 모양의 넓은 길을 가운데 두고 양 쪽 길목마다 판매장과 요장이 줄 지어 있다. 판매장은 갤러리나 카페처럼 세련되

14) 이천시, 『이천도자』, 2006.

15) 지정희, 「한국전승도자의 현황」, 『도예연구』10, 이화여자대학교 도예연구소, 1988.

고 예쁘다. 판매장에는 음악이 흐르고 전통자기부터 현대 생활자기까지 다양한 도자기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사기막골에는 우리 전통도예의 맥을 잇는 도예가와 대한민국 이천 도자기 명장을 비롯한 전통자기의 장인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가마터를 놀이터 삼아 자란 토박이 도예가, 대학과 요업계 고등학교에서 도예를 공부한 도예가 등이 모여 작은 마을을 이루고 있다.

이곳에서는 작가들만의 독특하고 개성 있는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다. 단아하고 차분하고 웅골진, 예술성과 작품성을 겸비한 독특한 디자인과 조화로운 색으로 구워진 도자기 작품들이 눈길을 끈다.

천 년 전 고려청자의 빛깔을 탐구하며 도예 한 길만을 걸어온 도예가의 작품에서부터 이천에서 태어나 흙 놀이를 하고 전통가마에서 숭바꼭질을 하며 자란 도예가의 작품까지 다양한 이력을 가진 작가의 작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선과 색이 고혹적인 청자와 백자, 소박한 분청사기, 현대적이며 세련된 내열자기, 국빈방문 시 의전 선물용 도자기, 국보급 대우를 받고 있는 작품, 진사백자, 다완, 알록달록한 현대도자기, 고품격 다기茶器와 머그잔, 달항아리를 비롯한 전통항아리, 한식·양식·일식 등 식당에서 쓰이는 접시와 그릇, 생활자기와 똑배기, 품위 있는 인테리어 도자소품과 장식품, 태단지와 워머 등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갖춘 다양한 도자기가 반짝반짝 빛난다. 이곳에서는 도자기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제는 사라져가고 있는 전통장작가마의 모습도 볼 수 있고 도자기 물레체험교실도 있다. 도자체험은 미리 예약을 해두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사기막골은 우리나라 전국에서 도자기를 찾는 사람들로 언제나 붐빈다.

사기막골의 아침은 새소리로 시작된다. 이곳 판매장은 오전 9~10시쯤에 문을 연다. 도자기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곳도 있고, 부부가 함께 도자기를 직접 제작 판매하기도 한다. 또 도자기 작가와 인연이 닿아 판매를 하면서 도자기를 배우고 짬짬이 바리스타와 차, 가죽공예, 자수 등을 공부하는 직원도 있다.

봄이 오기 시작하면 이들의 일상은 분주하다. 판매장 앞에 화분을 장식하고 작은 화단마다 꽃을 심는다. 봄과 가을에는 판매장에 따라 신혼부부들을 위한 새로운 작품들이 진열되기도 한다. 따스한 봄이나 가을에 결혼식이 많기 때문이다. 이 무렵에는 모녀, 가족, 연인들의 방문이 잦다. 가을에는 이천쌀축제와 연계하여 축제를 한

이천9경 중 제9경인
사기막골도예촌



사기막골도예촌
도자기 판매장



청자 모양을 적용한
사기막골도예촌 분수



다. 겨울은 계절을 닮아 휴식을 취하는 듯 사기막골은 고즈넉해진다. 하지만 도예작가와 판매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쉽 없이 작업을 지속하며 새로운 판로를 모색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핸드폰과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고 택배로 도자기를 보낸다. 사기막골을 찾는 사람들은 말했다.

작은 마을에서 보물을 찾은 듯한 느낌이 든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도자기가 있는가 싶게 천차만별의 도자기가 숨어있다. 공방과 판매장 곳곳에 정말 다양한 도자기가 있다. 도자기를 구경하고 있노라면 시간가는 줄 모르겠다. 복잡한 도시에서 느끼지 못했던 여유와 아늑함, 사계절 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 좋다. 자연의 순리대로 조금 느리게 살아도 괜찮다고 위로해주는 마을이다. 눈이 하얗게 덮인 고즈넉한 사기막골의 겨울도 운치 있다. 마을의 중간쯤 느티나무 근처의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면 근사하게 나온다.

사기막골은 2017년 전통시장 특화거리로 선정됐다. 사기막골 주민들은 더 아름답고 살기 좋으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마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밤에도 환한 도자 거리를 위해 LED 가로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서이천IC에서 3번국도를 따라 도예촌까지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유도사인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주말에는 프리마켓을 열고 가을에는 축제를 하며 할인행사를 한다. 평소에는 휴식공간 및 공연장소로 사용하고 방학 때는 어린이와 청소년과 연인 등이 도자기체험을 할 수 있는 문화광장 개설 등을 모색하고 있다. 기다림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 새로운 도자 문화를 만들어가는 도예가 등으로 사기막골은 오늘도 분주하다.

사기막골도예촌 입주 공방 현황

연번	공방명	특징 및 소개
1	한국도예관	다양한 도자기 주문 제작 및 판매, 도예체험 공방 운영
2	휘	도자 인테리어 소품, 생활자기 가득한 갤러리 운영
3	승주도예	사기막골에 자리한 지 20여 년, 실용적 도자기 주문 제작
4	운공방	백자토를 사용하여 색상이 깊고 강도가 높은 도자기 주문 제작
5	가치	부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생활도자기 그릇가게'
6	도향원	고무신 신고 도자기를 만들던 시절의 멋이 있는 동산
7	백산도요	산과 자연을 소재로 작가의 스토리와 삶을 백자와 분청으로 표현
8	장휘요	1972년부터 청자 재현, 대한민국명장, 이천시 도자기 명장
9	다정도예	은은한 청자 및 생활자기 제작, 이천시 도자기 명장
10	유성요	백자 차 도구 제작
11	토루	전통 장작 가마로 굽는 옹기, 생활자기
12	정 담은 도자기	부엌 생활 용품 제작
13	토월요	청자 작품 전문, 생활자기 및 골프 트로피
14	동광도예	전통 고려 상감청자, 이조백자
15	식구기	인테리어 소품
16	태관도요	인테리어 소품
17	무아공방	생활자기, 다기세트, 인테리어 소품
18	해나온	소녀 감성을 작은 꽃으로 표현, 현대적인 컬러의 가벼운 그릇
19	라운 체험공방	물레체험, 나만의 도자기로 추억을 만드는 공방
20	이안	생활도자기를 만드는 공방
21	아침일찍	라꾸(Raku) 소성으로 제작한 독특한 작품, 인테리어 소품, 화분
22	소석도예	행복한 웃음을 나누는 소석(笑石) 작품
23	단고재	자연의 순수함과 전통의 깊은 맛을 담은 순수 전통자기
24	가마피	도예공방
25	붉은여우	가마의 불이 요변을 부리면서(여우 짓) 만드는 다양한 컬러의 그릇
26	금석도요	진사백자, 부영이 등 다양한 도자기 주문제작
27	가마가 텅 빈 날	도예가 김영기가 만드는 그릇
28	김성철 도예공방	김성철 · 최미숙의 흙 작업 공간
29	상민도예	청자와 분청, 도매전문, 요장 직영 운영

연번	공방명	특징 및 소개
30	그릇세상	이천 도자기 그릇 초대형 할인매장
31	현대공예	식당용 그릇 전문매장
32	토화담	삶의 이야기가 담긴 친근하며 음식을 돋보이게 하는 그릇
33	향토빛	고급 자기와 생활 소품, 차 도구와 작가의 만남
34	선수도요	가정용 및 식당전용 그릇 판매
35	이천도자기백화점	생활자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그릇 판매
36	세라믹하우스	백자 생활자기 및 작품
37	토관	간결한 디자인과 조화로운 색 추구, 실용성 갖춘 그릇
38	토미153	모던한 뚜껑배기를 만드는 도예공방
39	바오	생활도자기 공방
40	우치	예쁜 그릇과 독특한 소품이 가득한 공방
41	농담과토리	‘농담도예’ 와 ‘토리공방’ , 두 작업실을 함께 운영하는 그릇가게
42	도토리	흙 특유의 질감과 손맛이 있는 그릇, 머그컵, 펀칭 기법 사용
43	손소&KoHa	작가 3명이 만드는 소품과 액세서리
44	무경	밥상에 행복한 이야기를 담는 생활자기
45	품어	물고기를 모티브로 전통의 분청을 재해석한 현대적 생활도자기
46	명성도예	다기, 차 도구, 목기제품, 공방소품, 관촉물과 답례품 등 주문제작

3) 새로운 도자랜드마크, 이천도자예술촌 ‘에스파크’

에스파크Ye's Park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예산업을 한 곳으로 집적화한 국내 최대의 공예예술마을이다. 도예 및 공예인들이 자신만이 꿈꾸던 공방과 집을 짓고 생활하면서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 전시하고 판매한다. ‘에스파크’는 ‘도자 및 예술’이라는 공통주제로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다. 에스파크는 신둔면 고척리 일원 40만 7,000㎡ 광활한 부지에 도자공방·음악·미술·고가구·조각, 목공예·비즈·옷칠 등 총 221개 공방이 입주 예정이며, 2018년 5월 현재 70%가 입주했다.

전시·교육시설·체험학습시설·사립박물관·카페촌 등의 편의시설도 들어설 계획이다. 이밖에도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체험거리, 휴식과 힐링 공간 등이 마련될 예정이며 20층 높이의 호텔도 들어설 계획이다. 이러한 에스파크가 조

성되기까지 적지 않은 기간과 시간이 소요됐으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에스파크가 조성되기까지 배경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에스파크 설립과정

에스파크는 이천시와 이천시 도예인들의 오랜 숙원으로부터 시작됐다. 이천시는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이천도자기축제 등 각종 도자행사가 타 시군에 비해 많은 편이다. 그에 반해 특색 있는 도자관련 이미지가 미약하여 시는 자구책을 찾고 있었다. 또한 이천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요장은 일부러 찾아가지 않고서는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려웠고 영세한 도자업체들에게 도자기를 판매할 수 있는 판로와 홍보는 당장 해결해야 할 숙제였다. 또한 도예인들은 빠르게 변해가는 현대인의 도예 취향을 읽기도 어려웠다. 1990년대 IMF를 전후하여

이천도자예술마을
에스파크 조감도





에스파크 조성을 직접
점검하는 조병돈 시장
(2016)

도자산업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유럽 등의 고가제품, 동남아산 값싼 자기가 내수 시장을 잠식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도자산업 활성화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 문제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다. 이천의 도자산업은 국내 4대 산업클러스터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도자관련업체 1,845개 가운데 약 18%인 355개 도자업체가 이천시에 소재지를 두고 운영 중이다. 이천도자문화는 이천의 대표적인 문화 중 하나이며 이천지역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었다. 이에 이천시와 이천시도자기사업협동조합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영세 도자기업체를 비롯한 총 355개 도예업체를 한 군데로 집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도자관련시설연구·체험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유사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되고 경쟁력을 갖춘 도자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예문화단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취지에 힘입어 이천시는 2005년 이천도자산업 특구지역으로 지정받게 됐다.

하지만 에스파크 조성의 추진과정은 녹록하지 않았다. 적합한 땅을 매입해야 하

고 부지를 선정해야 했다. 설혹 부지를 선정했다 해도 허허벌판인 논밭과 하천이 흐르는 곳에 도로를 내고 건물을 올리는 것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 및 규제와 법을 알아야 했다. 수많은 난관에 봉착했으며 넘어야 할 산은 많았다. 의견 또한 분분해지기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중도에 멈추거나 포기할 수는 없었다.

에스파크에 대한 윤곽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던 2008년 12월 이천시와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은 에스파크 조성 공동추진을 위한 「이천도자예술촌 조성사업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에스파크 조성사업은 탄력을 받기 시작한다. 이천시도자기사업협동조합에서는 토지 매입대금 확보, 분양, 입주자 자격 및 모집 등 입주업체 유치 및 분양에 관한 제반사항을, 이천시는 토지보상비, 행정절차와 가스·수도 등 모든 도시기반 설치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천시도자기사업협동조합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공방업체들을 모집했다. 입주자 자격은 1순위가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원, 2순위는 비회원 가운데 도예 전공의 석사학위가 있거나 도자쪽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자였다. 추후에는 이천·여주·광주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도자공예·조각·미술·비즈·목공예·한지·옷칠·고가구·유리 등 수공예 분야로 입주자 범위를 넓혔다. 이때 이천시는 이천시 전체의 수계水系, 기후 및 기상, 입지여건 등의 다양한 측면을 조사하여 부지를 신둔면 고척리 일원으로 결정했다.

신둔면은 원적산을 중심으로 한 산지를 경계로 북측으로 광주시와 시계市界를 이루며 북측은 산지이고 중·남부는 평야지대로 간선도로인 3번국도, 중부고속도로가 통과하여 서울과 이천을 연결하는 관문이다. 또한 국도종합개발계획, 수도권 정비계획 등과 상호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으면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천시 도자업체는 신둔면을 중심으로 사음동·모가면·마장면·백사면 일원에 분포하고 있는데 신둔면의 도자업체 비율은 약 68%^{242개소}, 수광리를 중심으로 남정리·인후리·도암리 일원에 분포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사음동·모가면·마장면·백사면의 비율이 각각 약 13.5%^{48개소}, 4.8%^{17개소}, 3.4%^{12개소}다. 또 3번국도, 337번지방도, 중부고속도로 호법IC로부터 10분, 서이천IC에서 5분 내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서 40분 내 외이며 경기도 남부에서는 20~40분 내 위치해 있어 사방으로 교통여건도 편리하다. 이러한 입지여건으로 볼 때 신둔면을 중심으로 집적 이익이 생길 것으로 판단했다.



개성이 담긴 에스파크
의 다양한 건물들

관광마을 조성과 공예예술 확장

2010년 이천시는 국내 최초 유네스코 창의도시공예 및 민속예술로 지정됐다. 한국 전통도자기의 맥을 이어온 이천시 도자기명장 등 창의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풍부한 도예인적자원과 도예인재 양성 및 교육, 이천도자기축제, 세계도자비엔날레,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 본원**, 한국도예고등학교, 이천세계도자센터 등 각종 물적 인프라 등 우수한 문화적 자산과 역량을 기반으로 세계적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에스파크의 세계적인 문화예술 관광마을 조성을 위한 노력은 계속 됐다. 부족한 점과 더 추가해야 할 사항을 공론화하고 검토하고 방안을 찾았다. 당초 도예업체들로만 조성하려던 도예문화단지는 도자만으로는 경쟁력이 부족하고 다양한 공예 분야와 함께 접목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로 인해 본래 취지인 도자산업 육성을 위한 기존 계획의 추가 보완과 변경이 필요했다. 도자기뿐만 아니라 그림·음악·유리공예·금속공예·가죽공예·옷칠·조각 등 다양한 수공예 공방의 문을 열어 예술촌을 집적화하기로 했다. 도자문화단지에서 도자예술촌으로 변경하면서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달라졌다. 다양한 영역에서 챙겨야 할 게 많았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요건 충족 및 향후 토지수용 등 원활한 사업추진 방안 검토, 도시계획조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은 산재했다. 투자사업의 미완료 등으로 경

제적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웠고 수도권의 각종 규제도 문제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안들은 한 개인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지 않았다. 행정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주요 사항에 대해 이천시와 이천시도자기사업협동조합은 입주자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해 관련 주민단체와의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했다. 특구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을은 현지를 방문했다. 설명회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입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정에 맞게 반영하도록 노력했다.

이천시도자예술촌 명칭인 ‘에스파크’ **藝**스 Park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공모에 의해서 선정했다. ‘에스파크’는 ‘최고의 예술인과 최고의 예술 작품이 가득한 마을’이라는 뜻이다. 영어와 한자를 조합하여 글로벌과 젊음, 감성과 재미를 표현했고, 간결한 발음으로 누구나 부르기 쉽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의미를 담았다. 이러한 마을 이름 상표도 행정절차에 따라 등록했다.

국내 사례 조사지로는 이천·여주·광주에 있는 여러 도예촌과 미술관 등이며, 해외는 일본 아리타 포세린파크, 아리타 도예촌, 이마리 도예촌, 마시코 도예촌, 라면박물관, 도코나메 도예촌, 중국 북경의 798도예촌, 중국 징더진의 도계천, 영국 헤이온와이 책 마을 등을 사례 조사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책도 필요했다. 도자산업이 제조업에서 관광 및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으로 전환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변모하였기 때문에 지역특화규제특례법을 적용받아야 했다. 에스파크는 국비·도비·시비·민간 자본이 함께 들어가 있다.

이천시가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하고 기반시설을 진행할 때 에스파크에는 집이 한 채 두 채 들어서기 시작했다. 입주자들은 제1기 대표위원회의를 구성하고 SNS로 소통하며 주민회의 기초를 다졌으며, 이천시청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었다. 봄에는 봄맞이 대청소, 여름에는 여름맞이 마을 대청소를 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마을 쓰레기장 팻말을 제작하고 마을 내 공지사항 A형 간판을 제작 설치했다.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고 소통하며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 누구라도 찾아와 예술을 향유하고 영감을 얻어가며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마을 조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기타(Guitar) 모양의 외관으로 주목받는 건축물

에스파크 입주 공방과 작가들

에스파크에는 221개의 공방과 업체가 유치되어 2018년 5월 현재 70% 입주했고 나머지도 입주를 앞두고 있다. 지면의 한계로 필자가 만난 작가들 중에서 일부만 소개하게 된 점 양해 바란다.

에스파크의 입주 건물 가운데 첫 준공을 받은 작가는 ‘남산도예’ 김준성 작가다. 김준성 작가는 이천에서 28년째 도예 작업을 하고 있다. 나비·동물 테코레이션 및 인테리어 장식용 오브제 도자기를 제작한다.

이천도예인으로서 도예문화단지 집적화는 희망사항이었습니다. 이천도자기조합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분양신청을 했고 입주하게 되서 기쁩니다. 에스파크는 소비자들 작가의 작업장과 작품전시장을 한 곳에서 볼 수 있고 체험까지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접근성이 편리하고 인프라도 잘 갖춰 있고요, 작가들은 소비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어서 좋고, 소비자의 취향과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라기타문화관세라기타하우스는 이정복 관장이 통기타 모양으로 직접 디자인하고 설계하여 지었다. 세라기타문화관은 3층으로 구성돼 있다. 1층은 이정복 관장이 손수 제작한 다양한 수제기타전시실·음악홀·제작실이 있고, 2층은 자택, 2층 일부와 3층은 게스트하우스다. 세라기타문화관에서는 ‘이여통’ 회원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 통기타동아리 회원들이 여행과 워크숍을 오고 공연을 한다.

통기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국통기타연합본부 회원은 2만 5,000명이 넘는데 그동안 음악을 함께 즐기고 활동할 공간이 없어 아쉬웠죠. 예스파크에서 통기타 동호인들에게 무대와 장소를 제공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통기타 동호인들과 아름다운 기타 연주로 시민과 교류하면서 이천과 예스파크가 세계적인 문화예술도시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플로리겐’ 왕오경·이연주 부부도 예스파크 첫 입주자이다. 이들은 오랜 서울 생활을 접고 예스파크에 입주했다. 왕오경 씨는 1·2기 입주자 대표위원이고 이연주 씨는 꽃 도자기 작가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이곳은 허허벌판에 진흙투성이였고 불편한 점도 많았죠. 하지만 집이 늘어나고 이웃이 생기고 작가들과 교류하면서 정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도자기의 고장 이천에서 작업하게 되어 좋고 짝딱하고 복잡한 도시 생활과 달리 여유롭고 열린 생활을 할 수 있어 너무도 좋아요. 이천은 공기도 맑아서 좋습니다.

한국고가구협회 회장인 ‘민속관 고가구’ 김정민 씨는 이천에서 20년째 고가구 작업을 하고 있다.

고가구는 도자기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고가구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 높죠. 고가구는 전국에서 수집해 온 골동품, 고재, 최근 유행하는 이미테이션 가구 등이 있습니다. 골동품과 고재는 오래된 나무라 질감이 좋고 중후한 맛이 있고 이미테이션 가구는 품격은 조금 떨어지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가볍고 경쾌한 느낌이 납니다. 가구에 매화 등을 그려 넣은 4군자 6군자 등 그림장을 찾는 소비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분당에서 작업을 하다가 에스파크에 입주한 ‘두운갤러리’ 안말환 작가는 캔버스에 고운 돌가루를 여러 겹 붙인 뒤 굵거나 파낸 자리에 물감을 덧칠하여 나무를 그린다. 미루나무, 미루나무와 새, 바오밥나무, 소나무 순으로 나무 연작 시리즈로 작업한 지 어느덧 20년째다. 두운갤러리 1층은 그림작품 전시장이다. 안말환 작가는 이 갤러리를 원로화가 및 다양한 화가들의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천 시민들이 에스파크에서 품격 있는 미술과 예술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입주 초기, 에스파크는 조용해서 좋았습니다.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고 작업실에서 그림 작업을 했죠. 어느 날부터는 수변을 따라 산책을 하는 것도 일과가 됐죠. 이제는 건물이 많이 들어서면서 마을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천시 시민이 되었으니 그림으로 지역 문화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반다레더스튜디오BANDA leather studio’는 1인 제작자가 가죽재단부터 바느질, 마감까지 하여 가죽제품을 만드는 가죽공방이다. 반다레더 나옥연 작가는 이천 시내에서 공방을 운영하다가 에스파크에 입주했다. 반다레더스튜디오에서는 가죽의 멋을 느낄 수 있는 심플하고 세련된 가죽제품을 제작한다. 주말에도 수강생들이 모여 가죽제품을 만들고 있다.

가죽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은 무궁무진합니다. 핸드백·가방·지갑·명함·카드지갑·두루마리연필통·가죽책갈피·가죽이어폰 줄감개 등 아주 다양하죠. 요즘엔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을 만들고 싶어 가죽공예를 직접 배우러 오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외에 에스파크에는 자신만의 독특한 작업 세계를 펼치고 있는 작가들이 많다. 입주작가들 가운데 작업실에서 작업에만 몰입하는 작가가 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다보니 친밀도가 높고 가족처럼 지내는 작가들도 많다. 작업실과 전시장을 둘러볼 수 있기에 소통의 소재도 다양해졌다. 예전에는 작업실과 집이 멀어 이동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동선이 편리하여 좋다고 말하는 작가도 있다. 갤러리, 작

업실, 가정이 세 공간이 모두 한 건물에 있고 작가들 본인이 직접 공방을 설계했기 때문이다. 에스파크에는 공방시설 외에 흙 도매상과 도자기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도자기공장도 있다.

이천도자예술마을 에스파크 입주 공방(가나다순)

연번	입주공방	연번	입주공방	연번	입주공방
1	AK Ceramic Center	2	Ceraping 5949	3	Gallery DUYOON
4	Gallery Fragrance	5	Gallery J(주연식 도예)	6	Jcideas
7	가마뽀	8	가마화수분	9	갤러리 쏘(Gallery So)
10	갤러리 흥룡이야기	11	갤러리591	12	SN갤러리
13	갤러리마음	14	고마테이블웨어	15	고산요
16	공예공방 푸른길	17	공예샵안단테	18	구울공방
19	규방 선화랑	20	그루	21	기옹이랑인화랑
22	김문경작업실	23	김석빈도자기	24	나중희갤러리
25	남광도예	26	남산도요	27	남양도예
28	녹색공방	29	누갤러리(Nu Gallery)	30	다미도예
31	담꼰	32	대륙제형	33	더화
34	도가갤러리	35	도공이야기	36	도성청차도요
37	도예공방예작 작은갤러리	38	동영세라믹스	39	라당도예
40	라임스톤	41	로원요	42	맑은흙도예
43	명성도예	44	모자이크(MOSAIC)	45	무진요
46	무토	47	미강 갤러리 백	48	미르공방
49	민속관 고가구	50	민승기공방/연호경 갤러리	51	바느질공방 화랑·바늘과나무
52	반다레디스튜디오	53	백광도예	54	백소연도예공방
55	별이공방	56	복도자	57	봄봄
58	붉은여우	59	사퐁	60	산아래작업실
61	산이랑공방	62	산이리 도자공방	63	생명도예
64	생활중심	65	성준자기	66	세라기타
67	이선	68	소요	69	소일
70	소화도예	71	솔흙흙	72	숫을공방(SOSL)

연번	입주공방	연번	입주공방	연번	입주공방
73	송파서화	74	스튜디오 올	75	시원도예
76	신성토방	77	신창희그릇	78	심스
79	씨엔에프세라믹	80	아뜰리에 유지	81	웃칠아 MO트
82	여기담기	83	열달나홀	84	영광갤러리
85	에빈시	86	에손도자기	87	예지공방
88	예현갤러리	89	오봇/규담	90	오후엔
91	윤상중 도자작업실	92	이마트24	93	이천세라믹랜드
94	자기소의봄	95	장조림포터리	96	장훈성공방
97	정종혁 정도가	98	조오씨네 도도	99	지선도예
100	지율명도예	101	진산세라믹	102	착한그릇 회고회고
103	청솔향방	104	초록향아리	105	추수갤러리
106	춘강흙내음	107	태원요	108	토담
109	토루	110	토리섬도예	111	토몽
112	토비	113	토아트	114	토원공방
115	토토공방	116	토화도예	117	트란시
118	평강도요	119	플럭스(FLUX)	120	플로리젠
121	한국라운공예협회	122	한림도예	123	홍앤초이(Hong&Choi)
124	화목토 도예연구소	125	황우요	126	흙으로빛은달

2017년 9월 8일, 에스파크에서 제4회 신둔면 주민자치평생학습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예술가와 지역 핸드메이드 작가들, 기관·단체가 서로 융합하여 프리마켓을 운영하고 창의적 학습의 장을 펼침으로써 축제를 함께 즐겼다.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인 ‘도자기가 있는 그림 아크릴화’ 전시를 보며 산책할 수 있도록 화랑길을 조성하였다.

2017년 11월 2기 입주민회의에서는 대표위원이 선출되고 에스파크를 소단위 마을 5개(가마마을·회랑마을·정원마을·수변마을·광장마을)로 재분류하여 그 마을끼리 특색 있는 행사와 새로운 콘텐츠 개발,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축제 등을 논의했다. 입주자들은 5개 마을로 분류된 마을마다 1년에 한 번씩 소규모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자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예술분야 작가들이 모여 행사도 기획하고 연령별이나 특색에

신문면 주민자치평생
학습축제(2017)



어울리는 작가를 분류한 예술 프로젝트 기획도 모색하고 있다.

이천시는 외부에서 에스파크로 들어올 수 있는 교통에 관한 사업도 박차를 가했다. 3번국도에서 에스파크로 들어오는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였고 이천휴게소에서 하남 방향 고속도로 쪽을 통과하는 하이패스 신문IC를 2017년 12월에 개통했다. 사실 신문 하이패스IC와 에스파크를 연결시키는 일은 성사시키기 어려웠으나 조병돈 이천시장이 국토교통부의 하이패스IC 설치를 위한 브리핑에서 강력한 의지를 제시하고, 그 후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완료하여 접근성을 한층 강화시켰다. 고속도로 이천휴게소에서 도자예술촌으로 차량 출입이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길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 2017년 기반공사가 마무리됐고 12월 19일에 중부고속도로와 제2중부고속도로하남방향에서 이천휴게소를 거쳐 에스파크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신문 하이패스IC 개통식을 거행했다. 도예인들의 소망은 단지 소망으로 끝나지 않았다. 더 많은 도예인들과 이천시도자기사업협동조합은 물론 이천시, 그리고 대한민국 전국민을 뛰어넘어 세계인들을 모으는 발판이 됐다. 그리고 2018년 4월 27일부터 5월 13일까지 에스파크에서 제32회 이천도자기, 꽃축제가 열렸다.

저 멀리 원적산이 둥그렇게 둘러싼 에스파크는 곁에서 보면 고요하고 평화로워



에스파크에서 개최된
2018 도자기축제에서
도자기 체험을 하고
있는 아빠와 딸

보인다. 하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작가들의 창작열은 뜨겁다. 정지돼 있는 듯 숨어 있는 듯하지만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혼을 담아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있다.

에스파크가 조성되기 전 허허벌판 앞에서 어떤 사람은 희망과 기대감을, 어떤 사람은 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머리를 맞대고 어떤 마을을 만들지 의논하고 방법을 강구했다. 메마른 땅에 굴삭기가 들어오고 새로운 길이 나기 시작했다. 눈과 발이었던 땅은 매일 매일 달라졌다. 그리고 사람들은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에 앞에 섰고 그때마다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 하나 해결해 갔다. 에스파크는 이전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국과 해외 사람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마을이다. 공방마다 입주한 사람들의 고향은 다르고 사연도 다양하다. 일을 진행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마을에 길을 내는 사람,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사람, 그것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사람들, 땅을 파는 굴삭기 운전사, 분양을 하는 사람들, 홍보를 하는 사람들, 시멘트 벽돌을 올리는 근로자들, 카페거리를 시공하는 시공사,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 전통 장작가마를 구경하러 온 외국인 등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다. 그들이 모여 마을은 꿈을 꾸다.

에스파크는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에스파크가 자생력을 갖추고 독보적인 도자문화와 예술문화가 어우러진 마을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입주민과 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미진한 부분을 살펴 지속적인 피드백을 하며 입주민과 이용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한다. 서로 지지대를 잘 받쳐주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머지않은 날, 혹은 조금 먼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작업을 하다가 때때로 저 멀리 원적산에서 나무냄새 섞인 숲속 바람의 향기를 맡으며 학암천을 가꾸고 마을을 예쁘게 다듬을 것이다. 마을의 개울에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꽃들이 무리지어 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더불어 잘 살아가는 따뜻한 에스파크, 세계적인 예술마을을 만들어가고 이 마을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하고 찾아오고 싶어 하는 마을,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를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도자예술마을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에스파크를 찾는 사람들은 자연과 작가들의 혼, 그리고 예술의 선율이 담긴 작품과 예술의 향기를 듬뿍 얻어갈 것이다.

김희정 | 자유기고가, 전 이천시·경인일보 시민기자

03

흙으로 보물을
빛는 사람들





김희정 | 자유기고가, 전 이천시 · 경인일보 시민기자

제3장 흙으로 보물을 빛는 사람들

1. 숨 쉬는 보물창고, 이천 도예

도자기는 소위 인류가 흙으로 개발한 최고의 하이테크 상품이다.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일상에서 늘 접하고 있으나 그 소중함과 가치에 둔했던 도자기. 세계문명 교류의 역사와 흐름, 각 나라의 문화를 대변하고 그 나라의 정신을 품고 있는 도자기. 이 도자기를 빛고 있는 이천의 명장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건 필자에게 큰 행운이었다.

1) 도자기, 청자와 백자, 분청사기

도자기는 태토胎土라고 부르는 질흙으로 빚은 후 건조, 높은 온도에서 번조燻造한 제품을 일컬으며, 토기보다 단단하고 물이 새지 않는다. 도기陶器 · 자기瓷器 · 사기沙器 · 토기土器 · 질그릇 등을 모두 포함한다.

토기는 점력을 가진 흙을 사용해 600~1,000℃ 정도에서 산화번조를 통해 굽는다. 인류가 처음 토기를 만든 시기는 대략 기원전 1만년~6,000년경 사이며, 우리나라는 대략 기원전 6,000~5,000년경이다. 토기는 인류의 음식문화와 수명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도기는 건축용 타일, 위생도기, 연질도기 등으로 토기에 유약釉藥을 입혀 1,000~1,200℃ 내외의 화도에서 산화번조로 구워낸다. 자기瓷器는 백토, 고령토高嶺土 등으로 빚어 1,300~1,350℃에서 구운 후 유약을 입혀 다시 굽는다. 우리나라와 중국·베트남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앞서 자기를 만들어냈으며,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그造型이 독창적인 양질의 자기를 생산했다. 재료인 고령토가 풍부하고 1,300℃



고려비색이 은은한 청자 구름학무늬 매병



1996년 경매에서 841만달러에 낙찰된 철화백자 구름용무늬 항아리



백자 달항아리를 형상화한 2018 평창올림픽 성화

이상의 고온에서 구울 수 있는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고려자기라면 흔히 청자를 연상하는데 순청자는 청자에 문양을 넣지 않고 순수하게 만든 청자를 말한다. 1123년 **고려 인종 1** 송나라 휘종의 사절로 고려에 온 서궁(徐兢, 1091~1153)이 쓴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서 “도기의 푸른 빛깔을 고려인은 비색이라고 하며, 근래에 와서 만드는 솜씨가 좋아졌고 빛깔도 더욱 아름다워졌다”고 당시의 청자를 묘사하고 있다. 그때부터 ‘고려비색(高麗翡色)’이 고려청자의 우수성을 알리는 말로 전해지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상감기법 청자는 고려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만들었으며, 세계에서 유일한 기법이다. 이 기법은 흙으로 도자기를 만든 다음 표면에 조각칼로 문양을 파고 거기에 자토(赭土)와 백토(白土)를 붓으로 발라 문양을 메운 후 그것이 마르면 이토(泥土)를 깎아 내거나 깔끔하게 닦아서 청자유약을 발라 구워 내는 기법이다. 청자는 고려시대 귀족들이 많이 찾았고 그에 따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전해진다고 추정한다.

백자는 ‘백토(白土)’로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무색투명한 장식질(長石質)의 잿물을 입혀서 1,300~1,350℃에서 환원염으로 구운 순백의 자기다. 조선시대 자기의 주류를 이뤘다. 철을 이용해 문양을 그린 철화백자(潤文白磁)는 1996년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세계자기경매 사상 최고가인 841만 달러를 기록했다.

분청사기는 회색 또는 회백색의 태토 위에 백토를 입힌 뒤 투명한 유약을 씌운 회청색의 사기로 미술사학자인 고유섭(高裕燮, 1904~1944)이 지은 분장회청사기(粉粧灰靑沙器)의 약칭이다. 기법에 따라 상감(象嵌), 인화(印花), 조화(彫花), 박지(剝地), 철화(鐵畵), 귀얄, 덩벙 등 7가지로 분류했다. 조선 도자공예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인다.

2) 이천의 도자기명장들

이천에는 현재 350여 개의 요장에서 많은 도예가들이 묵묵히 흙으로 보물을 빚고 있다. 그 가운데 이천시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명장(公認名匠)부를 포함하여 이천의 도자기명장은 24명이다. 그 명단은 표와 같다. 순서는 이천시에 거주하는 대한민국(도자기, 세라믹)명장과 이천시 도자기명장을 각각 선정 연도순으로 하되, 연도가 같을 경우 가나다순으로 수록함을 밝힌다.

대한민국 공예부문도자기·세라믹명장

연번	성명	요장(설립)	분야	주생산물	선정 년도	소재지	비고
1	김세용	세창도예연구소 (1982)	세라믹	투각, 청자	2002	신둔면 원적로290번길 218	
2	서광수	한도요 (1986)	도자기	청자, 백자	2003	신둔면 원적로133번길 161	경기도 무형 문화재 제41호
3	임항택	향산도예연구소 (1977)	도자기	진사, 서화	2004	신둔면 황무로517번길 57	
4	권태현	효천요(1983)	세라믹	청자	2005	신둔면 경충대로2996번길 36-10	
5	유광열	해강도자연구소 (1960)	도자기	청자	2006	신둔면 황무로517번길 82	2002 이천시 도자기명장
6	김복한	한청도요(1982)	도자기	청자	2012	신둔면 경충대로3159번길 12-34	2003 이천시 도자기명장
7	최인규	장휘요(1992)	도자기	청자	2017	신둔면 둔터로 69 장휘요	2007 이천시 도자기명장

이천시 도자기명장

연번	성명	요장명(설립)	분야	주생산물	선정 년도	소재지	비고
1	유광열	해강도자연구소 (1960)	조각	청자	2002	신둔면 황무로 517번길 82	2006 대한민국명장
2	김복한	한청도요(1982)	성형	청자	2003	신둔면 경충대로3159번길 12-34	2012 대한민국명장
3	김종호	송월요(1979)	조각	청사, 진사	2003	신둔면 경충대로2993번길 64	
4	임일남	성전요(1978)	서화	청화, 백자	2003	신둔면 원적로	여주시로 전출
5	김태한	묵전요(1988)	-	-	2004	-	2013년 타계
6	이연휴	여천도요(1980)	조각	청자	2004	신둔면 원적로 369-39	
7	이향구	남양도예(1988)	성형	투각, 백자	2005	신둔면 도자예술로6번길 111	
8	최인규	장휘요(1992)	조각	청자	2005	신둔면 둔터로 69 장휘요	2017 대한민국명장
9	원승상	하송요(1992)	서화	서화, 백자	2008	신둔면 원적로 96-26	
10	이승재	명승도예(1986)	성형	청자	2008	신둔면 경충대로3233번길 10	
11	조세연	보광요(1993)	조각	청자	2009	신둔면 경충대로3233번길 9	
12	유기정	예송요(1996)	성형	청자, 분청	2010	신둔면 마소로95번길 21	
13	권영배	백산도요(1994)	서화	분청, 백자	2012	신둔면 석동로79번길 65	
14	김영수	도성청자도요 (2002)	성형	청자	2014	신둔면 도자예술로62번길 156	

연번	성명	요장명(설립)	분야	주생산품	선정 년도	소재지	비고
15	김용섭	다정도예(2004)	성형	청자	2015	이천시 사음동 544-9	
16	권태영	로원요(1995)	성형	청자	2016	신둔면 원적로133번길 115	
17	김판기	지강도요(1994)	조각	청자	2016	이천시 사음로 6	
18	박래현	원정도예원 (1994)	디자인	분청사기	2016	신둔면 황무로251번길 43	
19	유용철	녹원요(1996)	인화문	분청사기	2016	신둔면 원적로512번길 317	
20	이규탁	고산요(1991)	종합	분청사기	2017	신둔면 석동로 100-14	

전통예술은 그 자체로 가치와 존재 의의를 지닌다. 한 나라의 문화를 대표하면서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그 명맥을 이어온 장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오랜 세월 한 가지 분야에 종사하여 그 분야에서 기술과 실력, 예술의 경지가 뛰어난 사람을 일컬어 장인, 명인, ‘명장’ 名匠이라 한다. 그 가운데 이천의 도자기명장들의 출생 연도는 1939~1961년이고, 2018년 5월 기준 평균연령은 66세이다.

도자기명장 가운데 90%가 신둔면에, 나머지 10%도 신둔면 근처 사음동에 거주하고 있다. 이 일대는 칠기가마가 있어 근현대 이천도예촌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 이 점만 비추어 봐도 도자기명장은 이천도자기의 살아 있는 보고寶庫라 할 수 있다. 그들이 도자기와 함께 걸어온 발자취는 이천시 도자역사이며 미래 도자문화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또한 이천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되는데 역시 큰 역할을 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3)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에 관한 조례

이천시 도자기명장^{이하 명장}은 “장인 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로서 도예산업 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도자기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중에서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

명장 선정은 2001년 8월 6일 당시 유승우 이천시장의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면서 2002년에 처음으로 시행됐다. 2001년의 조례를

이천 도자기명장 심사
를 위한 선정위원 위
촉식(2002)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목적은 ‘도자기술의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이천시 도자기 발전과 이에 종사하는 도예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전문분야에 정진하도록 하며 도자기명장의 지위 향상’에 이바지함에 있다.

명장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명장은 매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선정 인원은 성형·조각·서화 3개 분야별로 선정하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한다. 명장의 신청자격은 이천시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도예산업에 30년 이상 직접 종사한 자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50세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명장은 ‘명장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선정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각 분야별 인사와 도자산업 등 이와 관련 있는 7인 이내를 시장이 위촉한다. 명장에게는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명장 인증서 부착, 도자기 관련 행사시 공식 초청자로 관리 등의 특혜가 주어진다.

이러한 조례는 해를 거듭하면서 시민의 의견과 주위 여론을 수렴했다. 그 과정을 거쳐 개정되면서 명장 선정의 내실을 다졌다. 예컨대 “명장 선정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시상금을 연구 활동비로, 명장선정위원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또한 명장 선정분야를 3개 분야에서 기타 도자기 제작관련 분야를 추가하여 그 폭을 넓혔다. 연구 활동비도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되, 지급 기간은 3년간으로 개정했다.

심사기준은 다음사항을 고려했다. ①이천의 전통도자문화 계승 발전에 기여한 공헌 정도, ②도자기 관련 신기술개발 등 도자산업 발전에 공헌한 정도, ③도자 제작 또는 공정관리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 ④도예문화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정도, ⑤도자분야 관련 수상 경력, ⑥기타 시장이 정하는 기준 등이다. 심사방법은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차 현장 실기심사를 했다. 2017년에는 ‘성형기술’ 과 ‘성형 외 기타 도자기제작 기술심사’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까다롭고 엄격한 과정을 통해 이천시는 2002부터 2017년까지 이천시 도자기명장을 총 20명 배출했다.

한편, 대한민국명장 역시 선정절차와 위상은 매우 엄격하다. 대한민국명장 제도는 1986년 처음 시행됐다. 산업 현장에서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 숙련기술의 발전과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심사를 통해 총 37개 분야 97개 직종에서 명장을 선정하고 있다.

2. 신품을 만드는 이천 도자기명장들

이천시의 도자기명장은 세계적 명품 가운데 하나인 고려시대 청자와 조선시대 백자·분청 등을 재현하며 우리 전통도자기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주역이다. 이 사실은 자랑스러움이자 자부심이다. 다음은 도자기명장들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편의상 명장 칭호는 생략했으며, 순서는 앞쪽의 표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명장, 이천시 도자기명장의 순으로 하되, 각각 선정 연도순으로 하였으며, 연도가 같은 경우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또한 대한민국명장과 이천시 도자기명장 모두에 해당하는 유광열·김복한·최인규의 경우 대한민국명장에만 기술하였다. 한편, 지면의 한계상 주요경력은 3개 이하, 작품전 실적은 5개 이하로 취사선택 했으며, 개인의 도예 입문 과정과 도자에 대한 철학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하여 명장 자신이 직접 말하듯이 기술하였다.

이천의 도자기명장들
(2010 도자명장전)



1) 대한민국 공예부문도자기·세라믹 명장

김 세 용(72세, 세창도예연구소)

■ 주요 경력

세창도예연구소 설립¹⁹⁸², 제7회 국제현대미술제전 도예부 대상¹⁹⁸⁴, 대한민국 도자기명장 02-22호²⁰⁰²

■ 작품전

중국 경덕진 도자 천년제 초대전²⁰⁰⁴, 일본 시네마현 초청 대한민국 명장전²⁰⁰⁴, '도자기, 색과 기술의 만남'²⁰⁰⁵, 예술의 전당, 제12회 대한민국 명장전²⁰⁰⁵, AT센터, "흙에서 빛으로"²⁰⁰⁶, 이천세계도자센터

고교 시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도자기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도자기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으로 1966년 이천으로 오게 됐다. 시작은 녹록치 않았다. 단순 작업을 했고 도자기기술을 스스로 터득해야 했다. 일과 후 호롱불을 켜놓고 몰래 물레를 돌리고 책을 보고 흙을 연구했다. 1978년 세창도예연구소를 설립한 뒤 흙의 오묘

함과 청자의 아름답고 고고한 자태를 재현하고자 수많은 공정과 시행착오를 거치며 네 가지 목표를 세웠다. ‘가장 아름다운 청자, 가장 섬세한 청자, 가장 큰 청자, 이 모든 작업을 장인으로서 수행하자’ 였다. 목표에 따라 십년 만에 성공한 대형작품이 있다. 십전십일기+顛+一起인 썸이다. 가장 정교하고 귀족적이고 세련된 청자, 21세기형 청자를 만들려고 연구를 하다보니까 이중투각이 나왔다. 도자기를 통해 인내력과 지구력을 배우고 인격수양을 한다. 현재는 벽에 걸어놓고 감상할 수 있는 청자작품을 만들고 있다. 청자는 나에게 운명과도 같다.

유 광 열(76세, 해강도예연구소)

■ 주요 경력

제18회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¹⁹⁸⁸, 문화훈장 옥관장 서훈²⁰⁰¹, 대한민국도자기명장 제423호²⁰⁰⁶

■ 작품전

알렉산드로 멘디니 & 유광열 청자전²⁰⁰⁹,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청자전²⁰⁰⁹, 유광열청자전²⁰¹², 월전미술관, 「도자기 재장전 : 이천현대도자전」^{2013~2014}, 독일 루드비히스부르크 도자박물관

아버지유근형¹ 권유로 도자기에 입문했다. 1960년대 초 한때 수광리에서 장리쌀로 생활하며 어려웠을 당시 아버지를 닮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 아버지는 평생 청자재현 연구를 했고 아흔아홉 살까지 작업을 했다. 나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작품을 만들고 싶다. 나는 흙으로 보석을 빚는다. 연리문 장신구가 그렇다. 작품에 의미를 부여하면 작품이 더 돋보인다. 아버지와 함께 지은 해강도자미술관²에는 도자기 유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자기 파편이 있다. 아버지와 전국을 돌아다니며 모은 파편이다. 파편은 도자기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 유물 손실은 국가적 손실이다. 도자기를 빼놓고는 할 이야기가 없지만 청자를 제일

1) 유근형 : 1894~1993. 1988년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호, 청자장.

2) 해강도자미술관은 국내 최초의 도자기 전문 미술관이다. 전통 도자와 도자공예품 전시 및 보존은 물론 각종 학술활동과 도자자료의 출간, 교육의 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 해강 유근형과 유광열 명장이 1990년 5월에 설립했다. 현재 국제대학교 부설 미술관이 되었다.

좋아한다. 훗날 세상 여행을 마칠 때 예쁜 청자를 볼에 대고 웃으면 좋겠다. 도예작가 전시회에 가면 도자기를 꼭 구입한다. 지역사회와 후배 작가들에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다. 도자기로 인해 과분한 사랑과 명예를 얻었다.

김 복 한(73세, 한청도요)

■ 주요 경력

이천시 도자기명장²⁰⁰³, 경기도 도자 으뜸이 선정²⁰⁰⁴, 대한민국 도자기명장 제541호²⁰¹²

형제들이 모두 도예를 했다. 첫째 형님은 김응한^{작고}, 둘째 형님은 2004년 이천시 도자기명장 김태한^{작고}이다. 마산에서 살다가 13세 때 큰형님이 있는 이천에 왔다. 수광2리 지금의 광주요 근처, 나뭇가지라는 조그만 요장에서 우리는 도자기를 제작하고 연구했다. 형님은 서울로 판매를 했다. 형들에게 청자를 배우다가 한익환 선생에게 백자를, 변산 위군섭 선생과 해강 유근형 선생에게 청자 제작기법을 전수받으며 내 작품세계를 구축했다. 1982년 한청도요 설립 후 청자를 연구한 결과 다양한 특허를 받았다. 도자기로 할 수 있는 것은 무궁하다. 흙을 마분지처럼 얇게 만든 청자 다완은 불빛에 비치면 신비한 무늬가 비친다. 일상에서 필요한 청자작품이 많다. 도예업은 정년이 없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진가를 발휘한다. 하지만 현재 전통도자기 하는 도예가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안타깝다. 전통도자기를 60년 해왔다. 경기침체에 따라 전통도자기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전통의 가치와 소중함을 인식하고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도예가들과 전통을 가업으로 잇고 있는 젊은 도예가들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다.

서 광 수(70세, 한도요)

■ 주요 경력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장²⁰⁰¹, 대한민국 도자기명장 367호²⁰⁰³,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1호²⁰⁰⁵

■ 작품전

파리 한국문화원 초대전²⁰⁰², 대한민국 명장전²⁰¹³, 국회의원회관, 「도자기 재장전 : 이천현대도자

전, 2013~2014, 독일 루드비히스부르크 도자박물관, 문경 찻사발 축제 남북교류전²⁰¹⁵, 흙과 불을 쫓아 온 50년전²⁰¹¹,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신둔면 수광리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칠기 만드는 요장에서 일을 했고 현재까지 전통방식대로 도자기 작업을 하고 있다. 낮엔 대장들 사이를 오며가며 견문질로 도자 기술을 배웠다. 밤에는 호롱불 아래서 전통 발물레를 돌렸다. 2년 후 지순탁³ 선생의 도제로 입문하여 백자·청자·분청·천목 등 다양한 전통 도자기 제작기법을 전수받았다. 오른발 왼발 할 것 없이 자유자재로 전통 발 물레를 돌린다. 한도요 설립 이래 현재까지 1년에 평균 4번 정도 장작가마에서 불을 댕다. 흙 배합·반죽·성형·조각·유약실험 등의 전 과정을 전통 방식으로 한다. 가마에서 도자기를 꺼내는 날에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찾아온다. 작품이 아닌 것은 그 자리에서 다 깬다. 아깝지만 최고의 작품만 남긴다. 고려청자·청화백자·달항아리·분청사기 등 똑같은 작품은 하나도 없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작품을 만든다. 접시 하나를 만들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공을 들인다. 자기만의 개성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임 항 택(68세, 향산도에연구소)

■ 주요 경력

제27회 정밀기술경진대회 통상산업부장관상¹⁹⁹⁷, 조선백자 진사안료의 제조방법 및 그 안료 특허출원²⁰⁰², 대한민국 도자기명장 제380호²⁰⁰⁴

■ 작품전

진사백자전²⁰⁰⁹,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조선진사백자전²⁰¹¹, 니가타 시립미술관, 일본, 덕수궁 프로젝트²⁰¹², 서울, 조선진사백자전²⁰¹⁵, 룩차티하우스, 홍콩, 이태리 파엔자 Argilla-Italia 작품 전시 및 기증²⁰¹⁶

충북 음성에서 기계를 전공하고 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하던 중 우연히 조선 백자가 이천에서 전승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길로 어머니의 반대를 뒤로

3) 지순탁 : 1912~1993, 고려도요(高麗陶窯) 설립.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호 분청·백자장 기예능보유자.

하고 학교를 그만뒀다. 1970년 중반 이천으로 와서 이정하⁴ 선생 문하에 들어가 백자·분청사기 등의 제작기법을 배우고 연마했다. 2년 후 향산도예연구소를 설립하고 진사^{辰砂}를 연구했다.⁵ 어느덧 42년이 흘렀다. 진사백자는 백자에 붉은색 안료를 사용해 만든 전통도자기로 안료도 중요하지만 유약의 조성, 소성방법, 냉각관계 등 고도의 기술과 정성이 필요하다. 또한 전통장작가마에서 1,300℃ 전후에서 환원소성해야 전통진사백자 특유의 맛과 투명한 선홍색이 나온다. 진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드물던 2005년 진사 안료 제조방법 및 안료를 발명, 특허를 받고 전국에 공개했다. 현재도 전통방식대로 작업한다. 도자기는 어떤 자세로 공부하고 임하느냐가 중요하다. 손끝이 조금 둔하더라도 꾸준히 노력하고 실력을 갖추면 최고가 될 수 있다.

권태현(71세, 효천요)

■ 주요 경력

경기도 도자부문 우수기능인 지정¹⁹⁸⁷, 대한민국 도자기명장^{05-18호, 2005}, 대한민국 명장 선정 심사 전문위원²⁰¹³

■ 작품전

대한민국 명장전 「도자기 색과 기술」²⁰⁰⁵, 한중일 도자 교류전 「도자기 꽃과 만남전」²⁰⁰⁷, 파브리야노 엑스포, 이태리 경기 세계도자 비엔날레 명장전²⁰¹⁴, 비색의 고려 청자전²⁰¹⁴, 인사동, 통인화랑, G세라믹 라이프퍼²⁰¹⁶, 코엑스

20대 후반 지순탁 선생 아래서 전통도자 제조방법 등을 배우며 도예가의 길에 들어섰다. 이천으로 내려오기 전, 서울에서 조각과 금속공예 일을 했고 손재주가 있어 3년 후에 독립했다. 효천요를 설립하고 도자 제작의 과학화, 전통도자기법의 응용, 전통자기의 대량 생산화 등에 대한 연구와 새로운 시도를 꾸준히 했다. 도자기의 다공투각형 성형방법, 현 흐름에 맞는 디자인 개발, 작업공정 개선 등 차별화된 도자작업 방식으로 다양한 발명특허를 받았다. 그것이 발판이 되어 세라믹 분야의 대한민국명장이 됐다. 도자기가 호황기에는 일본관광객들이 관광 일정 중에서 이천

4) 이정하 : 929~1999. 수광리 점촌의 한 요장에서 칠기 대장을 하다가 수광도요 설립.

5) 임향택 명장은 황금 안료를 이용한 황금진사백자를 만들었다.

의 요장을 방문하곤 했다.

도자기는 문화사업이라 나라의 관심이 필요하다. 전통도자기에는 우리 조상들의 해학과 깊은 맛이 들어있다. 매병·청자 등은 물론, 현재는 생활자기·청자장식물·이중투각목걸이 등 소비자의 접근이 쉬운 소품과 관광상품 등으로 전통자기의 대중화·세계화에 힘쓰며 그 맥을 잇고자 한다.

최 인 규(65세, 장휘요)

■ 주요 경력

이천시 도자기명장²⁰⁰⁵,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 수상²⁰⁰⁷, 대한민국 도자기명장 제624호²⁰¹⁷

■ 작품전

이천-한국 도자 전통의 부활²⁰¹³, 아모카박물관, 미국, 비색청자개인전²⁰¹⁴, 이천시립박물관, 청자개인전²⁰¹⁵, 이천아트홀, 비색청자매병전²⁰¹⁶, 이천아트홀

초등학교 시절 6km 되는 거리를 걸어 다녔고 중·고등학교 때는 육상부원이었다. 도예를 하려면 오랜 인내와 지구력이 필요해 이런 성장과정이 도예를 하는데 힘이 됐다.

서울공업고등학교 요업과 3학년 때 선생님의 권유로 이천에 내려왔다. 이천의 시골엔 전기가 들어오지 않던 시절이었다. 해강 유근형 선생 아래서 30여 년 동안 성형·청자 문양·조각 등 다양한 전통도예기술을 익혔다. 장휘요 설립 후 나만의 독자적인 청자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자연스럽게 스승의 작품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승의 정신을 이어받아 닮을 수 있지만 작품이 같을 수는 없다.

내 청자 작품 중에서 안에서 밖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오도록 두드린 기법이 있다. 똑같은 작품을 하지 않으려고 연구하다보니 새로운 기법이 보였다. 생각이 깨어 있으면 잘 보인다. 다른 사람에게 하찮아 보이는 것이 내 눈에 보석처럼 반짝인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도자기는 함께한다.

2) 이천시 도자기명장

김 종 호(79세, 송월요)

■ 주요 경력

2006 대한명인⁰⁶⁻⁴³, 인간문화재 공모전 5회 입상^{1979~1984}, 이천시 도자기명장²⁰⁰³

■ 작품전

일본동경 우에노마츠노야 도예협회회원전¹⁹⁸⁶, 미국LA COSMOS백화점 전시회¹⁹⁹⁹, 중국경덕진 도자박람회 전시²⁰⁰⁶

어렸을 때부터 선친이^{김완배⁶} 도자기 만드는 것을 보고 자랐다. 백자를 주로 했고 성형·그림·조각 등을 혼자 했다. 나도 아버지한테 백자를 배웠다. 선친 작품은 누구든지 훌륭하다고 칭찬을 했다. 선친 작품을 더 열심히 배우지 못한 게 아쉬움이다. 1957년 윤효중 선생이 대방동에 한국미술연구소^{일명 대방동가마}를 설립했다. 전국의 도자기 기술자들이 모여들었다. 그곳에서 아버지는 백자를, 해강 유근형 선생은 청자를 했다. 나도 그곳에서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선친과 함께 도예기술을 연마했다. 당시 도자기의 인기는 대단했다. 아버지와 이천으로 내려와 선친의 친구 해강 유근형 선생한테 청자 제작기법을 배웠다. 청자는 흙이 생명이다. 색깔이 곱고 선이 매끄러워야 하며 균열이 없어야 한다. 깊은 산속의 샘물 색을 띤 게 제일 좋다. 도예를 한 지 70년이 된 지금도 깨뜨린 파편을 모아 연구하고 유약 실험을 하고 좋은 흙을 찾아다닌다.

임 일 남(74세, 성전요)

■ 주요 경력

전승공예대전과 전국공예품경진대회 다수 입상,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도예부문심사위원장 역임¹⁹⁹⁶, 이천시 도자기명장²⁰⁰³

6) 김완배 : 1891~1964. 백자 장인, 경기도 분원 사기장.

■ 작품전

미국 LA올림픽 한국관 백자전¹⁹⁸⁷, 러시아 상페테스브르크 전시¹⁹⁹⁷, 프랑스 파리 전시²⁰⁰²

광주광역시 서중학교 다닐 적에 모의고사를 본 뒤 1등을 하면 소설책을 한 권씩 줬다. 그 책 받으려고 기를 쓰고 공부했다. 그때 습관이 돼서 지금도 책을 읽는다. 도자기는 송도요업사에서 시작했다.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 졸업 후였다. 이천은 1969년에 올라왔다. 이천에서 도예를 하던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였다. 한국도요에서 7년간 공장장을 했다. 그 기간 동안 흙을 수비하고 장작가마에 불을 때고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등 전통도자기분청, 청자, 백자 등 제작과정을 두루 섭렵했다. 흙을 구하러 해남, 강진, 고흥 등 전라남도에 자주 다녔다. 어느덧 도예입문 한 지 50년이다. 작품 제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한다. 내 손으로 해야 내 맘에 든 작품이 나온다. 도자기 보는 안목을 높이는 데 왕도는 없다. 도자기는 많이 봐야 한다. 많이 만져보고 본인이 직접 느껴야 한다. 도예가들이 공들인 것을 알고 그 가치를 알면 더 의미 있을 듯하다. 작품은 한두 가지를 잘한다하여 나오지 않는다. 도자기는 종합예술이다.

김 태 한(작고)

■ 주요 경력

목전요 설립¹⁹⁸⁸, 이천시 도자기명장²⁰⁰⁴, '일본 동경 현대거장전한일 우호 고려도자기전, 1989'을 비롯하여 일본에서 400여 회 전시회 개최

■ 작품전

세계도자기 엑스포²⁰⁰¹, 코엑스 세계도자문화대전²⁰⁰³, 동인화랑 장작가마 사발전²⁰⁰³, 백상기념관 차도구 특별기획전²⁰⁰⁴, 명장 묵전 김태한 '도자 인생의 길' ²⁰⁰⁷

1939년 경남 마산에서 태어났다. 1955년 부산 동광도기에서 도자기와 인연을 맺고 그림, 조각, 성형 등 다양한 도자기 제작방법을 익혔다. 이천에 올라와 1958년에 좌봉 김응환, 한청 김복한과 함께 '이천도요'를 설립했다. 1973년 지순탁 선생 문하에 들어가 15년간 도예를 연구하다가 1988년 목전요를 설립했다. '천목다완' 사

발내부에 빛과 어둠이 뒤섞여 공존한다, ‘이도다완’ 기본 유약 위에 ‘유약흘림’ 기법을 이용하여 유약의 변화 색깔이 다 갈색으로 변한다. 빙열 크기에서 모자이크 효과가 발생한다, ‘시대사발’ 사발을 얹어놓은 모양과 색상이 감쪽지를 닮은 데서 이름을 지었다, 분청, 고백자 다완 등 다양한 도자기를 빚었다. 김태한 명장 작품은 일본의 4대 차회茶會 중 하나인 ‘우라센게’ 가에서 사용될 만큼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 받았다. 생전 김태한 명장은 “옛 것의 재현을 넘어 과거와 현대를 접목하고 기능성과 예술성을 함께 생각하여 제작한다. 하지만 도자기의 생명은 가마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결정한다” 고 말했다.

이 연 휴(69세, 여천도요)

■ 주요 경력

우수공예 기능인^{89-10호}, 1989, 이천시 도자기명장²⁰⁰⁴, 한국도자연구조합 설립 초대 이사장²⁰⁰⁶

■ 작품전

한일도자기 교류전¹⁹⁹⁸, 캐나다 한국도자전²⁰⁰², 일본아이치엑스포 도자명장 특별전²⁰⁰⁵

광주광역시에서 고교 시절, 청자를 재현한다는 것이 신비스러워 강진 도요지를 찾아다녔다. 1,000년 전에 도공들이 만들었다는 청자와 파편들을 보면서 그 시대 도공은 천재였다고 생각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7년 광주에서 전통 청자를 재현한다는 송도요업사에 다녔는데 이천 사람이 그 회사에 일자리를 알아보러 왔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1970년 이천으로 왔다. 해강도예연구소에서 전통 청자 도자기 기법을 체계적으로 배운 뒤 1980년 여천도요를 설립했다. 당시 정치적으로는 신군부가 들어왔지만 명절이나 군에서 진급했을 때 도자기 선물을 많이 할 때였다. 최근 편지 한 통이 왔다. 75세 일본인이 1988년에 청자를 선물로 받았으며 이름을 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도자기를 판매할 때 약력사항을 같이 썼는데 그 주소를 물어 보내온 것이다. 고맙고 보람됐다. 현재 청자는 물론 황자를 만들고 있다. 고려시대엔 청자, 조선시대엔 백자, 2018년 한국도자기는 ‘황자’ 다.

이 향 구(64세, 남양도에)

■ 주요 경력

대한민국 기능올림픽 장려상 3회 수상, 제8회 한국미술대상전 대상¹⁹⁹⁰, 이천시 도자기명장
2005

■ 작품전

일본 후쿠오카 세이브 백화점 개인전¹⁹⁹⁴, 일본 나가노현 개인전²⁰⁰⁴, 한국전승도예협회 전
시회²⁰⁰⁸

열일곱 살 때부터 사천시당시 삼천포시 남양도기에서 선배 어깨너머로 도자기를 배웠다. 1972년 이천·광주 등의 요장을 거쳐 1980년에 이천의 해림요에서 성형실장을 했다. 물레를 돌릴 때 점토에 물을 묻히지 않고 작품을 만드는 기술이 있다. 점토를 끌어올리고 구멍을 낼 때까지는 물이 필요하지만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면 물을 묻히지 않아도 살아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이 기법은 흙을 90% 사용하기 때문에 흙을 아낄 수 있고 가볍다. 내 손은 수천가지를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석고 틀이다. 전통 조선백자·청화백자·이중투각·백자달항아리·백자생활자기 등 다 손끝에서 나왔다. 외국인을 만나면 간단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쉽지 않다. 명장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 우리 전통도자기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는 민간대사다. 그동안 쌓아온 전통도자기법과 대작을 손쉽게 만드는 기법을 기록하여 후배와 여러 사람들에게 보급하고 전파시키는 게 소망이다.

원 승 상(63세, 하송요)

■ 주요 경력

한국미술문화 대상전 입선¹⁹⁹³, 경기도 도자 으뜸이 선정²⁰⁰⁴, 이천시 도자기명장²⁰⁰⁸

군대 가기 전 여주에서 청자 조각사로 일했다. 27세 때 호산 안동오⁷ 선생 아래서 화공실장을 지내며 전통백자 제작기법을 전수 받았다. 그림에 재주가 있고 ‘용·

7) 안동오 : 1919~1989, 안동오요 설립(1962), 무형문화재(1976), 백자의 대가.

호랑이' 그림을 잘 그렸다. 당시 도자기공장 공장장이 한 달에 9만원 받았는데 나는 12만원 받았다.

도자기에 그림 그리는 화공이 드물 때였다. 어렸을 때부터 예술에 끼가 많았던 것 같다. 그런 제주 덕에 여러 기관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했다. 영화 취화선에 출연한 적이 있다. 도자기에 유약 바르고 장작가마에서 달항아리 꺼내는 등 여러 장면이 나왔다. 영화 찍으면서 실수 한번 안 했다. 도자기 작업은 매일 하는 일이어서 쉬웠다. 도자기는 처음부터 불을 났을 때 한 가지라도 실수가 생기면 작품이 안 된다. 도자기에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다. 잡념이 없이 붓끝 하나에 정성을 들여야 한다. 전통백자·백자생활자기 등을 주로 하고 도자기 제작 전 과정을 혼자 한다. 도자기는 만들 때마다 시간가는 줄 모르고 즐겁다.

이 승 재(71세, 명승도에)

■ 주요 경력

명승도에 설립¹⁹⁸⁶, 제9회 대한민국 국제미술대전 특별상 수상¹⁹⁹⁵, 이천시 도자기명장²⁰⁰⁸

16~18세 때였다. 경상북도 성주의 웅기공장에서 항아리 만드는 성형기술을 배우며 주로 대형항아리를 만들었다. 1986년에 이천에 와서 고려도요에 성형사로 입사해 발물레를 돌리며 지순탁 선생에게 청자 등 전통도자기 성형기술을 전수받았다. 도자기와 항아리는 다방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도자기는 색상이 다양하고 가짓수도 많았다. 1986년 명승도에 설립 후 청자연구와 도예체험학습장 등을 하며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했다. 이천시 도자기명장은 쉽게 생각하고 도전했다가 몇 번 떨어졌다. 세상에 쉬운 건 없다. 열심히 작품을 만들고 공모전에 나가고 도전 끝에 명장이 됐다. 도자기는 이론이나 말로 배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론이나 말은 참고는 되겠지만 직접 만들어보고 느끼면서 몸으로 터득해가는 것이다. 배우고 배워도 어려운 게 도자기다. 성형·조각·그림까지 잘 그렸어도 불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완성된 예술작품이 된다. 이 점이 다른 예술과 다르다.

조 세 연(64세, 보광요)

■ 주요 경력

전승공예대전 공로상²⁰⁰⁶, 황실문화재단 황실공예 명인²⁰⁰⁸, 이천시 도자기명장²⁰¹¹

■ 작품전

현대미술 국제교류 프라하 시장 초대전²⁰⁰², 조세연 청자 작품 초대전, 한국전승도예협회 회원전

1972년, 서울공고 요업과 3학년 때 신상호⁸ 선생의 도방요에 실습 나와 현재까지 도자기를 만들고 있다. 1970년대에는 요장마다 도공이 많았고 성형 · 조각 · 그림 등 분야별로 작업을 했다. 군 제대 후 혁산 방철주⁹ 선생이 계시는 동국요에 입사했다. 방철주 선생은 도자기 유약 · 형태 · 선 등을 중요시 여겼고 동국요에는 다양한 책과 좋은 원료가 많았다. 덕분에 책을 많이 읽고 다양한 유약 실험을 했다. 도자기 제작 전 과정을 두루 익혔다. 청자를 재현해오다가 2000년부터는 무균열청자 작업을 했다. 무균열청자는 일반청자에 비해 충격에 강하고 빗갈도 오래 간다. 흙과 유약의 수축 차이에 대해 오랜 실험을 거듭했고 한국세라믹기술원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요변천목曜變天目¹⁰ 역시 데이터 없이 시작했다. 최근 세라믹기술원으로부터 요변천목에서 납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받았다. 도자기는 늘 재미있고 공부할 게 끝이 없다. 가마를 열 때 설렌다. 도자기가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다.

유 기 정(59세, 예송요)

■ 주요 경력

경기도 도자 으뜸이 선정²⁰⁰⁶, 황실문화재단 황실공예 명인²⁰⁰⁹, 이천시 도자기명장²⁰¹⁰

■ 수상 경력 및 작품전

강진청자공모전 대상²⁰⁰², 제41회 전국공예품대전 '지식경제부장관상' 수상²⁰¹¹, 세계 현대공예 작가전

8) 신상호 : 1947~, 이천에 도방요 설립,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장, 건축도자전문미술관인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초대 관장 역임. 흙을 이용한 전통도예에서 출발하여 도자와 건축 등 다양한 영역의 예술과 결합을 통해 새로운 형식의 예술을 개척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9) 1971년 신둔면 수하리 동국요(東國窯)를 설립, 고려청자의 비색 재현에 성공.

10) 요변천목(窯變天目) : 천목(天目)은 송(宋)의 흑유(黑釉) 자기를 일컫는 일본의 통칭. 요변천목은 검은 바탕에 철분을 함유한 기름 같은 유약이 소성과정에서 무지개처럼 오색으로 빛나는 희귀한 자기.

신둔면 소정리에서 태어나 줄곧 살았다. 중학교를 졸업한 1975년 도암 지순탁 선생의 문하에서 도자기와 인연을 맺었다.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봉제, 자동차 수리 등 기술을 배운 아이들도 많던 시절이었다. 이후 송월 김종호 선생한테 청자를, 군제대 후 향산 임향택 선생 아래서 백자·분청 등 도자기제작 전 과정을 두루 익혔다. 그 과정은 청자·백자·분청 등 다양한 도자기세계를 알고 나만의 작품세계를 찾아 응용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 현재는 은은하고 소박한 분청작품을 주로 한다. 새로운 작품을 연구할 때마다 한국도자재단·한국세라믹기술원·명지대학교 등의 도움을 받는다. 도자기축제는 판매도 되고 판로가 개척된다. 국내는 물론 해외 등 다양한 고객에게 우리 도자기를 선보이는 장이다. 가스가마를 30년째 사용하여 가스가마에 대하여 잘 안다. 도자는 내 삶의 모든 것이다. 도자기를 떼 놓고 내 삶을 이야기할 수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을 들여야 한다.

권 영 배(60세, 백산도요)

■ 주요 경력

제13회 온고을전통공예 대상²⁰⁰⁸, 이천시 도자기명장²⁰¹², 유네스코 & 세계공예협회 공동주관 우수공예품 인증²⁰¹⁴

■ 작품전

전통도자 명품 재현전²⁰⁰⁹, 서울, 추억을 담은 도예전²⁰⁰⁹, KBS대전방송국, 대전, 한중일 명가작가 초청전²⁰¹³, 상해, 중국, 자연을 품은 도예전²⁰¹⁴, 이천아울렛, 이천, 피브리아노 엑스포 전시회²⁰¹⁵, 피브리아노, 이태리

고등학생 때 전국미술대회 수채화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 박부원 선생이 전주의 모 카페에 걸린 내 그림 ‘모란’을 눈여겨 봐 고향 전주에서 이천으로 오게 됐다. 1977년 박부원 선생한테 분청을, 현무남 선생^{현암요}한테 백자기법을 배웠다.¹¹ 1991년에 향림재활원에서 도자기 지도교사로 재직하며 분청 흙과 전통 장작가마의 원리에 대해 연구했다. 백산도요를 설립하고 주변 요장에서 가마에 불을 댕다고 하면 찾아

11) 박부원(도원요, 1938~)은 광주왕실도자기 초대 명장(2008)이며, 현무남은 이천의 전통 도예문화를 이끈 1세대로서 고명순·김완배·유근형 등과 한국미술품연구소에서 근무하였다.

가 전통가마의 장점과 문제점을 기록했다. 그렇게 연구를 거듭한 끝에 ‘도자기 소성용 장작가마’로 발명특허를 취득했다. 이 가마는 연료비가 저렴하고 경제적이며 작품 성공률이 80%에 달한다. 최근 달항아리의 형태 미학과 황금 비율, 분청보리문을 연구하며 작품을 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도자기는 연륜이다. 절대적인 시간과 인내를 필요로 한다. 전통도자기는 스스로 오랜 연마와 기다림 끝에 탄생한다. 완숙단계에 이르면 더욱 멋지고 아름답다.

김 영 수 (60세, 도성도요)

■ 주요 경력

경기도 우수 관광기념품 공모전 대상²⁰⁰⁸, 한국 전승 도예협회 이사^{2009~2014}, 이천시 도자기명장²⁰¹⁴

■ 작품전

이천시 초대작가 김영수도자전²⁰¹², FNART 갤러리, 서울, 이천 유네스코창의도시 지정기념 작가전²⁰¹², 노암갤러리, 서울, 세토 도기제²⁰¹³, 세토시, 일본, 명지산업대 도자기기술학과 전시전²⁰¹³, 한가람미술관, 서울, 한국전승도예협회전²⁰¹⁶, 한벽원 미술관, 서울

신둔면에서 병영생활을 하면서 도자기에 매력을 느꼈다. 그게 인연이 되어 1978년 신둔면의 세창도예연구소에서 도자제작 기술을 익혔다. 낮에는 흙을 수비하고 흙 앙금물을 광목천에 붓고 햇볕에 자연건조를 시키고 꼬박을 미는 등의 일이었다. 그렇게 23년 동안 도제생활을 통해 청자·다기·이중투각 등 전통도자기 기술과 제작기법을 두루 익혔다. 2002년 도성청자도요를 설립하고 초기엔 실패를 많이 했다. 힘들어서 도자의 길을 포기하려고 다른 일을 알아본 적도 있다. 하지만 곧 도자의 길로 다시 들어섰다. 흙 배합부터 유약, 이중투각 등 몸으로 터득한 도예가 가장 잘하는 일이라는 판단이 섰다. 그 후부터 현재까지 흔들림 없이 전통도자 제작방식에 현대성을 접목한 청자·백자·분청·다기 등을 두루 한다. 특히 ‘이중투각’은 오랜 시간과 정교한 기술 등이 요구되지만 그만큼 보람 있다. 가마 문을 열어 눈에 딱 들어오는 도자기가 있을 때 희열을 느낀다. 독특하고 차별화된 전통도자기를 만들며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싶다.

김 용 섭(60세, 다정도예)

■ 주요 경력

대한민국도예공모전 외 다수 입상, 한국전승도예협회 이사^현, 이천시 도자기명장²⁰¹⁵

■ 작품전

김용섭 도예 「달빛을 품다」展²⁰¹⁴, 한중일 국제도예전²⁰¹⁶, 경덕진, 중국, 한국도자학회전²⁰¹⁶, 경덕진, 중국, 한국전승도예협회전²⁰¹⁶, 한벽원 미술관, 서울

국가에서 운영하는 ‘마산도자기시험소’에서 교육을 받았다. 당시 20대 중반이었고 대기업 취업을 권유 받았으나 우리 전통도자기를 배우고 싶었다. 1983년 사람들에게 물어 물어 신둔면까지 왔다. 하지만 받아주는 요장이 없었다. 농로를 따라가다 6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분동국요 방철주 장인이 젊은 사람이 배울 열의가 대단하다면서 일해보라고 했다. 시키지 않아도 청소부터 눈에 보이는 일은 스스로 찾아 했다. 방철주 선생은 도자기 만드는 것은 물론 다른 일도 열심히 하는 것을 예쁘게 봐줬다. 그 인연으로 22년을 같이 지냈다.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니 성형 · 조각 · 회화 등 도자기제작 전 과정을 섭렵했고 상감기법, 박지기법, 음 · 양각기법 등을 사용해 고려청자를 재현할 수 있었다. 도자기는 나에게 과거이자 미래다. 오직 도자기만 보고 그 일만 해왔다. 유행을 쫓아가지 않고 자신 있는 작품을 세련되고 기품 있게 만들려고 한다. 작품은 항상 손으로 직접 한다. 다^多품종 소량 생산이다.

권 태 영(59세, 로원요)

■ 주요 경력

목포도자기 전국공모전 입선, 제33회 대한민국현대미술대전 최우수상²⁰¹⁵, 이천시 도자기명장²⁰¹⁶

■ 작품전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도자기기술학과 작품전²⁰¹³, 한국전승도예협회전²⁰¹⁵,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²⁰¹³

이천 토박이다. 도자기마을인 신둔면 남정리에서 태어나고 자라 흙과 친밀한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청소년기에도 도예를 접했지만 1980년대 이천의 토

정 홍재표 선생^{이조요} 문하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도예길에 들어섰다. 그 외 요장에서 물레와 전통도자 제작기법을 배웠다. 37세에 로원요를 설립한 뒤 한때는 밤 10시 전에 퇴근을 해본 적이 없다. 도자기가 없어서 못 팔 때도 있었다. 고객과의 약속은 철저히 지켰다. 7년 전 한 교회 목사로부터 의뢰받은 이중투각 작품이 미국의 지미 카터 전^前 대통령에게 선물로 전달되면서 유명세를 탔다. 작업장에서 잠을 자다가 흠냄새 때문에 잠이 일찍 깨는 경우가 있었다. 불을 때면 유약냄새가 나듯 흠냄새가 난다. 그러면 흠향에 취해서 좋은 도자기를 만들어보고 싶어졌다. 그런 날에는 도자기 두께를 예민하게 느끼고 같은 일도 힘이 덜 들었다. 전통기법에 현대성을 입힌 다양한 생활자기를 만들면서 전통청자 투각을 계속 연구하고 있다.

김 판 기(58세, 지강도요)

■ 주요 경력

지강도요 설립¹⁹⁹⁴, 제28회 동아공예대전 대상²⁰⁰⁰, 이천시 도자기명장²⁰¹⁶

■ 작품전

이천도자기축제 특별기획전²⁰¹⁵, 한국 차문화와 다기전²⁰¹⁵, 한일 도예가 교류도자전²⁰¹⁵, 이태리 밀라노 한국공예전²⁰¹⁷

서울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청자를 본 뒤 이천으로 왔다. 조부가 목수였는데 그 기능을 물려받은 것 같다. 1983년 고^故 우당 한명성¹² 선생 아래서 5년 동안 전통 청자기법을 공부했다. 다른 요장을 다니며 분청과 백자기법도 배웠다. 전통 청자에 빗살문양을 넣은 청자생활자기, 백자 달항아리, 일인용 차 도구 등 독특한 기능성과 미적 감각의 결합, 전통기법에 현대적 디자인과 소비자의 취향을 접목시킨 작품을 한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주로 만난다. 예컨대 중소기업인들의 교류 활동인 기업종교류회 등을 통해 아이디어와 정보 등을 교환한다. 취미로 기타를 친다. 작년에 파리 메종 오브제박람회¹³에 참가했는데 일전에 작품을 구입해 간 프랑스인이 집으로 초대했다. 보람이었다. 후배들에게는 도자기 빗기뿐만 아니

12) 1925년 황해도 봉산의 3대 도예가 집안에서 출생. 1세대 도예가.

13)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적인 디자인 전시회.

라 기초소묘, 색채감 등 미술 공부도 게을리 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내 삶에 도자기는 흙 한줌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과정이다. 흙이 없는 삶은 상상해보지 않았다.

박 래 현(59세, 원정도예원)

■ 주요 경력

원정도예원 설립¹⁹⁹⁴, 한국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¹⁹⁹⁶, 세계도자비엔날레국제공모전 심사위원장²⁰⁰³, 이천시 도자기명장²⁰¹⁶

■ 작품전

박래현의 「달 향아리전」²⁰¹³, 「도자기 재장전 : 이천현대도자전」^{2013~2014}, 독일 루드비히스부르크 도자박물관, 「Modern 韓」²⁰¹⁵, 리모주, 프랑스

27세에 도예의 길에 들어섰으니 늦깎이다. 1984년 세종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있을 때 도자기를 만들어 보라는 아버지박석호, 1919~1994, 서양화가, 홍익대학교 미대 교수 역임의 권유로 신상호 선생도방요를 만났다. 도방요에서 물레부터 다양한 도자기기법을 배웠다. 본격적으로 도예가의 길을 걷게 된 것은 1988년 이천으로 내려와 이준희 선생청운도예연구소와 여러 요장을 찾아다니며 도자기술을 습득하면서부터다. 실패한 작품은 보관하여 원인을 분석한다. 회화전공은 도자기제작에 많은 도움이 된다. 도자기에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분청에 민화와 그림을 새겨 넣는 시도를 했다. 전통 도자기법에 산과 나무, 새와 물고기, 연잎과 연꽃 등 스치듯 보는 일상 속 풍광을 담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낸다. 생활자기에 들녘의 평화로운 색과 예술성을 입혀 실용적이고 편안함을 주려고 한다.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과 아이디어, 디자인 등이 작품에 녹아있어야 한다.

유 용 철(60세, 녹원요)

■ 주요 경력

경기도 공예품대전 은상²⁰⁰⁴, 이천 도자트랜드 공모전 입상²⁰¹⁰, 이천시 도자기명장²⁰¹⁶

■ 작품전

제1회 한국전통가마보존협회 회원전,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도자기기술학과 개설 10주년

작품전, '60 도예인의 꿈, 아름다운 나눔 보듬터' 도예전

어렸을 때부터 흙을 만지고 가마터에서 놀았다. 선친유창곤, 서창도에게 도예제작을 배우며 연구해 분청 인화문 기법을 개발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나무가 많은 곳을 찾아다니며 가마를 제작했다. 가스가마 · 전기가마 등이 들어오기 전까지 가마의 땀감은 나무였다. 땀감과 좋은 흙이 있고 운송수단이 발달된 곳에 가마터가 많았다. 20대 초반 다니던 대한항공을 그만뒀다. 도예의 길을 걷기 위해서였다. 도예의 길을 반대하던 아버지를 설득하여 전통가마 제작기법과 청자투각, 분청자기 기법을 연마했다. 도자기를 더 공부하고 싶어 청강대학교를 거쳐 4년제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마쳤다. 아버지와 함께 설봉공원 장작가마 축조에 참여했다. 섬세하고 정교한 작업인 분청인화문 작품을 주로 한다. 도자기의 매력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불 앞에 서면 한없이 겸손해진다. 누가 봐도 작가가 공들인 것을 느끼고 칭찬 받는 도자기를 만들고 싶다.

이 규 탁(57세, 고산요)

■ 주요 경력

일본 고취요 입문¹⁹⁷⁸, KBS 도자기 공모전 장려상¹⁹⁸⁵, 제34회 공예품경진대회 장려상²⁰⁰⁴

■ 작품전

일본 암전옥 미술관 도예전¹⁹⁸², 한국다기명품 100인전²⁰⁰⁰, 한국현대도예작가초대전²⁰⁰²

1978년, 고등학교 3학년 때 도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다카토리 세이잔 도예가와 사제의 연을 맺었다. 세이잔 선생은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 도공 가운데 한 사람인 다카토리 팔산(高取八藏)의 11대 후손이다. 다카토리요에서 회령유 기법, 차 도구 등 조선 도공의 도자 제작기법을 전수받았다. 5년 후 한국으로 돌아와 이천에서 차 도구 외에 분청자기 · 회령유 도자기 · 달항아리 등 우리 전통도자기 연구에 집중했다. 옛날 방식으로 도자기를 제작한다. 흙 · 유약 등을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 유약의 주 재료는 벚짚 재다. 쌀로 유명한 이천은 양질의 벚짚 재를 구할 수 있는 곳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약 이름을 ‘이천쌀벚짚유’로 하려고 한다. 도자기작품은 초조

해 하거나 급하게 서둘러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불이 도와줘야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몸으로 익히다보면 작품은 저절로 나온다. 재미있게 하다보면 그것이 쌓이고 세월이 흘러 전통이 된다. 내가 봐서 아름다운 작품은 다른 사람 눈에도 아름답다.

3. 도예가들과 이천도자기의 미래

1) 지금은 명장이 아니어도 괜찮아

도자기명장 외에도 이천의 도자기를 지키며 이천도자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온 도예가들이 많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도자기를 빚고 있는 도예가들이야말로 이천 도자기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본고에 서술한 도예가들의 선정 요건은 없다. 많은 도예가들의 양해를 바란다.

해주 엄기환^{해주도예연구소}은 1946년 이천에서 태어나 신둔초등학교를 졸업하였고, 1959년 수금도요에 입사를 시작으로 도예에 입문한지 60년 된 이천 도예역사의 산증인이다. 전통청자 등 도자기작품도 훌륭하지만 옹기·칠기·분청·청자 등 도자기작품 1,500여 점 이상을 수집하여 이천도자역사박물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신철^{흥으로 빛은 달은}은 연리문기법 자기와 소박하고 시원하며 풍만하고 넉넉한 달항아리에 이야기를 넣으며 달항아리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고 있다. 이상봉^{상민도예}은 전통 청자와 분청자기 외에 청자와 분청투각 스탠드조명 등 작품을 만들고 있다. 조신현^{조신현도예연구소}은 기계·도구·공구 등 현대 도자제작의 다양한 시스템을 두루 갖추고 연리문기법과 곡선의 자연미를 살려 ‘선의 흐름-자연’ 시리즈를 작업하고 있다.

김현진^{우송도예}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흙을 직접 채취해 와 반죽하는 등 홀로 전통 방식 도자기를 제작한 까다롭고 엄한 스승이자 아버지^{우송 김대희, 신둔초등학교 도예교실 도예강사} 역임의 ‘흙의 마음을 느끼고 흙의 소리를 들으며 흙을 아껴라’ 하는 도예철학을 도자기에 담고 있다. 이호영^{한얼도예}은 이천 수광리 토박이로 아버지^{이현송, 1913~1993, 칠기 장인, 이천근현대도예분야 1세대}가 흙을 수비하는 곳에서 뛰놀고 칠기가마 안에서 잠을 자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평면형 도자기 제작기술을 개발해 전통도자의 새로운 세계를 펼치고 있다.

권오학^{금모을요}은 도자기로 가야금·장고·만년필 등을 만들며, 최근에는 초가집 등 산수를 도자기에 조각하여 전통 민속주 도자기병을 만들고 있다. 김봉태^{태산도요}는 중학생 때 우연히 흑백 TV에서 독^{용기} 만드는 장면을 보고 그 기억에 매료되어 30여 년간 달항아리·분청 등 전통 도자기법에 현대 도예기법을 응용한 작품을 만들고 있다. 곽경태^{투루}는 전통기법과 장작가마를 이용한 독특한 형태와 흙의 질감이 살아 있는 용기와 분청생활자기를 만든다. 강화수^{산아래}는 장작가마를 땀 때 불과 재티의 요변을 이용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도자기에 담는다.

김성태^{송월요}는 1970년대 후반 도예에 입문하여 그의 아버지 김종호에 이어 40여 년째 전통청자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도예고등학교 요업교사 이근산^{산아래}은 도예체험학습장을 완비하고 전통물레로 청자와 생활자기를 만든다. 임선홍^{한국도예고등학교}, 2017년 11월 대입에 수시합격 학생은 도예작가가 꿈이며 재미있는 도자기를 만들고 싶어 한다. 윤영규^{시원도예}, 이천^{도예교육원}은 백자 도자전등갓을 만들며 체계적인 도예교육을 통해 소품 위주의 학생들 도예체험학습은 물론 일반인들의 작품 활동의 수준을 높여 도예작가를 양성하고 있다.

2) 도자기명장들의 사회공헌활동과 이천 도예가 나아갈 길

우리 전통도자기는 일본에 국보 막사발 표준적 기법을 전수하였고, 중국에는 청출어람의 세계적 비색청자로 응^진應^戰함으로써 천하를 경이와 찬탄으로 몰아넣었다.¹⁴ 이러한 우리 전통도자기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도자기명장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도예고등학교와 연계하여 명장 강의와 명장공방 현장학습 프로그램, 이천 교육지원청이 신둔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사 도예교육 직무 연수, 산업인력관리공단 자격증 심사, 각종 도예 관련 심사, 한국 도자역사와 문화에 관심 있는 국내 및 해외 도자작가 및 일반인들에게 전통도자 제작기술 등을 전수해주는 도자 도제^{徒弟}

14) 김재광, 『명장들의 이야기 : 대한민국 도자기』, 솔과학, 2006, 4~5쪽.

임항택 명장에게 기술을 전수받고 있는 한국도예고등학교 학생들



이천도자기명장회 '행복한 동행' 기탁식(2018)



프로그램 진행 등이 있다. 그밖에도 도자명장 특별전 단체전, 도자기축제나 세계도자비엔날레, 공예 페어 등에서 전통도자기 제작 시연, 전통도자기 설명, 도자교실, 전통가마 불 지피기 행사에 참여하고 봉사활동을 하며 일반인은 물론 젊은 도예작가들에게 우리 선조의 우수한 전통 도자 기술과 예술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2005년에 선정된 최인규와 이향구를 축으로 하여 2006년에 ‘이천시도자기명장회’를 구성했다. 초대회장은 이연휴였다. 뒤를 이어 김복한과 최인규를 거쳐 2017년 현재 회장은 이향구 명장이다. 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이천시도에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친목을 도모 한다. 사라져가는 전통도자기를 앞장서 알리고 홍보하며 도자기 민간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

도자기명장이 되면서 달라진 점도 많다고 한다. 책임감이 늘어나서 도자기명장의 품격에 맞게 작품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됐다. 고객들은 작품의 가치를 더욱 인정

해준다. 명장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마음에 새기고 어디를 가든 예의를 갖추려고 하고 교통 규칙과 사회 규범을 잘 지킨다. 각 명장의 기법을 전수하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이천시는 도자기 인프라 구축이 타지방에 비하여 매우 잘 되어 있다. 다양한 형태로 지원과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전통도자기의 맥이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이천이 도자의 메카답게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 많다. 도자기명장들과 이천의 도예문화를 아끼는 사람들은 다양한 자구책을 내놨다. 도자기 산업은 개인이 혼자서 하기는 버거운 문화산업이다. 그러므로 기관과 도자기명장 도예인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자구책을 찾아야 할 때다. 맥이 끊기기 전에 지원과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해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요장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관광 정책이 필요하다.

도예가들 또한 국내는 물론 외국인들의 취향을 살펴 그에 따른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이천도자기와 이천에 있는 식당, 도자기와 다른 산업과 결합 및 융합 등 연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관에서 명장들 작품뿐만 아니라 우리 도자기의 강점을 해외에 홍보하는 등 홍보 및 판로 개척에 지원을 해줘야 한다. 해강도 자미술관을 잘 활용하고 이천에 도자기 종합전시관을 짓는다든가 시민뿐만 아니라 이천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명장과의 만남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있기를 바란다.

이천시에서 진행하는 도자공모전이 더 있어야 한다. 관에 도자담당 전문인력이 배치돼 있기를 바란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도예가들에게는 어려움이 있다. 명장 조례와 도자관련 행사 등에 대한 매뉴얼을 정리해두면 다음 담당자도 그것을 참고로 하여 지침이 되고 방향을 잡고 개선하리라고 본다. 도자기에 스토리텔링을 입혀야 한다. 도자기축제 때 도자기명장들이 흙 수비부터 전통방식의 도자 제작과정을 관람객들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므로 우리 전통도자 제작기법을 일반들에게 알려야 한다. 명장들의 도자 제작기법을 기록하여 남기고 후세에 전해야 한다. 무엇보다 명장들은 좋은 작품을 꾸준히 만들어야 한다.

참고문헌

이도형, 『흙을 빚는 사람들』, 은성문화, 1999.

이천시지편찬위원회, 『이천시지』, 2001.

김재광, 『대한민국 명장들의 이야기』, 솔과학, 2006.

이천시, 『이천도자』,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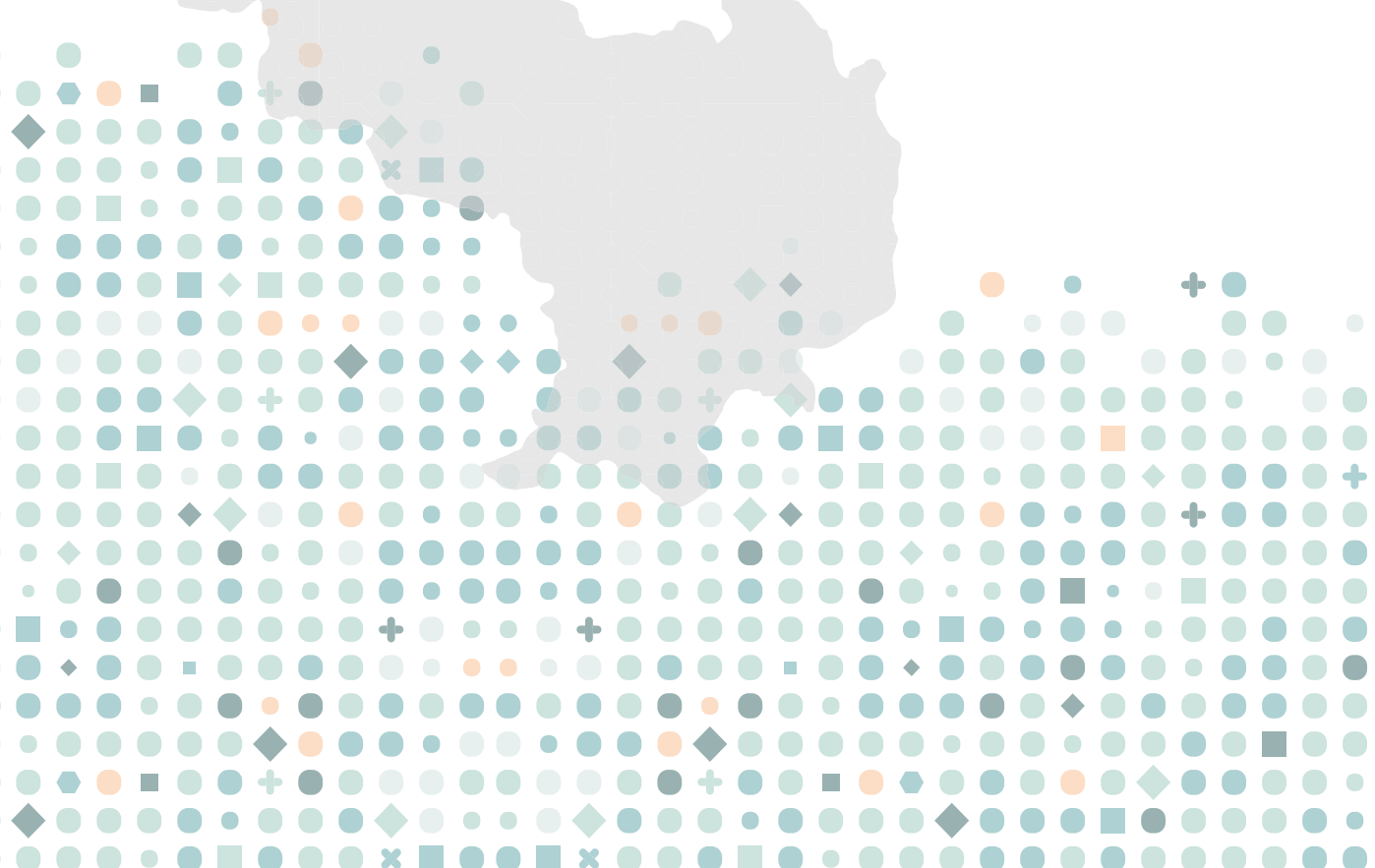
노수민, 『천년의 만남』, 한국문예산업, 2011.

이천문화원, 『이천문화 50년』, 2014.

KBS, 「KBS 다큐 도자기 6부작」, 200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즐거움이 넘치는 곳



3편



01

모두가 즐거운
축제





이태호 | 이천시 학예연구사

제1장 모두가 즐거운 축제

1.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

백사산수유꽃축제는 산수유꽃이 피는 매년 4월경에 수령 100~500년 이상 된 산수유나무 수만 그루가 있는 수도권 최대 군락지 백사면 송말리·도립리·경사리·조읍리 등 원적산 기슭에서 개최된다. 이 시기에는 마을 전체가 노란색으로 물들어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한다. 축제 기간 동안 방문객들은 마을 뒤편 원적산 일대에 조성된 산수유 둘레길에서 산책을 즐기며 산수유꽃을 관람할 수도 있고, 인근의 천연기념물 제381호 반룡송과 수령 250년의 희귀종인 천연기념물 제253호 이천 백송 등의 다양한 볼거리도 볼 수 있어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1) 이천백사산수유꽃 축제의 탄생

백사면 도립리·경사리·송말리 일대는 산수유 집산지로 이른 봄에는 노란 꽃, 늦가을이면 빨간 열매로 온 마을을 뒤덮어 화가와 시인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다. 선비 꽃이라고도 불리는 산수유꽃은 진달래꽃이나 개나리꽃, 벚꽃보다 겨울을 빨리 이겨내고 노랗게 물들이며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으로 ‘봄의 전령사’라 불린다. 매화나 벚꽃에 비해 개화기간이 길지만 수도권에서 집단군락을 찾아보기 어려운 꽃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천의 산수유마을에서는 수령이 100~500년 넘는 산수유나무 8,000여 그루가 군락을 형성하고 있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 상춘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특히 백사면 마을 전체가 산수유나무로 뒤덮여 있어 초봄에는 노란 꽃이, 가을에는 선홍빛 열매가 온 마을을 감싸는 전국 제일의 산수유 산지로 각광받고 있다. 영원사 사찰로 올라가는 산길 여기저기에도, 또 정겨운 시골마을의 개울 옆이며 밭둑, 심지어는 축사 옆에도 사이사이 노란 꽃으로 곱게 물든 정경은 한 폭의 수채화로 이채로움을 더한다. 그리고 주변에는 원적산·영원사·반룡송·백송, 그리고 육괴정과 고인돌 등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어 연계 관광코스로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의 발단은 1999년 ‘문화관광도시 이천을 위한 시민사회의 과제’란 주제를 통해 「2000년 산수유꽃축제 계획안」을 공식적으로 제안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산수유꽃축제 계획안에는 원적산 일대가 우리나라 3대 산수유 집성지임을 감안하여 꽃 축제와 가을 열매축제를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원적산 산신제와 등반대회, 봄나물 채취대회, 산악사이클대회, 사진대회, 그림그리기대회, 농악축제, 산수유차 시음회, 이천 토속음식축제, 산수유 분재판매, 이천쌀 판매, 이천특산물 판매, 가을장터 등의 축제 내용과 산수유를 이용한 상품개발, 차, 음료수, 과류, 엽서, 사진, 분재, 모독, 정원수, 지역의 특산품을 이용한 상품개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상품개발, 기타 지역주민 상품개발 등이 제안되어 있다.

이천을 찾는 관광객의 70% 이상이 서울에서 온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과 수도권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정책이 요구되었다. 농촌을 주제로 하는 산수유꽃축제는 수도권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농촌의 꽃축제이며, 가을에는 열매를 제일 마지막까지 볼 수 있는 관광자원인 동시에 도자기·쌀·온천과 어우러진다면 특화가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2001년 세계도자엑스포의 성공적인 기원을 위해 2000년에 치러지는 산수유축제는 국내외에 많은 홍보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2) 산수유꽃축제가 걸어 온 길

2000년 4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백사면 도립리 야외 행사장에서 ‘제1회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가 열렸다. 해강도자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는 ‘이천의 불씨’



제1회 산수유꽃축제
행사장



제2회 산수유꽃축제
성화봉송



제3회 산수유꽃축제
시춘목 제막식

를 백사체육회에서 점화하여 행사장까지 봉송하고, 채화로 시작된 개막식에는 경기도립국악관현악단의 축하 연주와 행글라이딩 축하비행, 나비 날리기 행사가 이어졌다. 행사기간 중에는 산수유미술제, 문예백일장, 사진촬영대회, 괴정육현 추모제, 야생화전시회 등이 펼쳐졌다. 또한 백사 산수유를 원료로 한방차와 음료 등을 개발하여 시음회를 가졌으며, 본격적인 시판에 들어가 향후 산수유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도 했다.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준비상황을 사전점검하기 위한 예비행사로 열린 프레엑스포가 2000년 10월 10일부터 22일까지 설봉공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산수유꽃축제를 위한 홍보도 함께 이루어졌다. 축제의 개막을 알린 성화봉송대는 이천시에서 제작하여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이후 관내 체육대회와 장호원복숭아축제 등 각종 행사에서 널리 활용되었다.

2001년 4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축제장 내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2회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는 백사면 체육회장이 해강도자미술관에서 ‘이천의 불씨’를 채화함으로써 시작되었고, 불교로타리→구세무서로타리→분수대로타리→금강병원 앞→현방리 구도로 입구→홍천삼거리→송말리를 거쳐 도립리 주행사장에 도착하여 점화하면서 성황리에 개막식이 열렸다.

백사면 일대에 산수유가 많은 것은 이천에서 제일 높은 원적산^{643m}이 병풍처럼 북풍을 막아줘 다른 곳보다 기온이 다소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여기에 산자락의 척박한 땅도 생명력이 좋은 산수유에게는 물 빠짐이 잘되는 호조건으로 작용했다. 수령 100년 내외의 산수유가 8,000여 그루가 자라고 있으며, 이천시에서 가로변 등에 식재한 10년생 산수유 숫자도 7,000그루를 넘어서었다. 2회 축제에는 9만 3,000명의 관광객이 축제장을 찾아 6억 5,700만 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왔다.

‘제3회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 때는 주행사장 조성공사 및 진입로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축제장 내 산책로 정비 및 야간 관광객을 위한 가로등을 설치하여 쾌적한 관광휴식공원을 조성하였다.

산수유꽃축제는 보통 4월 초순 무렵 이뤄졌으나 3회 때는 이보다 봄이 일찍 찾아와 1주일 빠른 2002년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다. 3회 축제 때 처음 실

시된 풍년제는 시춘목^{始春木}이라 지정한 산수유나무에, 한 해 동안의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고 관객들의 참여 속에 한바탕 놀이마당을 연출하기도 했다.

산수유 시춘목^{始春木}

이곳 산수유 군식지는 중종 14년¹⁵¹⁹ 기묘사화 때 낙향한 김안국^{金安國}·강은^{姜應}·오경^{吳慶}·엄용순^{嚴用順}·성담령^{成聘齡}·임내신^{任萊臣} 등 육현^{六賢}들께서 은일^{隱逸}하면서 심었으며 봄에는 선비의 상징인 노란꽃 여름에는 향기 나는 잎 가을에는 자수정 같은 열매 겨울에는 마디마디 아름다운 눈꽃나무로 상징되고 있으며 약매는 약재로 처방되어 보혈강음제로 쓰이고 피로회복에 좋으며 특히 동맥경화도 예방된다 겨울을 이겨내고 첫봄을 알리는 산수유나무에 시춘목^{始春木}이라는 이름을 지어 후손들이 나무에 대한 고마움을 마음 깊이 간직함이다.

이천이년삼월이십구일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 추진위원회에서는 4회를 진행해 오면서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축제로 정착시키기 위해 2003년 4월 30일 평가회를 갖고 한국관광대학 권혁률 교수에게 의뢰하여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 활성화 방안 연구’를 발표하도록 하였다. 축제 만족도 분석은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비확률 표본추출방법인 편의표본추출방법을 이용하여 조사자에 의한 직접 인터뷰 형식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11일간 열린 ‘제5회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는 백사면민을 중심으로 한 순수 민간주도의 ‘백사산수유꽃축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새출발을 하였다. 이전의 행사와는 달리 기간을 11일로 연장하고 산책로 걷기, 전통혼례, 자연관찰, 시골풍습체험, 시골장터거리, 전통놀이경연 등 관광객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관광객 약 21만 650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로써 백사면 도립리·서경리·송말리 일대 산수유마을에서 개최된 산수유꽃축제는 많은 상춘객이 찾는 전국 규모의 축제로 새롭게 부상하였다.

5회째 맞은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는 면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산책로를 새롭게 단장하는 한편, 원두막 체험, 장작패기, 옛날 생활용품 전시회, 자연관찰, 꽃 감상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듬뿍 담아갈 수 있도록 다채로운 체험 이벤트 행사를 마련

산수유 막걸리와 산수유
동동주



해 큰 호응을 얻었다. 5회 축제에 인근 관광지인 도예촌과 설봉공원, 온천, 그리고 이천의 먹거리 쌀밥집을 찾은 관광객들도 크게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몫을 하는 효자축제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제6회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는 주행사장 무대를 마을회관 앞으로 옮기고 예년의 경우와 달리 무대행사를 줄이는 한편 산책로 개발, 체험장, 자연관찰, 나무순례 기행 등을 통해 관광객이 자연 속에서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행사로 진행되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개발과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한 특산품과 먹을거리 판매 등으로 소득에 보탬이 되었다.

2006년 날씨 변화로 인해 산수유꽃이 예상보다 조금 일찍 개화돼 꽃이 만개한 상태에서 개최된 산수유꽃축제는, 중국대륙에서 발생된 황사가 한반도로 날아와 최악의 황사현상으로 노랗게 핀 산수유꽃이 뿌옇게 보이는 등의 좋지 않은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백사 산수유마을의 자연생태를 그대로 체험 할 수 있도록 동선을 마련하는 한편, 관광객들이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제였다.

2008년 제9회 축제부터는 이천시 단월동에 위치한 ‘오성주조’ 공장에서 산수유축제의 명물인 ‘산수유막걸리’를 본격 출하하였으며, 2012년 제13회 축제에서는 산수유 관련제품으로 산수유로 만든 떡, 한과, 칼국수, 차, 빵 등 다채로운 음식을 접할 수 있었다.



제8회 산수유꽃축제 체험마당



제10회 산수유꽃축제 육현추모제



제11회 산수유꽃축제 풍년기원제

제13회 산수유꽃축제 평가회

한편, 해를 거듭할수록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처음으로 선보인 5.3km의 산수유 둘레길은 관광객들에게 시골 정취를 만끽하도록 하고 마음의 휴식을 제공하면서 관광객들의 큰 인기를 얻었다.

제14회 축제에서는 독일식 소시지, 중국식 꼬치 등 다문화 식당도 마련되었으며, 축제기간에 판매되는 상품은 모두 백사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지역 특산물로 생산자와의 직거래로 진행되었다. 또한 지역의 전통이 담긴 산수유 동동주, 산수유 막걸리, 산수유 효소 등과 함께 “이천백사산수유”라는 상표를 가지고 처음 시판되기도 했다.

2. 이천도자기축제

이천도자기축제는 우수한 이천도자기를 세계에 알리고 전통 도자문화의 저변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천시가 주최하고, 이천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 주관하여 매년 개최되고 있다.

그런데 본래 도자기축제는 이천문화원이 1987년에 처음 시작한 설봉문화제의 일환으로 출발했으며, 이후 1994년 제8회까지 개최되었다. 그러던 중 1995년 문화관광부의 시범축제를 거쳐, 1996년 우리나라 8대 문화관광 축제와 1997년 문화관광부 10대축제 등으로 선정되면서 급성장하였다. 축제 장소는 설봉호텔, 온천소광장, 온천가설행사장 등에서 개최되다가 1999년 세계도자기엑스포 주행사장이 설봉산으로 확정됨에 따라 설봉공원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2017년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 개최되었다. 특히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 경기도’라는 국제행사의 일환으로 2000년 사전행사, 2001년 본행사의 성격으로 개최된 이천도자기축제는 이천도자기의 국제화 및 한국도자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이천도자기축제 30주년을 맞이한 2016년에는 이천을 넘어 한국도자기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회를 진행하였다. 특히, 신진 도예가들의 신선한 작품으로 구성된 도자신작전을 비롯하여 현대 생활과 친밀한 실용적

인 ‘도자가구’를 주제로 공모전 및 총 22점의 작품 전시를 통해 단순히 눈으로만 감상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생활에 깊숙이 들어온 친환경적인 도자의 또 다른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관람객의 관심을 모았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이탈리아, 일본 등 6개국 9개 도시의 공예품을 전시하여 이색적인 도자기를 관람할 수 있게 하였다.

1) 도자기축제의 탄생 및 정체

이천도자기축제는 이천시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인 도자기를 도예촌·이천온천 등의 관광지와 쌀·복숭아 같은 지역 특산물과 연계한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목적에서 탄생하였다. 이천문화원이 1987년에 처음 시작한 설봉문화제의 하나로 출발했던 도자기축제는 외부로부터의 예산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년 행사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주인 역할을 해야 할 도예인들의 호응조차 저조하기만 했다.

‘제1회 이천도자기축제’는 1987년 9월 28일부터 10월 9일까지 설봉호텔 대연회장에서 도자기 전시판매 위주의 옥내행사로 열렸다. 25개 요장이 참가하였으며, 12일 동안 도자기 총판매액이 2,000만 원에 불과했다. 1988년 ‘제2회 도자기축제’는 88서울올림픽 개최와 더불어 당시 교통부 관광당국의 제의를 받아들여 올림픽 기간인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22일 동안 열렸다. 사음리 도예촌 전시관에서 열린 축제는 기대를 걸었던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방문객 5만 명 동원에 판매액 1,400만 원에 그쳤다. 1989년 ‘제3회 도자기축제’는 시내 중심가인 중리천 복개도로로 장소를 옮겨 9월 24일부터 9일 동안 거리축제로 진행되었으나 역시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으며, 1990년 제4회 축제는 당시 중부지방을 휩쓴 수해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었다.

1991년 제5회 축제 때부터는 미란다 호텔 뒤 공터를 이용한 가설행사장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다. 10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열린 제5회 도자기축제는 22개의 요장들이 참가하였다. 이때 처음으로 도자기축제 홍보를 위한 도자기아가씨 선발대회가 전야제 행사로 열려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선발된 청자아가씨·백자아가

설봉문화제 일환으로
진행된 제1회 도자기
축제



제5회 이천도자기축
제 홍보대사 도자기아
가씨



씨·분청아가씨 등은 축제 홍보사절로 활동하게 되었다. 1992년 ‘제6회 이천도자기 축제’에는 전승도예협회와 이천의 도예가들이 참가한 도예작품전이 미란다호텔 로비에서 별도로 열렸으며, 이와 병행해서 축제기간 중에 전통가마 불 지피기 행사가 도예촌 각 요장에서 열려 관광객 유치에 한몫을 했다.

이렇게 첫 축제부터 8회까지의 도자기축제는 도자기 할인 판매장을 중심으로 도예작품전, 전통가마 불지피기 행사가 가미된 단출한 내용이었다. 1991년부터는 도자기아가씨 선발대회가 신설되지만 1994년에 오면 설봉아가씨 선발대회로 명칭

이 바뀌면서 대회의 성격과 역할이 모호해지고 말았다. 지원예산 없이 참가요장들이 조금씩 내는 부담금만으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1989년 제3회 때부터는 야시장 업체를 끌어들여 행사장 시설마련과 운영문제를 해결하는 편법이 동원되었고, 결과적으로 도자기축제는 뒷전이고 요란한 먹거리 장터와 야바위꾼들이 판을 치는 난장판이라는 비난도 감수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천문화원은 도자기축제가 살거리가 중심을 이루는 축제이므로 상품 판매 수입을 통한 탁월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각계를 설득하였고, 1995년 문화체육부 관광당국의 호의적 반응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천도자기축제가 그해의 문화체육부 시범축제로 선정됨으로써 새로운 도약기를 맞게 된다.

2) 도자기축제의 도약

1995년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이천온천 가설행사장에서 열린 ‘제9회 이천도자기축제’는 문화체육부 시범행사로 선정된 탓에 정부와 경기도, 이천군으로부터 예산지원이 이루어졌고, 한국관광공사로부터는 행사자문과 함께 국내외 홍보와 이벤트 행사를 지원받았다. 홍보와 이벤트 전문회사들의 참여로 행사내용이 크게 보강되고 행사장 시설과 규모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홍보활동도 강화되어 서울 시내 중심가에서 사전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TV홍보와 언론사 초청 사업설명회도 열었다. 그 결과 ‘제9회 이천도자기축제’는 과거에 비해 관광객 유치나 판매 수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놀랄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은 이천도자기축제의 비약적인 성공에 힘입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듬해인 1996년부터 가능성 있는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육성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천도자기축제를 포함한 8대 지역축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때부터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지역축제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니 이천도자기축제가 지역축제 활성화시대에 불을 붙인 셈이었다.

‘제9회 이천도자기축제- 흙과 불의 잔치’는 문화체육부 장관과 경기도지사, 주한외교사절단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당국, 경기도립무용단 축하공연 등의 화려



제9회 이천도자기축제

제10회 도자기축제 일본 센소슈[千宗守] 사범
초청 한일다도교류회

한 개막식과 함께 막이 올랐다. 과거 도자기 할인판매장 중심의 단조로운 내용을 탈피하여 도예작품전, 차문화 산책, 야외영화제, 각종 공연행사 등 다채로운 볼거리들을 선보였다. 도자기 물레시연이나 아이들이 도공의 도움을 받아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 보는 내가 만드는 도자기 코너, 도자기에 직접 글씨나 그림을 그려 넣는 관광객 참여형 프로그램들이 처음 선보여 크게 인기를 끌었고, 해강도자미술관이 마련한 ‘한국의 잔’ 특별전과 도예촌 장작가마 불지피기 행사가 연계행사로 진행되었다. 54개의 요장들이 참가한 제9회 도자기축제는 열흘 동안 방문객 23만 명 유치에 판매 수입 5억 6,000만 원으로, 당초 기대했던 것 이상의 뛰어난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제10회 이천도자기축제’는 지난 해 시범축제의 뛰어난 성과에 고무된 이천시가 비로소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게 되고, 때마침 경기도가 2001년 세계도자기축제 개최를 결정함에 따라 어느 때보다도 큰 기대와 관심 속에 열렸다. 저명한 도예가 심수관과 정양모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발표자로 초청된 한일도자심포지엄, 일본 전통다도의 권위자인 센소슈(千宗守) 사범을 초청한 한일다도교류회, 주한 외국인 여성들이 참가한 국제 꽃꽂이발표회 등 비중 있는 국제행사들이 마련되어 높아진 이도자기축제의 위상을 알렸다. 문화관광부 8대축제로 열린 제10회 도자기축제는 16일 동안 외국인 4만 5,000명을 포함한 방문객 50만 명 돌파에, 총판매액 20억 원 달성이라는 비약적인 성과를 기록하였다.

전국 10대 관광축제로 열린 1997년 ‘제11회 이천도자기축제’ 때부터는 전문가에게 의뢰한 축제 평가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으며, 교류도시인 중국 경덕진시와 일본 시가라키정의 도예가들을 초청한 한·중·일 전통도예작가전과 흙과 불의 정신전, 가마터발굴 도자기전(해강도자미술관), 한국의 옹기전(마장면 장암리) 등이 선보였다. 제11회 축제는 122개 요장 참가와 외국인 방문객 7만 2,000명을 포함한 95만 명의 관광객 유치에 총판매액 30억 원을 달성하는 기록적인 성과를 올렸다.

문화관광부 집중지원 5대축제의 하나로 열린 1998년 ‘제12회 이천도자기축제’는 전국대학생 도예공모전이 신설되어 전통도예로만 이루어지던 축제의 내용을 현대도예의 영역까지로 확대하였다. 130개 도자업체와 98만 명 방문객 유치로 전년도 축제보다도 더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나, IMF로 인한 국내 경기의 침체로 판매수입

은 4억 원 가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부 6대축제로 열린 1999년 ‘제13회 이천도자기축제’는 세계도자기엑스포 주행사장이 설봉산으로 확정 발표됨에 따라, 전년도까지 행사를 진행해 왔던 온천광장에서 설봉공원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9월 8일부터 19일까지 12일 동안 열렸다. 축제의 급성장과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에 고무되어 참가요장이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 행사규모 역시 크게 확대되었고, 세계도예가 워크숍, 국제현대도예전, 대학생도예공모전 같은 비중 있는 행사가 진행되어 내용이 다양하고 풍성해졌다. 반면, 행사장 배치에 따른 문제와 시설부족, 행사운영 미숙, 교통체증 등의 문제점들도 드러났다. 13회 도자기축제 때는 처음으로 방문객수가 1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지나치게 부풀린 통계가 아니냐는 수치상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제9회 시범축제가 전환점이 되어 방문객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참가요장들의 매출액도 따라서 크게 증가하게 되자 그때까지 참가를 기피하거나 관망하던 도예인들이 적극적인 참가경쟁을 벌이는 사태가 벌어졌다. 8회 때까지는 매회 20~25개 요장에 불과했던 참가요장이 1995년 54개, 1996년 116개, 1999년에는 169개까지 늘어났다. 행사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설봉문화제 단위행사에서 독자적인 축제로 자연스러운 분리도 이루어 졌다. 이천도자기축제의 성공을 계기로 문화관광부의 지역축제 관광자원화 정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지역축제도 본격적인 경쟁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2000년 ‘제14회 이천도자기축제’는 1년 앞으로 다가온 ‘2001세계도자기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는 프레엑스포와 함께 열려 10월 10일부터 22일까지 13일간 계속되었다. 1월1일 새벽, 설봉산에서 채화하여 해강도자미술관에 보관하던 ‘2000의 불씨’를 도자기축제 행사장으로 옮기는 봉송행렬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성대한 개막식과 함께 막이 오른 축제는 대한민국 도자전, 청자전, 북한도자기특별전, 한·중·일 도예가 작품전, 흙과 불의 정신전 등을 선보였으며, 참여업체들의 도자기를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는 종합전시관을 마련하여 관람객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제14회 도자기축제 체험행사장에서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관광객



제14회 도자기축제 한·중·일 장작가마 작품전

제14회 도자기축제 전통가마 불지피기 행사



축제 때마다 가장 인기가 높았던 체험행사를 토야·토우 만들기와 도예교실 3가지 유형으로 확대 운영하여, 개별관광객이나 단체관광객 모두 불편 없이 도자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설 전시행사 외에도 한·중·일 도예가 워크숍, 클레이올림픽, 전통가마 불지피기, 도자기 경매 등 도자기 관련 특별행사와 다채로운 공연행사들을 마련하여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제14회 이천도자기축제’는 엑스포 예행연습을 위한 3개 지역 동시 개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6만 3,000여 명을 포함한 90만 명의 방문객 유치에 매출액 25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3)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와 이천도자기축제

‘세계도자기엑스포2001경기도’ 및 ‘제1회 세계도자비엔날레’와 연계행사로 진행된 ‘제15회 이천도자기축제’는 2001년 8월 9일 엑스포 주행사장인 이천세계도자센터 광장에서, 김대중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수많은 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성대한 개막식과 함께 막이 올랐다.

‘함으로 빛는 미래Shaping the Future with Earth’라는 주제로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80일 동안 열린 2001세계도자기엑스포는 개막 당일부터 한여름 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많은 인파가 몰리기 시작하여 개막 8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하는 상황을 이루었다. 세계도자기엑스포는 이천·여주·광주 3개 행사장을 합한 전체 방문객수가 당초 목표인 500만 명을 크게 상회하는 606만 명에 이른 것으로 최종 집계됐으며, 그중 이천행사장이 306만 명으로 전체 방문객의 절반이 넘는 5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도자기엑스포 및 도자비엔날레의 주요행사들을 보면 3개 지역행사장을 각각 이천은 ‘전통과 예술’, 여주는 ‘산업과 유통’, 광주는 ‘문화와 이벤트’로 나누어 각각 주제별로 다채로운 행사들을 마련하였다. 주행사장인 이천에서는 세계도자문명전을 비롯하여, 제1회 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세계현대도자전, 야외웅기전, 국제도자워크숍 등을 선보였다. 특히 세계도자문명전은 옛날 원시토기에서부터 근세에 이르는 동서양 도자문명의 전개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여주는 전

시였으며, 세계현대도
자전과 비엔날레 국제
공모전은 현대 도자문
화의 다양한 흐름을 한
눈에 접할 수 있는 대
형 전시회였다. 세계도
자문명전 등은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만큼 세



세계도자비엔날레 국
제공모전 시상식

계적인 명품과 걸작들이 다수 전시되어 도예인은 물론 일반인들에게까지 큰 관심을 끌었다.

이천세계도자센터 1층 전시실에서 열린 세계도자문명전은 동서양의 유명박물관들이 소장한 총 351점의 도자유물들을 전시함으로써 엑스포의 위상을 높이고, 다수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세계적인 도자축제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국내 관람객들에게는 세계 도자문명의 다양한 흐름을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동양도자실에는 중국의 고궁박물관, 일본 오사카 시립동양도자미술관과 아이치현 국립도자자료관,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과 호림박물관 등 유명박물관 및 개인 소장품 180여 점이 전시되어 한·중·일 삼국과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도자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양도자실은 유럽을 중심으로 동서양의 도자교류 및 서양도자의 발달을 보여주기 위한 기획전으로 진행되었다. 프랑스 세브르국립도자박물관과 루브르박물관, 스위스 아리아나박물관 등이 소장한 고대 이집트 토기부터 근대 유럽도자기에 이르는 도자유물 170점을 전시하였다.

세계현대도자전은 세계 도자예술 발전에 기여한 저명한 현대 도예가들을 대거 참여시켜 현대 조형도자의 흐름과 발전과정을 조망함으로써 미래 도자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전시회였다. 피터 볼커스, 준 가네코 등 세계적인 거장들을 포함한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17개국 38명의 작품 74점이 선보였다. 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은 조직위원회가 전 세계의 역량 있는 신인작가와 기성작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창의성·예술성·실험성의 경쟁을 통한 세계도자예술의 방향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행사였다. 공모분야는 생활도자와 조형도자로 이원화하고 대상은 분야에 관계없이 1점, 금상 이하는 각 분야에서 균등한 비율로 선정하도록 했다. 제1회 국제공모전에는 세계 69개국에서 1,918명이 4,206점의 작품을 응모하는 성황을 이룬 가운데,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가려 뽑은 입상작 305점이 전시되었으며, 나이지리아 국적의 로손 오예칸이 영예의 대상을, 생활도자 부문의 이용필^{한국}과 조형도자 부문의 캔 이스트맨^{영국}이 각각 금상을 차지했다.

세계도자센터 내 도예공방에서 열린 이천국제도자워크숍은 세계 각국의 도예가들을 초청하여 작품 제작과정을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국제적인 도자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였다. 피터 볼커스를 비롯한 세계적인 도예가와 한국작가 80명이 참가했으며, 워크숍의 내용은 영상물로 제작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하였다. 9월 20일부터 3일간 이천세계도자센터에서 열린 국제도자학술회의에 이어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열린 IAC집행위원회는 세계에서 유일한 도자기 국제기구 회의를 이천에 유치함으로써 엑스포의 국제적인 공인과 함께 한국도자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80일간의 행사기간 중에는 토야 만들기, 도예교실, 도자기 페인팅, 도자기 경매, 차 문화교실 같은 각종 체험행사 외에도 세계 민속공연, 거리 퍼레이드 및 거리축제, 인기가수 초청공연, 청소년 동아리페스티벌, 국악의 향연 같은 공연행사들이 줄을 이었다. 이벤트 행사로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한 클레이올림픽이 전문 도예인들 외에도 많은 일반인 방문객들이 참여하여 호평을 받았고, 도자기공원에서 정기적으로 열린 전통가마 불 지피기도 방문객들의 관심을 끈 이벤트 가운데 하나였다. 세계도자센터에서 상영된 도자기 전쟁을 주제로 한 입체영상물과 저녁마다 펼쳐진 옥외 비주얼 쇼는 특히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행사였으며, 그밖에도 경기문화재단의 한복패션쇼를 비롯하여, 경기무용제, 열전가수왕, 한가위 민속대축제 등과 함께, 이천시의 각 문화예술단체와 사회단체들도 다양한 행사들을 마련하여 손님맞이에 나섰다.

80일간의 세계도자기엑스포는 이천을 세계 속의 도자문화도시로 뚜렷이 각인시켜준 행사였다. 당초 우려를 씻고 목표치를 훨씬 넘는 관람객을 유치하였으며, 전반적인 행사운영과 상품판매 면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자산업과 지



도자기엑스포 500만
관객 돌파 축하공연

역경제에 미친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이천시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도예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무엇보다도 이천시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600만 명의 방문객 중 절반 이상이 이천행사장으로 몰린 이유는 먼저 세계도자문명전, 비엔날레 국제공모전 같은 중요한 국제전들이 주행사장인 이천에서 열린 것과 관련이 있다. 그밖에도 그동안 14차례 개최한 도자기축제를 통해 쌓아올린 폭넓은 인지도와 경험, 타행사장의 배가 넘는 넓고 잘 정돈된 공간, 시원한 설봉호수를 끼고 설봉산 자락으로 둘러싸인 수려한 주변 경관도 한몫을 했다. 조직위원회가 시도한 3개 지역행사장의 차별화 전략이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한 점도, 볼거리가 가장 풍성한 이천행사장으로 방문객들이 몰린 이유의 하나였다.

4) 2000년대 이후의 도자기축제

세계 속에 한국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린 세계도자기엑스포 성공적 개최의 열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목표 아래 열린 ‘제16회 이천도자기축제’는 ‘흙과 불의 큰 잔치’라는 주제로 2002년 9월 6일부터 29일까지 24일간 설봉공원 및 도예촌 일

원에서 진행되었다. 축제기간 중 전시행사로는 도자기와 꽃의 접목을 시도하여 아름다움을 표현한 화기전과, 도자기시화전, 학생작품전, 흙과 불의 정신전, 안동하회탈 특별전 등이 열렸다. 참여행사로는 도예교실 외에도 추억은 방울방울, 나만의 식기 만들기, 손바닥 발바닥 찍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그밖에도 국제도자워크숍, 클레이올림픽, 다도시연, 전통가마 불지피기, 도자기 경매행사 등이 펼쳐졌다. 한편, 축제 초기와 중반에는 태풍 루사와 아폴로 눈병의 영향을 받아 부진을 면치 못했으나 후반으로 갈수록 방문객들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제16회 축제부터는 과거에는 볼 수 없던 이천도자기 및 도자기축제의 이미지를 상징화한 축제 마스코트인 ‘토담이와 화담이’가 등장하였다. 토_土와 화_火는 도자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흙과 불을 의미하고, 담_潭은 담박하다는 뜻의 한자어로 도자기의 맑은 빛과 청아한 소리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여기에 어미 ‘이’를 더해 우리말의 부드러운 어감을 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제17회 이천도자기축제’는 ‘제2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와 연계하여 ‘흙과 불과 자연과의 만남’을 주제로 2003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60일간 개최되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주한 외교사절을 비롯한 국내외 초청인사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화려한 개막식은 흙피리 연주와 달 향아리에 바치는 노래, 도립무용단과 도립팝스오케스트라의 공연 등으로 축제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비엔날레 이천행사장에서는 제2회 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수상작품전과 함께 제2회 국제도자학술회의, NOW&NOW 현대도자전이 열렸다. 도자기축제 전시행사로는 화기전, 전통굴뚝전, 전국 도자기명장전, 학생작품전 등이 개최되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특별행사로는 도자기워크숍, 클레이올림픽, 경기백일장, 전통가마 불지피기, 도자기 경매행사 등이 펼쳐졌다. 축제기간 중 기상상태 불량 및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제17회 도자기축제는 비엔날레의 특수효과로 244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제18회 이천도자기축제’는 2004년 9월 17일부터 10월 10일까지 24일간 설봉공원 및 도예촌 일원에서 ‘흙으로 느껴보는 웰빙Well-Being’이란 주제로 열렸다. 도자 불씨 봉송에 이어 경기도립무용단과 야단법석의 공연으로 막이 오른 도자기축제의 주제행사로는 다기류, 쌀독, 구이판 등 생활건강과 관련된 도자기 전시판매가 새



제18회 도자기축제장
전시장

롭게 선보였다. 전시행사로는 도자기명장 14명이 출품한 도자명품특별전과 화기전, 야생화전, 도자기사진전, 도자기서화전 등이 열렸으며, 그밖에도 도자기 및 옹기 제작시연, 도예교실, 클레이올림픽과 다양한 공연행사들이 펼쳐졌다. 제18회 축제는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전통관과 상품관을 분리하여 접근성을 높인 결과 66만 명 관람객 유치에 32억 원의 상품판매 수입을 올렸다.

‘제3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와 함께한 ‘제19회 이천도자기축제’는 2005년 4월 23일부터 6월 19일까지 58일간 ‘문화를 담는 도자 Ceramics: The Vehicle of Culture’라는 주제로 열렸다. 주요행사로는 도자기 식기를 이용한 아름다운 상차림전, 도자기명장전, 학생작품전, 도자기사진전 등 기획전시와 교류도시전, 지역특산물전, 요업기술전 등 특별전시를 통해 교류도시, 학생, 기관단체, 기업체 등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였다. 체험 및 시연행사 코너를 행사장 입구에 배치하여 행사장 접근성과 축제 분위기를 살리는 한편, 어린이날 공연이벤트, 산사음악회 같은 대형행사를 적극 유치하고, 브리핑룸 운영, 특성화된 상품관 구분배치로 관람객 편의를 도모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였다. 제19회 축제는 이전까지 이어져온 가을 축제의 관례를 깨고 봄철로 개최시기를 변경하여 270만 명의 관람객 유치에 성공했지만, 18년간이나 가을철 개최로 인지도를 높여왔던 개최시기를 비엔날레 일정 때문에 봄철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의 논란이 있었다.

제24회 도자기축제
프라이빗도서관 체험
행사



도자기축제 20주년을 기념하는 ‘제20회 이천도자기축제’는 ‘혼의 축제 20년, 천년의 꿈’을 주제로 2006년 4월 21일부터 5월 14일까지 24일 동안 열렸다. 개막 행사로는 꽃과 도자기를 주제로 한 제1회 이천도자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도공추모제가 열렸으며, 천년 도자기 탄생관, 오감체험관, 키즈 워크숍 등의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들을 선보였다. 133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축제의 설문조사 결과 각종 도자기 체험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난 반면, 도자기 가격에 대한 물음에서는 75.4%의 다수 응답자들이 너무 비싸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4회 세계도자비엔날레’와 함께 열린 ‘제21회 이천도자기축제’는 마케팅 개념을 도입하여 도자수요 창출을 위한 프라이빗도자관, 도자와 푸드스타일전, 영상체험관 등을 열어 30일간 외국인 15만 명을 포함한 252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자나라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라는 주제로 열린 ‘제22회 이천도자기축제’는 중국 경덕진 도자악기 연주단의 공연과 제2회 이천도자공모전 시상 등의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2008년 5월 10일부터 6월 1일까지 23일간 진행되었다. 관람·쇼핑·여행 등 테마별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전문도공들이 참여하는 놀이와 함께 하는 도자교육관·프라이빗도자관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제23회 도자기축제’는 이천도자센터에서 선보인 세계현대도자전, 한국현대도자전, 국제도자워크숍, 클레이아트 영화제 등 비엔날레 행사들과 함께 어린이 흙놀이 체험, 바투 바투 흙창고, 놀이와 함께하는 도자교육, 도자발굴 체험 등 체험행사들을 통해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같은 악재들 속에서도 예년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2010년 ‘제24회 이천도자기축제’는 ‘창의도시, 행복한 도자여행’을 주제로 4

월 24일부터 5월 16일까지 23일간 열렸다. 막걸리 100인 쇼룸, 도자공공미술조형전, 돌레 돌레 흙창고, 도자퍼즐체험, 도자소리체험, 한식세계화와 명품식기축제, 제3회 도자트랜드공모전 등이 선보인 제24회 축제는 외국인 7만 3,000명을 포함한 100만 명 관람에 32억 원의 판매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불황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이 늘어나서 체험 프로그램이 성과를 거두었다.

3. 장호원복숭아축제

1) 복숭아축제의 탄생과 걸어온 길

장호원복숭아축제는 지난 2017년까지 21회가 개최되는 동안 개최 시기와 장소, 축제명이 바뀌었다. 1997년 4월 26일 제1회 축제는 복숭아축제가 아닌 복숭아꽃축제였으며, 개최 시기도 9월이 아닌 복숭아꽃이 피는 봄이었다. 장호원읍사무소와 장호원 진암리 백죽산 일대의 복숭아 과수원 주변에서 장호원의 특산품인 ‘미백도’와 ‘장호원황도’의 우수성 등을 널리 홍보하고 기념하기 위한 축제였다. 장호원읍사무소에서는 「미백도 원종 발생 장호원 황도 명명 기념비」 제막식을 시작으로 축제의 시작을 열었다. 백죽산 일대 복숭아 과수원에는 복숭아꽃이 활짝 피어 복숭아꽃축제의 화려함을 더했다.

두 번째 열린 장호원복숭아꽃축제도 제1회 때와 마찬가지로 꽃축제로 1998년 4월 18일 장호원읍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장호원 읍내에서는 복숭아 아가씨와 7군단 군악대가 선도하는 경축 퍼레이드를 가졌고, 기념식이 끝난 후 장호원 레포츠공원으로 이동해 준공 기념식을 했으며, 진암4리 과수원에서 풍년기원제를 지내며 일년 농사의 풍작을 기원하였다. 또한 복숭아 재배 공로자 표창 수여와 백일장도 열어 수상자 표창을 가졌다. 기타 행사로 사진촬영대회, 배영종합고등학교의 읍면 농악시연, 거북아 거북아의 사물놀이 공연, 시낭송회, 시화전 등을 진행하는 등 1회 축제

제12회 복숭아축제
사물놀이 경연대회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행사와 관람객 규모도 커졌다.

‘제3회 장호원복숭아꽃축제’는 1999년 4월 19일부터 이틀 동안 진암4리 백족산 일대의 과수원과 장호원 레포츠공원에서 열렸다. 첫날 행사에는 학생 백일장과 사진촬영대회, 20일에는 배영종합고등학교 농악단의 사물놀이 공연이 레포츠공원 야외무대에서 펼쳐졌고, 창명여자고등학교 고적대를 앞세운 시가행진이 축제의 서막을 알렸다. 기념식이 끝난 후 축제장에서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전통 줄다리기, 복숭아 강통 빨리 따서 먹기, 극단 아리랑의 공연 등이 펼쳐졌다.

“웅비 장호원! 달콤한 장호원으로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제17회 햇사레 장호원복숭아축제’가 2013년 9월 27일부터 29까지 3일 동안 장호원햇사레농산물유통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축제동안 10만 3,6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1만 4,400박스에 해당하는 복숭아를 판매하여 5억 400만 원의 농가수익을 창출하였다.

지난 복숭아축제에서는 무료로 꽃과 쌀을 나누어 주는 행사를 복숭아 판매와 연계하여 복숭아 구매를 유발시켜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또한 유통센터 중앙홀에 과수농가들이 출품한 복숭아 품평회를 열어 많은 사람들에게 장호원 복숭아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으며 농산물 가공체험에서는 복숭아로 만들 수 있는 많은 요리복숭아잼, 복숭아떡, 화채, 복숭아고추장 등을 선보였다. 또한 차와 커피를 저렴하게 마시며 쉼

수 있는 햇사레카페, 사진전을 배치하여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 등의 편의시설을 마련하였다.

방문객은 물론 지역주민들 특히 한 해 동안 복숭아농사로 지친 과수농가 농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로 농업인 한마당대회 및 라디오 공개방송을 연속으로 공연하여 흥겨운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마련하였다.

2) 장호원복숭아의 새로운 이름 ‘햇사레’

1997년 4월 시작된 ‘제1회 장호원복숭아축제’는 2000년 4회 축제까지 ‘장호원복숭아꽃축제’로 개최되다가 장호원복숭아의 우수성을 잘 알리고 소득 향상까지 이어지게 하는 방안으로 5회 때부터 축제를 장호원황도가 출하되는 9월 가을로 옮기게 된다.

여름 과일의 여왕인 복숭아는 7월부터 9월까지 다양한 품종으로 생산돼 긴 여름 동안 더위에 지친 몸과 입맛을 달래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도와준다. 복숭아의 단점이 오랫동안 보관이 힘들고 품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과육이 쉽게 물러 복숭아를 고를 때도 향과 생긴 모양, 빛깔로 골라야지 손으로 만지거나 누르면 바로 자국이 생겨 쉽게 상하게 된다. 복숭아의 이런 단점에 강한 품종이 바로 ‘장호원황도’이다. 복숭아 중에서 가장 늦게 출하되며 과육이 단단하여 다른 복숭아 품종보다는 보관기간이 긴 편이다. 9월 하순경에 개최하는 복숭아축제에서 판매되는 복숭아의 대부분은 ‘장호원황도’이다.

2002년 제6회 축제 때부터 청미천 둔치로 행사장을 옮겨 본격적으로 직판행사에 참여하였고,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 사업비가 늘어나는 등 규모가 점점 커져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다. 2008년 제14회 축제 때부터는 햇사레농산물유통센터로 이전하여 넓은 행사무대와 직판매장, 주차장과 화장실 등의 편리한 편의시설까지 갖춘 곳에서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장호원읍과 충청북도 음성군은 청미천을 경계로 경기도와 충청도로 나뉜다. 그러나 경계는 경계일 뿐 예로부터 이곳은 하나의 생활권이었고 같은 시기에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살았다. 그런 이유들은 복숭아에도

햇사레 복숭아로 명명
된 장호원황도



제21회 장호원 복숭아
축제장 복숭아판매
부스



나타나 복숭아 농사는 장호원과 인접한 음성·감곡 등지에서도 많이 생산되며 맛도 품질도 거의 같다고 보는 게 옳을 듯싶다. 특이할 점은 같은 땅에서 농사를 지었고 같은 고민을 하게 된 장호원과 음성군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복숭아축제를 열었으며, 지역에 관계하지 않고 ‘햇사레’라는 공동의 브랜드를 연합으로 개발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2년 경기·충북 복숭아연합사업단을 발족하여 ‘풍부한 햇살을 받고 탐스럽게 영근’이라는 의미의 ‘햇사레’ 브랜드를 개발하여 2003년에는 상표등록까지 하

였다. 기존의 포장단위도 5kg에서 4.5kg로 변경하여 차별화하였고 ‘햇사레 프리미엄’이라는 4kg 명품의 고급 상품을 개발하여 오히려 4.5kg 대비 20% 가격상승의 효과를 일으켰다. 농산물에 대한 차별화와 고급화의 브랜드 마케팅은 ‘임금님표 이천쌀’에서도 인증되었듯이 생산자에게는 높은 가격과 소비자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상품의 우수성과 선호로 동일한 제품으로도 매출이 성장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햇사레복숭아’는 2007년 농식품 파워브랜드대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 수상을 시작으로 매년 상을 놓치지 않더니 2012년에는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한편, 2002년 ‘햇사레’ 복숭아 브랜드 이후로 자연히 복숭아축제의 축제명도 ‘햇사레복숭아축제’로 변경되었다. 경기도와 충청도의 경계 없이 하나의 공동브랜드로 포장수량과 포장박스를 통일하여 이천시와 음성군에 위치한 농협과 그에 속한 조합원들까지 확대하였고, ‘햇사레과일조합공동사업법인’을 탄생시켜 광역유통시스템을 구축, 고품질 관리체계 강화, 브랜드 마케팅 역량강화와 농가조직 역량강화 등으로 최고 품질의 과일을 생산하여 3,000농가에 1,000억 원을 판매하는 공동의 목표로 성장하였다. 처음 시작은 복숭아라는 단일 과일이었으나 경기도·충청도 두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과와 배 등의 과수품목까지 과일품목을 넓혀 나가고 있다.

4. 이천쌀문화축제

이천시민과 농업인들은 조선 초기부터 한양 구중궁궐의 임금님께 이천쌀이 진상되었다고 전해지는데 대해 매우 강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또 진상미의 고장이란 이름을 계승하고자 ‘임금님표 이천쌀’이라는 지역 공동브랜드로 이천쌀을 재배·유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다. 이처럼 이천과 쌀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각종 역사문화와 민요 등을 통해 그 역사성을 짐작케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자진방아’와 ‘방아타령’ 등이며, 고문헌 중에는 『성종실록』과 『행포지志』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지역문화의 전통과 자긍심이 모여 이천쌀문화축제가 시작되었고, 현재는 이천을 대표하는 축제이자 대한민국

제1회 이천햐쌀축제
햐쌀 도정과정 제연



에서 손꼽히는 축제로 성장하는데 원동력이 되었다.

1999년부터 시작된 이천쌀문화축제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이천쌀문화축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사회와 밀착된 또 하나의 문화코드로 성장하고, 계속해서 지역동질성을 형성해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1) 이천쌀문화축제의 태동

정부는 농업인의 사기 진작과 우리 농업 보호차원에서 1996년부터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각종 기념식과 농업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1997년에 불어 닥친 IMF 외환위기는 전체 국민뿐만 아니라 농업인에게도 큰 고통과 시련을 안겨 주었다. 이전까지 이천시에서는 농업인들이 읍면동별로 소규모의 마을잔치를 열거나 단합행사를 진행하는 정도의 친목성 행사가 대다수였다. 시대적 위기상황 속에서 이천시 농업 보호와 이천쌀의 성가 제고를 위해 시청, 농협, 농업인단체, 시민단

체 등이 뜻을 모아 1999년에 제1회 이천농업인축제를 이천시민회관에서 열게 된다. 당시만 해도 마케팅적인 접근보다는 친목도모 및 교류활성화 차원의 자족적 성격이 강했다.

2000년에 개최된 ‘제2회 이천농업인축제’는 제1회 축제에 비해서 성격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농업인만의 행사가 아닌 일반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 요소가 도입되어 내용적으로 성숙되었다. 이천 농업을 알리고 시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민속놀이, 음식 만들기, 직거래장터 등이 도입되어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다.

2) 이천쌀문화축제의 도약

2001년부터 이천농업인축제에서 이천햐쌀축제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성격적·내용적 측면에서 대변신을 꾀하여, 자족적 축제에서 외지 관광객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열린 축제로 변모하게 되었다. 그런데 2001년은 1987년부터 개최되어 온 이천도자기축제가 세계도자기엑스포로 승격되어 80일간 설봉공원에서 개최된 해이기도 하다. 결국 도자기엑스포 개최로 인해 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이천햐쌀축제는, 천신만고 끝에 3번국도변에 위치한 신둔면 수남리 일대 논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준비되지 않은 논에서 행사를 열다보니 행사공간이 초라하고 편의시설 등도 매우 미흡하였다. 그러나 고향의 정취와 이천햐쌀이란 소재, 어울리는 공간연출을 통해 관광객에게는 비교적 좋은 반응과 결실을 맺었다.

‘2001년 제3회 이천햐쌀축제’가 이전과 달라진 특징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내부축제’에서 ‘열린 축제’로 변화되어 이천시 농업인과 시민만이 즐기는 자족적 행사에서, 이천쌀을 소재로 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접목하여 외부 관광객 유치에 초점을 두어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진행했다는 점이다. 둘째, 단일공간 개념에서 주제별 공간기획인 ‘마당’을 도입했다. 마당은 주제별 특징을 살린 공간연출과 프로그램 구성으로 ‘단합과 열림’ 방식을 효과적으로 보여주었다.

2002년 ‘제4회 이천햐쌀축제’부터 현재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설봉공원에 안착하여 주차시설과 각종 편의시설 등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축제다운 면모를 갖추게

제7회 이천쌀문화축
제 진상행렬 퍼레이드



되었다. 쌀과 관련된 주제 프로그램 이외에도 이천시 문화와 다양한 놀이소재를 도입하여 풍성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갖춘 스토리텔링 기법을 도입하였다.

한편, 2003년 ‘제5회 이천햐쌀축제’는 ‘제2회 세계도자비엔날레’와 일정이 겹치면서 궁여지책으로 행사장을 흠먼지가 날리는 행정타운^{현 이천시청}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으며, 여러모로 문제와 실망을 자아내게 했으나 이를 통해 이듬해 성장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

3) 이천쌀문화축제의 성장

2003년에는 과거 지역축제의 틀에서 탈피하여, 문화관광부에서 주도하는 ‘문화관광축제’ 지원육성 정책에 따라 이천햐쌀축제도 문화축제로 승화·발전시켜 나가자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지역적 협의를 거쳐 ‘이천쌀문화축제’로 탈바꿈하는 계기

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천시의 예산지원에 힘입어 설봉공원으로 행사장을 복귀하고 지금의 대동놀이 중심의 열린마당 형식의 이천쌀문화축제가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주제에 맞는 스토리텔링기법에 따라 마당별·주제별 공간 배치 및 프로그램이 기획·구성되었다. 이천쌀문화축제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진상행렬 개막식, 이천 명의 방문객에게 고르게 떡을 나누어 주는 600m 무지개 가래떡 뽑기 등의 프로그램이 도입되었고, 대표 프로그램으로 ‘가마솥밥 이천명! 이천원!’이라는 콘텐츠가 도입되어 방문객에게 가장 사랑받는 프로그램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농경문화와 대동놀이를 소재로 한 마당프로그램 도입으로 2008년 우수 문화관광축제가 되었고, 2013년에는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하였다.

5. 효양산 전설문화축제

효양산은 해발 187m로 이천시 동남부에 위치한 야트막한 산이다. 효양산의 산세는 비록 작지만, 이천 시내에서 바라보면 호랑이가 앉아 있는 형세로 많은 전설과 역사적 흔적을 지니고 있는 명산이다. 효양산에 얹힌 이야기로는 ‘나라 지킨 황금송아지’와 ‘은혜 갠 사슴 이야기’, ‘물명당 전설’, ‘화수분 이야기’, ‘금베를 전설’, ‘아홉 개의 명당터’ 등이 있으며, 의상대사가 지었다는 은선사와 효양산성 흔적이 있어 민족의 정기와 역사를 안고 있는 산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매봉재 정상에 쇠말뚝과 서씨 시조묘 뒤편의 금광굴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탄압할 때의 흔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역사적 사실도 가지고 있다.

1) 효양산 전설문화축제의 탄생

효양산 전설문화축제는 지난 2005년부터 개최되었다.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축제를 개최·운영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천시에서 개최하는 대표적인 4대축제인

제6회 효양산 전설문화축제 5행시 짓기 대회 우수작 전시



이천도자기축제, 이천쌀문화축제, 산수유축제, 복숭아축제와 더불어 매년 개최되고 있다. 부발읍에는 부발·가산·신하·백록 등 4개의 초등학교가 있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유대가 약해 지역 학생들 간의 공동체성을 향상시킬 방안을 찾게 되었는데, 4개의 초등학교가 함께 가을 소풍을 가기로 한 것이다. 이것이 효양산 전설문화축제의 출발이 되었다. 효양산 전설문화축제는 전국에서 거의 유일할 정도의 청소년 문화축제이다.

효양산 전설문화축제는 ‘효양산금송아지 전설’과 이른바 ‘서신일과 아기사슴 전설’을 비롯한 부발읍의 어머니 산으로 여겨지는 ‘효양산’과 관련된 여러 전설과 역사를 모티브로 부발읍발전협의회가 주관하고 이천교육지원청이 후원하면서, 각종 단체 및 읍사무소와 학교 등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민간주도형 축제로 흥과 어울림이 살아 있는 축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효양산 전설문화축제는 다른 축제와 달리 ‘청소년 문화축제’로 운영되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부발읍 관내 7개 초·중등학교에서 준비한 체험부스 운영, 3~5행시 짓기 등 다양한 교육적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학생들이 준비한 체험부스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볼거리들로 축제를 구성하였다.

2) 축제의 시·공간과 인적·물적 기반

지난 6회부터 10회까지 효양산 전설문화축제는 학생들의 교내 동아리활동이 축제로 승화한 경우이며, 개최 시기는 매년 10월 중순경이다. 이를 ‘이천시민의 날’ 행사와 ‘이천쌀문화축제’ 일정과 비교해 보면 학생들이 축제의 주축으로서의 의미가 깊음을 알 수 있다. 장소 설정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축제 발상의 모티프인 ‘효양산’ 자락을 선택하여 기왕에 조성된 넓은 공간에 주행사장을 꾸렸다. 행정관할 구역이 비교적 넓은 관내 7개 학교 외 축제 관계자들의 접근 편의성에서 효율적인 공간이라 하겠다.

효양산 전설문화축제는 부발읍발전협의회가 주관하고 축제 참여주체인 학생들과 선생님을 비롯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있으며, 이천교육지원청이 후원하고 있다.

2013년도 ‘제9회 효양산 전설문화축제’ 추진위원회 구성을 보면, 추진위원장·명예위원장·발전협의회장·집행위원장 각 1명씩과 부위원장 8명, 고문 9명으로 되어있다. 또 집행위원장 산하에 15명으로 구성된 기획본부에서는 공연·전시 학생 참여, 행사준비 및 진행, 시상·홍보 활동을 담당하고, 18명으로 구성된 운영본부에서는 개·폐막행사, 학생수송, 기타 부대행사를 담당한다. 그리고 15명의 지원본부에서는 등산로·진입로 정비, 주차, 교통안내, 야간경비, 예산자금관리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업무분담표가 구성되어 있다. 협력기관으로는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부발자율방범대, 아미자율방범대, 어머니방범대가 참여하고 있어 최소한 70여명 이상의 인적구성을 보인다.

한편, 하루 동안 열리는 효양산 전설문화축제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물적 기반으로서의 예산액은 시비 3,000만 원과 부발읍발전협의회 및 여타 참여단체가 찬조금형식으로 경비를 보태어 축제운영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부발읍 관내의 자체적인 청소년 축제이고, 참여하는 관내의 단체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추림의 기여도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시비’에 의존한다는 것은 주민주도형 자발적 축제라는 성격에 다소 걸맞지 않는 아쉬운 점이다. 이는 부발읍 관내 여러 단



제9회 효양산 전설문
화축제 수상자

체에서도 십시일반+匙=飯으로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역설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아울러 학생들의 축제임을 고려한다면 이천교육지원청에서의 재정적 지원 및 축제 당일 관내 학교학생들의 전체적인 참여를 위한 1일 현장체험학습 형식의 축제일 지정 운영 같은 방안 또한 고려해 볼만한 대목이다.

3) 축제의 문화적 기반

2010년 제6회 효양산 전설문화축제의 콘텐츠 내용을 보면, ①백일장·사생·디카촬영대회, ②방과후 활동작품전시, ③효양산 전설문화 홍보, ④식전공연^{난타. 벨리댄스. 풍물공연과 이천찬가 독창}, ⑤개회식, ⑥축하공연^{부원고등학교 밴드부 연주}, ⑦효양산 탐방, ⑧방과후 프로그램 발표, ⑨폐막식 및 시상식으로 막을 맺는다. 여기서 특히 인기를 끄는 대목은 효양산탐방^{90분}과 방과후 프로그램 발표^{120분}라고 할 수 있다. 여타 다른 전시활동도 학생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것이긴 하나 보다 적극적이고 활기 넘치는 프로그램은 이 부분이다.

효양산 전설지 탐방^{일명. 효양산 황금송아지 찾기}은 효양산 전설문화축제의 핵심적인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효양산과 관련된 전설지역 6곳을 지도로 표시하고 각각의 탐방대상에 대한 질문을 함께 담은 탐방지^{탐訪紙}를 받아서 참가자가 각각 탐방한 후 진행요원에게서 확인도장을 받아 가장 많이 탐방지를 다녀온 학생에게 시상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는 7개 학교에서 각각 40명씩 280명이다. 탐방지에는 모두 여섯 개의 질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문제를 맞히면서 탐방지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돕는다.

방과후 프로그램 발표는 각 학교 대표들로 진행되는데, 120분간 진행되는 세부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천가산초등학교의 소금합주·가야금병창·한국무용, 부발초등학교의 사물놀이와 락밴드, 아미초등학교의 힙합댄스와 바이올린연주, 신하초등학교의 관현악·합창·방송힙합댄스, 부발중학교의 가야금합

주, 효양중학교의 풍물놀이공연 및 오케스트라와 바리톤 협연, 효양고등학교의 댄스를 비롯하여 연주 및 노래와 락밴드 등이다.

한편, 시상은 공로패 1인추진위원장, 감사패 2인추진위원장, 효행상이천시장 및 장학금추진위원장 7인, 오행시 짓기 7인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으로 진행되며, 축제의 피날레로 진행된다.

4) 서희 선생 역사 콘텐츠 확대

부발읍 마암리 일대에 조성된 ‘서희테마파크’는 서희 선생의 외교적 업적과 교훈을 담은 서희스토리텔링 조형물을 테마파크에 배치하고 이야기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다. 서희선생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시대정신으로 승화·선양하기 위해 장위공 서희 선생의 역사관을 건축하였다. 역사관을 찾는 관람객들의 흥미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전시·체험·교육 공간을 조성하여 서희테마파크와 연계한 관광자원을 제공하는 문화기반시설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서희테마파크에는 서희 선생의 일생을 다룬 30종 74점의 조형물 제작해서 설치하고, 일생의 추이에 따라 역사산책로를 약 600m 정도 구성해 놓았다. 이와 함께 테마파크 내에는 전시관, 홍보과, 체험관, 추모관 등을 갖춘 서희역사관을 건립하고 내부 전시물을 조성하였다. 조각품의 스토리라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이천 효양산을 찾아오는 서신일, ②사냥꾼에게 쫓기는 아기사슴, ③아기사슴을 구해주는 서신일, ④서신일의 꿈속에 나타난 산신령, ⑤사슴의 보은으로 아들을 얻다, ⑥이섭대천(利涉大川)의 유래, ⑦태조 왕건을 만나는 서목과 서필, ⑧왕이 내린 금그릇을 사양하는 서필, ⑨겨레의 위대한 스승 서희의 탄생, ⑩부친의 가르침 속에 글공부에 열중하는 서희, ⑪과거시험을 준비하는 서희, ⑫서희의 과거 급제, ⑬어린 시절의 서희, ⑭벽란도에서 외국 상인들을 만남, ⑮금의환향하는 서희, ⑯북방의 정세를 살피다, ⑰광증, 경증에 이어 성증을 보필하다, ⑱송에 사신으로 간 서희, ⑲임금에게 바른말로 간하다, ⑳진정으로 백성과 나라를 사랑한 서희, ㉑긴박한 국제정세 앞에 고뇌하는 서희, ㉒북방에 감도는 검은 구름, ㉓거란 대군의 고려 침입, ㉔분열된 고려 조정의 신하들, ㉕구국을 위한 서희의 결단, ㉖적장 소손녕과 역사적인 담판을 하다, ㉗개선하는 서희, ㉘압록강까지 국경을 넓힘, ㉙개국사(開國寺)에서 요양하는 서희, ㉚고려의 큰 별이 지다.

서희역사관 조감도



서희역사관에서는 서희선생 초상화 및 관련 자료와 영상물을 콘텐츠화하여 전시, 교육·오락·재미의 미디어 콘텐츠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서희 선생의 업적을 오늘에 되살려 교육적의장으로 활용하고자 운영하고 있다.

서희 스토리텔링 조형물 배치도a



02

이천 시민기록자의 문화유산 답사기





이천문화원 시민기록자 |

김기흥, 김명자, 송명자, 김영옥, 한정혜, 김태란,
박영희, 정선화, 채기순, 황미애, 이동준

제2장 이천 시민기록자의 문화유산 답사기

1. 이천을 하루 이틀에 둘러보기

사통팔달四通八達이란 말이 있다. 길이 사방팔방으로 막힘이 없이 통함을 말하는 것이다. 현재의 이천이 바로 그런 곳이다. 일찍이 이천은 3번국도가 관통하고 있으며 영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근접하여 한반도 전체를 연결하는 주요도로의 중심부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천에 대해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 이천은 조선 시대 궁중에 진상되던 진상미進上米로 유명하며, 도자기의 고장이기도 하다. 한편 과거 현대전자반도체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공장이 된 SK하이닉스도 위치해 있다. 그리고 1990년대 초 시작된 지방자치로 인하여 생겨나기 시작한 각종 축제 중에서 이천의 쌀축제와 도자기축제를 방문해본 사람이라면 그나마 이천의 많은 부분을 기억하고 있으리라 본다.

이천의 위치를 살펴보면 북으로는 경기도 광주와 동으로는 여주, 서로는 용인 땅과 접해있다. 또한 남서 방향으로로는 안성, 남으로는 충북 음성 땅과 접해있으며, 북에서 남으로 땅콩 모양의 형태로 잘록한 허리 부분에 복하천이 위치해 있다. 모가면과 설성면의 경계에는 양화천이 있으며 남으로는 율면을 관통하는 청미천이 흘러 남한강으로 유입되는데, 이들 하천 덕분에 이천은 너른 농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뭄과 홍수 피해가 적다. 토질이 비옥하고 기후조건이 좋아 쌀과 과일특히 복숭아의 특산지인 한편, 교통이 편리하여 인접고을의 물산이 거래되는 전통장 중에서 장호원장⁴·9일은 전국 5대 전통시장 중의 하나로 손꼽히며 이천의 물류 중심지다. 그렇다 보니 현재 이천지방에는 크고 작은 물류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다.

이천의 주요 시설로는 우선 국가시설인 국립이천호국원과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공작전사령부^{모가면}와 특수전사령부^{마장면}를 포함한 주요한 자주국방 시설들이 위치하여 우리 마음을 더욱 든든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산업시설로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시설인 SK하이닉스가 있다. 또한 예로부터 이천의 온천이 알려져 있는 바, 이천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위치한 스파플러스와 모가면에 위치한 테르메덴 온천은 이미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명소이다.

이천의 볼거리·먹거리와 문화체험 등을 살펴보면 먹거리 중에서는 수량이 풍부하고 비옥한 논에서 생산되는 임금님표 이천쌀이 단연 으뜸이라 할 수 있다. 전국에서도 제일 먼저 모내기를 하고 햅쌀을 생산하고 있으며, 과거 진상미의 맥을 이어 현재까지 대통령이 한가위에 주요 인사들에게 보내는 선물품목에도 이천쌀이 빠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이천에는 쌀밥집이 유난히 많다. 과거와 달리 먹거리가 많은 시대에 쌀밥이 뭐 대수일까만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은 밥집이 많이 있다. 이밖에도 6월 중순부터 생산되는 장호원 일대의 백도와 그 후 출하되는 황도의 맛은 가히 일품이라 할 수 있다. 9월 하순쯤에 열리는 장호원 복숭아축제도 가볼만하다. 이어서 설봉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이천쌀축제는 이미 유명한 축제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이천은 2017년 11월 현재 인구 약 22만 명인 중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도처에 위치한 도자기장인들의 도요는 또 하나의 자랑으로서 외국인, 특히 일본인들의 발길이 잦은 것으로 유명하다. 2017년까지 20회째 진행되고 있는 국제조각심포지엄은 이천지역의 화강암을 재료로 국내외의 조각가들이 참여하는 국제대회로, 매년 8월 중에 설봉공원에서 열리고 있는데 현장에서 조각가들의 작품을 참관하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한편 매년 5월에 열리는 이천도자기축제는 국내는 물론 해외작가들의 참여가 점점 늘고 있는 국제적인 도자기축제로서, 그들의 작품은 설봉공원과 조각공원을 포함하여 이천의 여러 곳에 전시되어 있다. 관람 시에는 이천 시민들로 구성된 도슨트^{docent}, 해설사들의 조언을 받는 방법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자기와 쌀축제가 열리는 설봉공원에는 시립박물관, 설봉서원, 월전미술관 및 도자기 상설전시관과 체험장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걸으며 즐길 수 있는 이천의 중심



설봉공원 소리나무



이천의 쌀축제



1	3
2	4
	5

1. 북한천 일몰
2. 관고전통시장
3. 이천도자기축제
4. SK하이닉스
5. 온천

국제조각심포지엄 작품



장호원 햇사레복숭아



공원이다. 매년 4월 산수유 축제가 열리는 백사면에는 1519년^{중종 14} 기묘사화로 낙향한 신진사류들이 지은 육괴정, 서원과 김좌근 고택 등이 있어 봄철에 둘러보며 역사와 자연의 향기를 음미할 수 있다. 이밖에도 신둔면 지석리에는 고인돌^{지석묘} 유적지가 보존되어 있으며, 원적산·설봉산·효양산·마국산·노성산·도드람산 등은 등산 애호가들이 즐기는 등산 코스로서 한 번쯤 산행도 권해보고 싶다. 특히 효양산에는 각종 설화가 깃들여 있다.

이제 이천의 교통을 살펴보자. 이천은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이천IC·남이천IC에서 접근하거나 영동고속도로 호법JC에서 중부고속도로 서이천IC·남이천IC·이천IC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3번국도를 따라 광주를 지나면 바로 이천이다. 수원에서 여주를 잇는 42번국도의 중간에 이천이 있다. 또한 2016년 9월에 개통된 경강선 전철은 판교역에서 출발하여 광주를 거쳐 신둔도예촌·이천·부발·여주·세종대왕릉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쾌적한 여행을 도울 것이다. 버스로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동서울터미널과 연결되며, 이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는 전국 주요 도시로의 정기노선을 운행하고 있어 승용차와 대중교통 중 어느 것을 선택하여도 편리하게 접근이 용이한 곳이 이천인 것이다. 과거에는 수인선과 같은 협궤철도 수역선이 있어 이천과 인근의 교통을 담당하였다. 이처럼 이천은 현재는 물론 과거에도 교통의 요충지였던 것이다. 더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스마트폰과 각종 첨단기기가 어느 곳에서도 길잡이가 되는 세상인데 무엇이 걱정일까 싶지만 용기를 내어 이천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면 욕심이 생길 것이다.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연인과 함께 이천을 둘러보자.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그 이상이면 어떨겠는가?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품질 좋은 쌀로 우리 먹거리를 해결하고, 온화한 자연과 역사의 향기가 솔솔 배어나며 각종 문화체험이 가능한 이천으로의 여행은 힐링을 통한 웰빙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천에는 쌀·도자기·조각·복숭아·온천·골프장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문화유산이 있고 생생하게 변화하는 현재가 있다. 이천의 유산을 바탕으로 행복한 현재를 같이 누리며 미래를 구상하는 것은 이천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역할일 것이다.



눈 쌓인 설봉산

2. 아름다운 설봉산

설봉산이란 겨울에 눈 덮인 설경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말이다. 설봉산은 해발 394m의 그리 높거나 험하지 않은 작은 산이지만 유서 깊은 문화유적과 세계도자센터, 이천시립월전미술관, 그리고 창경궁의 외관을 본 따서 만들었다는 이천시립박물관 등 각종 문화 관련 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는 이천시의 상징과도 같은 산이다. 예전에는 북악산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천 시가지를 감싸 안고 있는 이천의 진산 설봉산은 기암괴석과 울창한 혼합림, 진달래 군락이 오밀조밀 어우러진 운치 있는 명산이다. 곳곳이 절경으로 이천9경 중, 설봉호수제2경, 삼형제바위제3경, 설봉산성제4경 세 곳을 품고 있는 산이기도 하며 신라시대 고찰 영월암^{향토유적 제4호}이 설봉산 기슭 이천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통일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뒤



1	
2	3
4	5
	6

1. 이천시립월전미술관
2. 이천시립박물관
3. 설봉호수
4. 설봉서원
5. 설봉산성
6. 삼형제바위



편 바위에 선각된 마애여래입상은 보물 제822호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설봉서원이 있는데 설봉서원은 본래 관고동에 있었던 서원으로 이 서원이 처음 세워진 것은 1564년 **명종 19**이다. 당시 이천부사로 있던 정현을 중심으로 한 지방유림의 공의로 서희 · 이관의 · 김안국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되었다고 한다.

푸르고 높은 하늘,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 사람들은 유독 남녀 모두 가을을 좋아한다. 이천시민이 사랑하고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설봉산! 건강을 위하여 매일 설봉산을 찾는 시민들을 볼 수 있다. 오늘은 그들과 함께 설봉산 A코스를 오르려한다.

생태공원을 지나 호암약수터로 가볍게 출발했다. 약수를 마실 수 있었던 호암약수터는 언제부터인가 약수가 나오지 않고 있다. 서운함을 뒤로 하고 설봉산성과 칼바위를 향해서 걸음을 재촉해 본다. 오르막길을 힘들게 오르다보면 식목일 행사 때 직접 심었던 화단의 나무들이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나를 기쁘게 한다.

설봉산성이 보인다. 설봉산성은 사적 제423호로 조사 결과 6세기 이전에 백제가 조성한 석성임이 밝혀졌다. 백제의 수도인 한성에도 석성이 축조되지 않았는데 설봉산성이 석성으로 축조된 것은 그만큼 백제가 이 지역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칼바위에는 신년에 제를 올리는 사직단과 경축이나 전쟁을 알리는 성화봉이 우뚝 서 있다.

연자봉과 서희봉을 향한 산행길은 너무도 행복하다. 봄에 피는 진달래꽃이 만발한 설봉산도 아름답지만 가을 하늘과 20여 종의 나무들을 벗 삼아 걷노라면 모든 시름이 사라지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다. 소나무 · 신갈나무 · 졸참나무 · 굴참나무 · 갈참나무 · 떡갈나무 · 참나무류를 비롯하여 느티나무 · 옻나무 · 고로쇠나무 · 산벚나무 · 붉나무 · 산초나무 · 오리목 · 생강나무 · 신나무 · 단풍나무 · 두릅나무 사이로 산행로가 펼쳐져 정원을 산책하는 기분을 만끽하며 정상에 왔다는 생각과 함께 발걸음이 빨라진다.

희망봉 정상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기념사진도 찍고 막걸리도 한 잔씩 마시고 아이스크림과 준비해 온 과일을 먹으면서 잠깐의 휴식을 즐기는 장소가 되었다. 정상에서 내려다보이는 이천시의 전경이 이리도 아름다웠던가! 멀리 보이는 이천 시가지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하여 시내를 향해 스마트폰의 셔터를 눌러 보았다. 요즘엔 정상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외치던 야호 소리가 사라졌



설봉산 A코스

주차장-호암약수-칼바위-연자바위-장군바위-희망봉(정상)-부학봉-무학루-백운봉-청운봉-화두재(365계단)-88계단-구암약수-주차장

설봉산 정상 희망봉



도원정이라고도 부르는 정자 부학루



365계단 화두제



다. 수많은 사람들이 메아리를 듣기 위해 외치던 야호가 없어진 이유는 산에 사는 동물들의 잠을 깨우지 않으려는 마음과 등산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인 듯하다.

숲이 울창한 등산로를 내려가는 발걸음이 왜 이리도 가볍고 행복한지……. 부학루에는 노부부가 나란히 올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 모습이 너무도 평

화롭고 아름답게 보인다. 부학루는 도원정이라고도 하는데 설봉산이 학처럼 날개를 펴고서 이천 시민을 굽어보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설봉산에 피는 봄 야생화로는 붓꽃 · 애기똥풀 · 뱀딸기 · 비비추 · 샷샷나물 · 할미밀빵 · 조개나물 · 참나리 · 큰방가지똥 · 큰방제비꽃 · 가시엉겅퀴 · 엉겅퀴 · 골무꽃 · 관중 · 쥐오줌풀 · 털중나리 · 개망초 · 망초 · 달맞이꽃 · 원추리 · 까치수영 · 달개비 · 꿩이밥 · 고들빼기 등이 있다. 귀중한 야생화들과 함께하는 설봉산의 아름다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걸음을 재촉해본다. 백운봉을 지나고 긴 세월의 사연과 흔적을 그대로 지닌 채 심오한 위상을 드러내고 있는 오백년 소나무 앞에서 나만의 소원을 빌어 본다.

1년을 상징하는 365계단이 있는 화두재가 있다. 화두재는 과거 마장면에서 이천 읍내로 통과하는 고개로서 금송아지 설화의 줄거리 일부이기도 한 장소이다. 다음으로는 88올림픽을 의미하는 계단을 조심스럽게 걸어 내려오면 구암약수터가 나를 반기며 시원한 약수로 갈증을 해소시켜 준다. 어느 분은 구암약수로 동치미를 담으면 그 맛도 일품이지만 오랜 기간 무르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였다. 잠시나마 구암약수가 신비의 물처럼 느껴졌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설봉공원 주차장을 향해 걸음을 재촉해본다. 이천시를 대표하며 사계절마다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시민들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설봉산. 앞으로도 이천시민의 휴식공간이자 문화적 · 역사적으로 소중히 보존돼야 할 자랑스러운 설봉산이 있어서 난 오늘도 행복하다.

김명자 | 이천문화원 시민기록자

3. 설봉서원 답사기

이천의 많은 이들이 몸과 마음의 휴식을 얻으며 기대어 사는 곳이 있다. 이천 시가지를 품고 있는 설봉산 아래에 조성해 놓은 설봉공원이다. 나 역시 자주 찾는 곳이다. 설봉공원으로 가다보면 자연스레 보게 되는 곳이 사계절 다른 멋을 풍기는 아



설봉서원 전경

름다운 설봉호수이다. 설봉호수를 지나 오른쪽 옆으로 난 길을 따라 올라가면 영월암으로 향하는 길이 나온다. 그 길의 중턱 못 미친 곳에서 홍살문을 볼 수 있다. 이곳이 바로 설봉산 자락에 아늑하게 자리한 설봉서원이다. 홍살문은 출입문의 역할을 했지만 출입의 기능보다 상징성이 더 중요시되었던 문門으로서 신성시되는 장소를 보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천부사 정현이 처음 안흥지 쪽에 서원을 건립한 때가 1564년**명종 19**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이 1543년에 세워졌다. 불과 21년 뒤이니 전국의 수많은 서원들 중에서도 매우 이르게 건립된 편이다. 경기도에서는 맨 처음으로 세워져 경기도 서원의 효시가 되었다. 처음 안흥지 쪽에 건립하였고, 서희·이관의·김안국 등 세 분을 배향한 후부터 삼현사三賢祠라 불렀으나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에 설봉산 밑으로 이전하고 나서부터 설봉서원이라 불렀다고 한다. 최숙정은 1857년**철종 8** 추가 배향되어 2017년 현재 설봉서원에서는 네 분에게 봄과 가을에 제향을 올리고 있다. 1871년**고종 8**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사라졌다가 현 위



가지가 네 개로 뻗어 서희,
이관의, 김안국, 최숙정 등 4
현을 상징하는 사현목 고욤
나무



설봉서원 제향 4현 진설

치'작은 절터' 또는 '닭집'으로 불리던 곳에 2005년 복원공사를 시작하여 2007년 4월 준공되었다.

설봉산 주봉 기슭 울창한 숲과 계곡으로 둘러싸인 터의 기운 덕분일까? 그 옛날 학문을 닦던 선비 정신이 배어있기 때문일까? 서원에 오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가까이 있어서 오히려 무심히 지나치는 경우도 많다.

2016년 여름 어느 날, 나이 드신 어르신과 중학생 등 20여 명과 함께 설봉서원에 문화재 탐방을 온 적이 있다. 더운 여름이어서 서쪽 담장 밖에 서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 그늘에 앉아서 더위를 식히며 운치를 즐겼다. 좀처럼 어울리기 힘든 노인과 청

소년의 세대 간 벽을 문화재라는 매개체를 통해 허무는 시간이었다. 지금 돌이켜 봐도 뜻깊고 보람 있는 만남이었다. 설봉서원이 다양한 세대의 좋은 배움터가 되기를 경험에 비추어 기대해 본다.

홍살문을 들어서면 하늘을 향해 높이 가지를 뻗고 있는 고욤나무 한 그루를 볼 수 있다. 이 나무는 2007년 복원 공사를 할 때 심었다고 한다. 한 뿌리에서 가지가 넷으로 뻗어 있다. 네 개의 큰 가지는 각각 설봉서원에 배향되어 있는 서희·이관의·김안국·최숙정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현목’이라 부르고 있다.

서희·이관의·김안국·최숙정 등 네 분은 모두 이천과 상당한 인연이 있다. 건립 당시 첫 번째로 배향된 서희는 고려 성종 때의 인물이다. 서희는 효양산 아래에서 태어났다. 과거에 급제한 문관으로서 거란의 1차 침입 때 지혜와 용기, 그리고 세상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으로 나라를 구한 인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를 빛낸 인물 제1호로 추앙하고 있을 정도이다. 효양산 아래에 새로 만들어진 서희테마공원에 가면 이천 사람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인물인 서희의 업적과 인물됨을 보고 느끼며 배울 수 있다. 이처럼 서원에서 서희를 제향하는 이유도 그가 나라와 백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

두 번째로 배향된 인물은 조선 성종 때의 학자 이관의였다. 성리학은 물론 천문·지리·기상·역학 등에 이르기까지 일가를 이룰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지녔다고 한다. 그러나 대과에는 번번이 낙방했으니 참으로 운이 없었나보다. 그래서인지 벼슬의 뜻을 접은 이관의는 처가가 있는 마장면 관리에 낙향하여 학문에 전념하며 후학을 가르쳤다. 이후 당대의 이름난 학자들이 스승으로 섬기며 배움을 청할 정도로 널리 알려졌단다. 75세 되던 1438년^{성종 14}에는 제자인 손순효의 추천으로 경연에 나가 성종 앞에서 대학과 증용을 강론했다. 그의 학덕이 뛰어남에 탄복한 임금이 벼슬을 내리려 하였으나, 나이 많음을 들어 사양하였다고 한다.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잘 알았던 그 역시 우리에게 본이 되고 있다.

세 번째 배향된 인물인 김안국은 16세기의 대표적인 성리학자로서 일찍 부모를 여의어 일생동안 애모^{哀慕}하는 마음을 지녔다 하여 모재^{慕齋}라 호를 썼다. 이천 출신은 아니지만 기묘사화 이후 이천과 여주에서 18년 동안 후진들을 가르치며 지냈다. 전해오는 일화들을 보면 고을 안에서 일어나는 대소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이웃

주민들과도 흥허물 없이 어울렸다고 하니 그의 소탈한 성품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온건하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성리학 보급과 교화활동에 주력했다. 1537년^{중종 32} 동지성균관사가 되어 은둔생활을 접고 벼슬길에 올랐으며 예조판서, 한성판윤, 홍문관 대제학 등을 거쳐 좌찬성을 지냈다. 시와 문장이 모두 뛰어나 외교관련 문서들을 도맡아 썼다고 하며, 농사기술서 『농서언해』와 『잠서언해』, 민간의료서 『창진방』과 『벽온방』같은 실용서를 간행·보급함으로써 백성들이 생활에 이롭게 활용하도록 했다. 세종이 살아온다면 가장 기뻐하며 반길 첫 번째 인물이 아닐까? 세종의 큰 업적인 한글창제의 뜻을 제대로 펼친 인물이다. 김안국과 같은 이가 있어 그 맥이 이어졌다면 우리의 한글이 좀 더 빨리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크다. 또한 물이끼[氷苔]와 닻[槳]을 화합시켜 태지菴紙. 가는 털과 같은 이끼를 섞어서 뜬 종이를 만들어 왕에게 바치고 이를 권장하였다고 하니 김안국의 애국애민 정신 역시 본받아 마땅할 것이다.

네 번째 인물은 이천의 대표적 시인으로 손꼽히는 최숙정이다. 이천시립도서관에 가면 앞에 「소요재시비」가 세워져 있다. 소요재^{逍遙齋}는 최숙정의 호이다. 최숙정은 조선 성종 때 문신으로 시문에 뛰어났다. 오위사정을 지낸 최중생의 아들 사형제 중 3남으로 단월동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31세 때인 1462년^{세조 8}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사관으로 발탁되고, 1464년에는 김종직을 비롯한 당대의 이름난 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겸예문직에 뽑혔다. 그 후 서거정·노사신·강희맹 등과 함께 『삼국사절요』와 『동문선』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1478년^{성종 9} 여주목사가 되고, 1480년에 홍문관부제학이 되었으나 48세에 별세하였다. 문집으로 『소요재집』^{도드람산과 이천 소재의 시 다수 실림}. 당대의 일류 문사들과 주고받은 시들을 수록이 전해오며, 묘는 단월동에 있다.

사현을 생각하며 고욤나무^{사현목}를 바라보다가 문득 선현들이 살았던 그 당시를 떠올렸다. 네 분 모두 자신을 둘러싼 시대 상황과 관계들 속에서 치열할 만큼 최선을 다한 삶이었음이 짐작된다. 푸르고 무성했던 여름을 지나 이제는 낙엽이 쌓인 서쪽 담장의 느티나무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스스로 묻는다.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물음 하나 얻어 들고 천천히 걷는다.

송명자 | 이천 마중물 동아리 · 조각의 숲 동아리

4. 이천9경 중 제8경 노성산 말머리바위

- 개머리바위라 부르지 말고 말머리바위라고 불러주세요-

노성산(노승산) 전경



이천9경 중 제8경 노성산 '말머리바위'



강릉에서 불박고 살다가 8년 전에 이천 대월면으로 거처를 옮겨 이천 시민이 되었다. 그때 처음 산을 찾아 나선 곳이 설성면에 있는 노성산^{노승산}이다. 산 입구 시민 공원은 대낮에도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잘 자란 소나무 숲이 인상적이다. 산으로 오르자면 원경사 일주문 안으로 들어가 사천왕문을 지나야 한다.

산을 오르기 전 특이한 안내판을 보았다. 안내판에는 이천9경 중 제8경인 ‘말머리바위’에 대한 안내문과 사진이 부착되어 있었다. 사진 속 말머리바위는 아무리 보아도 말머리를 닮은 형상이라기보다는 개머리형상이다. ‘산에 올라 실물을 보면 말머리 형상의 바위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걸고 병풍바위 맞은편에 있는 말머리바위를 찾아가 보았다. 그런데 말머리바위 아래에서 쳐다보아도, 위에서 내려다보아도, 옆에서 보아도 말머리보다는 개머리처럼 보였다.

그 후 설성면으로 옮겨 살면서도 노성산을 자주 오른다. 그럴 때마다 말머리바위를 지나며 말머리바위가 ‘나는 개머리가 아니라 말머리바위야!’라고 항변하는 소리를 듣고 싶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문득 말머리바위를 지나게 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듣고(?) ‘나는 풍화작용을 모르는 바보였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나는 성설면의 노승산 꼭대기 장수봉 아래에 터를 잡고 있는 말머리바위요. 이곳 노승산 언저리에 사는 털복숭이 얼굴의 시답지 않는 시인이 원경사 앞을 지나 노승산을 오르다가 말잔등 바위 너레에서 나를 멀리서 바라보더니 ‘저기 보이는 바위가 말머리바위냐. 안내판에는 꼭 개머리 같은 사진을 박아놓았던데, 빨리 가서 확인을 해봐야지.’ 그렇게 중얼거리며 나를 찾아왔지요.

나를 이리 저리 살피던 그 사람이 한다는 말이 ‘아무리 보아도 말머리 같지 않아. 꼭 개대가리야. 그것도 우리나라 개대가리가 아니고 외국견종 대가리 같애!’ 그러면서도 여기서는 이천이 다 보이고 여주까지, 그리고 이천의 남부 장호원까지도, 그 너머 충북 땅도 훤히 보인다고 감탄하다가 가버렸지요.

그 사람이 간 뒤에, 나는 분명히 말머리바위인데도 개머리 취급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때마다 울화통이 터졌죠. 그런데 명색이 시인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나를 너무 앞잡아 머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 대가리를 붙여 ‘개대가리’라고 하니 더욱 울화통이 터졌지요.

그럼 나의 하소연을 들어보시면 ‘아하, 그렇게 되었구나!’라고 이해가 갈거구먼요. 나는 오늘도 산 아래 원경사 스님들의 새벽 예불 드리는 목탁소리에 기침했다고.

먼동이 트며 점차 밝아오는 아득히 저 먼 이천을 바라보며 중생들이 밤새 안녕하
신지를 살펴보고 있소. 그게 나의 하루일과의 시작이오.

아주 까마득한 옛날이지요. 이 산을 비롯 북쪽에 있는 마옥산, 남쪽에 있는 설성산
이 명산이라 이 세 산에 산신령이 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산신령을 받들었지쥬.
그런데 이 세 산신령은 영험한 힘을 지니고 있어서 누가 영험하고 힘이 센지 서로
들 자기가 최고라고 그럴 뿐 실제로는 알 수 없었다오. 그래서 세 산신령은 힘겨루
기를 하기로 했지요.

그때 마침 이 산꼭대기 장수봉에서 건너다보이는 마옥산에서 명마가 어마어마한
큰 바위를 깨고 뛰쳐나왔지요. 명마를 본 산신령들은 ‘웁구나 잘 되었다! 힘겨루기
에서 이기는 자가 저 명마를 가지기로 하자!’고 합의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웬일인
지 서로가 최고라고 뽐뽐 큰 소리를 쳐온 산신령들은 서로 몇 날 며칠 동안 힘을
겨뤼지만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쥬. 나중엔 다들 지쳐 싸울 기력도 없어서 말을
세 토막 내서 나눠 갖기로 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결정한지는 알 수 없지만 노승산 산신령은 머리를, 설성산 산신령
은 몸통을, 마옥산 산신령은 뒷부분을 가졌는데 각자 그것을 자기들이 사는 산에
올려놓기로 했지요.

그래서 나, 말머리는 이곳 노승산에 놓이게 되었지요. 그런데 세월이 점점 흘러가
면서 굳어져 바위가 되었지요. 그런데 머리만 바위가 된 게 아니쥬. 설성산의 몸통,
마옥산의 뒷부분도 바위가 되었지요. 노승산의 말머리바위, 설성산의 말몸통바위,
마옥산의 말뒷부분바위를 합쳐놓으면 마치 말 한 마리가 옆드려 있는 형국이라고
그러지요.

하지만 오랜 세월동안 눈·비·바람을 맞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깎이
는 동안 귀가 거의 사라지고 얼굴상도 조금 변형돼 누가 보아도 개머리형상처럼
보이게 되었쥬. 그렇지만 제발 개머리바위라고 모독하지 마시고 꼭 ‘말머리바위’
라고 불러주셔요. 그러면 더욱 신명나서 이천 중생들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묵묵히
이 노승산을 지키고 있을래요.

또 재밌는 얘기가 있다. 노승산 산신령은 말머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먹느라고
바쁘기만 하고 항상 배가 고팠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노승산 기슭에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도 실제로 손에 쥐 수 있는 돈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옛날과는
다르다. 열심히 일한대로 부유해진다.

이런 전설은 언제부터 회자되고 있을까? 지구의 역사는 48억 년이라고 한다. 인



간이 지구의 역사를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을 1년으로 친다면 한 달은 4억 년, 일주일
은 1,300만 년, 하루는 55만 년에 해당된다. 그렇게 계산할 때 사람은 12월 31일 저
녁 8시에 출현해 밤 11시에 농경생활을 시작했다. 그렇다면 말머리바위의 전설은
12월 31일 밤 11시 59분이 지나 자정이 다가올 무렵 긴긴 겨울밤 사랑방에서 할아버
지들이 손자 녀석들에게 들려준 얘기일 것이다.

노성산에서 바라 본
설성면 전경

나는 평생 반려자인 아내와 함께 오늘도 노성산에 오른다. 굴바위 아래로 내려
가서 암벽에 설치된 철제로 된 108계단을 올라서서 말머리바위를 바라본다. 오랜 풍
화작용에 깎여 개머리처럼 보이는 말머리바위와 같이, 우리 부부도 한 해 두 해 자꾸
나이만 먹어가는 동안 아내의 얼굴은 화장을 하지 않으면 쪼글쪼글한 잔주름과 반
점들이 드러나 예전의 티 없이 곱던 얼굴이 아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하물
며 태초의 말머리바위가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면 이상하지 않겠는가.
그러고 보니, 말머리바위가 아름답고 정답게 보인다.

노성산 말머리바위를 찾아가는 등산로는 노성산시민공원-원경사-등산로-침터바
위-두 갈래길에서 오른쪽 길 아래 굴바위-108계단**여기서 병풍바위의 웅장한 모습을 볼
수 있음**-말머리바위-육각정-노성산 정상 장수봉에서 하산-헬기장-고인돌 부근-
병목바위 부근-하산-노성산시민공원의 코스**총 1시간 30분** 소요를 택하면 노성산의
아기자기한 면모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다만 가파른 곳이 있어 다치지 않도록 주

의해야 한다. 만약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는 119에 신고할 수 있는 지점이 정상
을 비롯해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다.

김영옥 | 이천문화원 시민기록자

5. 노성산과 원경사, 그 품에서 자란다

이천에 살면서 아이들과 함께 가기 좋은 곳이 어디냐고 물어온다면 서슴지 않고
답해줄 곳 가운데 노성산과 원경사가 있다. 몇 년 전, 이천으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다. 초등학생인 두 아이들을 데리고 갈만한 곳을 검색하다가 노성산을 리스
트에 올렸다. 이미 유명하다는 놀이공원과 박물관은 꽤 다니던 시기였는데 재미있
고 새로웠지만 뭔가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많았다. 주입식 교육을 받으며 자라는 아
이들에게 똑같이 답습시키는 것 같기도 했고 무엇보다 두 번, 세 번 지속적으로 가게
되지 않는었다. 토요일 날이 밝자마자 도시락과 과일, 물과 돛자리를 부지런히 챙겼
다. 어느새 잠이 깼는지 첫째가 거실로 나왔다. 밤새 머리카락으로 지은 까치집을
이고 묻는다.

“엄마, 우리 어디 가?”

“응, 노성산에 갈 거야. 거기 가서 오늘은 실컷 뛰고 놀자.”

아무 계획도 없이 먹을 것만 달랑 챙겼으니 틀린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휴일을
허무하게 보내고 싶지 않아 늘 촘촘한 계획을 세워 움직였던지라 마음 한 구석이 슬
쩍 불안하긴 했다. 그래도 어찌겠는가, ‘놀 거야!’ 라는 말에 이미 아이들은 집안을
다람쥐처럼 돌아다니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설성면 수산리 88-3.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고 도착한 곳은 노성산시민공원이
었다. 학교 운동장만큼 넓은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시계를 보니 10시가 조금 못 된
시간이었다. 혹시 차가 막히거나 주차장이 부족할까봐 아침도 안 먹고 출발했으니
주말 외출치고는 꽤 이른 시간에 도착한 것이다. 차 안 밀리고 주차장이 넓으니 시
작이 좋다. 시민공원은 넓은 소나무 숲이었다. 가장자리로는 정자와 벤치들이 있고



말머리바위(왼쪽 상단)가 보이는 노성산 전경



노성산시민공원 개장 당시 모습(1998)

가운데는 공터여서 배드민턴이나 공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돼 있었다. ‘취사금지’라고 몇몇 곳에 대형 현수막이 붙어 있었고 시민들의 위생과 편의를 위해 공동수도가 설치돼 있었다. 바람 좋고 햇살 좋고 공기 좋은 시각. 공원 한 쪽에 자리를 잡았다. 아이들은 자리 위치만 잡고는 벌써 중앙 무대로 이동! 집안에선 종종 투닥거



노성산에 오르는 계단

려도 밖에 나오면 이렇게 사이좋은 오누이가 세상에 없다.

시민공원 왼쪽으로는 차 한 두 대가 오고 갈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분식집을 겸한 매점과 식당이 있다. 길을 따라 시선을 더 옮기니 원경사 일주문이 보였다. 그리고 그 뒤로 노성산이 병풍처럼 둘러있다. 점심을 먹기 위해 달려온 아이들의 이마에는 어느새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준비해 간 도시락을 똑딱 해치우고는 아이들과 함께 산행에 올랐다. 짧은 숲길이 끝나고 철제 구름다리를 건너자 이내 오르막이 나왔다. 아이들은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갔고 나는 ‘이대로 쪽~ 가자’ 했지만 산 속에는 항상 복병이 있기 마련이다. 산으로 들어선지 10분 만에 하늘까지 맞닿은 것 같은 계단을 만나고야 말았다. 30~40개쯤 올랐을까? 둘째가 다리 아프다며 제자리에 섰다. 힘이 들었는지 얼굴도 살짝 상기돼 있다. 비상무기인 핑크빛 캐러멜 하나를 입에 물려주고 다시 계단을 오른다. 짧은 순간, 나는 묘안을 하나 꺼냈다.

“우리 가위바위보 해 볼까? 주먹은 스무 개, 보 자기는 열 개, 가위는 다섯 개”

다행스럽게 아이들은 모두 오케이를 했다. 서로 이기고 싶어서 눈빛이 반짝였다. 첫째는 주먹을 내고 이기면 의기양양하게 계단 스무 개를 올랐다. 둘째는 보자기로 이기고는 언제 다리가 아팠냐며 열 개의 계단을 총총거리며 올라섰다. 그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계단을 모두 올랐다. 아이들이 기특했다. 맑은 하늘과 아이들의 재잘거림 때문인지 발

걸음이 더 가벼워진 기분이다.

계단 후에는 오르락내리락 거의 능선타기로 정상까지 향했다. 해발 310m의 정상 표지석에서 아이들은 만세를 부르며 밝게 웃었다. 노성산 정상은 생각보다 좁았지만 설성면과 멀리 장호원 일대를 비롯한 사방이 한눈에 들어왔다. 360도 빙 돌아가며 주변경관을 보니 마치 신선이라도 된 것 같았다. 푸르게 익어가는 산천이 마음까지 싱그럽게 했다.

하산길은 생각보다 험했다. 시작부터 커다란 돌을 타고 내려가야 했다. 오랜만의 등산으로 다리가 살짝 풀린 나와는 달리 아이들의 걸음은 가벼워 보였다. 아이들은 마치 다람쥐 같이 사뭇사뭇했다.

내려오기 시작한 지 25분쯤 됐을 때 멀리 원경사 마당이 내려다 보였다. 시계를 보니 공원에서 출발한지 1시간 40분이 지난 시각. 생각보다 빨라 조금 놀랐다. 가위바위보 덕분인가 간식 덕분인가? 잠시 웃으며 가우똥거렸다. 어쨌거나 이 정도면 종종 데려와도 되겠다 싶었다. 자연이 아이들을 이만큼 키워주는구나 싶어 고마웠다.

산을 다 내려와서 합장을 하고 잠시 원경사 내에도 들렀다. 원경사는 1920년 경 세워졌다고 한다. 큰 절은 아니지만 일본식 정원처럼 경내가 단정하게 꾸며져 있었다. 사천왕문을 들어서자마자 집채만 한 약사여래불이 있었다. 가족과 지인들의 건강을 비는 삼배를 올렸다. 아이들이 천원짜리 한 장을 받아서는 곱게 접어 불전함에 넣었다. ‘무슨 소원들을 빌었을까?’ 바닥을 보이기 직전인 물병을 채우기 위해 범종각 아래로 내려갔다. 약수가 졸졸 흐르고 있다. 컴

원경사 약사여래불



원경사 경내 전경

컴한 지하실 같은 분위기에 아이들은 잠시 멈췄지만 이내 들어와 목을 축였다. 물을 마시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곳에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담한 대웅전과 깨달음이 절로 일 것 같은 설법전, 그리고 노성산을 배경으로 한 미륵불 입상까지 둘러 보고 원경사를 나섰다.

공원에 거의 도착해서는 화장실부터 뛰어갔다. 공중화장실이 꽤 큰 편이다. 시설도 그만하면 괜찮았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부처님 오신 날은 줄을 서기도 한다. 은근히 찾는 사람이 많은 곳이 노성산이고 원경사라는 얘기일 것이다. 원점에 거의 다다랐을 때, 우리들은 참새 방앗간처럼 매점 앞에 섰다. 산에 다녀오면 후연소가 일어난다더니 밥을 먹고 출발했는데도 벌써 출출했다. 갓 찢낸 전빵과 라면 냄새가 코를 찔렀다. 홀린 듯이 매점 안으로 들어섰다. 전빵도 라면도 김치도 단무지도 모두 훌륭한 점수를 줬다. 어느 하나 맛있지 않은 음식이 없었다. 그야말로 꿀맛이었다.

한 주가 지나고 우리 가족은 노성산시민공원을 다시 찾았다. 도시락은 간단히 싸고 준비물은 미술도구였다. 스케치북·물감·붓 등등……. 스케치북이 부족할 땐 작은 돌들을 주워 캔버스로 삼았다. 아이들은 그걸 더 좋아했다. 물론 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돌들은 다시 제자리나 나무 근처에 전시했다. 자연물은 자연에 있어야 함을 가르칠 수 있었다. 이후엔 밀가루를 가지고 가서 소꿉놀이도 즐겼다. 공동수도 덕분에 떠오른 아이디어였다. 놀고 씻기가 원스톱one-stop으로 돼서 너무 좋았다. 아이 둘을 데리고 집에서 미술놀이를 즐기기에 버거웠는데 정말 좋은 공간을 얻었다.

입장료도 없고 차도 안 막힌다. 아주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그늘막 텐트나 모기장 텐트 정도는 챙기면 좋겠다. 내키면 노성산에 올라가고, 안 내키면 원경사 산책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도저도 아니라면 돛자리 깔고 낮잠 삼매정에 빠져도 좋다. 자연이 알아서 채워준다. 재잘거리는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도 이곳에선 자장가처럼 들린다. 휴일을 휴일답게 보낼 수 있다. 아이들도 자유롭고 어른들도 자유롭다. 노성산과 원경사, 그 품에 들면 어느새 한가한 사람이 된다. 스스로에게는 휴식을,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다면 꼭 한번 찾아가길 바란다. 자연이 알아서 다 해준다. 그 품에서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란다.

6. 백사면의 느티나무와 소나무의 꿈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TV 「뉴스룸」에서 ‘느티나무 김수환 추기경, 소나무 성철 스님’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주방에서 일을 하던 나! 남편에게 물었다.

“느티나무, 소나무? 왜 나무로 표현했지?”

“김수환 추기경은 늘 우리 곁에서 쉼터 같은 존재고, 성철 스님은 늘 한 곁 같이 강직하게 늘 비우고 살아서 아닐까?”

우리 부부의 익숙하고도 짧은 대화였다. 난 그 이후에도 이 말의 의미에 대한 궁금증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며칠 후, 교사연수 건으로 필자의 모교이기도 한 관내 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어릴 적 보았던, 아니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느티나무 두 그루를 만났다. 순간 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다. 주체 못할 만큼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가을 운동회 때면 청군·백군으로 나뉘 앉아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외쳤던 그 곳. 초등시절 기억을 떠올렸고, 바람 따라 움직이는 낙엽을 정성 들여 한 개 두 개 주웠다. 큰 낙엽도 주웠고, 열매를 달고 있는 작은 잎도 주웠다. 운동장에서 신나게 축구하는 친구들만큼 좋았을까! 진짜다. 아이들만큼 좋았다.

벗나무·은행나무·느티나무 몸에서 떨어지는 낙엽비에 반해 낙엽을 가득 담아 교실로 향했다. 행복감으로 담아 온 낙엽들을 연수에 참석한 교사들에게 소개했다. 벗나무의 꿀샘^{蜜腺} 이야기, 우리 선조들과 함께한 느티나무와 살아있는 화석인 은행나무 이야기까지. 마지막으로 운동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느티나무 두 그루, 그리고 3대가 사는 소나무와 어릴 적 함께한 이 학교의 졸업생이라고 소개했다. 30여명 교사들의 시선은 궁금증이 가득 담긴 채 나를 향했다. 다행히 여러 이야기를 재미있게 잘 들어주었고, 공감해 주었다. 그러나 연수 후에도 여전히 손석희 앵커의 말이 맴돌았다. 나는 앵커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고 싶었다. 나름의 그 이유를 내 안에서 찾고 싶었다.

다음날 이 학교 3학년 학생들과 “이천 알기 수업”의 일환으로 백사면의 산수유 마을에 있는 육괴정과 반룡송을 만나기 위해 현장으로 함께 갔다. “이천을 어떻게

백사면 산수유마을의
육괴정



육괴정 앞의 느티나무



알까요? 관심을 가지고 압니다. 이천을 어떻게 알까요? 사랑을 가지고 압니다” 라고 개사한 노래를 시작으로 이천의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산수유마을로 향했다. 봄이면 노란꽃이 피어나고 가을이면 빨간 열매를 맺는, 대학나무로 불리는 산수유 나무들의 군락지다.

느티나무 이야기¹⁾

친구들?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에 무엇들이 있는지 둘러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정자요”, “집이요”, “개울이요”, “연못이요”

맞습니다. 옛날 집처럼 보이는 저 곳은 사당이고, 앞에 보이는 커다란 나무는 마을을 지켜주고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해주는 멋진 느티나무입니다. 사당과 느티나무에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여기에 살던 사람이 느티나무를 심었나요?”

네, 맞아요. 때는 조선시대였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옛 것과 중국의 정치체도로 나라를 다스리자는 파와, 부패한 세력을 몰아내고 개혁을 하자는 파가 있었습니다. 왕은 결국 급진 개혁파들을 죽이거나 귀양을 보냅니다. 그 사건이 바로 1519년에 일어난 기묘사화입니다. 그중에 사화를 피해 내려온 남당 엄응순은 아버지 묘가 있는 백사면 도립리에 내려와 정자를 지었고, 비슷한 시기에 사화를 피해 내려온 다른 친구 5명과 이 정자에서 시도 짓고 학문도 토론하고 우정도 다졌던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친구와 우정의 징표로 반지를 서로 나누어 갖는 것처럼 여섯 친구들도 우의를 다진다는 의미로 정자 앞에 여섯 그루의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여기에 있는 느티나무입니다. 찾아보세요, 여섯 그루가 있나요? 지금은 세 그루만 남아 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나 될까요? 1519년, 2017년, 계산해보면 500살은 넘었네요.

그 긴 세월, 긴 시간동안 여섯 친구들과 그의 후손들은 백사면 각 마을을 선택하여 마을을 가꾸며 살아 왔습니다. 산수유를 심어 살림을 키워 나갔고 아이들을 공부 시킨 삶의 터전입니다. 우정을 약속하고 심었던 여섯 느티나무는 500년의 삶의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원을 만들어 손들을 잡아 볼까요? 나무의 둘레가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손을 잡은 채로 위를 보세요, 그리고 말을 걸어 보세요. ‘느티나무야? 고마워! 살아남아 이야기를 들려줘서 사랑해! 살아남아 우리를 초대해줘서.’

여섯 그루의 나무가 있는 정자의 뜻인 육괴정과, 이야기를 꽃피웠던 여섯 선비를 괴정육현(槐亭六賢)이라 기억하며 학생들과 함께 두 번째로 만날 나무 친구 소나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1) 해설사로 활동하는 필자가 학생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내용을 글로 옮긴 것이다.

천연기념물 반룡송



소나무 이야기²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애국가 2절 가사입니다. 가장 사랑받고 있는 대표적인 나무 소나무입니다. 친구들 옆에 서 있는 이 나무 역시 소나무입니다. 소나무는 특징에 따라 불리는 이름이 다양한데 뿌리에서 여러 줄기가 갈라져 자라는 소나무 이름은 반송입니다. 나무 주위를 한 바퀴 돌아볼까요? 어떤 모양인가요?”

“뱀 같아요”, “용 같아요”, “꼬불꼬불해요”, “줄기가 빨개요”

네, 맞아요. 옆으로 퍼지는 반송에 용트림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모양, 그리고 용의 비늘 같은 나무껍질이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 소나무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줄기가 사방으로 퍼져 하늘로 향한 크기와 받침대를 받쳐놓은 것을 보면 짐작컨대 300~400년 되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면 반룡송의 전설도 있겠죠. 신라 말 도선대사가 전국을 돌며 소위 명당이라고 하는 땅에 소나무를 심어 표시 하였어요. 그 소나무들이 함흥 · 서울 · 계룡산 · 강원도 그리고 이천 도립리 여기에 있는 소나무라고 합니다. 나무의 형태가 특이하고 정확한 전설을 간직하고 있어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하고 있는 보호수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만큼 귀하고 귀한 사랑받는 소나무 반룡송을 만났는데 친구들의 느낌은 어때요?”

이 소나무는 수백 년을 도립리 이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었어요. 긴 세월 여러 대를 거치면서 역사의 흔적을 이 구부러진 줄기들에 담고 있어요. 반룡송은 수백 년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아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

2) 해설사로 활동하는 필자가 학생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내용을 글로 옮긴 것이다.

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반룡송의 꿈입니다.

늘 푸르며, 우리의 삶과 동행한 반룡송 우리들의 휴식처요 쉼터였던 느티나무를
만나 본 오늘! 우리 3학년 친구들도 오늘만큼은 느티나무와 소나무를 기억하며 나
무들의 삶과 나무를 닮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등학생 친구들과 함께 만난 느티나무와 반룡송소나무!

“느티나무 김수환 추기경, 소나무 성철 스님”

왜 느티나무와 소나무라 비유했는지 알게 되는 순간이다. 다르다. 그러나 그 다
름을 서로 인정하고 묵묵히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었
던 그 분들의 삶 자체가 오늘 우리가 만난 나무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그것이
느티나무와 소나무의 꿈이요, 김수환 추기경과 성철 스님의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
었다.

김태란 | 이천문화원 시민기록자

7. 효자와 돼지의 전설을 품은 이천 도드람산에 대하여

마장면에 위치한 도드람산은 이천의 명산으로 349m 높이에 1봉에서 5봉으로
이어진다. 대체적으로 육산(肉山)이며 나무숲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정상은 주능선 전
체가 뾰족뾰족한 바위로 암릉산행을 가능케 해주는 멋진 산이다. 중부고속도로나
영동고속도로를 타다가 이천 마장휴게소 부근에 이르면 칼날 같은 도드람산 5봉의
형세를 쉽게 조망할 수 있으며, 서울에서 가까워 부담 없이 찾기 좋은 산이다.

산행 입구는 SK인재개발원 앞 영보사 입구이며, 산행을 시작하여 30여 분만 오
르면 제1봉이다. 4봉이 정상이고 5봉이 전망대이다. 1봉에서 3봉까지는 바윗길이
있어 바위를 탈 수 있고, 5봉은 초보자의 경우 효자문으로 우회할 수 있다. 중급자
이상이면 바위를 탈 수 있고 산행시간이 2시간 30분 정도로 등산하기 가벼운 나들이
코스 산이다.



이천9경 중 제1경 도드람산 삼봉



도드람산의 전설을 담은 멧돼지상



효자봉 표식



도드람산 유래

옛날 이 산 근처 마을에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는 효자가 살고 있었다. 병든 어머니를 위해 석이버섯을 따러 밭줄에 몸을 묶고 깎아지른 절벽을 타고 내려가 버섯을 따고 있을 때 어디선가 산돼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상하게 여긴 효자가 고개를 들어 위를 보니 산돼지는 간 곳 없고 효자의 몸을 매달았던 밭줄이 바위 모서리에 굵혀 끊어져 가고 있었다. 이로 인해 효자의 목숨을 구하였다고 해서 돈돼지울음산으로 불렸다고 한다. 이후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의 도드람산으로 된 것이며, 한자로는 돼지 저猪에 울 명鳴을 써서 ‘저명산’ 이라고도 부른다.

이천의 대표 브랜드로 널리 알려진 ‘도드람포크’ 는 이 도드람산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다. 양돈농가들이 공동 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 산하 기업의 고유 브랜드이다. 도드람포크는 소비자가 찾는 맛있고 깨끗한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 3원 고잡종LYD를 원료돈으로 사용한다는 종돈 통일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듀록DD, 품종을 사육하고 있다고 한다.

도드람산에 대해 사전에 공부를 한 후 우리는 10월 중순 가을빛이 아름다운 토요일에 산행하기로 하고 이천 마장휴게소 가까이 있는 도드람산으로 향했다. 주차는 SK인재개발원 맞은편에 있는 체육공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산행 입구는 도드람 슈퍼 왼쪽의 굴다리과 연결된 길이다. 안내 표지가 없어 입구를 찾느라 시간을 보내고, 길을 따라 조금 올라가 보니 도드람산에 대한 산행 표지판이 있었다.

표지판을 보고 올라가는 길에 하산하는 등산객 한 분을 만났다. 도드람산이 운동하기 좋아 자주 온다고 하며, 도드람산에 대한 유래와 산행의 안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며 미끄러울 수 있다고 자신이 끼고 있던 장갑까지 벗어 주었다. 5봉 가는 길이 위험하여 일부는 폐쇄되었다고 알려주는 고마운 산행인도 만났다. 산행을 시작하여 올라가는 중간에 등산객들의 휴식을 위한 아담한 빨간색·파란색의 벤치가 있어 나무의 색상과 잘 어울렸다. 그 벤치에 앉아 잠시 쉬며 새소리와 숲의 자연과 하나 되는 힐링의 시간도 가졌다. 또한 산을 오르는 길에는 곳곳에 이정표와 마장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와 그림이 함께하는 도드람산 만들기’ 라는 주제로 설치한 좋은 시화가 있어 문화적인 운치도 있었다.

남편은 무릎 관절을 다쳐 평소 가벼운 산행을 하는데, 도드람산은 무릎 관절에 큰 무리 없이 오를 수 있는 적당한 경사가 있는 산행으로 심폐운동과 체력 단련의



도드람산 안내도



철제계단 아래에 있는 돼지굴



도드람산 돼지와 효자 청년 조형물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산이라고 한다.

1봉을 바위를 타고 거뜬히 오르니 날씨가 맑아 이천 주위가 먼 곳까지 보인다. 황금빛 가을 들판과 붉은 단풍의 아름다움, 그리고 시원한 가을바람에 산행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2봉을 향해 전진했다. 2봉을 오르는 입구에는 표지석이 있고 바위에는 밧줄이 있어 잡고 오르면 무리 없이 오를 수 있다. 밧줄을 타고 3봉을 올라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인증 샷을 찍고 4봉으로 향했다. 우회하여 이정표를 보고 비탈길을 오르니 4봉 정상인 효자봉이 나온다. 효자봉에서 우리는 초등학교 2명을 데리고 온 젊은 할머니를 만났다. 용인에 사는데 주말이면 손주를 데리고 도드람산을 자주 온다고 한다. 도드람산은 해발이 높지 않아 초등학교생들이 산에 오르기 좋다고 한다. 육산이며 5봉으로 이루어져 자신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코스를 선택할 수 있어 수도권에 사는 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한다. 우리는 서로가 준비해온 간식을 나누고 사진도 찍어주며 산행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었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5봉 가는 산행 안내도 자상하게 해 주었다.

4봉에서 비탈길을 내려오면 5봉 가는 길 안내 표지가 있고 돼지 전설이 전해지는 좁은 돼지굴이 있다. 이 좁은 바위 틈 사이를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지만 돼지 전설을 생각하며 한번 해보자 하고 용기를 내어 몸을 최대한 날렵하게 하고 굴을 조심스럽게 통과했다. 돼지굴 앞에는 단풍나무가 예쁘게 물들어 있고 도드람산의 유래와 하산길 안내가 있었다. 철제계단으로 조심스레 오르니 5봉

전망대가 있다. 멀리까지 보이는 이천 일대의 전경은 자연과 어우러져 멋졌다.

하산하는 길은 올라갈 때와 다른 길을 선택하였다. 돼지굴에서 아래로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오다 보면 석이 약수터가 있다. 향균·항암물질로 알려진 피톤치드 Phytoncide를 다량 흡입할 수 있는 곧게 뻗어 올라간 침엽수림의 한적한 숲길을 걸으며 행복호르몬 세라토닌을 마음껏 느끼는 즐거운 산행이었다.

산행을 마치고 저녁에 도드람양돈농협을 찾았다. 넓은 주차장 옆에 도드람산 돼지와 효자 청년의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테마파크가 있어 유치원과 초등부 저학년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체험교실과 키즈랜드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는 삼겹살을 사서 구워 먹으며 도드람산의 산행 소감을 서로 나누었다. 해발이 높지 않고 1봉에서 5봉까지 무리하지 않으며 암릉을 탈 수 있는 묘미가 있고, 사람이 북적거리지 않아 산행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산으로 주말에 자주 가자고 했다. 도드람포크는 육질이 좋고 맛도 좋다. 도드람산의 이름을 따서 양돈농가들이 좋은 돼지고기 브랜드를 개발하고 테마파크로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의 기회를 주는 등 ‘도드람’ 명칭은 정겹고 인심 좋은 이천 사람들의 이미지를 느끼게 한다. 오늘은 ‘도드람’과 함께한 날이다.

박영희 | 이천문화원 시민기록자

8. 도심 속의 정원 안흥지와 애련정

풍류가 흐르는 멋진 정자를 보려면 시내를 벗어나 변두리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천에서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미란다 호텔 방향으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 이천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곳에 애련정을 품고 있는 안흥지가 있다. 이천9경 중 제7경인 이곳을 지나다 보면 산책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예전에 안흥지는 안흥방죽이라 불렀는데 이는 방죽이 순화된 이름으로 네모난 연못이란 뜻이며, 본래 용도는 농업용수를 대는 저수지였다고 한다. 안흥지 한가운

데 자리하고 있는 애련정은 언제 건립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천읍지』에 의하면 객사 남쪽에 사람들이 돌보지 않아 다 쓰러져 가는 정자가 있었다고 한다. 1474년^{성종 5} 이천부사 이세보가 부임한 지 2년 만에 다시 중건하여 정자 옆 습지를 파서 그 가운데 연꽃을 심었으며, 영의정 신숙주가 ‘애련정’이란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한다.

한편, 임원준의 「애련정기」에 기록되어 있기를 “정자 앞 습지 방형연못에 연꽃이 피어있고 동남간으로 효양재 봉우리가 책상 앞에 벌려져 있으며 가까이에는 아름다운 나무숲이 물 위에 비쳐 있다. 정자의 모습은 그리 높지도 낮지도 않고 사치하지도 검소하지도 않다”고 했다. 또 “아름다운 나무숲이 물 위에 비쳐서 경치가 서로 잘 어울린다”라고 하였다. 옛날과는 모습이 좀 다르긴 해도 호수에 비친 정자와 푸른 버드나무가 바람에 같이 흔들리고 멈추니 자연과 한 몸 같아 보이고, 빨간 구름 다리와 파란 하늘이 햇빛과 물빛으로 반짝이며 화답하는 모습이 정말 그러하다.

또한 이천은 지리적으로 임금들이 영릉으로 행차하는 길이다. 『동국여지승람』에도 중종·숙종·영조·정조 임금들까지 이 정자를 찾아 경치를 감상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천 행궁에 머물 때면 붉은 연꽃으로 어우러진 애련정을 둘러보았다고 한다. 특히 중종은 능행을 끝내고 행궁에 머물 때 애련정에서 노인잔치를 베풀고 시제를 내려 시를 짓도록 했다고 한다. 이곳의 아름다운 풍경을 당신 혼자서 보시지 않고 행궁을 열어 잔치를 베푸신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한다. 정조는 애련정에 대한 소문을 잘 알고 있었고, 월산대군이 지은 애련정시의 내용까지도 기억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외 서거정·조위·강경서·김안국·김진상 등 조선시대 내로라하는 많은 시인 묵객들이 빼어난 애련정을 소재로 시를 읊었다고 한다. 선비들을 흥내 내어 안흥지 연못가를 걸으며 애련정 마루에 걸터앉아 보았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낀다.

우리나라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경치가 수려한 곳에는 대개 아담한 정자가 자리 잡고 있다. 정자는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자연 속에서 결코 눈에 거슬리는 법이 없고 그 속에서 오히려 자연의 한 부분으로 동화되어 멋진 작품을 만들어 낸다. 멀리서 바라보는 정자의 모습은 참 아름답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원래 정자는 안에서 밖의 경치를 보기 위해 만들어진 건물이다. 정자 안에서 보는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마루에 앉아



하늘에서 본 안흥지와 애련정 전경



이천시 향토유적 제15호 애련정

이천9경 중 제7경 안흥지와 애련정(위), 「애련정의 야경」[제2회 이천관광 전국사진공모전 입선작(2008, 김원의 작)]



보라. 자연을 가까이 하려고 한 조상들의 마음이 느껴질 것이다.

정자는 휴식처이자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다. 홀로 조용히 휴식을 취하거나 명상 하며 마음을 정리하고, 때로는 여럿이 모여 정서를 교감하고 흥을 돋우었던 장소인 것이다. 어떤 이들은 재미나는 이야기로 길고 무더운 여름밤을 보내기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심각한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을 것이다. 기분이 나면 노래 한 곡 뽑기도 하고 게다가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흥이 나면 언제고 시 한 수쯤 거뜬히 지어낼 수 있는, 문학과 예술이 생활화 되어져있던 우리 조상들이다. 마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유행가를 부르듯이 그들이 시를 뽑아내는 숨씨는 일반 화되어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자 문화가 아닌가 한다.

애련정의 ‘연’은 연꽃 ‘蓮’이다.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유교에서도 상징성이 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맑고 고귀한 꽃을 피우고, 속세에 흔들리지 않는 군자의 성품을 나타낸다고 하여 군자의 꽃이라 한다. 그리고 민화에도 연꽃이 많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뻐서 그리기도 하지만 연과라고 해서 연달아 과거에 급제하라는 의미도 있다고 한다. 여기 연못에도 1970~1980년대에는 연꽃이 장관을 이루었다. 결혼한 후 친지들에게 이천 구경 시켜준다고 안흥지 연못 가까이 연꽃 구경하러 갔다가 신발이 빠질 것 같아 까치발을 하고 걸었던 생각이 난다. 그러나 지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호수 주변 길은 운동하기 좋은 산책로로 바뀌어 결코 신발 버릴 일은 없으니 말이다.

구한말 우리나라는 어렵고 힘든 시기였고 치욕스러운 큰 사건들이 많았다. 1907년^{순종 1} 이천에도 큰 사건이 있었다. 벌떼같이 일어났던 의병 활동으로 일본군이 이를 진압하고자 이천 읍내 483가구를 불태운 충화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화려했던 이천도호부의 흔적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애련정도 그때 불타 없어졌다 한다. 이후 1990년대 초에는 이천경찰서가 안흥지를 메우고 그 위에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이천읍 노인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안흥지 보존운동을 벌여 개발계획을 백지화 시켰다. 1998년 이천시가 애련정 복원을 비롯한 시민공원 개발을 추진하여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고 향토유적 제15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문화재는 한번 훼손하고 나면 복원하기 힘든데 참 다행이라 생각하고 감사하다. 우리가 보존하고 잘 지켜 후손들에게 이어주는 미덕이 되었으면 한다.

요즈음은 모두들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자신의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일에 치여 스트레스로 마음이 무거울 땐 하루쯤 바쁜 일상의 노고를 내려놓고 군자가 된 마음으로 안흥지의 산책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멋진 시 한 수 떠올리는 휴식과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라. 생각이 나지 않으면 문인회에서 팻말에 적어 놓은 시들을 읽어보라. 다정한 사람과 애련정 정자에 앉아 속에 담긴 이야기를 풀어내어 보라. 새로운 힘이 충전될 것이다. 봄에는 푸른색 연꽃잎 속에서 싱싱함과 희망을, 여름이 되면 붉고 예쁜 연꽃 속에서 아름다운 젊음을, 가을에는 만물이 익어가는 숙연함과 겸손을, 겨울에는 새하얀 눈길을 걸으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느끼며 말이다.

안흥지 입구에 쪽 뻗어있는 구름다리과 두 개의 버드나무 가운데 어우러진 애련정, 그리고 걷기 좋은 산책길과 운동기구, 언덕 위의 류달영 박사의 애향시비, 줄지어 서있는 이천을 거쳐 간 부사들의 29개 선정비를 돌아보면 역사의 흔적과 숨결이 나와의 인연을 이어주고 구름 속의 새파란 하늘과 싱그러운 공기로 어느덧 몸과 마음은 치유되어 있을 것이다. 만약 누군가의 흔적들이 남겨져 있다면 겸손히 봉사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청소해 보라. 오히려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정선화 | 이천문화원 시민기록자

9. 역사와 전설이 공존하는 마을, 율면 산성리와 어재연 장군

율면 산성리를 찾은 건 12월의 겨울, 율면의 작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원예 놀이 수업을 하고 난 오후였다. 노루 꼬리처럼 짧은 해는 벌써 떨어져 어두워지고 있어, 처음 찾아 가는 발걸음도 내 마음도 바쁘기만 했다.

1871년^{고종 8} 지금처럼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의 촛불 같던 그때, 조선의 장군으로 결사 항전하였던 어재연·어재순 형제의 생가가 있는 율면 산성리는 충청도 땅이 더 가까운 이천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인적 없는 조용한 시골

마을이지만 지척의 개는 낯선 이의 방문에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맹렬하게 짖어댔다.

야트막한 산 밑에 오롯한 장군의 생가는 조선 후기의 민가 형태로 초가지붕을 이어 ‘一’ 자형의 사랑채가 있는 바깥채와 ‘ㄱ’ 자형의 안채, 곡식이나 농기구를 보관해 놓는 광이 ‘一’ 자형으로 있어 전체적으로는 보면 ‘口’ 자의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 중요민속자료 제127호다.

어재연 장군은 독립운동가인 이수홍 열사와 함께 우리 이천을 상징하는 위인이다. 병인양요 · 신미양요 · 쇄국정책 · 흥선대원군 등 교과서와 역사책에서 만났던 우리나라 역사의 중요 사건 한가운데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무과에 급제한 무인 집안인 어재연 장군은 1823년 을면 산성리 74번지에서 어용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유씨 부인이 홀로 힘겹게 살림을 하며 어재연 · 어재순 형제를 키워냈다. 어재연의 자字는 성우性友다. 당시에는 이름을 귀히 여겨 관례를 치르고 나면 품성과 비슷한 자로 더 많이 불렸다. 성품 · 생명 · 목숨을 뜻하는 ‘性’ 에 가다 · 행하다를 뜻하는 ‘于’ 를 썼으니, 나라를 위해 초개처럼 목숨을 버리고 나라를 지킨 그의 삶을 이름이 미리 알기라도 한 것일까?

산성리 생가를 오르는 좁은 골목길 오른편에는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다. 수령이 160년이 됐다고 하나, 나무 둘레나 키를 보면 200년도 훨씬 넘을 것 같다. 160년 이상의 세월을 살고 있는 느티나무는 시골마을의 소년이었던 어재연 장군이 무과에 급제하여 입신양명하고 나라를 위해 죽기까지의 일생 전반을 함께 한 셈이다.

이 느티나무는 오래된 나무들이 그렇듯 재미있는 옛 이야기가 있다. 옛날 장군의 후손인 어윤기의 장례를 치를 때였다. 상여를 이 나무 아래 놓고 상갓집에서 준비한 음식을 먹은 상여꾼과 마을 사람들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렸다고 한다. 그 뒤로 이 나무 밑에 상여를 놓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후 상여가 지나가다가 나뭇가지를 건드려서 부정이 났다는 둥, 나무에 예를 다하지 않고 음식을 먹어 병에 걸렸다는 둥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래서 이 나무 밑에 지나갈 때는 나뭇가지에 닿지 않게 조심하거나, 마을의 큰 행사가 있을 때 이 느티나무에 술을 먼저 올린 뒤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예를 올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율면 산성리 전경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127호 이천 어재연 고택(어재연 장군 생가)



어재연 장군 초상

어재연 장군 사당
충장사

또 하나, 생가 앞에 돌을 밟고 올라타던 말이 있었는데 장군은 이 말과 오랫동안 함께 했고 무척 아꼈다고 한다. 강화도 광성보에서 장군이 전사하고 난 뒤 장군의 안장을 엮은 말은 산성리까지 찾아와 슬퍼하며 뗏돌에 머리를 박아 죽고 동네 사람들이 이 말을 묻어주었는데, 무덤의 형태는 사라졌지만 말무덤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고 한다. 한편 어재연 장군이 밭일을 하며 활쏘기 연습을 할 때 밭 건너편으로 활을 쏘고 뽑아오기를 했던 곳은 사장골·사장말랭이로 불리고 있다.

느티나무를 내려오면 두 개의 연못이 각각 위와 아래에 위치해 있다. 손끝이 아릴 정도로 추웠던 날씨에 연못의 물은 얼어있고 초탈한 군자의 꽃 연꽃을 무성히 피워낼 여름을 기다린 채 마른 잎이 가득했다. 인공 쌍둥이 연못인 쌍충연(雙忠淵)은 어재연 장군의 호국충정을 기리며 만들었는데 윗쪽 연못은 어재연 장군의 시호인 충장을 따서 충장연(忠莊淵)이라 하고, 아래쪽 연못은 장군의 아우 어재순을 뜻하는 이의연(吏議淵)이라 한다. 어재연 장군이 전사하자 나라에서는 ‘충장’이란 시호를 내렸다. 또한 어재연에게 병조판서 겸 삼군부지사(三軍府知事)를, 민간인의 신분으로 형과 함께 전사한 어재순에게는 이조참의를 추증하였다.

마을은 사장골·쌍충연·충장사·충장문·쌍충재 등 지명과 연못, 건축물까지 장군과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다. 죽어서도 형제의 의로움과 우애로움을 나타내는 사이좋은 연못 쌍충연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에는 충장사가 있다. 계단을 올라가 닫힌 문으로 뚫뚫히 들여다보니 철이 벗겨진 문이 보인다. 1974년 4월에 건립한 충장사는 쌍충문(雙忠門)을 통과해 올라가면 층계 위 맨 위쪽에 충장사가 있고, 안쪽 중앙에는 어재연·어재순 형제와 유풍로·김현경·이현학·박치성·임지팽 등의 신위가 함께 모셔져 있다. 이분들도 신미양요 때 장군과 함께 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사한 의인들이다. 평상시에는 문을 굳게 닫아 놓지만 1년에 딱 2번, 음력 3월 16일과 9월 16일에 어씨 문중과 이천지역의 유림에서 제사를 지낸다. 건립 후 40여 년이 지났고 관리를 하고 있다지만 건축물 내부 곳곳의 철이 벗겨지고 지붕도 보수가 시급하다.

충장사만큼 관심 있게 본 집은 충장사 입구에 있는 쌍충재이다. 쌍충재는 충장사를 관리하는 어씨 문중의 관리사로 팔작지붕을 한 멋스런 옛 한옥이다. 지금은 권순호 씨가 거주하며 충장사의 제를 비롯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인기척은 없지



이천옛길(영남로 제10길) 표지판

만 열린 대문으로 여러 가지 살림살이들이 보이는 안채가 있으며, 사랑채처럼 보이는 바깥채는 비어 있다.

권순호 씨는 이천관광 두레사업의 구성원으로 이곳 쌍충재에서 가양주를 빚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관리사라고는 하지만 조금만 수리를 한다면 한옥의 기품이 더해질 쌍충재와 어재연 장군의 생가, 그리고 오래된 느티나무와 함께 역사와 스토리가 있는 관광지로 손색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람은 손끝이 시릴 정도로 맵다. 어두워져 큰길가로 나왔는데 마을로 진입하면서 못 보던 표지판이 눈에 띄었다. 조선

시대 한양에서부터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로 중에서 우리가 사는 경기도를 지나는 주요 도로망이 6개가 있는데, 바로 의주로·경흥로·평해로·영남로·삼남로·강화로이다. 경기도는 2012년 삼남로를 시작으로 의주와 성남에서 용인·안성·이천을 잇는 영남로를 개통하였다. 각 지역과 마을마다 전해 내려오는 지역문화·지명유래·전설 등의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경기옛길’ 영남길 중에서 이곳 어재연 생가는 10코스의 마지막 종점이다. 제주의 올레길처럼 구간별 코스를 완주하면 기념 스탬프를 찍게 준비되어 있었고 간단한 안내 지도도 비치되어 있었다. 이천에서 성남까지의 거리가 38km인데 행정구역상 이천이라고는 하지만 이천에서 산성리까지의 거리가 37km가 조금 넘으니, 산성리는 이천에서 가장 먼 끝자락의 땅이다.

뛰어난 외교가였던 1,000년 전의 인물 서희 선생은 여러 기념사업과 행사로 우리 지역 이천에서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이지만, 200년도 안된 역사 속에서 나라를 위해 전사한 어재연·어재순 형제의 평가가 그리 크지 않아 이천에서 먼 거리만큼 관심도 먼 것이 아닐까 싶다.

1871년 조선과의 통상을 요구하며 광성보에서 전쟁을 했던 미국과 우리나라는 6·25전쟁으로 우방을 넘어 혈맹으로 맺어진 관계가 되었다. 주변국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힘겨운 외교를 했던 구한말이나 남북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이나 튼튼한 안보와 국력의 필요는 어쩌면 닮아있고 서글프기까지 하다.

따뜻한 계절이 오면 영남길을 걷고 싶다. 따뜻한 계절이 오면 산성1리 장군의 동네를 다시 오고 싶다. 역사책에서, 교과서에서 보았던 영웅이 우리 지역에도 살았음을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잡고 다시 오고 싶다.

채기순 | 자유기고가 · 이천문화원 설봉문화 편집위원

10. 이천의 숨은 보석, 도니울마을

삼한시대의 문화를 비교적 자세하게 다룬 『삼국지』 위서魏書에는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소도’라는 풍습이 나온다. 이를 주관하는 천신은 소도를 지내는 지역을 다스리기도 했는데, 이 공간 역시 ‘소도’라 불렸으며 죄지은 사람이 들어와도 통치자가 함부로 잡아갈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공간이었다. 해마다 가을이면 술과 노래와 춤을 즐기며 제사를 지내던 ‘소도’는 농경사회에서 매우 큰 행사이자 축제였다.

우리 식탁에 여전히 따뜻한 밥이 오르듯이 이천에는 오롯이 소도문화를 이어가는 마을이 있다. ‘소도를 지내던 봉우리’란 이름이 오랜 세월 경음화 현상을 거쳐 ‘소도니봉’으로 변형돼 오늘에 이르는데, 이 작은 산을 품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도니울마을이다. ‘도니울’은 소도니봉의 ‘도니’가 분리되고 여기에 ‘울’이 합성된 이름으로 ‘도니’는 습기가 많은 넓은 평야지대를 의미하기도 한다.

도니울마을은 이천 시내에서 3번국도를 타고 장호원 방면으로 약 15분쯤 가면 나오는 대월면에 자리하고 있다. 대월면사무소를 지나 도리리 입구에서 2시 방향으로 몇 백 미터쯤 더 들어가면 도니울마을 입간판이 보인다. 마을이 안으로 쪽 들어앉아 있어서 모르고 지나치기 쉽고, 세상과 등지고 돌아앉았다는 뜻에서 ‘도니울’이라 부르기도 했다는 속설처럼 도니울 마을은 큰 길에서 꽤 들어가야 도착할 수 있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 덕분에 임진왜란과 6·25전쟁 당시에도 큰 사건 사고가 없었다고 하니 도니울은 오랫동안 조용함을 간직한, 작지만 고즈넉한 마을이기도 하다.

삼한시대부터 쌀문화가 발달해 지금도 임금님표 이천쌀의 주 생산지인 이천명품쌀마을로서의 명성을 이어나가고 있는 도니울마을. 필자가 마을을 방문했을 때



도니울 명품 쌀마을
전경



도니울 명품 쌀마을
안내판

는 가을걷이가 거의 끝난 상태라 도니울의 황금 들판을 눈에 담지 못해 무척 아쉬웠다. 하지만 그런 마음은 마을 중심부로 걸어가면서 금세 사라졌다. 첫 방문객의 발소리에 마중이라도 나왔는지 길가 여기저기에 아기자기한 들꽃들이 활짝 피어있었다. 집집마다 안팎으로 마련된 텃밭에는 푸성귀들이 탐스럽게 자라 있었고, 다가올 김장을 앞두고 노랗게 속을 채우려는 배추들은 진초록을 뽐내며 광합성이 한창이었

다. 어느 집 낮은 담장 위에는 한 아름이 넘는 늙은 호박이 여린 노을빛으로 구수하게 익어가고 있었다. 소박하지만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인심이 느껴졌다.

마을회관에 짐을 풀고 먼저 마을의 제일 큰 어르신부터 찾아뵈었다. 어르신은 도니울의 터줏대감답게 마을의 중심에서 계셨다. 멀리서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남다른 풍채의 어르신은 다름 아닌 수령 500년이 넘는 은행나무다. 1982년 이천의 보호수로 지정받은 은행나무는 흉고둘레 5.5m에 높이가 17m나 되는 노거수다. 가까이 다가가다 보니 크고 웅장한 은행나무의 고고함에 절로 손이 모아지고 고개가 숙여졌다. 마을에는 언젠가 은행나무를 베려고 했더니 소 울음소리가 나서 일꾼들이 줄행랑을 쳤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전해 온다. 500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마을의 희로애락을 지켜봐 왔을 테니 그런 영험한 전설이 낫설지 않다. 오히려 상스러운 은행나무로 마을의 중심을 지키며 마을을 품어오지 않았을까 싶다. 며칠 뒤 도니울마을을 다시 찾았을 때, 나뭇잎을 다 떨어뜨리고 못 생명의 보금자리를 세 채나 이고 있는 은행나무의 자애로움에 다시 한 번 탄복했다. 생명이 생명을 살리는 귀한 쓰임에 대해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숙연해지는 시간이었다.

여러 전통과 풍습들이 점점 기록으로 전해지는 경우가 늘어나는 요즘이지만 도니울마을은 그 이름에 걸맞게 요즘도 해마다 소도문화의 맥을 잇는 ‘동신제’를 치러오고 있다. 동신제는 정월대보름이면 마을회관과 은행나무, 그리고 상수도 탱크까지 세 곳을 차례차례 다니며 지내는 마을제사로 마을 분들이 정성껏 준비한 고사떡과 돼지머리·대추·사과·밤·배 등이 풍성하게 차려진다고 한다. 동신제는 남아 있는 문헌이나 기록 등이 없어 일정한 양식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해마다 거른 적이 없고, 항상 마을의 최고 연장자가 주관해왔다는 점, 그리고 사물놀이 등의 풍악이 빠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도의 맥을 이어가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동신제의 흥을 돋우는 사물놀이를 연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사물놀이를 담당하시던 어르신들이 연로해지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꾸준한 소통과 든든한 지원을 통해 지속시킬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천은 지난 2010년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받았다. 이에 발맞춰서 이천시는 창의성과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한 농촌체험관광의 종류와 범위를



보호수로 지정된 수령 500년이 넘는 도니울마을의 은행나무(위)
지금도 동신제를 지내는 도니울마을 사람들(아래)



도니울마을의 장수 어르신들

확대시킬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여러 담당자들이 협력으로 조금 더 깊숙이 마을로 들어가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많은 것들이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이다. 자칫 느리고 평범한 것이 잘못된 것인 양 한 권으로 밀리기도 한다. 그러나 느낌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단련시켜 준다. 천천히 걷기가 그렇고 느린 호흡법 또한 그렇다. 도니울마을은 그럼 점에서 매우 안정된 건강한 마을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마을 어르신들은 대부분이 건강하게 장수를 누린다 한다. 그 비결 가운데 하나는 마을길을 걸으면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다.

직선보다는 곡선이 많고 구불구불한 길을 돌아서고 나면 또다시 여러 갈래로 나뉜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미로 같은 형태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이러한 길은 차를 타고 달리기가 어렵다. 이미 대로에서 멀찍이 떨어져 썽썽거리는 자동차 소리가 없으니 귀가 편하다. 자박자박 모래흙을 밟는 자신의 발소리에 오롯이 귀 기울이게 된다. 골목골목을 돌아설 때마다 생각이 꺾어진다. 쫓쫓하고 외골수였던 마음도 유연해진다. 이러한 길은 사실 어린 아이들에게 무척 좋을 것이다. 구부러진 길은 눈에는 짧아 보여도 펼치면 무척 긴 길이다. 미로처럼 엮인 길이 머릿속에 내비게이션처럼 저장돼 있어야 마을 이곳저곳도 쉽게 찾아다닐 수 있다. 이런 곳에서 나고 자랐다면 굳이 명산대천이 아니더라도 호연지기를 기르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은 적게는 60여 년, 많게는 100여 년 가까이 한결같은 자세로 마을을 지켜온 보답으로 도니울마을이 준 또 하나의 선물이 아닐까 싶다.

느리고 조용한 곳이라고 해서 도니울마을을 고인 물처럼 봐서는 안 된다. 2007년 농림부의 녹색체험마을로 지정돼 연중 내내 전국 각지에서 체험객들이 찾아오는 곳이기 때문이다. 외지인들의 마을 출입은 사실 마을 안팎을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바꿔놓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소통의 입장에서는 장점일 수도 있지만 보존해야 할 전통이나 문화재를 훼손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위험 부담이 크다. 그럼에도 마을의 발전을 위해 마을 주민 모두가 의연한 자세로 마을을 개방했다.

지혜로운 마을 어르신들과 열성적인 농촌체험마을 운영위원회 사무장의 끊임 없는 노력은 도니울마을을 지속가능한 농촌체험마을로 발전시키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다. 특히 옛 것을 지키며 다음 세대로 전하는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농촌체험학습의 장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봄의 모내기 체험을 시작으로 명품쌀마을답게 쌀비누 만들기를 통해 쌀의 효능과 친환경비누를 권장하고 있다. 도시에서 생활하느라 쉽게 접하기 어려운 천연염색과 가마솥 순두부 만들기, 감자 캐기와 고구마 수확 등은 남녀노소 모두가 선호하는 프로그램이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꼼꼼한 비율을 통해 탄생시킨 쌀전빵 만들기는 어린 체험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인기 만점의 프로그램이다. 천연재료로 색을 낸 오색 쌀반죽과 황금비율로 조리된 단팥은 모두 도니울에서 생산된 재료라는 사실 또한 엄지손



녹색농촌체험마을 도니울마을의 각종 체험 모습



가락을 치켜세우게 한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쌀로 만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쌀전빵 만들기는 전국 내로라하는 체험행사에 선보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프로그램이다. 쌀전빵 만들기는 최근에는 도니울 농촌체험마을에서 ‘도니울 쌀전빵’이란 이름으로 정식 상품화를 코앞에 두고 있다.

아담하고 소박하고 정이 넘치고 한가롭다는 정서적인 단어들이 도니울마을 곳곳에 피어 있다. 그야말로 이천의 숨은 보석 같은 마을이다. 이렇게 한 걸음씩 천천히 세상과 만나다보면 도니울 마을의 진가를 알아보고 더 반짝반짝 빛내고 오래오래 지켜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와 노력과 손길들이 이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정혜 | 이천문화원 시민기록자
사진 | 심상란, 한정혜

11. 이천에서는 조각에게 말을 걸 수 있다

도슨트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요. 도슨트란 박물관이나 미술관·조각공원 등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물 등을 설명하는 안내인을 말합니다. 이천에는 시민들이 언제나 만날 수 있는 많은 작품들과 시민 동아리 ‘조각의 숲’이 있습니다. 오늘도 온천공원을 지나 집으로 오는 길에 석양을 머금은 환 모나리자 작품에게 인사말을 건넵니다. “춥지 않아요?”, “늘 행복한 미소 고마워”라고요.

사실 이천을 지나는 길,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장소 곳곳엔 아름다운 조각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심히 스쳐 지나가게 된다. 이런 조각 작품들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 이천에는 2017년 제20회를 맞이하는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이 열렸다. 국내에서 가장 역사가 깊으며 가장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국내보다 국외에서 더 유명해서 많은 작가들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 심포지엄이다.

2017년도는 공모서류를 통과한 국내외 작가들이 8월 중 20여 일 동안 설봉공원 동문광장에서 석재·브론즈·나무·스테인리스 스틸 등으로 작품을 완성했다.

제20회 이천국제조각
심포지엄(2017)



불가리아 조각가 아그
네사 이바노바



작가들 간의 교류도 많으며 시민들은 직접 그 과정을 지켜볼 수도 있었다. 그런 작품들이 20회를 지나오는 동안 250여 개나 탄생되었다. 이렇게 탄생된 작품들을 조각 도슨트들은 2년여 동안 안내장 제작도 하고 작품마다 스토리를 입혀 청소년·시민·어르신들에게 소개하고 설명하는 활동을 벌였다. ‘나도 작가되어 보기’ 체험프로그램 시간도 가졌는데 이러한 도슨트들의 노력으로 참여했던 시민들의 반응은 뜨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참가자의 작품 제작 모습

거웠고 조각에 대한 많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시민들의 관심이 확대되면서 2017년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이 열리는 동안 찾아오는 시민들과 작품과의 소통을 위하고 앞으로 탄생될 작품의 시나리오 준비를 위해 도슨트 부스가 최초로 마련되었다. 작가들이 하루하루 열정을 다하는 현장을 사진과 기록으로 남기고 마음을 다한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소중한 기록의 시간이 될 것이다.

2017년 심포지엄 참여 작가 중 유일한 여성 작가인 불가리아에서 온 아그네사 이바노바는 2005년 남편과 함께 참여했던 추억이 있었다. 그 당시 작업했던 작품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모습을 보고 싶어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다. 백사면사무소 앞이었다. 남편 피터의 작품은 그곳에서 주민의 오가는 길을 지켜주고 있었다. 아쉽게도 일정상 직접 방문하지는 못했기에 사진을 찍어 액자를 만들어 전달했는데, 함박웃음으로 행복해하던 작가의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다. 고국으로 돌아가 남편과 좋은 추억으로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이 기억되기를 바래본다.

유네스코 창의도시이자 조형예술의 도시인 이천 시민들이 조각품에 관심을 갖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도슨트 프로그램이 간절하다. 이에 조각 작품을 감상하기 좋도록 접근성을 고려하고 스토리를 부여해 네 개의 코스를 만들어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코스]

이천온천공원 평생학습 북카페 앞 작품들 : 북카페를 찾는 어린이와 부모, 시민들과 감상하기

- ① 「숨-이마고」(손미경) : 삶속에서 느끼는 이미지와 상상력 표현
- ② 「신선도」(정재철) : 꽃 벤치에 바둑판과 장기판 새김, 참여시민 100여명의 자필 꽃 이름 새김
- ③ 「생명의 샘」(김병철) : 물을 만지고 손을 씻기도 하며 작품과 함께 즐길 수 있다.
- ④ 「봄」(한상진) : 관람자의 삶에 봄이 온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 ⑤ 「play-wind her」(김병규) : 가벼운 바람을 맞으며 감성적 생각에 잠겨있는 소녀의 이미지 표현
- ⑥ 「너와나」(이윤석) : 사랑을 상징하는 하트 모양을 마주 보는 두 사람의 얼굴로 표현



[두 번째 코스]

이천온천공원 정자 앞 작품들 : 온천 족욕장 설치로 족욕을 즐기며 작품 감상하기

- ① 「환 모나리자」(박승모) : 모나리자 이미지를 스테인리스 와이어 망으로 표현
- ② 「잃어버린 도시」(반익) : 뿔린 하늘을 바라보며 바쁘고 붉게 도시를 벗어나 잊혀진 꿈 보기
- ③ 「래프팅」(장성재) : 석기를 모티브로 자연의 위대함과 경이로움 상징
- ④ 「공존-기억의 형상」(전경선) : 앞으로 나아가는 긍정적 에너지 전달, 관객과의 공감과 소통
- ⑤ 「바오」(시먼 울타주스키) : 바오밥나무에서 영감 표현
- ⑥ 「생성」(심병건) : 시점의 변화가 안겨주는 다양한 상황을 통해 나와 세상을 비추주는 거울
- ⑦ 「철의말」(다사요시 가레타니) :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긍정적인 메시지 전달
- ⑧ 「lucky star」(치아칭린) : 유니콘이 달려나가다 밤하늘에 빛나는 행운의 별이 된다.
- ⑨ 「A walking dream」(김홍석) : 돌을 통해 인간의 감정이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함을 표현
- ⑩ 「Transition」(히스 새타우) : 어떤 순간으로부터 다음 단계로의 전환이라는 메시지 표현
- ⑪ 「하늘을 향한 멧과 그것을 보는이」(다니엘라 룬마홀리) : 하늘을 향하고 있는 여성의 형상 표현



[세 번째 코스]

이천설봉공원 장미공원 : 설봉공원 동물광장 아래 정원, 특히 장미꽃과 어우러진 작품 감상하기

- ① 「비너스」(황대열)
- ② 「하나는 돌이요 둘은 하나다」(로진스가)
- ③ 「기동형상을 통해」(강대철)

- ④ 「서두리지 마라」(톤 칼래)
- ⑤ 「남과 북을 위한 문」(준고가 베리쉬빌리)
- ⑥ 「유전암호」(론란드 마이어)



[네 번째 코스]

이천설봉공원 동문광장 미니갤러리 :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에서 탄생된 작품을 1년 동안 전시되는 장소로 해마다 다른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손미경의 「숨-이마고」



김병규의 「play wind her」

장성재의 「래프팅」



12. 시민이 직접 쓴 이천의 문화유산답사기

주민자치시대에 맞는 우리 지역 기록하기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지방자치의 시대라고 한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역의 역사와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기록 작업이 왕조나 권력자 중심의 실록 편찬으로 이루어졌다면, 현재는 지역주민이 삶의 주체로 나서서 시민의 관점에서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를 발굴하고 새롭게 기록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천문화원은 2017년 이천의 역사와 마을주민의 삶을 기록하는 ‘시민기록자’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들이 직접 이천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지역주민들을 인터뷰해서 이천을 살아가는 주민들의 일상적 삶의 모습을 다양한 방식으로 담아내고 기록하기 위해서다. 시민기록자란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주민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기록하며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사람이다.

이천의 시민기록자들은 2017년 6월부터 2개월 동안 ‘이천의 소소한 일상을 기록하다’라는 주제로 개설된 ‘이천 인문학’ 과정을 통해 지역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기록학적 관점을 배웠으며, 9월 초에는 시민기록자 워크숍을 통해 구술채록의 방법, 인터뷰방식, 구술사와 공동체에 대한 이해 등 기록 활동에 필요한 기본 소양교육을 받았다. 2017년 하반기부터 시민기록자들은 지역 현장에 들어가서 그동안 주민들이 살아온 생생한 삶의 경험과 만나는 두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천의 노거수’를 통해 마을의 이야기를 끌어낸다

첫 번째는 이천의 마을마다 있는 오래된 나무를 취재하는 ‘이천의 노거수’ 프로젝트였다. 이천문화원은 『설봉문화』를 2012년부터 지역의 문화를 주제별로 집중 조명하는 아카이브 형식의 문화지로 변경해 발간하고 있는데, 2017년에는 시민기록자들이 『설봉문화』의 테마를 ‘이천의 노거수’로 정하고 집필하기로 했다. 노거수는 마을에서 주민들의 삶의 애환을 지켜보며 오랜 세월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이를 통해 마을의 역사와 숨겨진 주민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려고 한 것이다.

노거수는 역사적으로 마을단위 제의의 중심이 되는 장소요, 주민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음식을 나누며 더위를 피하는 열린 공간이기도 하다. 시민기록자들은 노거수 취재를 계기로 마을주민들을 인터뷰하면서 이들과 한층 인간적으로 가까워졌다. 그리고 2018년 2월 ‘이천의 노거수’를 주제로 만든 『설봉문화』가 발간되면서 시민기록자들은 지역을 새롭게 알아가는 발견의 기쁨을 느끼고 이천에 대한 자긍심도 갖게 되었다. 이어서 3월에는 그동안 이천의 노거수를 기록하면서 촬영했던 사진 가운데 수십 점의 작품을 선정해 이천시청 로비에 전시하고 지역주민을 초대하는 뜻깊은 행사도 가졌다.

시민이 직접 발로 뛰며 쓴 우리 고장 답사기

두 번째는 이천의 가볼만한 장소를 답사하고 글을 쓰는 ‘이천 문화유산답사기’ 프로젝트다. 이천시는 2017년부터 『이천시지』 대중서 편찬사업을 시작했는데, 시지를 집필하는데 있어서 시민기록자들이 한 장章, chapter을 맡아 공동집필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그동안 여러 도시에서 만들어진 지방지 편찬사업은 대부분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집필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문체도 학술적이고 딱딱한 용어로 기술되어 있어서 이천 시민에게 널리 읽히는데 한계가 있었다. 지역주민이 연구의 대상이긴 해서는 곤란하다. 지방지가 대중적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내용을 공유하고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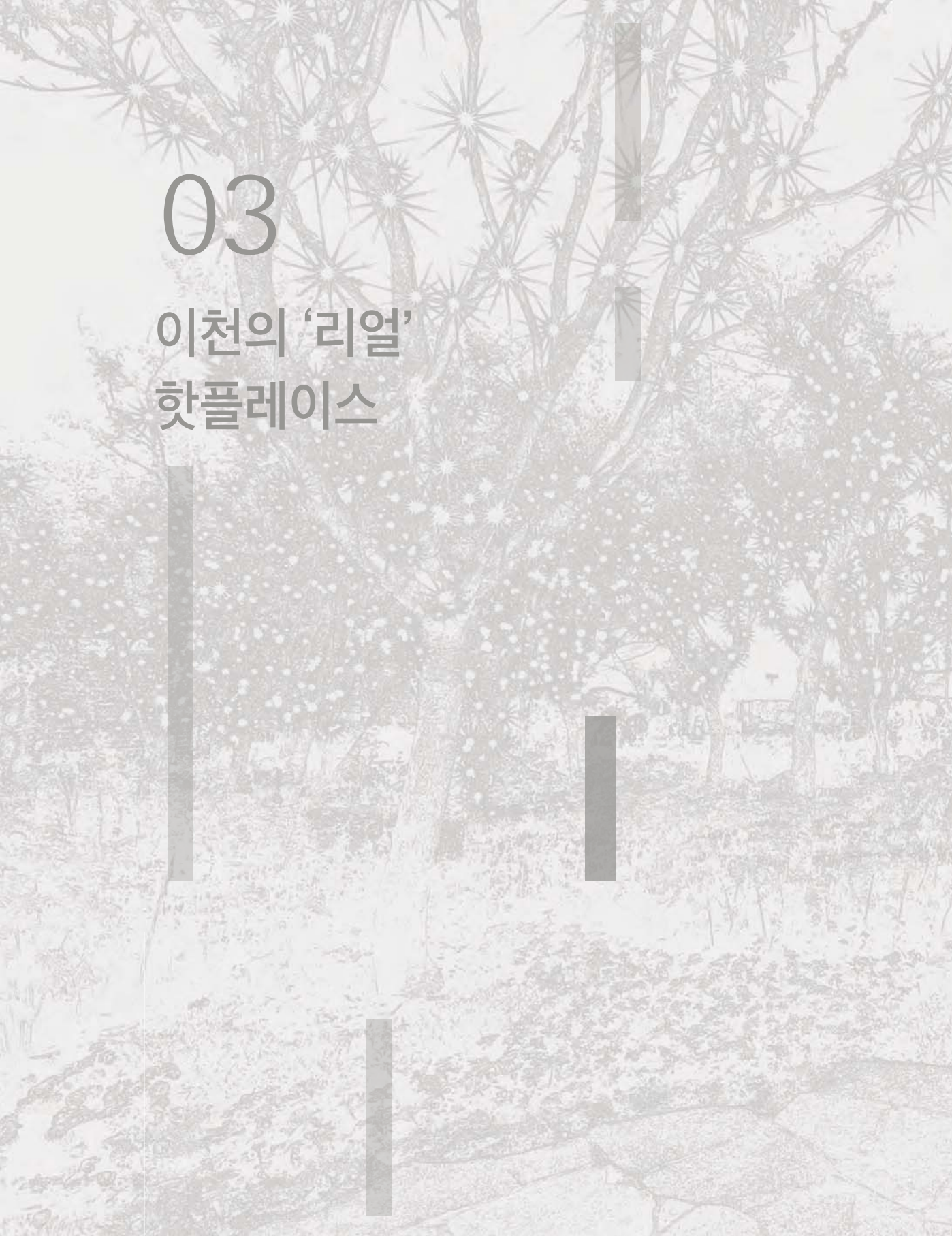
이천의 문화유산답사기 집필에 참여한 시민기록자는 자영업자·문인·교육자·화가·시인·전업주부·공직자 등 다양한 인생경험을 가진 10여 명의 이천 시민이다. 시민기록자의 답사기는 일상적이고 쉬운 말로 씌어졌다는 점에서 우선 읽기가 편하다. 그리고 답사지역을 여러 번 걸어보고 인근 지역 주민들을 만나 직접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썼기 때문에 생동감이 있다. 물론 군데군데 표현이 다소 거칠기도 하고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이들의 글에는 지역에 대한 진한 애정이 묻어난다. 외부 전문가가 결코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지방지 편찬의 집필 작업에 참여하는 사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고장의 역사는 우리 지역민의 힘으로!

2018년부터는 시민기록자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한다. 바로 이천의 ‘마을기록사업’이다. 마을기록사업은 마을의 역사와 주민의 생활상을 조사·기록하여 마을 문화의 정체성을 밝히고, 문화자원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지역주민의 일상적 삶의 내용을 보다 생생하게 담아내기 위해서는 『이천시지』 대중서 편찬사업이 단지 발간에 그치지 않고 주민 중심의 마을지 만들기 사업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지역민의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역사 해석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앞으로 지역에서는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를 수집하고 기록하려는 욕구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구술채록 전문 인력의 필요성도 늘어날 것이다. 이는 과거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중앙권력 중심, 관찬 중심의 역사 이해에서 벗어나 평범한 개인들의 삶의 내용을 지역의 역사로 만드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마을지 만들기는 외부인이 아니라 지역민이 주체적으로 만들고 훈련할 수 있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마을지 만들기는 지역민의 의식을 깨우고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물론 주민들의 힘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지역의 학교나 향토사연구자, 시민기록자가 채워주어야 한다. 시민기록자는 지역에 오랫동안 살아온 이천 사람으로서 주민들의 애환에 더 많이 공감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천문화원은 앞으로 시민기록자들이 주민들의 일상적 삶의 모습을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하고 되살리는 활동을 통해 ‘아키비스트’ *archivist*로서의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이동준 | 이천문화원 사무국장



03

이천의 '리얼'
핫플레이스



이선민 | 이천문화원 문화사업팀장

제3장 이천의 ‘리얼’ 핫플레이스

글을 시작하기 전에

처음엔 자신 있었다. 이천의 구석구석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기 때문이다. 가끔 타지에서 친구들이 놀러오면 이천의 ‘문화관광해설사’를 자처하며 요즘 가장 ‘핫’한 장소를 알려주는 일이 일상이었다. 젊은 세대가 좋아할 만한 ‘핫플레이스’를 소개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도 일단 재미있겠다는 생각부터 들었다.

그런데 막상 원고를 시작하려니 참 난감했다. 다루고 싶은 장소 중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천시지』에 특정 장소를 선정하는 기준은 당연히 형평성과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형평성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책에서 다룰 수 있는 장소는 뻔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장소를 최근 주목받는 ‘핫플레이스’라 하기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머물고 싶은 카페,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이천으로 놀러온 친구에게 자랑하고 싶은 맛집까지, 조금만 찾아보면 이천에도 흥미로운 장소가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이천의 ‘진짜’ 핫플레이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지 고민을 했고 나름의 결론을 내렸다.

우선 이 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정했다. 만약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최근에 주목받는 장소일지라도 목록에서 제외했다. 『이천시지』라는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다. 다만 기준에 충족하면 영리적인 목적의 장소라도 핫플레이스로 선정했다. 또한 지면의 한계로 모든 장소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네터즌이 높은 관심을 보인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LOTTE PREMIUM OUTLETS

첫째, 최근 5년 이내에 이천에 만들어진 장소(2013년 이후)

둘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넓은 규모와 많은 이용객

셋째, 이 책의 다른 항목에서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장소

넷째, 인터넷 검색이 많고, 네티즌이 자주 언급한 장소¹⁾

이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천의 명소를 더 몰랐을지도 모를 누군가를 위해, 그동안 알려주기 참 어려웠던 이천의 리얼 핫플레이스를 지금부터 소개한다.



1) 2017년 연간 검색어 수를 기준으로 인터넷포털은 구글트렌드와 네이버랩을 참고하였고, 소셜미디어에 노출된 빈도추이와 연관어 맵은 빅데이터 분석사이트인 소셜메트릭스를 이용함.

온 가족 주말나들이,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이천점

참 넓다.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도 정말 넓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업 면적과

가장 많은 브랜드가 입점한

아울렛쇼핑몰은

얼핏 해외토픽에서나 다룰 법한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은 이천시 호법면에 자리한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이천점(이하 이천점)의 이야기다.

개장 당시 5만 3,000㎡의 규모로

종전까지 일본 고텐바 프리미엄아울렛이

가지고 있던 아시아 최대 규모

쇼핑몰 타이틀을 차지하였다.

1년 뒤 동부산점(2014)이 오픈하면서

잠시 2위로 밀렸던 적도 있지만

2017년 4월에 대규모 증축공사를

완료하며 3년 만에

다시 1위 자리를 되찾았다.



1. 온 가족 주말나들이,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이천점

참 넓다.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도 정말 넓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업 면적과 가장 많은 브랜드가 입점한 아울렛쇼핑몰은 얼핏 해외토픽에서나 다룰 법한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은 이천시 호법면에 자리한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이천점^{이하 이천점}의 이야기다. 개장 당시 5만 3,000㎡의 규모로 종전까지 일본 고텐바 프리미엄아울렛이 가지고 있던 아시아 최대 규모 쇼핑몰타이틀을 차지하였다. 1년 뒤 동부산점²⁰¹⁴이 오픈하면서 잠시 2위로 밀렸던 적도 있지만 2017년 4월에 대규모 증축공사를 완료하며 3년 만에 다시 1위 자리를 되찾았다.

물론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다. 크기에만 집착하다가 실패한 해외 사례도 있듯이 다른 쇼핑몰과 구분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가 아울렛 쇼핑몰의 핵심이다. 다행히 이천점은 해외 유명 패션브랜드를 비롯한 약 350개의 국내의 브랜드가 이천도자기를 상징하는 청자동과 백자동을 중심으로 준비하게 들어섰다. 이 정도면 쇼핑몰 본연의 목적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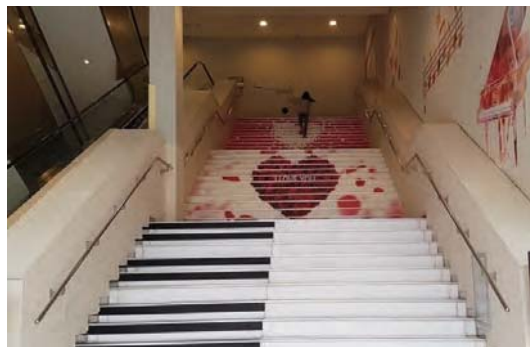
평일 오전, 아직 손님이 많지 않을 시간이다. 한가로이 청자동과 백자동을 돌아본다. 매장 곳곳에 도자기의 아름다운 곡선을 응용하여 디자인한 공간이 눈에 띈다. 이천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름의 방식으로 고민한 흔적이다. 쌀과 도자기는 이천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아이템이다. 이천점은 도자기를 적극적으로 건축디자인에 차용함으로서 ‘도자기’라는 이천의 정체성을 활용하여 다른 아울렛과 다른 이천점만의 개성을 확보하였다. 영리한 선택이다. 이천점의 효율적이고 독특한 건축디자인은 제19회 경기도건축문화상을 수상하며 우수함을 인정받았다. 마치 ‘이천도자기’ 안에 담긴 나만의 보물을 찾아다니는 기분이다.

도드람교차로를 지나 영동고속도로에 닿기 직전, 좌회전하면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이천점에 진입한다. 방문객은 우선 청자동과 백자동 중에 어디에 주차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워낙 넓기 때문이다. 방문객을 배려해서 청자동과 백자동의 품목을 분류했다. 청자동은 주로 스포츠·아웃도어·골프·패션잡화 업체가 상주하고, 백자동 1층은 해외패션·구두·핸드백, 2층은 여성·남성패션·란제리, 3층은 가정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이천점의 다양한 시설

LOTTE
PREMIUM OUTLETS



용품과 아동유아, 그리고 다양한 식당가로 이루어졌다. 청자동 2층과 백자동 2층을 브릿지로 연결하여 쉽게 오고 갈 수 있게 하였다. 이천점은 쇼핑과 식사, 여러 체험 시설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이른바 쇼퍼테인먼트(shopper-tainment)를 지향한다. 쇼핑과 함께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경향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시선을 뺏긴 고객을 되찾기 위한 오프라인 매장의 최신 판매 전략이기도 하다.

이천도자기관과 향토특산물관은 지역과 상생하려는 이천점의 의지가 돋보이는 장소이다. 향토특산물관은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 지역 농민이 직접 운영한다. 이천의 농부가 직접 재배한 농산물과 이천에서 기른 한우, 돼지 등의 축산물, 각종 지역 특산물이 매장에 가득하다. 게다가 이천의 농축산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하여, 소비자에게는 건강하고 맛있는 우리 지역의 상품을, 농민에게는 상품판로와 수익을 안겨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백자동 3층에 오르면 이천도자기 상설 매장인 이천도자기관이 보인다. 각기 다른 개성을 뽐내는 다양한 도예작품이 호기심을 자아낸다. 우리 도자의 아름다움을 계승한 전통도자기부터 예술적인 감각과 실용성을 함께 갖춘 생활도자기까지 이천도예가의 손으로 빚은 도자기를 전시하고 판매한다. 여러 제품을 접할 수 있고, 도자기 관련 행사도 꾸준히 이어져 도자기에 관심이 많은 방문객으로부터 인기가 많다.

연간 이천점을 방문하는 손님은 평균 250만여 명이다. 그런데 의외로 이천 시민의 비중은 약 15%내외에 불과하다고 한다. 나머지 75%의 방문객은 주로 서울과 경기, 충청북도 등 인근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란 소리다. 따라서 향토특산물관과 이천도자기관은 이천시의 특산품을 타지역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중요한 홍보역할도 겸한다고 할 수 있다. 대형 아울렛쇼핑몰이 지역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천점이 2016년에 방문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가 가장 바라는 상품군은 아동·유아^{24.5%}분야이고, 비슷한 성격의 완구류^{17.5%}도 상당히 높은 수치로 집계되었다. 2017년 4월에 문을 연 패션&키즈존은 이러한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이천점의 야심찬 도전이다. 면적이 1만 4,200㎡에 달하는 패션&키즈존은 각종 아동·유아 상품점을 중심으로 리틀소시옴빌리지, 닥터밸런스와 같은 체험형 테마파크와 토이저러스, 브릭카페 등의 완구 매장이 들어섰다. 아동매장

향토특산물관과 이천도자기관



만으로 3개 층을 구성한 쇼핑몰은 전국에서도 이천이 유일하다. 장난감을 좋아하는 아이는 물론, 어렸을 적의 분위기와 감성을 간직하고 피규어, RC카, 레고 등을 수집하는 소위 키덜트(Kid+Adult)족에게도 천국이나 다름없다. 또 하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소로는 리틀소시옴빌리지(리소빌)가 있다. 경찰서, 은행, 쥐라기연구소, 동물병원, 소방서, 네일샵, 요리학교, 건설현장 등 어린이를 위한 양중맞은 공간에서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리소빌마을은 우리가 지킨다!” 소방관 복장을 입은 아이들의 힘찬 구호가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한다.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넓은 매장을 가득 채운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이천점은 단순한 쇼핑공간이 아닌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천의 핫플레이스로 손색이 없다.

아동과 유아를 위한 다양한 시설



리틀소시옴빌리지(리소빌)



커피향이 가득한 문화공간,
이진상회



오전 10시, 손님맞이로 한창 바쁜 시간이다. 카페에 들어서자 갓 구운 빵 향기가 코끝을 자극한다. 통밀빵과 치아바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먹음직스러운 빵과 향긋한 커피가 나온다. 얇은빵이통밀과 우리밀로 만든 건강한 빵이다.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다.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좋은 사람들과 함께 즐긴다. 온전한 휴식을 선사하는 문화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창업자 이수진 회장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다.



2. 커피향이 가득한 문화공간, 이진상회

오전 10시, 손님맞이로 한창 바쁜 시간이다. 카페에 들어서자 갓 구운 빵 향기가 코끝을 자극한다. 통밀빵과 치아바타, 따듯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먹음직스러운 빵과 향긋한 커피가 나온다. 얇은빵이통밀과 우리밀로 만든 건강한 빵이다.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다.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좋은 사람들과 함께 즐긴다. 온전한 휴식을 선사하는 문화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창업자 이수진 회장의 따듯한 마음이 느껴진다.

커피를 마시며 주위를 둘러본다. 건물디자인이 독특하다. 오래된 철제장식과 콘크리트 외벽을 그대로 살린 내부공간이 따듯한 감성을 자극한다. 여기저기 무심한 듯 놓인 디자인소품도 비슷한 톤을 유지하며 조화롭게 놓여 있다. 굉장히 감각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1990년대 유럽 건축방식으로 지은 카페 건물은 본래 창업자의 가족이 거주하는 일반주택이었다. 오래된 건물에 무리가 없도록 조심스럽게 시설을 철거하고, 이수진 회장이 직접 공간을 디자인하여 카페와 베이커리를 겸한 지금의 건물이 탄생했다. 이진상회만의 독특한 분위기 덕분인지 각종 블로그와 소셜미디어에서 이천의 ‘핫’ 한 장소로 널리 알려졌다.

별이 따듯한 날은 야외테라스도 좋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내려 보니 더이진,

갓 구운 빵과 커피를 준비 중인 이진상회 직원들



공사 중인 이진상회



2017년 현재의 이진상회 외관

인도하우스, 나포리가든 등의 건물이 보인다. 약 1만 7,000㎡에 해당하는 넓은 부지를 작은 공원과 산책로, 카페와 베이커리, 도자기·가구 판매를 겸한 전시공간과 다채로운 식당으로 가득 채웠다. 창업자의 설명처럼, 고급스러운 음식과 세련된 건축디자인, 자연환경을 살린 조경이 어우러진 일종의 복합문화공간이다.

카페 맞은편의 ‘더이진’은 도자기, 인테리어 소품, 엔틱 가구 등을 전시하는 쇼룸이다. 1층은 이천에서 생산한 도자기와 각종 인테리어 소품이, 2층은 해외에서 직접 수입한 엔틱가구가 있다. 누구나 방문할 수 있고, 구입도 가능하다. 사실 ‘더이진’이야말로 오늘의 이진상회를 만든 핵심이다. 2017년 5월에 문을 연 현 이진상회의 뿌리는 1960년에 이수진 회장의 아버지인 고 이기선 씨가 창업한 옛 이진상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수진 회장을 포함한 여덟 명의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이진’이라는 이름을 물려받아 각각 이진인쇄소, 이진농약, 이진철물, 이진목장 등 다양한 사업을 시작하였다. 지금의 이진상회를 운영하는 이수진 회장도 1991년에 이진도예를 설립하여 도자기 관련 사업으로 자수성가한



이진상회 야외 풍경

케이스다. 이때부터 도자기뿐만 아니라 가구, 인테리어소품, 정원용품 등을 직접 만들고 수입하며 디자인에 대한 감각을 키웠다. 그래서인지 카페를 중심으로 넓은 공간을 가득 채운 조경석과 소품이 예사롭지 않다. 창업자가 지금의 이진상회를 꿈꾸며 오래 전부터 수집한 물건이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이천의 도예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도예인과 관련 기관, 이천시 차원에서 지금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도자기관매가 예전 같지 않다는, 그래서 새로운 판매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

이진상회와 더이진이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얻은 이유는 이곳의 감성적인 인테리어가 만드는 독특한 분위기 덕분이다. 이곳에서 도자기와 소비자를 가깝게 이어줄 수 있는 작은 힌트를 발견할 수 있다. 이진상회와 더이진 쇼룸은 도자기 판매를 위해 도자기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소품을 함께 활용한다. 단순히 도자기만 진열한 것이 아니라 원목탁상, 화분, 받침대, 조명 등 도자기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소품을 이용하여 어떤 식으로 도자기를 활용할 수 있는지 소비자에게 직접 보여준다. 세월이 묻어나는 원목테이블, 둔탁한 도자기접시에 놓인 갓 구운 빵,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가 담긴 머그잔. 맛있는 커피를 마시면 커피잔에도 눈길이 가기 마련이다. 이진상회의 분위기는 도자기에 낫선 초심자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감성적인 공간에서 예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곳. 이진상회의 도자기는 그래서 특별하다.



카페 맞은편 '더이진'
1층 도자기 및 인테리어 소품점과 2층 엔틱 가구 쇼룸



이천에서 우주를 만나다.
별빛정원 우주

밤하늘 별빛을 오래도록 바라본다. 시인 윤동주가 고향을 그리며 헤아리던 별도 있을 것이고, 폐결핵으로 먼저 보낸 아들을 떠올리며 정지용 시인이 바라본 별도 보이는 듯하다. 그 옛날 어느 이름 모를 길손에게는 먹먹한 밤하늘의 유일한 이정표가 되어 주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득히 멀고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다. 그런데 밤하늘 별빛이 지상에 내려앉은 곳이 있다면? 그것도 고속도로휴게소 뒤편에 말이다. 이미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는 별빛정원 우주에 대한 이야기다.



덕평휴게소의 이모저모



1.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팔린 덕평 소고기 국밥
2. 애견과 함께 놀 수 있는 애견놀이터
3. 자연 정원
4. 휴게소 내 쇼핑물



3. 이천에서 우주를 만나다. 별빛정원 우주

밤하늘 별빛을 오래도록 바라본다. 시인 윤동주가 고향을 그리며 헤아리던 별도 있을 것이고, 폐결핵으로 먼저 보낸 아들을 떠올리며 정지용 시인이 바라본 별도 보이는 듯하다. 그 옛날 어느 이름 모를 길손에게는 먹먹한 밤하늘의 유일한 이정표가 되어 주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득히 멀고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다. 그런데 밤하늘 별빛이 지상에 내려앉은 곳이 있다면? 그것도 고속도로 휴게소 뒤편에 말이다. 이미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는 별빛정원 우주에 대한 이야기다.

정식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영동고속도로에 접한 덕평 자연휴게소도 이천의 핫플레이스로 꼽기에 충분한 공간이다. 벌써 몇 년째 전국의 고속도로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음식 1위를 차지한 소고기국밥도 유명하거나와 곳곳에 설치한 감쪽한 포토존과 이색적인 조형물, 분수연못이 아름다운 중앙정원도 어지간한 공원 못지않게 잘 조성했다. 게다가 애견 체험학습장과 친환경 애견놀이터를 갖춘 애견카페, 국내 최초로 고속도로휴게소에 오픈한 대규모 패션 쇼





핑몰까지, 솔직히 말하면 단순히 ‘휴게소’라고 부르기에 미안할 정도이다. 2017년에 556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국 127개 휴게소 중에 매출 1위를 달성할 정도니, 우리 이천에 이처럼 멋진 휴게소가 있다는 것도 참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휴게소 뒤편에 무려 4만 6,000㎡에 달하는 넓은 부지가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휴게소 건설계획에 포함했던 잔여 부지와 영동 고속도로 폐도로이다. 상당히 넓은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지 그간 여러 아이디어가 있었다. 휴게소 측은 고심 끝에 낮 시간대에 손님이 몰리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특성을 감안하여, 야간에도 휴게소를 방문하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2017년 10월 26일, 휴게소 뒤편 너른 땅에 지상에 핀 별꽃처럼, 화려한 조명이 가득한 ‘별빛정원 우주’가 문을 열었다.

별빛정원 우주의 개장 시각은 늦다. 오후 5시에 문을 열어 11시까지 운영한다.² 이유가 있다. 어둠이 내려야 비로소 별빛정원 우주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

2) 시즌에 따라 운영시간이 바뀐다.



다. 땅거미가 내려앉은 어스름한 저녁, 하나둘 조명을 밝힌다. 어느새 휴게소 뒤편의 너른 공간이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하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우주를 걷는다. 바람이 불면 살아있는 꽃잎처럼 하늘거리는 플라워가든, 음악에 따라 빛이 파도치는 별의 바다, 보라색 별빛이 쏟아져 내리는 바이올렛판타지, 달빛처럼 은은한 조명아래 함께 걷기 좋은 달빛산책로, 국내에서 가장 긴 101m의 터널갤럭시101은 마치 은하수를 걷는 기분이다. 4개의 테마를 기준으로 조성한 14개의 특별한 공간이 방문객의 감탄을 자아낸다. 돌이켜보니 별빛정원 우주, 참 잘 지은 이름이다.

별빛정원 우주는 고속도로휴게소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바꿀 가능성을 제시한다. 실제로 별빛정원 우주가 오픈하자 일부러 덕평자연휴게소를 찾아오는 손님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조금 거창한 듯 보이지만 말 그대로 단지 ‘쉬어가’는’ 공간에 불과했던 휴게소가 별빛정원 우주로 인해 일부러 ‘찾아가는’ 공간으로 바뀐 것이다. 별빛정원 우주를 운영하는 네이처브리지의 윤지성 팀장은

국내 관광명소와 연계한 패키지 여행상품을 구성하고, 여행사를 통하여 국내외 방문객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또한 고객 만족을 위해 대중교통 노선을 확장하고, 지금보다 더 많은 볼거리, 즐길 거리를 위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한다. 이미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자신감이다.

완전 멋있었다는 말밖…… 신비롭고 아기자기하고 소품 하나하나 어디 하나 안 예쁜 곳이 없었어요. 예술작품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간 듯 신나게 놀고 왔어요. 가족과 혹은 연인과 꼬옥 가보세요. 추천입니다!(ID: sunn****)

정말 좋았어요. 몇 몇 비슷한 곳들과 견주어도 손색없고 무난한 것들도 아닌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간 작품들이 많았어요. 체험공간이 있어서 좋았고 밖이 보이는 따뜻한 카페도 좋았습니다.(ID: wlsW****)

옥스퍼드 대학은 지난 2013년 올해의 단어로 ‘Selfie’를 선정했다. 셀피Selfie는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얼굴을 촬영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셀피족Selfie族이라는 단어도 등장했다. 그만큼 자신의 일상을 사진으로 남기는 ‘셀카’가 새로운 유행으로 자리를 잡았다. 오픈한 지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별빛정원 우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른바 ‘인생 샷’을 남기기 좋은 ‘셀카명소’로 입소문을 타면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물론 이전에도 야간에 운영하는 불빛 테마정원이 다른 지역에 몇 군데 있었지만, 대부분 밤이 긴 겨울철에 한정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별빛정원 우주는 일 년 내내 방문할 수 있다. 셀피족에게 어필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이다. 별도의 입장료가 있지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지상 35m 상공에서 주변 전망을 구경할 수 있는 우주타워는 보너스 같은 느낌이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설치한 전망타워라고 한다. 우주타워를 타고 밤하늘 높이 올라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별빛을 바라보는 경험도 추천할 만하다. 이래저래 참 매력적인 장소이다. 초저녁 하늘에 뜬 샛별처럼, 별빛정원 우주가 이제 막 떠오르는 이천의 색다른 명소가 되길 기대해 본다.



어둠에서 빛으로,
에덴파라다이스 메모리얼리조트



효자 전설로 유명한 도드람산 기슭에 고급스러운 리조트시설이 들어섰다.

약 3만 3,000㎡에 달하는 너른 공간을 유럽풍 건축양식을 차용한 건물과 다채로운 정원으로 가득 채웠다.

마치 유럽의 작은 마을을 옮겨놓은 듯하다.

전문 셰프가 정성껏 만든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이탈리아 레스토랑, 차분한 공간에서 독서와 사색을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카페,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예쁜 티하우스, 73개의 객실을 지닌 고급 호텔 등

리조트시설 곳곳에 세련된 감각이 물씬 묻어난다.

4. 어둠에서 빛으로, 에덴파라다이스 메모리얼리조트

효자 전설로 유명한 도드람산 기슭에 고급스러운 리조트시설이 들어섰다. 약 3만 3,000㎡에 달하는 너른 공간을 유럽풍 건축양식을 차용한 건물과 다채로운 정원으로 가득 채웠다. 마치 유럽의 작은 마을을 옮겨놓은 듯하다. 전문 셰프가 정성껏 만든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이탈리아 레스토랑, 차분한 공간에서 독서와 사색을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카페, 따듯한 햇살이 비치는 예쁜 티하우스, 73개의 객실을 지닌 고급 호텔 등 리조트시설 곳곳에 세련된 감각이 물씬 묻어난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 대표 건축가로 꼽히는 최시영 건축디자이너³⁾가 직접 설계하고 건축에 관여했기 때문이다. 최시영 건축디자이너는 ‘영혼을 정화하고 세상의 혼탁함을 걸러주는 태초의 색, 그린’을 리조트 설계의 중심으로 삼았다. 사색의 정원, 호수정원, 블루베리 가든, 기도자의 정원 등 다채로운 정원을 거닐다보면 새삼 그의 의도가 느껴진다. 그러나 정작 에덴파라다이스 메모리얼리조트^{이하 에덴리조트}와 다른 리조트시설을 확연하게 구분짓는 경계는 화려한 외관이 아니다. 우리가 이곳을 주목해야 할 이유는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이 녹아 있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공간이기 때문이다.

인터뷰를 위해 약속 장소인 티하우스에 들어섰다. 여기저기 싱그러운 허브가 지천이다. 사방이 유리벽이고, 천장에도 큼직한 채광창이 있어 마치 온실처럼 느껴진다. 어느 자리에 앉아도 차분한 햇살이 기분 좋게 내리쬐는다. 메뉴판을 본다. 세상에, 커피가 없다. 생각해보니 여긴 카페가 아닌 ‘티하우스’이다. 지극히 당연해 보이지만, 커피와 차를 구분해서 판매하는 장소는 의외로 드물다. 커피 대신 티소믈리에^{Tea Sommelier}가 직접 고른 홍차가 메뉴판에 가득하다.

낮선 메뉴에 잠시 고민을 하니 어느새 티소믈리에가 다가와 내게 어울리는 홍차를 추천한다. 마르코폴로. 커피에 익숙한 나를 홍차의 신세계로 안내하리라는 실없

3) 1956년생. 홍익대 건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수료. 1988년 이후 줄곧 우리나라 주거문화의 혁신을 이끌었다. 월간 「행복이 가득한 집」에서 진행한 무료 집 개조 프로젝트가 MBC 「선택! 토요일이 좋다」 방송 출연으로 이어지며 당시 건축디자이너로서는 드물게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타워팰리스(1999), 스위트빌(2000), 미켈란(2003), SK VIEW(2004), 하우스토리(2005) 등이 있다.

티하우스 에덴



는 생각이 든다. 기다리는 동안 카페 내부를 구경한다. 널찍한 테이블과 의자가 모두 제각각이다. 하지만 조화롭다. 전혀 어색하지 않게, 티하우스 분위기와 어우러진다. 공간에 대한 이해와 세심한 미적 감각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 보시면 의자와 테이블이 모두 다르죠? 이곳을 설계한 최시영 건축디자이너가 소품 하나 하나, 일일이 직접 고르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체 공간을 손수 디자인하신 거죠.” 설명을 하는 이종배 대표의 말투에 자부심이 묻어난다.



에텐리조트의 전체적인 설계와 건축디자인은 최시영 건축디자이너가 많은 부분을 담당했다. 몇 년 전, MBC TV에서 방영한 「선택! 토요일이 좋다」에 출연하여 시청자의 갑갑한 집을 마술처럼 바꾸는 건축 인테리어로 유명세를 탄 건축가이다. 기본적으로 그는 ‘행동을 유발하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햇볕이 잘 드는 티하우스가 그렇다. 스콘과 홍차를 마시며 오후 햇살을 즐기는, 영국의 전통적인 식문화인 ‘애프터눈 티afternoon tea’를 연상케 한다. 카페와 티하우스를 명확하게 구분한 이유도 오직 홍차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세계 최초의 ‘메모리얼리조트’인 에텐리조트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리조트resort의 사전적인 의미는 ‘재미있게 놀거나 편안히 쉴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이다. 형태도 다양하다. 대부분 호텔과 결합한 휴양시설을 많이 내세운다. 이를테면 호텔&테마파크, 호텔&온천, 호텔 & 골프…… 이런 식이다. 물론 에텐리조트도 고급 호텔, 레스토랑, 도서관, 컨벤션센터, 강의실, 정원 등 격조 높은 휴양시설을 갖췄다. 하지만 이곳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다. 리조트와 연결 지어 생각하기 어려웠던 교회와 봉안당이다. 놀랍게도 에텐리조트는 다양한 휴양시설과 함께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공간이 공존한다. ‘행동을 유발하는 디자인’을 실천하는, 그래서 고집스럽게 카페와 티하우스를 구분지은 건축디자이너가 리조트시설과 봉안당을 결합했다. 다분히 의도적이다.



서양에서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과 묘지가 멀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교회 아래 묘지가 있다던가 하는 식이지요. 가까운 일본도 마을 안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오며 가며 자연스럽게 고인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 경험하였지만 우리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서둘러 아이들을 먼저 내보냅니다. 죽음을 터부시한 것이지요, 생활의 한 부분에 불과한, 삶의 순환 과정인데도 말입니다.

— 이종배 대표

※ 일부 첨부사진은 이천시공식블로그 「이천 가지 행복에 빠지다」에서 활동하는 이천시 SNS서포터즈 여러분이 촬영하신 사진을 사용하였습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천시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2000happy>).

사람들의 편견을 깨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에텐리조트는 ‘삶과 죽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공간’ 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당당하게 우리 사회에 제시한다. 용감한 도전이다. 그동안 우리는 죽음에 대해 말하거나 접촉하기를 두려워했다. 죽음은 삶의 종착지이자, 슬픈 일이며, 터부시해야 하는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아기의 첫 돌을 축하하는 돌잔치와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는 결혼식, 떠나간 이를 보내는 추도식이 한 공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메모리얼리조트’의 시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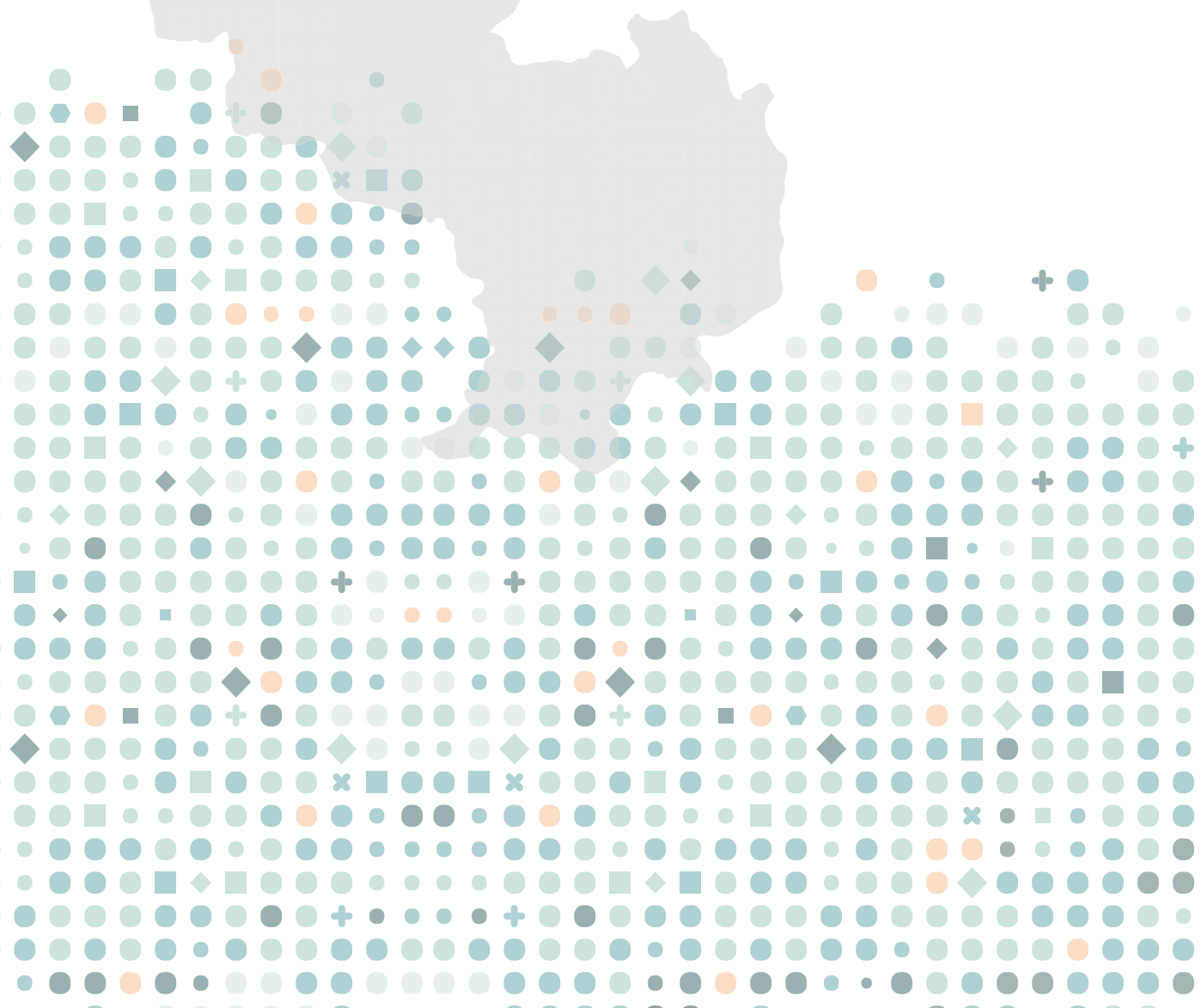
더욱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의 인식변화이다. 메모리얼리조트는 다시 말하면 봉안당이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 어둡게 느껴지는 단어인지라 막연한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을 법도 하다. 하지만 막상 이곳을 방문한 블로그나 소셜미디어의 리뷰 내용은 대부분 긍정적이다. 연관검색어도 이천맛집, 이천나들이, 이천파스타, 이천피자, 이천카페, 데이트코스 등 음식과 카페 관련 키워드가 주류를 이룬다.

여기 벤치에 좀 앉아보세요.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며 추억 쌓으면 좋잖아요. 돌아가신 뒤 급하게 모시고, 기일에서나 찾아가서 ‘죄송해요. 자주 못 와서…….’하는 게 우리 장묘문화예요. 에덴 이후 바뀔 겁니다. 두고 보세요.
- 최시영 『중앙일보』 인터뷰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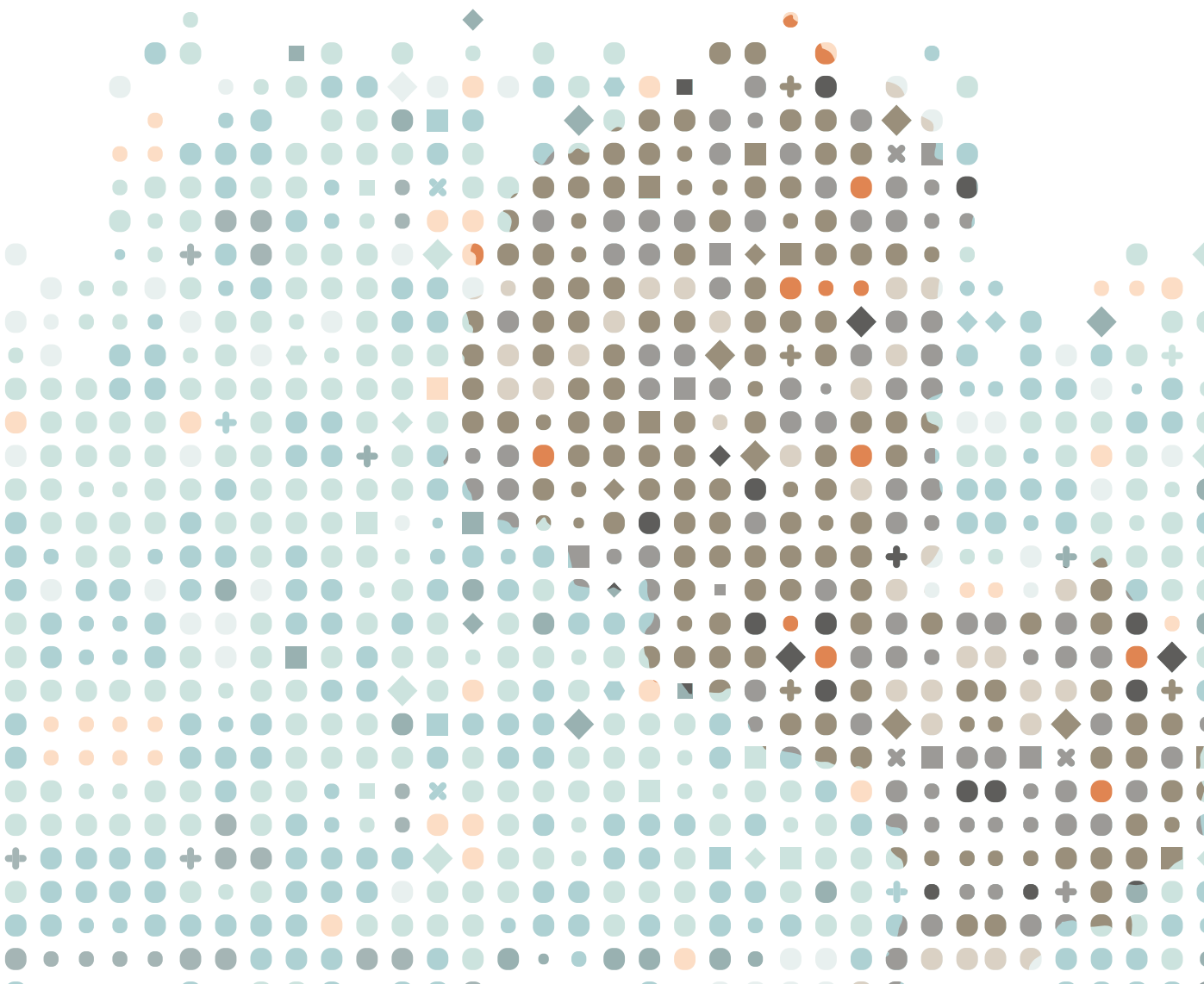
정갈하게 심은 측백나무가 파란 하늘과 맞닿은 곳, 잔잔한 물결이 일렁이는 연못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다. 떠나는 이에 대한 예의와 남겨진 자의 위안이 교차하는 마지막 절차. 엄숙하지만 편안한 표정이다. 이상하게 서글픈 울음이 없다. 봉안식을 마친 유가족은 녹음이 우거진 아름다운 정원으로 나온다. 슬프지만 한편으론 잘 모셨다는 안도감이 든다. 삶은 계속 이어진다. 철없는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놀고 벤치에 앉은 연인은 미래를 약속한다. 술한 고정관념과 싸워야 했던 에텐리조트는 이제 막 첫걸음을 떼었다. 삶의 의미를 담은 지역의 명소이자, 이천 시민의 편안한 휴식처로 새로운 핫플레이스가 되길 기대해 본다.

이선민 | 이천문화원 문화사업팀장

함께 사는 세상



4편



01

특산품과 향토음식





최의광 | 이천문화원 이사 · 공주대학교 겸임교수

제1장 특산품과 향토음식

1. 이천의 맛! 이천의 자랑! 특산품

전통적으로 농업이 산업의 중심이었던 이천은 다른 여러 생산품보다 농산물의 비중이 컸다. 또 이러한 농산물 중에는 타지역보다 품질이 뛰어나거나 좀 독특한 품종이 존재하였다. 그중에 우선 쌀을 주목할 수 있다. 이천쌀의 명성은 전국적이며 과거 임금님 진상미로 인정받았던 것으로 오늘날에도 각광을 받고 있다. 발농사를 통해 얻는 농산물로서는 이천계절무가 특산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일반 토종무이면서 독특한 맛을 갖고 있는 이 계절무는 오랜 세월 이천의 특산품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해 왔다. 밭에서 나는 과수 농산물로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장호원복숭아다. 최근 그 진가를 알리기 위한 장호원복숭아축제가 벌써 19회째 이어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맛과 향에 찬사를 보내고 있으므로 이천의 특산물로 손색이 없다. 이외에도 약용작물로 이천 산수유^{山茱萸} 또한 많은 이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 중부 이남지역에 산수유나무가 많이 자생하는데 이천의 산수유는 그중 으뜸이라 한다. 이상의 이천 특산품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1) 임금님께 진상된 이천쌀¹⁾

인류가 쌀을 얻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1만년경쯤으로 본다. 쌀은 인류의 발전과

1) 본 내용은 기존의 『이천시지』 4권, 「지역특산물(이천쌀)」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으며, 특히 2000년도 이전 현황은 『이천시지』의 내용을 대폭 수용하였다.

정에 나타난 4대문명 발생지의 하나인 메소포타미아지방으로부터 시작해 아시아에 전파되었으며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된다. 쌀의 한반도 유입 시기는 1977년 여주 혼암리 유적에서 발굴된 탄화 벼를 통해 볼 때 대략 3,000년 전으로 추정된다. 이는 우리나라 신석기시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시대에 이미 벼농사가 시작되어 청동기시대에 주로 경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천에서 벼작물을 가꾸는 논농사가 일찍부터 발달한 것은 남한강 지류인 복화천과 양화천, 청미천 등 여러 하천들이 논농사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² 이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은 맛이 좋기로 유명해 진상미로 선택되어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리기도 했다. 조선 초 태종 때의 학자 권근은 자신이 지은 「이천향교기」에서 “땅이 넓고 기름져서 백성들이 부유하다[土廣而腴 民衆而富]”라고 했다. 이를 통해 이천은 조선 초부터 농사가 발달한 지역임을 알 수 있고,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저수지 안흥지(安興池) 역시 넓은 구만리 들판에 물을 대기 위해 축조되었을 것으로 여겨져 이천의 논농사가 오래전부터 활발했음을 짐작케 한다. 6·25전쟁 직후인 1955년경 편찬된 『이천대관』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본군은 자고로 미곡특산지로 더욱이 이천 ‘자채쌀’ 하면 옛 진상미로 너무나 유명하여 …… 이천산 쌀은 …… 참으로 타지방에서 맛볼 수 없는 진미이다. 이로 보아 이천의 기후 특히 토질은 미작에 가장 적당한 모양이다.³

1950년대 중반에 내려진 이 평가는 여전하여 오늘날 이천인은 물론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천쌀의 맛과 품질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전통 이천쌀을 대표했던 자채쌀

전통적으로 이천쌀을 대표하는 품종은 ‘자채쌀’ 이었다. ‘자채’는 우리나라 재래종 벼의 한 품종으로 옛 농업기술서에는 ‘자채(自蔡)’로 표기되어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자채(紫彩)’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다. 이 자채벼는 안타깝게도 품종확인이 어렵고, 언제인지는 모르나 멸종된 것으로 보인다. 품종확인이 어렵다 보니 정확한 특성

2) 서울대학교 박물관·이천시, 『이천시문화유적』, 1997, 17쪽.

3) 이천대관편찬위원회, 『이천대관』, 1955, 50쪽(이천시지편찬위원회, 『이천시지』 4권, 2001, 537쪽 재인용).

이나 생김새를 확인할 수 없다. 이를 직접 재배했던 농민들도 다른 재래종 벼와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헌적 고찰을 통하여 자채벼의 유래를 더듬어 볼 수밖에 없다. 조선 성종 대^{15세기 말}에 출간된 『금양잡록』에는 당시 27종의 벼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중에 ‘자채^{自蔡}’ 품종이 거론되고 있다. 『금양잡록』에서 소개된 이후 ‘자채^{自蔡}’ 벼품종은 이후 농서마다 빠짐없이 기술되어 있다. 이는 1825년 서유구^{徐有渠}가 지은 『행포지^{杏蒲志}』에 기술되기까지 400여 년간 그 이름이 거론되어 온 것이다. 이로 보아 자채 품종은 조선시대 거의 전시기에 걸쳐 활용된 대표적인 벼품종이었음을 알 수 있다. 『행포지』에는 “여주·이천 지방에서 잘 경작된다[驪州利川之間 爲良也]”라고 하여 이천지방이 자채벼를 애용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노인들의 증언을 통해보면 이천지방에는 자채 외에도 6월 유두절이면 이미 벼의 낱알이 여문다는 ‘유두찰^{流頭糶}’과 ‘노인벼수염이 노인처럼 희다고 함’ 등을 많이 재배했고, ‘조동지’라는 벼도 있었다고 한다.

‘자채^{紫彩}’라는 한자표기는 1955년에 출간된 『이천대관』에서 처음 확인되었다. 여기에는 자채벼에 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紫彩’라는 한자표기는 벼 잎이 자색을 띠기 때문에 그렇게 적는다고 소개하고 있다. 구한말까지 임금님께 진상했는데, 특히 진상하는 벼를 심어 가꾸는 논을 ‘진상따라기’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재배법이 까다롭고 관리가 불편한 데다가 수확량이 적은 탓으로 당시에는 이미 멸종되었다고 한다. 또 ‘노인벼’ 같은 재래종이나 일본산 재래종 올벼를 모두 포함하여 사람들이 ‘이천자채’라고 부르지만 자채벼는 엄연히 이와는 다른 품종이기에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렇듯 『이천대관』에 따르면 1950년대 초반에 자채벼는 이미 멸종되고 ‘노인벼’와 같은 재래종 올벼가 일부 재배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여러 증언을 종합하면 1960년대 중반까지도 극히 적은 양이지만 일부 농가에서 재배하여 품종이 보존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자채’라는 이름도 빛이 붉은 것이 아니라 이삭의 수염^稈이 붉은 빛을 띠어서 그렇게 부른다고 하여 『이천대관』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이천문화원에서는 1986년에 자채벼에 관한 민요를 수집 조사하였다. 당시 노인들의 증언을 통해 자채벼 농사법을 일반 벼와 비교하여 정리하면 표와 같다.⁴

4) 이천시지편찬위원회, 『이천시지』 4권, 2001, 541쪽 〈표2〉.

과정 \ 품종		자채벼	일반 벼
심기		직파법 : 씨앗을 논에 직접 뿌린다.	이앙법 : 못자리에서 가꾼 모를 옮겨 심는다.
김매기	초벌	맨손으로 잡초 제거 → 뭉쳐있는 모 숙기 → 빈자리에 솟아난 모 채우기	호미로 잡초 제거 → 모포기 사이의 흙 뒤집기
	두벌	맨손으로 김을 맨다.	맨손 또는 호미를 쓴다.
	세벌	맨손으로 훑어준다.	맨손으로 훑어준다.

자채벼는 보통 세 차례 김을 매어주며 호미를 쓰지 않고 손으로 매어주는 것이 특이하다. 초벌에 벼 김은 손으로 잡초를 뽑아가며 뭉쳐 있는 모를 솟아내고 빈자리는 보식을 한다. 솟아난 모와 잡초는 논바닥을 파고 그 속에 묻는다.

1910년 한일병합 후 은방도·칠성도 등 수확량이 많은 다양한 신품종들이 들어 오면서 자채벼를 비롯한 재래종들은 점차 재배면적이 줄어들게 되었다. 자채벼는 북하천과 그 지류를 끼고 발달한 평야지대가 주생산지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천과 인접해 있는 여주에서도 경작이 가능했다고 한다.

해방 이후까지도 자채벼는 노인벼와 함께 일부 농가에서 재배되어 품종을 보존해 왔으나, 1960년대 중반 이후로는 완전히 멸종되어 사라졌다고 한다. 맛은 뛰어나나 재배법이 까다롭고 수확량이 보잘 것 없어 농부들이 선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천대관』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자채벼 품종은 엄연히 따로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고유한 재래종 벼들 중에서도 특히 수확기가 빠른 올벼들에 대한 일반명사로도 사용된 것 같은데 뚜렷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천쌀 재배 현황 및 과제

‘자채’ 쌀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이천쌀은 그 품질 면에서 단연 전국 1등 상품으로 선두의 명예를 지키고 있다. 같은 품종을 심어 가꾸었는데도 이천쌀은 다른 어떤 지방에서 산출된 쌀보다 밥맛이 좋고 끈기가 있다.

그런데 1970년대 초반까지도 지역 전체인구의 80%가 넘었던 농가인구는 다양한 산업의 발달과 함께 계속 감소하여, 1998년 당시에는 17만 6,000명의 인구 중 농가인구가 3만 5,500여 명인 약 2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경지면적도 계속 감



이천의 벼와 쌀(출처 :
이천시농업기술센터)

소하여 1980년까지 2만ha가 넘던 것이 1998년에는 1만 8,500ha로 줄었고 그중 논은 1만 969ha로 약 59%에 해당된다. 아직도 이천지역의 농업은 절반 이상이 쌀농사에 의존하고 있다. 쌀 생산량은 식량증산에 집착하던 1970년대 후반에는 이천지역에서 6만 톤 이상이 생산되기도 하였으나, 1998년에 5만 1,975톤 등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5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농가수 및 생산량, 벼 재배 면적은 더욱 줄어드는 추세이다. 쌀 생산량은 2015년 이후에는 4만 5,000톤 전후이며, 재배면적도 8천여ha 정도이다.

벼 품종은 아직도 추청秋靑이 단연 으뜸으로 재배되고 있다. 추청은 일명 ‘아끼바레’라고도 하는데 1969년에 수입된 일본 품종으로 쌀알은 작은 편이지만 밥맛이 뛰어나고 우리의 기후와 풍토에 맞아 이천산 양질미로 사랑을 받고 있다.

1970년대 초 박정희 정부는 미곡증산을 위해 반 강제로 다수확 신품종인 통일벼를 농가마다 보급하여 재배케 하였다. 수확량은 뛰어났지만 밥맛이 형편없었기에 농가에서는 통일벼를 추곡수매로 처분하였고, 밥맛이 좋은 추청秋靑을 일부 재배하여 먹거나 더 좋은 값에 팔았다. 그렇지만 정부의 강요로 통일벼를 계속 심다 보니 차츰 그 밥맛이 좋아지더라고 한다. 같은 품종인데도 이 지방에서 성장하면 왜 맛이 좋은지 그 원인은 뚜렷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다만 이천의 토질, 기후 그리고 수질

의 차이에 기인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벼가 성장하는 데는 토양과 물도 중요하지만 햇볕 또한 중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천의 논들 중에서 남서향으로 자리 잡은 계단식 다락 논은 햇볕이 잘 들고 공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벼가 잘 자란다고 한다. 이천은 내륙지방이어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매우 큰데 이러한 기후적 특성 또한 벼의 생육을 촉진하는데 좋은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천쌀은 수확량도 많을 뿐더러 함량 또한 충실해서 무게가 더 나간다. 오늘날 이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추청벼 품종을 더욱 개발하여 좋은 품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⁵⁾

1996년 12월 농업회사법인 이천쌀사랑본부가 발족되었다. 이천쌀사랑본부는 이천 농업인들이 중심이 되어 ‘고품질 쌀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천쌀 판매 창구를 단일화하는 유통의 혁신적인 실천으로 이천쌀의 성가^{聲價}를 보호하여 쌀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이천쌀사랑본부는 우선 ‘임금님표 이천쌀’의 상표를 개발하고 등록하여 이천쌀의 브랜드화에 적극 나섰다. 이 밖에도 쌀의 유통개선과 홍보 및 성가보호를 위한 여러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하였다.

1999년 11월 이천시에서는 ‘농업인들의 친목도모 및 농업기술교류’를 목적으로 이천농업인축제를 개최하였다. 이후 이 축제는 명칭과 규모를 달리하면서 성장하여 지금은 21회째 이르고 있다. 즉, 농업인축제^{1~2회}에서 햅쌀축제^{5~9회}로, 그리고 다시 이천쌀문화축제^{6~21회}로 정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축제 참여 인원수도 2001년 1만 5,000여 명에서 점점 상승세를 타더니 2009년 54만여 명으로 전성기를 이루었고, 최근에도 5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 중 외국인수도 1만여 명을 넘는 등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⁶⁾ 수익 창출규모도 결코 적지 않은데, 2013년 제 18회 축제를 예로 들면 9억 5,900만 원을 투입하여 얻은 수익이 12억 7,010만여 원에 이른다.⁷⁾ 한편, 이천쌀문화축제는 문화관광부로부터 최우수 축제로 지정 받았다. 이천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근래 들어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주식으로서의 위치도 흔들리고 있는데, 쌀의 고장 이천은 예외가 되도록 이천쌀의 진가를 알리는 행사에 전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5) 이천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연구사업보고서』, 2016, 75~77쪽.

6) 이천시, 『쌀사랑 백서』, 2016, 179쪽.

7) 이천시, 『쌀사랑 백서』, 2016, 179~180쪽.



게걸무(출처 :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2) 맛과 향이 독특한 이천게걸무

이천이 자랑하는 특산물로 ‘게걸무’가 있다. 왜 ‘게걸무’라 칭하는지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게걸무의 조직이 단단하여 11월에 동치미를 담그면 이듬해 5~6월에 먹는데 비해 일반무로 동치미를 담그면 대개는 당년 겨울철에 먹게 된다. 그래서 봄계절을 건너뛰어 먹는다고 하여 “게걸무”라 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5~6월 영농철에 게걸무동치미 우려 낸 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 그 맛이 좋아 게걸스럽게 먹는다고 하여 ‘게걸무’라 하였다고 한다.

게걸무는 대월면 군량리를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경작되어온 토종무의 일종이다. 흔히 음력 5~6월에 목화밭이나 콩밭사이에 씨를 뿌려 키웠는데 이는 햇빛을 적게 받게 하여 여리게 키워야 한여름 채소가 귀할 때 반찬으로 숙아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걸무는 키가 작아서 다른 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기에 이를 잘 활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⁸⁾ 또 어느 작물처럼 심어서 햇빛을 충분히 받게 해도 큰 문제는 없다.⁹⁾

8) 이천시농업기술센터 김○○ 자문에 의하여 작성된 부분임.

9) 대월면 송라리 112 최○○·정○○ 부부 자문.

게걸무의 특성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¹⁰ 게걸무는 쌍떡잎식물 양귀비목 겨자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풀 또는 두해살이 풀로 지정되어 있다. 잎은 보통 긴 타원형인데 때로는 무잎 모양으로 깃꼴로 갈라진 곳도 있다. 원산지는 유럽·중국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노란색 십자화가 핀다. 게걸무 뿌리가 성장하는데 가장 좋은 용수량은 65~80%이며 심한 다습조건이나 건조에는 산소와 수분부족으로 생육이 억제된다. 재배 가능한 토양 산도는 PH 5.5~7.5이나 비교적 산성토양에 강하다. 생김새는 배추뿌리와 같은 원추형으로 밑으로 가면 가늘어진 뿌리가 길게 뻗어있고 잔털이 많이 돌아나 있다. 맛이 겨자처럼 아주 맵고 무의 속이 매우 단단하여 염장용 동치미로 소금에 절여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한해 겨울을 넘긴 이듬해에 꺼내어 밑반찬으로 사용하면 좋다. 무청이 연하여 잎줄기가 보통 무보다 많고 김치를 담갔을 때 맛이 특이하고 시어져도 개운하면서 감칠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잎은 염장 또는 건조 후 무침 등으로 이용되어 한 여름철 미각을 돋우는 데에도 좋다.

게걸무는 일반무에 비해 뿌리에 탄백질이 많고 회분·철·인기 많은데, 티아민은 13배나 많다. 또 잎에는 회분·철·티아민·리보플라빈이 많으며 잎 뿌리 모두 칼륨이 풍부하다고 한다. TV조선 방송에서는 이천게걸무와 강화순무, 조선무의 품질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조단백·조섬유·조회분 함량에서 이천게걸무가 강화순무와 조선무에 비해 각각 약 1.7배, 1.2~1.6배, 2.0~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의 매운 맛 역시 이천게걸무가 강화순무나 조선무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게걸무의 의학적 효능과 약효는 많은 전문가들에게 주목되어 왔다. 게걸무는 고려 시대 발간된 『향약구급방』에 종자가 약재로 쓰였다는 기록이 있고, 허준이 지은 『동의보감』에도 기록되어 있다. 요즘은 생식 김치용 각종 요리에 이용되고 있다. 한방에서는 오장을 이롭게 하고, 몸이 가벼워지며 기를 늘려준다고 하였으며, 씨는 볶아서 기름을 짜 하루에 한 숟가락씩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눈빛이 영롱해 진다고 하였다. 이처럼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게걸무가 이천의 풍토에 적합하여 생산되어 왔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를 잘 활용하고 널리 홍보하여 그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누리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0) 이하의 내용은 TV조선 「코리아헌터」 프로그램 방송 내용(2014. 11. 11 방송)과 “행복을 찾아-이천게걸무를 소개합니다.” (<http://blog.daum.net/yunkch/1751-2015.1.5>)의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임.



장호원황도(출처 : 이
천시농업기술센터)

3) 전국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장호원복숭아¹¹⁾

장호원복숭아는 맛과 향기를 자랑하는 미백도와 황도 두 품종이 있다. 모두 돌연변이종으로 장호원지역에서 탄생한 전국 최고의 우량품종으로, 이천시는 1997년 1월 1일 장호원복숭아를 이천시 특산물로 지정하였다. 미백도는 여름과일로 7~8월에 주로 생산되며 부드러운 육질과 은은한 연황색 자태를 자랑하는 최고의 인기상품이며 장호원이 원산지이다. 장호원황도는 늦복숭아로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생산된다. 황도는 조밀하면서도 부드러운 육질과 높은 당도로 복숭아 중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다. 이 역시 장호원이 원산지로 이곳에서만 볼 수 있다.

장호원에서 복숭아농업이 시작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35년경으로 일본인 다카노가 백옥산 동쪽에 과수원을 만들면서부터라고 한다. 그 후 양산을 통해 과수농업이 발전하면서 점차 주변 지역으로 발전하였는데 당시의 주품종은 상해 수밀도와 천도복숭아 등이었다.

장호원미백도는 6·25전쟁 시기에 우연히 탄생하였다. 장호원읍 이황리에서 과

11) 본 절의 내용 중 특히 2000년 이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천시지』(4권, 「제3절 복숭아」)의 내용을 축약·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수농업을 하던 이차천은 1·4후퇴 때 대전으로 피난을 갔다가 미국인 선교사와 복숭아과수원에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가 피난을 마치고 돌아올 때 피난지에서서 복숭아가지를 가져다가 자신의 과수원 복숭아나무에 눈접을 하였더니 그중 한 그루에서 돌연변이 복숭아가 열렸는데, 열매가 유난히 크고 빛깔이 유백색으로 아름다우며 물도 많고 맛 또한 뛰어났다. 이차천은 미국계 복숭아로 빛깔이 희고 맛이 일품이라는 뜻을 담아서 미백도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후 이차천이 묘목을 키우고 이를 이웃에 나누어 주었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애용하고 있다. 전국에 몇 군데의 미백도 생산지가 있지만 맛과 외형에서 장호원 것이 단연 으뜸이라 한다. 그것은 장호원지역의 기후와 풍토 등이 복숭아 재배에 적합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한다.

장호원황도 역시 재미있는 유래를 갖고 있다. 장호원을 진암4리에 사는 최상룡은 1963년 일본을 왕래하던 외가 인척에게서 엘버터라는 품종의 복숭아 묘목 두 그루를 얻어 심었다. 그런데 두 그루 중 한 그루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 특별한 맛과 형태의 복숭아가 열렸다. 과일이 유난히 크고 황색을 띤 모습이 수려하며 맛도 유난히 달고 향기가 있었다. 처음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으나 1980년대 이후 그 진가를 인정받아 지금은 복숭아의 황제로 군림하고 있다. 이 황도는 품질의 특성이 엘버터와는 다른 돌연변이종으로 인정되었다. 1993년 12월 농촌진흥청 과수연구소가 이 품종에 주목하여 집중 조사한 결과 자연발생 변이품종으로 정식 인정했으며, 장려품종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4년 2월 1일 ‘장호원황도’라는 공식 명칭을 부여했다.

장호원복숭아는 뛰어난 맛과 품질로 인해 소비자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며 전국에 애호가들을 갖고 있다. 1999년 말 당시 재배면적 520ha에 529호가 복숭아를 재배했는데, 총생산량이 4,000여 톤이었으며, 농가소득은 약 100억 원에 달했다. 그 후 복숭아 재배농가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현재 803농가가 복숭아 재배에 전념하고 있다. 재배면적도 768ha로 큰 폭으로 상승했고, 생산량도 약 9,500톤에 이르고 있다.¹²⁾ 복숭아 농가소득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189억 원에 이르는 등 복숭아 농가가 차지하는 소득비중이 커져가고 있다. 한편, 제1회 장호원복숭아축제가 열린 1997년 4월 26일에는

12) 이천시청 농정과, 「제21회 햇사레 장호원복숭아 추진계획」(내부문서), 2017.



봄철 백사면의 노란 산수유꽃(출처 : 산수유꽃축제추진위원회)



겨울철 빨강게 익은 산수유열매(출처 : 산수유꽃축제추진위원회)

‘미백도’와 ‘황도’ 관련 기념비 제막식을 가졌으며, 2017년 현재 21회째 축제가 개최되었다.

4) 이천산수유¹³

백사면에는 수령 100년이 넘는 산수유가 자생군락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송말리와 도립리 등 원적산 기슭의 농가에서 산수유를 많이 재배해 오고 있다.¹⁴ 특히 이 지역에는 매년 3~4월이 되면 산수유꽃이 만발하고, 11월에는 선홍색 산수유열매가 그 윤기를 발하여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산수유나무는 중국에서 전래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

13) 본 절의 내용 중 특히 2000년 이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천시지』(4권, 「제4절 기타 특산물」)의 내용을 근간으로 축약·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14) 백사면 도립리 임○○(60)에 따르면 백사면 일대에 산수유 농가는 약 60여 가구 정도 된다고 한다. 오래전부터 같은 농가가 산수유나무를 소유해 왔으며 최근 산수유 농가수나 나무수의 증감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한다.

나 1970년 경기도 남양주 광릉지역에서 자생지가 발견됨으로써 한국 자생종임이 확인되어 외래설은 신빙성을 잃고 있다.

산수유나무는 주로 중부 이남지역에서 관상수 및 약용식물로 재배되고 있고, 이천 외에 전라남도 구례와 경상북도 봉화, 경상남도 하동 등지가 생산지로 유명하다. 나무의 높이는 대략 7m 안팎이고 줄기는 연한 갈색을 띠며 껍질이 벗겨진다. 잎은 마주나고 길이 4~12cm, 폭 2~6cm의 긴 타원형으로 4~7개의 측맥이 뚜렷하다. 잎 표면에는 광택이 있으며 뒷면 맥 사이에는 갈색의 강한 털이 있다. 꽃은 양성화로 노란 황금색이며 지름 4~5mm의 작은 꽃들이 20~30개씩 뭉쳐 피지면서 핀다. 산골짜기에 얼음이 풀리고 아지랑이가 피는 3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화사한 꽃이 피어 약 보름간 계속되고, 열매는 길이 1.5~2cm인 긴 타원형의 핵과로 광택이 있다. 8월부터 빨갭게 익기 시작하여 10월이면 완전히 성숙하게 된다.

꽃과 열매를 함께 감상할 수 있어 관상용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산수유는 열매가 한약재인 탓에 농가수입에 보탬이 되기도 한다. 열매의 효능은 월경과다·보익補益·음위陰痿·조경調經·다뇨多尿·이명耳鳴·두풍頭風·신경쇠약神經衰弱·강정強精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열매는 나무에 매달아둔 채로 초겨울을 넘겨 일단 얼었다가 회초리로 털어서 거두고, 거둔 열매는 일일이 씨를 빼내 과육만을 햇볕에 말려두었다가 한약재로 파는데, 요즈음은 씨를 분리하는 기계가 있어 일손을 많이 덜게 되었다. 산수유차와 술도 개발되어 시중에 선보이고 있다.

개나리와 진달래가 채 피기 전에 제일 먼저 피어나는 꽃이 산수유꽃으로, 백사면에 산수유 꽃이 만발하면 남보다 먼저 봄을 즐기려는 사람들과 아늑한 마을풍경을 화폭에 담기 위한 화가들이 많이 찾는다.

산수유꽃 구경과 함께 마을에 있는 육괴정, 인근 지역의 반룡송, 현방공원 등의 문화재들을 연계한 제1회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가 2000년 4월 초에 개최되었다. 이후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는 매년 개최되어 2017년 현재 18회의 연혁을 갖고 있다. 1회 축제 때 예산 2억 8,000여만 원에 매출액이 6억 2,000만 원 정도였으며, 이천시청과 백사면, 그리고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이천 산수유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가 계속적으로 성공하려면 지금의 상태만으로는

부족하며 보다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우선 중심지인 도립리를 비롯한 백사면 일대의 주민들이 계속해서 산수유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이 중요하다. 산수유농가의 농민들이 점차 노령화되고 있어 의욕적인 젊은 일꾼들의 영입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산수유농가가 점점 늘어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수유열매 자체나 한약재료로 건조된 열매의 판매도 중요하지만 더욱 다양한 관련 상품들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산수유차와 술 등 일부 관련 상품이 개발되기는 하지만 아직은 영세하며, 전문적 가공업체는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더욱 다양한 가공식품들을 연구 개발하여 연중 상품이 생산되는 전문업체를 세워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산수유열매의 의학적 효능을 체계 있게 정리하여 널리 선전할 필요도 있다. 산수유열매의 소비를 촉진하여 농가소득을 보장해 주는 일이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의 성공을 위한 지름길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때 묻지 않은 시골마을의 소박한 모습을 보여주던 도립리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것도 문제가 된다. 외지 사람들이 도립리를 즐겨 찾는 이유는 잘 정돈된 관광지가 아닌 지금의 모습 그대로가 좋기 때문이다. 초현대식 건물이나 식당 같은 위락시설들을 되도록 억제하여, 옛 고향의 모습 같은 아늑한 분위기를 잃지 않도록 해야겠다.¹⁵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는 무엇보다도 산수유농가의 소득이 보장되는 한에서 그 비전이 있을 것이며, 또한 가치와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수유열매의 효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이에 따른 상품개발, 전방위적인 홍보 등을 통한 수요증대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는 우선 산수유농가들의 의욕적인 참여와 역할이 요구되고 이천시청 당국과 관련 단체들의 상호협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¹⁶

15) 이 전통과 자연의 보존이 필요함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만 현지 주민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통과 자연을 유지하기 위한 초가집의 복원이나 자연 도로 유지 등이 실은 그곳 주민들의 현실적인 삶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백사면 도립리 엄○○ 및 백사면 산수유축제 추진위원장 이○○ 자문).

16) 이천백사산수유꽃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신○○ 자문에 의하여 작성.



임금님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천인삼, 이천계란, 이천한우

5) 그밖의 특산품들

지금까지 이천의 특산품으로 쌀을 비롯하여 게절무, 장호원복숭아, 산수유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밖에도 이천의 명품으로 이른바 도드람포크로 명명된 돼지고기와 이천한우로 불리는 소고기도 주목을 받고 있고, 점차 국내외 시장을 공략하며 명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쌀연구회’, ‘인삼연구회’, ‘한우연구회’를 공무원·민간인·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게 하고, 2008년에는 ‘복숭아연구회’를 발족시켜 이천 특산품들의 가치를 높이하고자 힘 없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농산물로 자율린 **채소브랜드**, 천새연사과·배, 이천인삼 등을 브랜드화하고 특산품으로 발전하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천인삼은 특히 동부인삼농협을 중심으로 상품개발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천쌀에만 부여되었던 ‘임금님표’ 브랜드를 이제 ‘이천인삼’, ‘이천계란’, ‘이천한우’에도 부여하기로 하고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금 인근 도시 여주에서는 대왕님표 여주쌀을 외치며 여주 특산품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천 특

산품의 가치를 유지하고 그 명성을 지속해 가기 위한 노력을 이천시 당국은 물론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하여 많은 민간단체들이 합동하여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명품의 고장 이천을 만드는데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2. 시민들의 식생활과 절기음식

우리나라 각 지역은 4계절이 비슷하고 생활모습에 공통점이 많기에 음식문화에 있어서도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이질적인 면도 있다. 여기서는 이천지역의 음식을 일반적인 양상과 또 특산품과 연결된 고유음식으로 나누어 소개하고자 한다. 이천의 일반적인 음식문화를 소개함에 있어서는 시장에서 구입한 재료에 많이 의존해 온 읍이나 동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의 식생활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시기는 최근의 상황보다는 도시화가 미미했던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이전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1) 음식문화와 주식

중부내륙에 속한 인근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대개 농산물을 음식으로 활용하였다. 이는 이천지역 주민들이 바다나 큰 강이 없는 환경에서 식자재의 대부분을 자경 농산물에 의존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의 식생활은 하루 세끼를 기본으로 유지해왔다. 밥을 주식과 부식으로 나누고 부식을 반찬(飯饌)이라고 한다. 이천지역은 주식으로 먹는 음식을 밥이나 국수라 불렀으며, 쌀·보리·밀로 만든 음식이었다. 그런데 과거에 쌀은 매우 귀했기 때문에 쌀을 대용하여 보리와 밀을 식재료로 사용하였다. 보리를 재료로 하여 만든 보리밥이 때로는 귀한 쌀밥을 대신했고, 더러는 밀로 만든 국수가 그 위치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오래전부터 이천 사람들의 밥상은 밥과 반찬이라는 식단구조가 기본 틀이었으며, 반찬은 주식인 밥을 먹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로 인식하였다. 필자도 어린 시절 1960~1970년대 “반찬이 없어 뭘 해서 먹니?” 하는 어른들의 말씀을 종종 들었던 기억이 난다. 또

외부에서 집에 손님이 방문하여 식사를 같이 하게 될 경우에는 “찬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가 인사가 되곤 했다. 주식인 밥을 제외한 나머지 찬에서 국은 약간 다른 위치가 부여되어 있었다. 다른 지역도 비슷하겠지만 이천지역도 밥상에서 국의 위치는 중요하였다. 그래서 밥상의 구조를 보면 밥이 왼쪽에 국이 오른쪽에 있어 밥과 국은 개인 별로 주어지며 나머지 반찬은 공통으로 이용하는 구조였다.

주식인 쌀은 지금보다 과거에 더욱 귀한 것이었다. 이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지었는데 쌀은 식용 외에 가정을 유지하고 재화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재산이자 자본의 역할도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식용으로 쌀밥을 지을 때 보리를 섞기도 하고 국수로 대신하기도 하여 아껴가며 소비하였다. 보리나 밀은 쌀보다 시장가치가 비교적 낮기 때문이며, 따라서 가난한 집에서는 쌀밥은 쉽게 먹기 어려운 음식이었다.

이천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쌀 생산이 풍족해지면서 쌀밥을 비교적 넉넉히 먹을 수 있게 된 시기는 대략 1970년대 초부터이다. 쌀 생산량이 늘면서 농촌경제가 향상되었고, 밥상에도 보리가 섞이지 않은 흰 쌀밥이 점점 자리를 차지했으며, 밥상에서의 보리밥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상적으로 접하기 어려워졌다. 대신 보리밥은 2000년대 이후 건강식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특식으로 자리를 잡았고, 시중 음식점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다. 밀을 이용한 국수도 주식을 보조하던 역할에서 점점 멀어져 오늘날에는 별식으로 간간히 이용하는 메뉴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보리밥과 마찬가지로 음식점 등에서 상품으로 판매되곤 한다.

이천 사람들의 밥상에서 주식인 쌀밥은 연중 매 끼니마다 거의 동일하지만 국을 포함한 반찬은 계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천 사람들은 논농사와 밭농사를 통하여 식재료를 주로 자급했기 때문에 쌀밥을 제외한 반찬의 구성은 계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던 것이다.

한편, 계절을 초월하여 활용되던 반찬으로 저장음식을 들 수 있다. 이에겐 간장·고추장·된장·장아찌·김장김치 등을 우선 들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간장·고추장·된장은 그 자체로 찬의 역할도 했지만 이보다는 주로 다른 음식의 간을 맞추거나 또는 맛을 내는 조미료로 활용되곤 한다. 그리고 대개는 1년에 한번 담가서 1년 내내 사용하기도 하고 그 이상도 사용한다. 반면 김장김치와 장아찌 등도 저장음식이긴 하나 그 자체가 완성된 반찬으로 쓰이는 것이어서 다른 음식의 보조 역할

을 하는 장류와는 성격이 다른 음식이다. 특히 배추로 만든 김장김치는 이천 사람들의 밥상에 겨우내 올라오는 중요한 반찬이어서 초겨울 김장을 담그는 것은 주부는 물론 집안의 연중행사로 여겨지곤 했다. 이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의 상차림을 계절별·구성별로 정리하면 표와 같다.

이천 사람들의 계절별·구성별 상차림

계절	주식	국	찌개	기타 반찬		저장 음식	간식
				경작	야생		
봄	쌀밥 (혹은 국수)	김칫국, 된장국, 무국, 아욱국, 쑥국	된장찌개, 두부찌개, 청국장	짬무, 무장아찌, 게절무, 절인배추, 오이지, 무동치미, 게절무동치미, 시 금치나물	냉이나물, 썸바퀴나물, 비름나물, 미나리, 취·고사리나물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여름	쌀밥 (혹은 국수)	오이냉국	된장찌개	열무김치, 열갈이 김치, 고추무침, 가 지무침, 호박볶음 (무침), 도라지무침, 감자볶음, 깻잎무 침, 상추·쑥갓쌈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참외, 수박, 토마토, 옥수수, 감자
가을	쌀밥 (혹은 국수)	감자국, 무국, 열갈이배추 (조선배추)국, 아욱국, 된장국		무, 배추겉절이, 총각무김치(알타리 무), 두부(직접 만들)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감자, 고구마
겨울	쌀밥 (혹은 국수)	김칫국, 무국, 김치· 호박국, 콩나물국	된장찌개, 김치찌개, 청국장	배추김장김치, 깍 두기, 동치미, 총각 김치, 무말랭이무 침, 가지·호박 말 린 것, 콩나물(직접 재배), 두부(직접 만들)	취·고사리 말린 것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감자, 고구마(고 구마말랭이), 생무, 콩볶여니, 강냉이

주지하듯이 이천 사람들의 식생활에서 음식종류는 농산물로 만든 것이 대부분이며 일부는 들과 야산 등에서 채취한 것들이었다. 그리고 직접 재배생산하거나 채취하기 어려운 식재료는 시장 등에서 조달하며, 식재료의 종류는 현대로 올수록 많아지는데, 김·미역·생선 등 수산물과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의 육류가 대표적이다. 다만, 콩나물의 경우 매우 대중적인 식재료로 집에서 직접 재배하기도 하지만 시장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더 많은 편이다. 한편, 겨울에는 대체적으로 저장성 작물을 이용한 음식들이 많다. 이를 테면 가지말림, 호박고지, 고사리 말린 것, 취 말

린 것 등을 이용하여 갖은 양념을 해서 무치면 나름 좋은 음식이 되어 반찬으로의 역할을 했다.

과거에 이천 사람들의 식생활은 대체로 채소류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단백질을 얻기 위한 육류는 매우 귀했다. 여기에서 육류는 돼지고기·닭고기·소고기 등이 대부분이며, 계절에 따라 민물고기를 직접 잡아먹기도 하였다. 도시화 이전 농가의 비중이 높았던 1970~1980년대에는 소·돼지·닭 등을 직접 사육하는 농가도 많았다. 집집마다 한쪽에 돼지우리가 있었고, 또 한편에는 소 외양간이 있었으며, 처마 밑에 가로지른 막대^해에는 집닭들이 여러 마리가 동시에 밤잠을 자곤 하였다. 그렇지만 이들 가축을 자주 먹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 특히 소는 개인이 사적으로 도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기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분 시장이나 정육점에서 구매하였다. 다만 닭의 경우 때때로 집에서 직접 잡아서 삶아 먹는 방식으로 단백질 섭취에 이용되곤 했다.

2) 이천지역의 절기음식

음력 8월 15일 추석^{秋夕}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천에서도 연중 가장 큰 명절로 인식하였다. 동네마다 가정마다 이날을 기념하였으므로 평상시와 다른 특별한 음식을 장만하여 먹었다. 특히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제사상에는 각종 과일을 올리고 또 햅쌀밥과 함께 당국을 마련하여 조상을 섬겼다. 또 송편은 추석명절의 대표적인 음식이며, 이외에 녹두빈대떡과 산적 등도 빠지지 않는 음식이다. 특히 추석을 대표하는 전통음식인 송편은 여럿이 모여서 외피에 속을 넣고, 솔에 넣어 찌는데, 예쁘게 빚을수록 예쁜 아이를 낳는다는 속설도 전한다. 가족들이 오손도손 모여 송편을 만드는 모습이야 말로 추석 때 볼 수 있는 가장 정겨운 모습이다.

새해를 맞이하는 정월초하루음력 1월 1일은 추석과 더불어 우리나라 2대 명절이다. 이때는 추석과는 다른 음식이 준비되는데, 우선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떡국이다. 농사지어 얻은 쌀로 긴 원통형의 가래떡을 준비한 다음 이 가래떡을 어슷하게 썰고, 육수에 넣어 끓인 음식으로 주로 아침에 먹는다. 떡국에 만두를 함께 넣은 것이 떡만둣국인데 만두를 넣을지 말지는 집안에 따라 선택사항으로 여긴다. 아이들은 설

날 떡국을 먹어야 나이 한 살을 먹는다고 여기며, 과거에는 대부분의 이천 사람들도 아침에 떡국을 먹었다. 일 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을 동지^{冬至}라고 한다. 동지는 겨울의 한가운데에 오는 절기로, 우리나라 민속에서는 이날을 특별히 기념하는데, 이천 지역도 마찬가지다. 비록 추석이나 설만큼의 큰 명절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랜 전통으로 동지를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이날에는 팔죽을 쑤어 먹는 전통을 지킨다. 팔은 콩처럼 밭에서 나는 작물로 1년생 열매작물이다. 가을에 거둬들인 팔을 불려서 삶은 다음 으깨 체에 거른다. 그리고 물에 넣어 끓이면서 쌀로 지은 밥과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새알만한 동그란 형태로 만든 새알심을 함께 넣고 끓인다. 이 음식은 귀신을 쫓는 의미도 들어 있어 예전에는 이천의 많은 가정에서 동짓날 팔죽을 해 먹었다고 한다.

음력 1월 15일 정월대보름은 24절기 중 가장 많은 민속놀이가 행해지는 날이기도 한데, 그중에는 음식과 관련된 민속도 몇 가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럼’이라고 하여 보름날 아침에 호두·밤·땅콩·잣 등의 견과류를 나이 수만큼 깨물어 먹어야 1년 내내 평안하고 부스럼이 나지 않는다고 여겼다.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 이날은 사람들에게 ‘밥 흠쳐 먹는 날’로 인식되었다. 지금이야 거의 보기 힘들지만 예전에는 애써 준비해둔 음식이 동네 청년들에 의해서 밤새 사라지는 경우가 더러 있어 음식을 잃어버린 집에서는 원망하기도 했다. 그래도 대부분은 ‘으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곤 했다. 또한 전날 준비해 놓은 재료로 각종 나물류의 반찬을 만들어 밥과 함께 먹었는데, 더러는 나물류의 반찬을 밥과 함께 섞어 비벼먹는 풍습이 행해지기도 하였다.

3. 향토음식과 특산품을 이용한 음식¹⁷⁾

이천에는 이천만의 독특한 음식이 존재한다. 이천의 특산품들은 또한 이천 사람

17) 향토음식과 조리법의 내용과 사진은 이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발간한 『자연을 담은 맛있는 밥상』(2012)에서 발췌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가마솥에 지으면 한층
풍미를 더하는 이천쌀
밥(좌)과 만두 속에 작
은 만두가 들어 있는
벗섬만두(우)



들이 먹는 음식으로 이어져 그 고유성을 보존하며 이천을 대변해 왔다. 이천쌀로 지은 이천쌀밥은 이천쌀밥정식이라는 하나의 상품으로 구성되어 이천 시내와 읍·면 지역 각 식당들에서 판매되고 있다. 또 게걸무는 이천의 특산품으로 많은 사람들이 애호하는데, 이를 재료로 만든 음식도 귀한 음식으로 대접받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벗섬만두 또한 이천의 고유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 이천만의 고유음식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지만 산수유축제 때 소개된 산수유 정식과 장호원복숭아로 빚어낸 복숭아 떡과 김치도 근래 들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1) 이천쌀밥

많은 이천 시민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천쌀로 지은 밥을 먹고 있다. 예로부터 이천지역에서 나는 쌀로 밥을 지으면 그 맛이 일품이었다고 한다. 이천쌀은 밥맛을 떨어뜨리는 칼로리·지방질·단백질 등의 함량이 다른 지역보다 낮으며, 반대로 밥맛을 좋게 하는 티아닌·니아신·비타민과 필수 아미노산 등은 상대적으로 많아 이듬해 3~4월까지 묵은 냄새가 덜해서 다른 지역 쌀보다 밥맛이 월등히 좋다

고 한다.

윤기가 자르르 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이천쌀밥은 오늘날 하나의 브랜드상품으로 자리를 잡았고, 널리 통용되고 있다. 전통적인 주식으로서의 위상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천쌀밥은 하나의 메뉴로 상품화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2) 벚섬만두

복주머니 모양의 커다란 만두를 열면 안에 오복을 의미하는 다섯 가지 색깔의 작은 만두가 올망졸망 안겨 있는 만두다. 벚섬이란 벚가마니에 곡식이 가득 담겨 있는 모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쌀이 유명한 이천에서는 음력 정월대보름 전날^{1월 14일} 아침, 한해의 오복과 풍년을 기원하며 먹었다는 특별한 음식이다. 채소에서 얻은 천연색소로 색을 내어 더욱 건강하게 보이는 이 음식은 이천 사람들이 즐겨 먹던 고유음식이다.¹⁸

3) 계걸무로 만든 음식

계걸무는 이천의 토종무다. 생김새는 배추 밑동뿌리와 비슷한 원추형이며, 일반적으로 조선무보다 크기가 작은 편으로 잔뿌리가 많다. 육질이 단단하고 겨자처럼 특쓰는 매운 맛을 간직하고 있어 입맛을 돋우는 여름철 밑반찬용으로 아주 제격이라고 한다. 또한 소금에 절여 땅에 묻었다가 겨울을 난 후에 찾아먹으면 상큼하고 시원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이 계걸무를 주원료로 하여 만드는 찬들은 꽤 여러 종류가 있다.

18) '벚섬만두' 내용은 이태연(호법면 송갈리, 돌맹이석촌골농가맛집 대표)의 자문이 큰 도움이 되었다.

게걸무김치

이천의 토종무인 게걸무의 잔털을 떼고 무청게걸무의 잎과 줄기이 달린 부분을 깔끔히 도려낸 후 송덩송덩 썰고 쓱쓱 버무려 만든 김치이다. 코끝을 톡 쏘는 매콤한 맛으로 더운 여름 달아난 입맛을 되돌아오게 하는데 제격이다. 찹쌀을 쓴 물에 고춧가루와 갇은 양념을 넣고 게걸무와 함께 버무리면 완성된다. 씹는 맛이 단단하기 때문에 끓는 물에 약간의 소금을 넣고 살짝 데쳐 담그는 것이 특징이다.



게걸무동치미

일작아작 씹는 맛과 함께 톡 쏘는 국물 맛이 일품인 게걸무동치미는 보통 가을에 담가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먹는다. 긴 시간 저장해도 무르는 일이 없어 씹는 맛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톡 쏘는 맛은 게걸무의 특성으로 국물은 매콤하면서도 시원하다.



[만드는 법]

- ① 술을 이용해 게걸무에 붙어 있는 흙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는다. ② 무의 몸통에 소금을 입혀 항아리에 담은 후 윗부분에도 소금을 골고루 뿌려 하룻밤 절인다. ③ 실파를 잘 다듬어 소금에 살짝 절여서 1~2개씩 모아 돌돌 말아 묶는다. 홍고추와 풋고추는 어슷하게 썰어 준비한다. ④ 깨끗이 씻은 배를 반으로 자르고, 마늘과 생강을 얇게 썰어 면주머니에 넣는다. 소금물을 만들어 고운체로 거른다. ⑤ 항아리나 용기 밑에 면주머니를 놓고 절인 무를 차곡차곡 넣은 뒤 묶은 실파와 청·홍고추, 갇을 올린다. ⑥ 무가 들뜨지 않도록 돌로 누른 뒤 소금물을 가만히 따라 붓고 뚜껑을 덮어 익힌다.

게걸무장아찌

게걸무는 장아찌를 담그는 데에도 제격이라고 한다. 한번 담그면 2~3년 동안 먹을 수 있는데, 이는 게걸무가 쉬 무르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입맛이 없을 때 먹기 좋게 썰어 밥상에 올리면 아작아작 씹는 맛과 함께 짭조름한 맛이 밑반찬으로서 일품이다.



게걸무말랭이무침

질깃질깃하니 씹을수록 특유의 맛이 우러나는 것이 게걸무말랭이무침의 매력이다. 우선 껍질이 두껍고 매운 맛이 나는 게걸무를 손가락 굵기로 썰어 반그늘에 말려서 무말랭이를 만든다. 그리고 무말랭이를 양념에 버무려 낸 것으로 말리는 과정에서 톡 쏘는 매운 맛은 줄어들고 씹을수록 구수한 맛이 배어나는 것이 별미이다.



[만드는 법]

- ① 게걸무를 잘 말린 무말랭이를 준비해 먼지 등이 없도록 주물러 씻은 뒤 물, 간장, 설탕, 물엿을 넣고 하루 동안 재운다. ② 미나리는 다듬어 씻은 뒤 물기를 털고 5cm 길이로 썬다. ③ 전날 밑간장에 재워둔 무말랭이에 미나리, 고춧가루, 다진 파, 다진 마늘, 참기름, 통깨, 멸치 액젓을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 담아낸다.

게걸무청밥

게걸무는 무청까지 매콤한 맛이 가득 들어 있다. 이 무청을 손질해 부드럽게 삶은 뒤 이천 쌀 위에 얹고 고슬고슬하게 지으면 소박한 게걸무청밥이 된다. 양념간장을 두루 끼얹어 쓱쓱 비벼면 별다른 반찬이 필요 없는 훌륭한 음식이다.



무청을 밑간하여 엷고 밥을 지어야 제 맛인데 씹을수록 구수한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B 섭취는 물론 골다공증을 걱정하는 여성을 위한 최고의 건강 밥상이다.

계걸무청나물

구수한 된장에 조물조물 버무리려 맛을 낸 소박한 밥반찬이다. 계걸무와 마찬가지로 무청 역시 톡 쏘는 매운 맛이 특징이다. 씹는 맛이 질기지 않도록 줄기의 투명한 섬유질을 벗기고 일반 무청보다 조금 더 삶아야 부드러워진다. 이렇게 계걸무청을 정성스레 손질한 뒤 구수한 된장에 조물조물 맛깔스럽게 버무리면 맛깔난 밥반찬이 된다.



계걸무정과

계걸무정과는 사각사각 씹는 맛이 좋은 전통과자이다. 무정과는 맛도 좋고 모양도 좋아 선조들이 잔칫상이나 이바지 음식에 빠뜨리지 않고 올리던 음식이다. 계걸무정과는 일반무 대신에 계걸무를 사용하면 된다. 단단한 계걸무를 살짝 삶은 뒤 설탕시럽에 투명하고 윤기나게 조리 내면 차분하게 느껴지는 그 모습이 보기에도 좋을뿐더러 무 자체의 달콤함과 함께 사각사각 씹는 맛이 더없이 좋다.



4) 산수유로 만든 음식

이천은 쌀뿐만 아니라 산수유꽃으로도 유명한 고장이다. 백사면을 중심으로 초봄부터 만개한 산수유꽃은 겨우내 잿빛으로 변한 산을 노랗게 물들여 봄이 오고 있음을 알려준다. 이천시에서는 이와 관련해 매년 백사면에서 산수유꽃축제가 열리기도

한다. 한편, 초봄의 전령사 산수유꽃이 떨어지고 여름을 지나 찬바람이 불면 이번에는 빨간 열매가 맺히는데 이 열매를 이용해 산수유고추장, 산수유칼국수, 산수유강정, 산수유닭살냉채, 산수유식혜 등 다양한 음식과 찬을 만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산수유고추장을 곁들인 새싹비빔밥, 산수유칼국수, 산수유강정, 산수유식혜를 소개한다.

산수유고추장을 곁들인 새싹비빔밥

산수유열매로 맛깔스럽게 담은 산수유고추장은 새콤하면서도 산뜻한 맛으로 입맛을 돋운다.

이 산수유고추장을 듬뿍 얹어 쓱쓱 비벼먹는 새싹비빔밥은 자연에서 얻은 맛과 영양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음식이 된다.



[만드는 법]

① 소금을 제외한 고추장 재료를 넣고 고루 섞은 뒤 소금으로 짭맛을 조절해가며 산수유고추장을 담근다. 항아리에 담아 별 좋은 곳에 한 달 정도 숙성시키면 고추장이 완성된다. ② 숙주나물은 씻은 후 끓는 물에 데쳐 물기를 꼭 짰 뒤 달군 팬에 넣고 볶다가 소금, 참기름, 다진 마늘, 다진 파를 넣고 볶는다. ③ 새싹 채소와 어린 잎 채소는 깨끗하게 씻어 체에 담아 물기를 뺀다. ④ 오목한 그릇에 밥을 얹고 그 위에 숙주나물, 새싹 채소, 어린잎, 달걀노른자를 얹은 뒤 산수유고추장을 곁들인다.

산수유칼국수

찬바람 부는 가을이면 산수유열매가 빨갛게 익기 시작한다. 이 산수유열매를 곱게 뺱아 밀가루에 넣고 반죽을 한다. 쫄쫄둑 면발이 차지도록 충분히 치댄 뒤 깊고 진하게 우려낸 멸치국물에 애호박을 넣고 시원하게 끓이면 산수유의 영양을 듬뿍 섭취할 수 있는 산수유칼국수가 된다.



[만드는 법]

① 밀가루와 산수유가루, 소금을 넣고 섞은 뒤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반죽을 한다. ② 가루와 물이 어우러지면서 덩어리로 뭉쳐지면 잘 치댄 다음 비닐봉투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 30분간 숙성한다. ③ 양파는 껍질을 벗기고 표고버섯은 밑동을 떼 뒤 채 썬다. 애호박은 5cm 길이로 토막 내 돌려 깎기 한 뒤 채 썬다. ④ 멸치는 머리와 내장을 떼고 다시마, 마늘, 대파와 함께 냄비에 넣고 물을 부은 뒤 맛이 충분히 우러나도록 끓인 다음 체에 거른다. ⑤ 숙성된 반죽을 꺼내어 밀가루를 덧뿌려가며 밀대로 얇게 민 뒤 돌돌 말아 얇게 썰어 산수유칼국수 면을 만든다. ⑥ 냄비에 우려낸 멸치 국물을 붓고 한소끔 끓이다가 면을 넣고 계속 끓인다. 면이 익기 시작하면 양파, 표고버섯, 애호박, 다진 마늘, 다진 파를 넣고 국간장과 소금으로 간한 후 먹기 직전에 참기름을 두른다.

산수유강정

산수유강정은 근래 들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산수유의 새콤한 맛을 더한 달지 않은 건강한 한과 강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만드는 것도 간단해 대중화 · 상품화가 기대된다.



[만드는 법]

① 먼저 쌀 튀밥을 준비하는데, 기왕이면 밥맛 좋은 이천쌀로 튀긴 것이 좋다. ② 평평하고 넓은 쟁반을 준비하고 랩을 미리 깔아 놓는다. ③ 냄비에 설탕과 물엿, 산수유 가루를 넣고 끓인다. ④ 한동안 끓이다 차츰 줄어들면 쌀 튀밥을 넣고 잘 버무린다. ⑤ 버무린 쌀 튀밥을 미리 준비한 쟁반에 붓고 굳기 전에 재빨리 평평하게 만든다. 어느 정도 굳으면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담아낸다.

산수유식혜

붉은 빛깔을 띤 고운 산수유가 식혜의 맛을 새롭게 하고 있다. 식혜에도 웰빙 바람이 불고 있는 요즘 좀 더 건강하고 맛있는 식혜를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정열을 쏟는 고장이 바로 이천이다.

특히 신장과 원기회복에 좋다고 하는 산수유로 빛깔을 내 맛과 영양을 더한 산수유식혜가 이천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양금을 충분히 가라앉히고 옷물만 가만히 따라내면 국물이 맑고 깨끗해진다.

불게 우려난 식혜를 담고 정갈하게 잣을 띄워 내면 압전한 솜씨에 감탄하고, 입맛 돋우는 새콤한 맛에 또 한 번 감탄하게 되는 맛이 나온다. 완성된 식혜를 냉장고에 차게 두었다가 밥알을 담고 국물을 부은 뒤 채 썬 대자를 띄워 낸다.



5) 복숭아로 만든 음식

복숭아김치

이천 장호원의 복숭아는 우리나라 최고의 복숭아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이 복숭아로 김치를 만든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우선 복숭아가 한창 제철일 때 복숭아를 털이 없도록 씻은 뒤 껍질을 벗기고 납작하게 썰어 바짝 말려 놓는다. 이렇게 말린 복숭아를 기본재료로 하고 김치 양념을 더하여 조물조물 무치면 매콤하면서도 당도 높은 김치가 탄생한다.



이것이 바로 복숭아 자체의 달달한 맛이 입에 착착 감기는 복숭아의 고장 이천의 별미 복숭아김치이다.

복숭아약편

부드럽고 과즙이 풍부한 장호원황도로 맛을 내 찢 떡으로 그 맛이 일품이다. 약편은 주로 대추를 홍시처럼 고아 쌀가루와 버무려 찢 떡이다.

이천의 특산물로 부드러운 맛에 과즙이 풍부하고 당도가 높은 복숭아로 고아낸

죽을 쌀가루와 고루 버무린 뒤 부드럽고 촉촉하게 찌 낸 떡이다. 복숭아죽을 만들 때 복숭아가 쉽게 으개지도록 푹 끓인 뒤 체에 내리면 좀 더 고운 복숭아죽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02

이야기가 익어가는
농촌체험마을



박형숙 | 방송작가

제2장 이야기가 익어가는 농촌체험마을

1. 농촌 현실과 체험마을의 등장

1) 위기의 농촌

농촌은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한 지역으로, 농경사회에서는 삶을 위한 물질적 기초를 이루며 생활·문화의 토대로서 절대적 가치를 지녔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양적 성장 위주의 수출 주도형 경제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겪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1차산업에 기반한 농촌은 자연스럽게 등한시되었고 도시와의 격차가 심화되었다. 1990년대 이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가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그로 인해 농업생산성이 향상되고 농업기반시설의 확충과 농촌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농촌 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 농가소득의 감소, 무차별적인 난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농촌공동체의 해체 등 우리 농촌이 안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들은 여전하다. 이처럼 심각해지고 있는 농촌지역의 경제적 침체를 극복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농촌관광과 농촌체험마을이다.

2) 농촌에 대한 새로운 인식

시장 원리가 우선시되던 산업사회에서는 농업·농촌의 경제적 가치가 중시되었다. 그리고 농업생산기술의 발전을 통해 대량생산 및 대량소비가 이루어지는 등

추수를 맞아 벼베기 중
인 농부(장록동 일원)



농업에도 공업적 논리가 적용되었다. 따라서 농촌은 ‘식량생산기지’ 이자 ‘공산품 소비지’, ‘값싼 노동력의 공급처’로 인식되었다. 농촌개발정책은 농업이 농촌을 대표하는, 즉 농업이 곧 농촌이고 농업생산성의 증대가 농촌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농업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해 왔다. 농촌을 바라보는 시선이 농업·농업인에만 맞춰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후기 산업사회가 도래하면서 농촌의 다원적 기능이 주목을 받고 있다. 농촌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공익적 가치가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다. 농촌을 농업·농업인에만 한정짓지 않고 전 국민의 삶터·쉼터·일터로 그 위상을 확대·확장시켜 바라보게 된 것이다. 농촌이 공공에게 제공하는 자연환경적·사회문화적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되면서 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관점이 명확해졌다.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주목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로, 세계식량농업기구FA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농촌의 사회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있다. 농업부문이 무역협상분야에 포함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그 계기가 되었다. 자국의 농촌이 쇠퇴할 것을 우려하는 농산물 수입국들을 중심으로 농촌이 지닌 다양한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OECD는 1998년 농업관료회의에서 농촌의 공익

적 가치를 회원국이 확보해야 할 공동목표로 선언문에 채택한 바 있다. 또한 FAO는 농촌이 식량생산 이외에도 다원적 가치를 지녔으며, 이런 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미래사회를 좌우할 것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국제농업협상에서 농업보호논리로 농업의 다면적 기능과 농촌 어메니티^{amenity}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급속한 도시화와 농산물시장 개방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촌을 되살리기 위해 농촌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2004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도시민들을 상대로 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시민의 84.2%가 ‘농촌은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국민소득과 여가시간 증대에 따라 농촌을 찾는 도시민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농촌은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비롯해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어메니티 공간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농업 · 농촌의 가치변화

구분	농경사회	산업사회	후기산업사회
특성	• 전통적 가치 : 소농적 가족 경제, 쌀 중심의 자급 농업 공동체 • 삶을 위한 물질적 기초 • 생활문화의 토대	• 근대적 가치 : 인구감소, 도시화, 상업농 확대, 시장경제 통합, 공존적 경제관계 해체 • 농촌의 경제적 가치 중시 • 농업에 공업적 논리 적용	• 탈근대적 가치 : 공생적 가치 추구활동, 산업의 복잡화 • 농촌의 공익적 가치 주목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04.

농촌은 경제적 · 자연환경적 ·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다원적 가치를 지닌다. 경제적 측면에서 농촌은 삶의 필수 요소인 식량을 제공함은 물론, 여러 산업에 필요한 각종 자원을 제공한다. 자연환경적 측면에서는 생태계 유지, 재해 경감, 환경정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농촌은 급격한 도시화로부터 자연을 보호하고 각종 생물의 서식환경을 제공하여 생태계를 유지한다. 논과 밭은 빗물을 지하로 침투시켜 홍수를 예방하고 지하수를 함양한다. 농업 생산과정을 통해 대기 · 수질 정화 등 환경 보전에도 기여한다. 또 농촌은 전통문화 계승과 휴식공간 제공 등 사회 · 문화적 기능을 수행한다.

농촌은 깨끗한 자연을 통해 정신적 안정감과 낭만적인 농촌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며, 전통문화·녹색경관 등 도시민들에게 휴식과 레크리에이션을 제공한다.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

기능	가치	내용
경제적 기능	식량 제공	농산물 생산 및 제공
	자원 제공	생활자원·산업자원의 생산 및 공급
자연환경적 기능	생태계 유지	생물 서식환경 제공
	홍수 예방	논·밭의 지하수 함양
	환경 보전	대기 정화·수질 개선·폐기물 처리
사회문화적 기능	정서 함양	정서적 안정감, 농촌생활, 낭만, 조용함
	전통문화 계승	전통예절, 전통음악, 전통음식, 민속놀이
	휴식 공간 제공	어메니티 체험, 농촌관광, 휴식 공간
	교육의 장	자연, 환경, 전통문화 체험

출처 : 강신검, 『농촌관광』, 대왕사, 2007, 29쪽.

3)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등장

“잘 노는 것이 경쟁력이다.”

산업화시대를 거쳐 정보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여가시간은 그저 남는 시간, 자유시간이 아니다. 자아실현과 재창조의 시간이다. 잘 노는 것이야말로 지식기반 사회를 지탱하는 창조력의 원천이며 경쟁력이다.

근로환경 또한 2004년부터 주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면서 크게 변했다. 주5일 근무제 도입은 단순히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 일에 대한 가치관과 여가에 대한 인식이 변했다. 일의 양보다 질이 중시되면서 일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도 바뀌고 있다. 산업화를 거친 고도 성장기에는 ‘노동이 곧 생산’이라는 사고가 지배했지만, 이제 ‘여가도 생산’이라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전환과 함께 여가생활은 고급화·다양화·대중화될 전망이다. 시간적 여유가 늘어나면서 여가를 즐기는 방식은 돈을 소비하던 형태에서 시간을 소비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농촌체험



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야외에서 하는 활동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친화적 생태 관광 및 농촌관광이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 산업화시대에 외면 받았던 농촌은 여가시대를 맞아 새롭게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농촌은 새로운 여가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농촌에 남아있는 소박한 인정과 전통문화·자연경관 등을 활용한다면 답답한 도시를 탈출하려는 도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가를 즐기는 방식의 변화와 함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추구하는 웰빙(well-being) 소비가 확산되고 있다. 웰빙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의미한다. 농촌관광이 지향하는 ‘자연 속에서의 편안한 휴식, 생명가치의 존중’의 정신은 웰빙의 가치와 맥을 함께 한다. 웰빙 소비와 함께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풍요를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관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답답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가활동을 즐기려는 욕구가 더욱 강하게 표출되면서 푸른 자연과 인정이 남아 있는 농촌에 대한 기대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민들이 농업과 농촌에 기대하는 것은 매우 다면적이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신선한 농산물, 자연 관찰과 체험을 통한 육체적·정신적 재충전, 아름다운 농촌경관 속에서 즐기는 휴식, 개성적인 지역문화와의 만남 등 도시민과 농촌이 교류를 통해 공생하는 새로운 생활방식을 추구한다.

4) 새로운 가능성, 농촌체험마을

생산성·경제성만을 놓고 경쟁력을 따진다면 우리 농업과 농촌은 확실히 위기다. 그러나 위기 속에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이 주목을 받는 한편,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여가시간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등장하면서 도시민들의 농촌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민들에게 농촌 지역은 단순히 여가를 즐기는 공간을 넘어선 값진 공간이다. 치열한 경쟁 속에 지쳐 있는 도시민들에게 농촌 지역은 전원적 ‘유토피아’로 여겨지는 측면이 있다. 도시보다 단순하고,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의미 있는 공간으로 느끼는 것이다. 이런 시대적 변화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농촌관광, 농촌체험마을이다.

농촌체험마을에서의 체험이란 주로 감자 캐기·고구마 캐기와 같은 농업체험



농촌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농촌체험마을

과 인절미 치기와 같은 음식체험, 주말농장·농가에서 하는 민박, 지역축제 참여, 마을을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방문하여 농산물 구매하기 등 도시민들이 마을에 와서 하는 교류활동을 의미한다. 농촌은 그 자체로 거대한 ‘체험학교’ 이자 ‘상상력의 창고’라 볼 수 있다.

2001년부터 정부의 주요정책으로 시작된 농촌체험마을은 전국적으로 500개가 넘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천시에도 부래미마을을 비롯해 산수유마을·서경들마을·도니울마을·자채방아마을·우무실마을 등이 있다.

2. 100가지 체험여행, 이천농촌나드리

1) 이천 농촌체험마을

울면 부래미마을

이천에서 가장 먼저 농촌체험마을을 시작한 곳이 부래미마을이다. ‘부래미’라

는 이름이 참 예쁘다 생각했는데, 이름에 재밌는 어원과 의미가 담겨 있었다. 부래미 마을은 원래 불암리로 불렸다 한다. 마을에 부처 형상을 닮은 바위가 있었기 때문이란단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발음이 변해 ‘부래미’로 불리었다. 여기서 얘기가 끝났다면 ‘부래미’는 그저 뜻 없이 불리는 이름에 불과했을 거다. 그런데 2003년 부래미마을이 체험마을로 지정되면서 마을 어른들이 새로운 의미를 담았다. 부자 부富, 올래來, 아름다울 미美! ‘마을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부자 되시고 아름다워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마을 이름에 담은 것이다. 이름에서부터 따듯한 마음이 전해져 온다.

부래미마을은 체험의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가장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는 체험마을이다. 2003년에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이후 2004년에는 정보화마을과 슬로푸드 체험마을로, 2011년에는 체험휴양마을로, 2013년에는 농어촌 인성학교로 지정되었다. 2014년에는 부래미마을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고 2016년에는 자유학기제 체험장소로 지정되었다.

부래미는 읍면에 자리한 조그마한 시골마을이다. 천혜의 자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푸근한 인정이 넘치는 곳이다. 마을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마을 안내도다. 마을을 찾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마을을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부래미마을은 부래미 쌀농장을 비롯해, 물이 맑은 석산저수지를 활용한 ‘물고기 나라’라는 테마 공간, 마을회관, 인절미떡 체험장이 있다. 마을회관 맞은편에는 그린스쿨이 있고, 그 옆에 작은 공원과 모내기 체험장, 다목적 체험관, 포도농장과 짚공예장, 이상옥 배농장이 있다. 그곳에서 작은 숲길을 따라 올라가면 우당도예원과 남해인 자연염색체험장이 있다. 이외에도 논이 습지형태로 있다가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생태공원도 있다.

통나무로 만들어진 그린스쿨은 투박하지만 묵직한 느낌이 인상적인 건물이다. 더욱 감동적인 건 주민들의 땀과 눈물로 그 건물을 직접 완공했다는 사실이다. 2002년 부래미마을이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지정받은 후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린스쿨 시공비의 많은 부분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만 했다. 마을 소유의 공동 토지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들은 농사일을 끝낸 뒤 밤늦게까지 공사에 참여했다고 한다. 외지에서 마을로 귀농한 도예가가 벽화를 그리고, 전직 건설회사 현장감독이 총책임을 맡는 등 주민들 모두가 발 벗고 나서서 만들어낸 한 편의 드라마였다.



부래미마을
다목적 체험관



부래미마을
메뚜기축제 참가자들

이렇게 그린스쿨이 완공되면서 부래미마을의 녹색농촌 체험사업은 시작되었다. 오랜 시간 농사를 지어온 주민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농사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 자신의 집을 농가 민박으로 활용하는 등 각자의 형편에 맞게 체험프로그램에 기여하고 있다.

메뚜기축제는 부래미마을의 일 년 중 가장 큰 행사다. 이천은 쌀의 고장인 만큼 추수철이면 이천시 각지에서 많은 행사들이 열린다. 그중에서도 ‘부래미 메뚜기축제’는 ‘메뚜기 잡기’라는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세워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

다. 메뚜기는 1980년대 초만 해도 들판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자취를 감췄는데, 아마 농약 때문이지 않나 싶다. 부래미마을에서 메뚜기 잡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건 무농약 쌀을 재배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만큼 무농약 쌀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심이 크다.

메뚜기축제는 좀 더 특별한 게 있다. 재밌는 스토리를 입혔기 때문이다. “가을 걷이가 한창인 가을에 부래미마을에 메뚜기가 출몰하면서 마을 사람들은 시름에 빠지게 된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임금님께 ‘메뚜기를 잡아오는 사람들에게 이천쌀을 나눠주어 메뚜기를 퇴치하자’는 상소를 올린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500명의 메뚜기잡이 용병을 모집하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축제에 참가신청을 한 500명의 참가자가 된다”는 스토리다. 그래서 메뚜기잡이축제는 임금님 복장을 한 마을 이장님의 출발신호로 시작한다. 그리고 종료신호와 함께 메뚜기를 제출하면 이천쌀과 바꿀 수 있다. 메뚜기 잡기라는 재밌는 체험을 가상의 역사적 스토리를 입혀 하나의 놀이로 완성한 점이 흥미롭다.

메뚜기 잡기 이외에도 축제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부래미 활터에서 진행되는 활쏘기, 남해인 염색 선생님과 함께하는 천연염색, 직접 떡메로 쳐서 인절미 만들기, 연탄불 앞에 쪼그리고 앉아 달고나 만들어 먹기, 탈곡기 등을 비롯한 옛 농촌 체험하기 등 다양한 즐거움이 넘쳐나는 축제의 현장이다.

부래미마을에는 메뚜기 가을축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봄에는 딸기를 수확하는 체험을 할 수 있고, 여름에는 감자와 옥수수·토마토 따기를 할 수 있다. 가을에는 메뚜기축제 외에도 포도와 배·귤을 따면서 농촌을 체험할 수 있다. 우리의 옛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데, 천연염색과 도자 만들기 체험, 짚풀공예 등이 있다. 연중 내내 다양한 먹거리 체험도 준비돼 있다. 떡메를 쳐서 인절미도 만들고, 예쁜 문양의 화전도 만들고, 만두와 송편을 직접 만들어 먹을 수도 있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생활에 지친 여행객들에게 휴식과 낭만을, 아이들에게는 유익한 즐거움을 제공하는, 읍면의 부래미마을이다.

백사면 산수유마을

봄을 가장 먼저 전해준다는 봄의 전령사, 산수유. 수도권 최대의 산수유 군락지



백사면 산수유마을 '연인의 길'

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 백사면 산수유마을이다. 산수유마을은 원적산 자락에 터 잡고 있는, 조그마한 산골마을이다. ‘산수유나무 한 그루만 있어도 자식 대학공부까지 시킨다’는 옛말이 있다는데, 이곳은 산수유 돌레길 덕에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 인위적으로 꾸며놓고 관광객들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산수유 농사를 짓다가 입소문이 퍼지면서 유명해졌다고 한다.

산수유마을을 품고 있는 원적산은 이천시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원적봉 기슭에는 선덕여왕 7년에 창건했다는 ‘영원사’라는 사찰이 있다. 이 영원사를 향해가는 길에 산수유나무가 대군락을 이루고 있다. 5만여 평의 땅에 1만 7,000여 그루의 산수유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수령이 100년이 넘는 것들도 많아서 산수유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봄철이면 황금빛 물결이 일렁이며 장관을 연출한다.

대개 3월 말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여 4월 10일 전후로 산수유꽃은 절정을 이룬다. 이천시에서는 때맞춰 4월 초순경에 산수유꽃축제를 개최한다. 군악대 공연·벨리댄스 공연·퓨전국악 공연 등 행사장에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고 행사장에서 주차장까지의 구간에서는 다양한 먹거리와 산수유로 만든 과자·차·술 등의 건강식을 판매한다.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풍족한 축제의 한마당이다.

산수유 군락지만큼 인기를 끄는 곳이 또 있다. ‘연인의 길’이라 불리는 산책로인데, 나지막한 돌담에 구불구불한 고샅길이 정겨운 곳이다. ‘연인의 길’이라는 이



산수유마을 사랑채

름만큼 사랑스러운 풍경을 연출하는 곳이어서 산수유마을의 포토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산수유마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육괴정’이다. 육괴정은 조선 중종 14년 기묘사화 때 난을 피해 낙향한 남당 엄용순이 건립한 사당이다. 육괴정이란 당대 선비였던 김안국·강은·오경·임내신·성두문·엄용순 등 6명이 연못 주변에 각자 한 그루씩 모두 6그루의 느티나무를 심었다는 데서 유래했다. 이때부터 산수유나무를 심기 시작해 대단위 군락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선비들이 심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이곳에서는 산수유꽃을 선비꽃이라 부르기도 한다.

산수유마을은 산수유축제로 먼저 유명해진 마을인데, 그 유명세를 기반으로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산수유마을에서는 산수유를 이용한 쿠키·초콜렛 만들기, 비누 만들기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산수유 사랑채도 2016년 완공되어 관광객들이 더욱 편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산수유 둘레길 속에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백사면 산수유마을이다.

모가면 서경들마을

서경들마을은 모가면 서경리에 위치한 농촌체험마을이다. 이 마을은 서남땅에 있다고 해서 서경들로 불렸고 지형이 소가 밭을 가는 형상이라고 해서 ‘쇠경들’이라고 부르다가 발음이 어려워 ‘서경들’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서경들마을은 이천시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쌀과 유리온실재배 등 농업과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최근에는 테르메덴온천이 최고의 온천지로 꼽히면서 서경들마을은 전통과 자연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쉼터로 각광받고 있다.

과거 임금님 수랏상에 올랐던, 최고의 명품쌀을 생산하는 이천. 그중에서도 서경들마을은 지금도 임금님표 쌀이 생산되는 지역이다. 쌀과 함께 서경들마을을 대표하는 작물은 대두콩이다. ‘서경들 된장’은 서경들마을에서 수확한 100% 무공해 콩으로 전통 제조법에 따라 만든 것이다. 된장을 비롯해 청국장·고추장·간장 같은 전통 장류를 생산·판매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서경들마을은 150여 세대가 웅기종기 모여 사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이곳

모가면 서경들 농촌체험마을



서경들마을 전통주 체험장



서경들마을 열기구 체험

이 매년 많은 이들이 방문하는 농촌체험마을로 성장하는 데는 서경들의 전통 장류가 큰 몫을 했다. 시작은 1992년 메주를 만들어 판매한 것에서 비롯, 1999년에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상표등록을 함으로써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다. 마을 분들이 힘을 합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07년에 슬로푸드 사업에 지정되어 ‘술마을’로 슬로푸드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다. 또 2013년에는 외국유치 ‘Rural-20’¹⁾, 초·중·고 인성함양을 위한 ‘농어촌 인성학교’에 지정되었고 2015년에는 팜스테이마을로도 지정되었다. 해마다 많은 학생들이 서경들마을을 찾아 팜스테이를 즐기고 있다. 다양한 농촌체험을 하기 위해 이곳을 찾는 이들이 매년 늘어나면서 2016년에는 방문객수가 1만 5,00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서경들마을은 중부고속도로에 새롭게 만들어진 남이천IC에서 가깝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편해서 접근성이 좋다. 마을에 들어서면 전통과 현대미가 적절히 어우러져 소박한 아름다움이 눈길을 끈다. 그리고 각종 체험장이 적당한 곳에 위치해 있어 다양한 체험을 경험하기에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마을 입구에 있는 안내지도를 보면 서경들마을에서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지 한눈에 볼 수가 있다. 종합체험장, 슬로푸드 체험장, 장류 숙성실, 전통 장류·전통주 제조시설, 전통주 체험장, 황토미꾸라지 체험장, 생태체험 연못 등 체험시설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다. 전통장류가 유명한 서경들마을은 각종 체험장과 함께 전통 장류 판매장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매장에는 된장·고추장·청국장·간장·메주·고추부각 등 마을 주민들이 직접 키워서 제조한 전통 장류들이 전시·판매되고 있다.

서경들마을은 체험거리가 풍부하다. 전통 장류로 유명한 곳인 만큼 장류와 관련된 체험프로그램이 많은 것이 특색이다. 매년 2월 말에서 3월 초에 전통장의 우수성을 알리고 장맛의 맥을 잇기 위한 장담그기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계절마다 다양한 농산물 수확과 함께 장류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된장과 고추장·청국장 등 종류도 다양한데 계절마다 수확하는 농산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는 장 담그기도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봄에는 주로 된장을 만들고 여름에는 주로 콩

1) 테마를 따라 떠나는 농어촌 여행, Rural-20 프로젝트 : 농림축산식품부가 우리 농어촌의 아름다움을 홍보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 Rural-20 프로젝트는 한국적 경관과 전통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농어촌체험마을을 매년 20개씩 선정하고 홍보하는 것으로, 테마는 체험·자연·전통문화·웰빙 등으로 구분된다. 각 마을은 지역 전문가들이 개발한 다양한 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 코스를 통해 관광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을 이용한 청국장과 손두부를 만든다. 이곳의 콩은 친환경에다 품질이 좋기로 유명하다. 콩 때문에 얻는 농가 수익이 다른 농가의 3배가 넘는다고 하는데, 체험을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거의 무료로 제공된다. 이외에도 손두부·전통주·다식·인절미·묵 등의 만들기 체험이 가능하며 황토미꾸라지 체험장이 별도로 마련돼 있어 미꾸라지 잡기 체험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는 서경들마을에는 좀 더 특별한 것이 준비돼 있다. 그것은 열기구체험이다. 열기구의 비행 원리와 작동하는 방법을 직접 보고 배우며 열기구를 타고 지상 10~20m를 올라가 보는 과학항공체험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프로그램일 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마을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이다. 안전을 생각해 바람이 심하지 않은 날에만 운행한다.

농촌체험마을의 성패를 가늠하는 3가지 요건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쾌적한 환경 조성, 그리고 마을 분위기가 아닐까 싶다. 서경들마을은 그런 점에서도 모범적이다. 농촌체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 것 같기도 한데, 이곳 주민들은 이 작업을 즐겁게 하고 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이 협조적으로 하니까 문제는 없어요…… 외부적으로 우리 마을을 알릴 수 있어서 오히려 기분이 좋습니다.” 마을 이장인 한대수 어른의 말씀이다. 마을 주민들이 단합해서 농촌체험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저력은 벌써 30년 가까이 진행해 온 ‘서경들마을축제’에서 찾을 수 있다. 매년 8월 15일이면 동네 주민과 외부에서 온 체험관광객들이 하나가 되어 즐기는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가 ‘서경들마을축제’인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부터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즐기며 노는 축제다. 이렇게 동네가 떠들썩하고 행복한 기운이 가득한 곳, 마을 곳곳에 걸려있는 메주향이 더욱 옛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전통의 고장, 서경들마을이다.

대월면 도니울마을

대월면 도리리에 위치한 도니울마을은 원두천과 양화천 사이의 평야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지대가 넓고 토질이 좋은 이곳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임금님표 이천쌀의 대표 브랜드 생산지다. 명품쌀 이외에도 햇사레 복숭아·고구마·서리태·고추 등 명품 과일과 채소의 생산지다. 물 맑고 공기 좋고 여기에 건강



대월면 도니울마을 농촌체험장

한 먹거리까지 더해져서인지 도니울마을은 100세 이상의 장수 노인들이 많다. 건강장수 마을로 알려져 있다.

‘도니울’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마을 뒤로 보이는 야트막한 산봉우리인 소도니봉에서 비롯되었다. ‘소도니봉’에서 ‘도니’가 분리되어 여기에 울이 합쳐져서 도니울이라는 이름이 탄생한 것이다.

이름의 유래가 될 만큼 소도니봉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소도니봉은 청동기 시대 벼농사가 일반화되는 사회에서 철기시대로 접어드는 때에 형성된 소도蘇塗의 한 형태라고 한다. 소도는 삼한시대 각 고을에 방울과 북을 단 큰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드리

도니울마을에서 고구마 캐기를 체험하는 청소년들



던 곳이다. 그 시절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아래 위를 보면서 손과 발이 서로 응하도록 춤을 추었다고 한다. 당시의 사회가 농경 위주였던 만큼 매우 큰 행사였을 것이다. 그것은 자연히 술 마시고 노래하는 커다란 축제이기도 했다. 도니올마을은 농경사회의 커다란 축제였던 소도문화의 정신을 잘 계승해가고 있다. 5월 파종이 끝난 뒤나 추수가 완료되면 소도에서 제사를 지냈듯이, 도리리에서는 매년 추수 기간이 되면 소도문화를 계승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열고 있다.

도니올마을은 ‘소도’의 전통문화와 명품쌀 단지의 친환경 무농약 이미지를 되살려 2007년 녹색체험마을로 지정되었다. 이와 동시에 정보화마을로 지정되어 2009년부터는 마을회관과 식당, 다양한 체험장을 마련했다.

명품쌀을 생산한다는 자부심이 대단한 곳이어서 농사체험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다. 4월초 모판에 직접 벼씨를 뿌리는 도니올 벼씨뿌리기를 비롯해 모내기 체험, 고추 수확 체험, 표고버섯 따기, 미꾸라지 잡기, 복숭아 따기, 고구마 캐기 등 계절에 맞게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농사체험 외에도 짚풀공예와 전래놀이 체험·천연 염색과 같은 전통문화 체험과 가마솥밥 짓기·떡메치기·순두부 체험 같은 전통음식 체험이 가능하다.

도니올마을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는 ‘도니올 둘레길’이다. 외딴 곳에 떨어져 있지 않고 마을회관에서 바로 이어지는 도니올 둘레길은 오래된 참나무들이 동굴처럼 우거져 있어 환상적인 산책을 할 수 있다.

대월면 자채방아마을

쌀의 고장으로 불리는 이천. 이천의 모든 곳이 쌀로 유명하다. 그런데 이 쌀을 농촌체험의 테마로 내세운, 용기 있는 곳이 자채방아마을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마을의 이름부터 ‘자채_{紫采}’라는 벼품종에서 유래했다.

자채_{紫采}벼는 이천을 중심으로 인접해 있는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되었던 양질의 올벼라는 뜻이다.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옛 농업관련 문헌에 따르면 자채벼는 경기 남부의 일부 지방에서 재배하는 재래종으로, 품질은 좋고 수량은 적으며 성숙기가 매우 빨라 햅쌀시장에서 항상 10% 이상의 높은 값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자채벼는 이천지역을 중심으로 몇 개 군에서만 재배하였으며, 그 재배면적이 전체의

4~5%에 불과했다. 이처럼 재배면적이 작은 이유는 자채벼 생산을 위해서는 토질이 비옥하고 관개에 양호하며 유기질이 충분해야 하고, 제초 및 관리에 많은 노력이 들기 때문이다. 자채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벼 상태일 때는 붉은색이 감돈다. 하지만 밥을 지으면 푸른색을 띠면서 기름이 자르르 흐르고 밥맛이 좋아 왕에게 진상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자채벼를 물레방아에 찌서 먹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자채방아마을이다. 이천의 모든 곳이 쌀로 유명하지만, 특히 자채방아마을은 세종대왕의 큰 형이었던 양녕대군의 식읍이었기 때문에 더 유명하다. 태종의 장남이자 세종대왕의 큰 형인 양녕대군은 세자에서 폐위된 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풍류를 즐기며 인생을 마쳤는데, 그중 오랜 시간을 이곳 자채방아마을에서 지냈다고 한다. 양녕대군이 머문 마을답게 양녕대군 역사관을 조성해 기리고 있다.

대월면 군량리 자채방아마을은 100여 가구가 거주하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마을 입구에는 자채대장군과 방아여장군 장승이 우뚝 서서 마을을 지키고 있다. 마을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대월면 자채방아마을 농경문화 체험장



자채방아마을의 다양한 방아들. 왼쪽부터 연자방아, 디딜방아, 물레방아



자채방아마을에서 감자 캐기를 체험하는 유치원생들

선조들이 사용하던 물레방아 · 디딜방아 · 연자방아 등 다양한 방아들이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 경외감이 든다. 이외에도 요즘은 보기 힘든 다양한 농기구를 전시해서 쌀농사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여준다. 농경문화 전시관 외에도 농경문화 체험장 · 냇가 물놀이장 · 활터 등이 있어 다양한 농촌문화체험을 할 수 있다.

매년 1만 5,000여 명의 방문객을 맞이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자채방아마을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다. 2015년에는 우수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으로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시민들에게 식생활 체험과 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된다. 자채방아마을은 쌀을 테마로 한다. 벼에서부터 시작해 밥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 쌀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요한 체험으로는 100% 이천쌀로 만드는 쌀전뽕 만들기 체험과 게걸무² 시래기밥 체험이 있다. 직접 재배한 게걸무의 시래기는 질기지 않고 고소한 맛이 특징이다. 쌀에 게걸무를 섞어 밥을 지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좋다. 게걸무 체험은 특히 인기가 좋은데, 도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의미가 있다. 생활 속에서 우리 쌀과 밥의 우수성을 이해하고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식생활 태도를 기르게 하는 것이 이 체험의 목적이다. 이외에도 말 창조 마을이 조성되고 캠프장도 새롭게 마련되어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억새가 살랑이는 개울에서 미꾸라지를 잡고 무우정에 누워 들바람을 쐬며 야트막한 야산에서 쭉 캐는 풍경을 볼 수 있는 곳, 시골다운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 마을, 그곳이 바로 자채방아마을이다.

노승산 우무실마을

설성면 수산리에 위치한 우무실마을은 노승산의 푸르른 정기를 온몸으로 만끽하며 녹색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우무실마을을 품고 있는 노승산은 노스님이 시주בות 집을 지고 서 있는 뒷모습을 닮았다 하여 ‘노승산’ 이라고 불리는데, ‘노성산’ 혹은 ‘노송산’ 이라고도 불린다. 노승산의 샘물이 좋아 하나의 마을을 이루

2) 게걸무: 이천의 토종무. 아무 데서나 잘 자라고 별레나 바람이 잘 들지 않는다고 붙여진 이름.



설성면 노승산 우무실마을



우무실마을의 체험프로그램을 즐기는 시민들

게 되고 그래서 그 마을을 ‘우무실’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일설에는 주변에 비해 우묵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데서 이름이 유래했다고 하는가 하면, 예부터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준 유명한 우물 때문에 ‘우무실’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얘기도 있다. 마을 한복판에 우물이 자리하고 있는 걸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닐지도 모르겠다. 이 우물을 배경으로 ‘누가 누가 물항아리를 빨리 채우나’ 재래식 우물체험, 펌프로 물을 길러보고 물지게로 물을 나르는 북청물장수체험을 진행하기도 한다.

우무실마을은 농촌체험마을 사업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민들의 열의는 더 뜨거워 보였다. 주민회관의 한 벽을 가득 채우고 있는 주민들의 각종 수료증과 자격증이 그 증거다. 농촌체험 프로그램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기 위해 헌신하는 모습에 더욱 신뢰가 갔다. 이뿐만이 아니다. ‘노승산 우무실’이라는 브랜드명을 토대로 BI(Brand Identity)를 제작해 ‘우무실마을이 산 좋고 물 맑은 곳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고 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우무실마을은 주민들의 의욕만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들이 준비돼 있다. 봄에는 모내기, 여름에는 미꾸라지 잡기 등 계절에 맞는

농사체험을 할 수 있고 떡메치기·쭈개떡 만들기·김장체험 등 향토음식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이외에도 굳지 않는 우리 쌀떡을 가지고 꽃·동물·전통떡 등 다양한 클레이 작품을 만드는 우리 쌀 클레이 프로그램, 북청물장수체험·트랙터 마차타기·전구화분 만들기 등 이색적인 체험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매년 10월 추수철에 개최하는 메뚜기축제도 우무실마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다.

2) 농촌마을 체험기, 우무실마을에서 메뚜기를 잡다

시작은 막연한 향수^{鄉愁}였다. 추석이 지나고 며칠 뒤, 오랜만에 대학 동창생 5명이 뭉쳤다. 경력 20년이 넘는 베테랑 주부들이지만 여전히 명절 고비 하나를 넘길 때마다 피로와 울분이 쌓이는 건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심신의 피로를 푸는 데는 역시 수다가 최고다.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건 주름과 뱃살, 그리고 입심이다. 식당을 들어설 때만 해도 새초롬하게 점잔들을 빼고 있더니, 어느새 이 집이고 저 집이고 별반 다를 게 없는 명절 뒷담화(?)가 난무했다. 그러나 그 기세가 예전만은 못했다. 다들 늙는 모양이다. 한 친구가 자조적으로 “요즘은 시댁보다 세월이 더 무섭더라!”고 하자, 박장대소하며 맞장구를 쳤다. 웃음의 뒷맛은 어쩔 수 없이 씹쓸했다. 얘기는 우리가 함께 했던, 젊은 날에 대한 추억으로 시작해서 과거로, 과거로 흘러갔다.

그때 “우리 시골여행이나 한번 갈까?” 나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온 말이었다. 시골여행을 정말 가자는 의미는 아니었다. 그저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위안이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무심결에 ‘시골’이 튀어나온 거다. 내 잠재의식 속 유토피아가 시골이었다니! 놀라운 발견이었다. 그런데 예상외로 친구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 뜨끈뜨끈한 시골 구들방에서 퍼질러 자고 일어나면 힐링이 될 것 같다는 친구, 대학 때 농활 가서 땀 흘리고 난 뒤에 먹었던 수박 맛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는 친구, 남편이 은퇴하면 시골로 내려가서 살까 궁리 중이라는 친구……. 시골에 대한 판타지 한두 개는 다들 갖고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무심결에 뱃은 내 말이 씨가 되었다.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다 이왕 가는 거 여행이 아니라 농촌체험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겠냐고 낙향을 궁리 중인 친구가 제안을 했다. 여행이 아니라 농촌체험? 다들 생소해 하자, 친구가 말했다. “가서



메뚜기 잡기에 열중한
행사 참가 시민

휘 둘러보고 밥만 먹고 돌아오면 그게 시골이니? 관광지지. 시골이 뭐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삶이 있어야 시골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행 말고 체험을 하자고, 시! 골! 체! 험!”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우리만 모르고 있었지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마을이 많이 있었다. 그중에 우리의 눈길을 끈 것은 이천시의 ‘메뚜기축제’였다. ‘메뚜기는 요즘 구경하기도 힘든데, 잡을 메뚜기가 있는 걸 보면 무농약 재배를 하는 게 분명하다’며 친구가 두 눈을 반짝였다. 이천시에서 ‘메뚜기축제’를 하는 곳은 ‘부래미마을’과 ‘우무실마을’ 두 곳이었다. 두 곳 중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자동차를 가지고 오기로 했던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 집안 사정으로 같이 못갈 것 같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한 ‘우무실마을’로 행선지를 정했다.

10월 15일 일요일, 농촌체험 디데이. 서울에 흩어져 살고 있는 친구 셋이 아침 일찍 판교역에서 만났다. 명색이 농촌체험인데, 덜컥거리는 시골버스가 아니라 쾌적한 전철을 타고 편안하게 이천에 도착했다. 우무실마을은 이천역에 내려서 시내 버스로 한참을 더 들어가야 했다. 우리가 탄 버스가 비포장도로에 흙먼지를 날리며 달리는 시골버스는 아니었지만, 한적한 시골길을 내쳐 달린 탓에 ‘아, 시골이구나!’ 하는 기분을 조금은 낼 수 있었다.



탈곡기를 이용한 벼 타작을 체험 중인 아이들

그런데 막상 우무실마을에 도착하고 보니 우리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나 하는 당혹감이 밀려왔다. 어린아이들을 동반하지 않고 온 일행은 우리가 거의 유일해 보였다. 역시 축제의 중심은 아이들이인 모양이다. 그제야 이 축제의 메인인 ‘메뚜기 잡기’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에게 훨씬 어울리는 체험이라는 생각과 함께 걱정이 밀려들었다. 오십견에 시달리는 아줌마 셋이 과연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메뚜기를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을까?

메뚜기 잡기는 11시부터 시작한다고 하니 일단 걱정은 접어두고 축제 행사장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행사장에는 물레체험 · 도자기체험 · 공예체험 · 인절미체험 · 타작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부스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일러서인지 분위기가 썰렁했다. 아이들은 체험부스가 아니라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고, 어른들은 멀찍이서 구경들만 하는 분위기였다. 그나마 인기를 끄는 건 타작체험이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벼 탈곡기를 이용해 타작체험을 하는 건데,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나도 처음 보는 거였다. 옆에서 계시던 동네 어르신이 ‘탈곡기가

돌아갈 때 ‘와롱와롱’ 소리가 난다고 해서 ‘와롱기’ 라고 부른다’ 고 설명을 덧붙여 주었다. 그 설명을 들은 아이들이 와롱기가 돌아갈 때 ‘와롱와롱’ 합창을 했다.

역시 본격적인 축제는 메뚜기 잡기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메뚜기를 많이 잡은 사람은 3등까지 푸짐한 상품을 준다는 말에 순간 술깃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나이가 들면 몸놀림이 느려지는 만큼 현실인식이 빠르다. 포기가 쉽다는 얘기다. 그래도 메뚜기 구경이라도 하자 싶어 다른 사람들을 따라 논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메뚜기를 잡기는커녕 구경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다. 메뚜기가 없다는 푸념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그 와중에도 잘 잡는 사람들은 또 잘들 잡는다. 우리는 메뚜기 몇 마리 구경한 것으로 만족했다. 요즘 메뚜기는 구경하기도 힘든 귀한 몸이지 않은가.

메뚜기 잡기가 종료된 뒤에는 떡메로 쳐서 인절미를 만들어 먹기도 했고, 호미로 고구마를 캐기도 했다. 아이들은 새로운 경험에 무척 신나했는데, 창피한 얘기지만 나에게도 첫 경험이었다. 고작 고구마 몇 개를 캐는 거였지만 수확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아마 이 재미에 힘든 농사를 짓는 거겠지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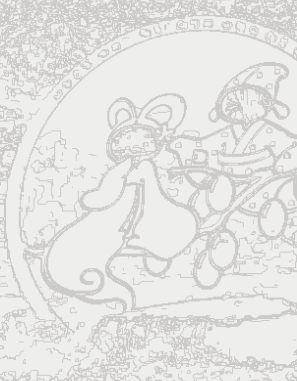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몸은 피곤했지만 머리는 더 맑아진 느낌이었다. 농촌체험을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좋았다. 맑은 공기가 좋았고, 신선한 먹거리도 좋았고, 오랜만에 땅을 실컷 밟아본 것도 좋았고, 처음 해본 고구마 캐기도 좋았고, 유명드라마의 명대사처럼 ‘그 모든 게 좋았다’. 그리 멀지 않은 어느 날, 나는 또다시 농촌체험을 하러 이천 행 전철에 몸을 실을 지도 모르겠다.

참고문헌

- 강신검, 『농촌관광』, 대왕사, 2007.
- 안중현, 『농촌 관광 마을 만들기』, 한국학술정보, 2007.
- 배은석, 『에코뮤지엄』, 북코리아, 2013.
- 강신검, 「여가시간 확대와 녹색관광의 발전방향」, 『한국관광농업학회』 8(2), 2001.
- 이강욱, 「주 5일근무제에 따른 국내관광변화 전망」, 한국관광연구원, 200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04.
- 안윤수 외, 「농촌의 사회문화적 공익기능 가치평가」, 『농촌사회』 15(1), 2005.
- 농림부, 「농업·농촌의 가치 재인식과 정책과제 : 농업의 다원적 기능」, 2006.
- 도니울마을(<http://doniwool.invil.org>)
- 부래미마을(<http://www.buraemi.com>)
- 서경들마을(<http://www.seogyeong.kr>)
- 우무실마을(<http://2000umusil.com>)
- 이천농촌나드리(<http://www.2000green.com>)
- 자채방아마을(<http://이천자채방아마을.com>)

03

무인농장시대, 첨단을 달리는 농부들





박태현 | 방송작가 · IT전문대학 강사

제3장 무인농장시대, 첨단을 달리는 농부들

1. 첨단농업과 무인농장시대

국화꽃이 활짝 피어 있는 온실에서 로봇이 꽃의 개화 상태를 살펴본 후 국화를 꺾어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린다. 컨베이어 벨트에 실린 국화는 고객이 주문한 종류와 수량별로 자동 분류되어 포장작업장으로 이동한다. 국화가 포장작업장에 도착할 때까지 그 어디에도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SF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다. 네덜란드 첨단 화훼농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네덜란드 화훼농부들은 온실에 들어갈 일이 거의 없다. 자동화로 파종을 하고, 꽃의 생장과정에 필요한 온도·습도·급수량, 빛과 토양의 영양분까지 온실 밖에서 컴퓨터를 통해 체크하고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에서는 꽃을 심는 작업에서부터 관리·수확·포장까지 전 과정이 자동화되었다. 그 결과, 4ha 규모의 화훼재배 온실을 관리하는데 노동자 1명으로도 충분하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세계 첨단 농업의 현주소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첨단농업은 어떤 모습이며 특히 이천의 첨단농업은 어느 수준까지 왔을까?

1) 스마트 팜과 이천

농업이 먹을거리만 제공하는 1차산업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과학은 농업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확장해 왔다. 최근에는 바이오·IT·로봇·반도체 등 첨단기술이 농업에 접목돼, 농업은 이제 식량생산을 넘어 ‘녹색성장’의 한 축으로 부상했다.

네덜란드의 무인 화훼
농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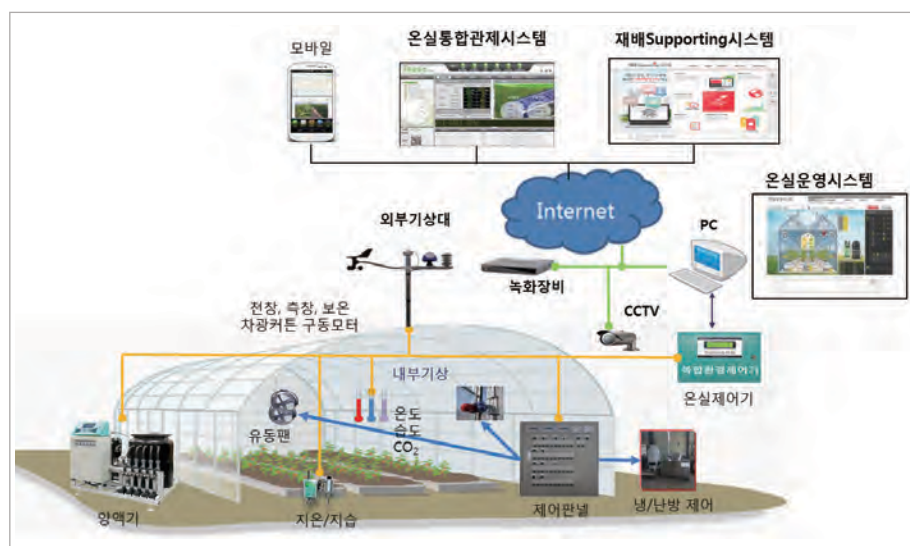
네덜란드 국제 화훼무
역박람회(출처 : 조인
폴리아 틸란 이야기)



우리나라 첨단농업은 1990년대 초반 우루과이라운드 대응방안으로 당시 정부가 네덜란드의 유리온실과 복합 환경제어시설을 우리 화훼농가에 보급하면서 시작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IT산업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며 농업에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즉 정보기술을 결합한 ICT 융복합 농업이 탄생했다.

농업에 정보기술을 융합해 탄생한 스마트 팜은 IoT(사물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의 ICT를 이용해 농업을 정밀하게 운영하여 고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줄어드는 농촌지역 노동력을 보완하고자 하는 기술이다. 스마트 팜은 농작물 재배시설의 온도·습도·햇볕·이산화탄소·토양 등이 컴퓨터에 의해 측정 분석되고, 그 분석결과에 따라서 제어장치를 구동해 농작물이 성장하는 최적의 상황으로 전환·유지시켜 준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농장의 원격관리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스마트 팜의 현 상황을 보면, 주로 시설원예 분야에 많이 적용돼 그 기술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아직 그 수가 미미하지만 축산분야에서도 스마트 팜이 도입됐고, 과수 등 노지재배까지 스마트 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스마트 팜은 보통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세 단계로 나눈다. 1세대는 농작업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업에 스마트기술을 접목해서 농민이 영상을 통해 직접



스마트 팜 개요도
(출처: KT)



스마트 팜으로 재배 중인 파인애플과 딸기(백사면 상용리)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단계이다. 온실을 벗어날 수 없었던 농민들에게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온실을 관리할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2세대부터 본격 스마트 팜이라 할 수 있다. 2세대 스마트 팜은 온실 내의 각종 장치를 통해 인식되는 온도와 습도·햇볕 등 작물의 생육환경을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 자동으로 분석·제어해 재배기술을 상향평준화함으로써 생산량·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단계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2단계 스마트 팜이 진행되고 있다.

3세대는 말 그대로 스마트한 농업이다. 온실의 각종 센서를 통해 온실 내외부의 환경을 측정하고 이에 맞게 작물의 생육환경을 알아서 조절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제어기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한편 로봇 농작업기가 도입돼 농작업의 효율화를 동시에 도모하게 된다. 네덜란드의 첨단 화훼농장들은 제3세대 스마트 팜에 속한다.

이천시에서 스마트 팜이 시작된 것은 2014년으로, 시설재배 화훼농가들을 중심으로 ICT기술이 도입됐다. 현재 이천시에는 180여 곳의 화훼농가들이 있다. 그중에서 스마트 팜 요건을 갖춘 곳은 ‘국화이야기’, ‘동산농원’, ‘하일농원’, ‘태양농원’, ‘창대농원’ 등 다섯 개 농장과 ‘CS종묘주식회사’·‘알파육묘장’ 등 두 곳의 육묘장뿐이다. 이들 일곱 개 스마트 팜의 현 상황은 휴대폰으로 농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있으며, 물을 주고, 온도 조절도 할 수 있는 상태, 즉 제 2세대 스마트 팜에 속한다.

‘이천’ 하면 ‘이천쌀’과 ‘임금님표 쌀’로 유명한 쌀 생산지로 수도권에 얼마 남지 않은 농업지대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농업이 강세였고, 농업이 중심산업이었던 이천시의 특성상 2014년에 시작된 스마트 팜의 본격 도입이 빠르다고는 볼 수 없으며, 스마트 팜 도입 농가수도 아직 손꼽을 정도로 적다고 할 수 있다.

ICT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우스 형식이 연동으로 최소 500평에서 1,000평 이상 규모가 돼야 합니다. 아직은 노지 농사에 ICT를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많기 때문에, 쌀농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우리 이천에서 ICT, 스마트 팜의 대중화가 되는 데는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습니다.

이천시농업기술센터 화훼팀 신동윤 팀장의 말이다. ICT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온실이 최고 500평, 보통은 1,000평 이상의 규모가 돼야 전자제어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일명 하우스농업으로 지칭되는 시설농가들이 스마트 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큰 온실이 전제조건인데, 농가 대부분이 소규모 영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온실을 필요로 하는 스마트 팜 도입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쌀 중심의 농업이 발달한 이천의 경우 논농사, 즉 노지농사가 주류이기 때문에 온실농업에 적용되는 ICT기술을 도입하는데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

2) 첨단농업의 미래

전통적 산업으로 여겨지던 농업은 최근 생명공학 · ICT · 드론 · 나노기술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도입하며 끊임없이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그야말로 미래를 이끌어갈 첨단지식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인공위성으로부터 받은 위치정보를 이용해 밭을 경작하는 무인 트랙터로 농장을 원격 관리한다. 블루 리버 테크놀로지사Blue River Technology는 식물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식물과 잡초를 구분해서 잡초를 선별 제거하고 비료를 살포하는 로봇Lettuce Bot을 개발했다. 구글은 토양 · 수분 · 작물건강 · 데이터 수집 및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기후악화 대비 신작물 품종개발, 조건 맞춤형 파종에 의한 생산량 극대화, 드론을 이용한 작물재배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ICT융 · 복합 농업기술은 사물인터넷협회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주도로 시설원예와 식물공장을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2세대 스마트 팜이 진행 중에 있으며, 머지않아 토양이 없는 식물공장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식물공장이란 내부에너지장치 · 재배장치 · 광원 · 환경제어가 자동화 로봇에 의해 움직여지는 완전한 무인농장을 말한다. 이 같은 첨단농업이 현실화 되는 미래에 농부는 지금처럼 농장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반대편 휴가지에서 자신의 농장을 컨트롤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미래가 멀지 않았다. 첨단영농의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스마트 농업기술이 종합적으로 잘 구축돼야 하며, 새로운 농업혁명에 대한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2. 첨단을 달리는 이천 농업인들

이천의 첨단농업은 현재 스마트 팜의 선두 주자인 화훼농가, 그리고 소규모 농업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농촌 현실에 맞춘 ‘강소농’이 그 선두에 있다. 강소농은 말 그대로 작지만 강한 농업이 되기 위해 필요한 선진농업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여기에 경영마인드까지 결합해 새로운 농촌을 탄생시켰다. 새로운 농촌의 탄생, 이천농업의 새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첨단농업인들을 만나 본다.

1) 이천 스마트 팜의 대부, 동산농원 김성도 대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어느 시인이 노래한 국화는, 그 꽃을 피우기 위해 봄에서 여름 가을까지 세 개의 계절을 지나왔지만, 이천에는 30여 년을 국화꽃을 위해 국화꽃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 있다.

호법면 단천리에 위치한 동산농원 팻말을 따라 농로에 들어서면 진한 국화향이 먼저 반긴다. 두부모처럼 반듯하게 경지 정리된 농로 양측에 꽤 큰 규모의 유리온실이 쭉 늘어서 있다. 동산농원은 동산리에 제1농장, 단천리에 제2농장을 두고 있다. 동산리농장이 제1농장이 된 데는 동산리에서 동산농원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이다. 2014년 정부와 이천시의 지원으로 ICT 스마트 팜을 시작하면서 단천리에 1,500평 규모의 제2농장을 마련했다. 현재 동산동 제1농장에서는 국화 육종·육묘를 주로 재배하고, 단천리 제2농장에서는 국화 생산을 주로 하고 있다.

호미 대신 마우스를 잡고

동산농원 온실의 외관은 여느 시설재배 온실에 비해 규모가 조금 더 크다는 것 외에는 그 어디에도 첨단 느낌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뤄 생각했던 온실 풍경 대신 제어기기와 모니터들이 나타났다. 온실 내부가 아니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김성도 대표를 본 순간 첨단영농, 스마트 팜을 실감하게 된다.

온실 내부의 CCTV 화면(왼쪽 위)과 온실 내부 상태 모니터(왼쪽 아래)를 점검하는 김성도 대표(오른쪽)



마우스 클릭만으로 켜진 동산농원 온실 내부 채광등



대중가요 ‘칠갑산’ 가사에 나오는 ‘콩밭 메는 아낙네’에서 농부의 이미지를 찾던 시절은 이제 전설 따라 삼천리가 되었다. 스마트팜 농부는 손에 호미가 아니라 컴퓨터 마우스를 잡는다. 온실 내에 설치된 CCTV로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실 내부의 모든 상황을 알 수 있고 통제하며 조절할 수 있다. 스마트팜 동산농원의 온실은 전자동 시설로 물과 양분이 공급된다. 천장의 차양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며,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햇볕이 부족할 경우 채광등이 자동으로 켜지고, 기준 채광량이 채워지면 자동으로 채광등이 꺼진다.

김성도 대표와 인터뷰 도중 교회 봉사활동 중이라는 부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온실 중 한 곳에 차양이 닫혀 있는데 열어줘야 할 시간이 아니냐고 묻는 전화였다. 외부에 있는 부인이 스마트폰으로 농장을 살펴보다가 차양이 닫혀 있는 곳을 발견한 것이다. 컴퓨터에서 차양이 열린 온실을 찾아내고, 마우스를 ‘클릭!’ 하는 것으로 자동으로 차양이 열리는 것을 컴퓨터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국에 나가도 스마트폰으로 농장 상황을 알 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오랜만에 좀 쉬려고 여행 가셔도 자꾸 스마트폰으로 농장을 들여다보게 되니까 그건 좀 불편하더라구요. 하하하.

김성도 대표의 농담처럼, 스마트 팜의 농부는 해외에서도 자기 온실의 내부를 손바닥처럼 살펴볼 수 있다. 국화 파종에서부터 출하까지,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사람의 손을 거쳐야 했던 국화 재배과정의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면서 하루 종일 하우스에 매어있지 않아도 되는 여유가 생긴 것이다. 1984년도에 화훼농사를 시작해서 2014년 스마트 팜 농장으로 바꾸기까지 꼬박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스마트 팜을 갖추기 전까지는 김성도 대표 역시 대부분의 시설재배 농부들처럼 일 년 내내 하우스에 매여 있는 인생이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국화는 내 운명인 거 같아요.” 어떤 사연이 있기에 국화가 운명 같다고 하는 걸까. 김성도 대표에게 국화는 어렸을 때부터 함께 해온 그야말로 동고동락의 대상이다. 여주시 가남면이 고향인 김성도 대표는 초등학교 입학 무렵 서울 천호동으로 이사를 했다. 당시 대부분의 농가들이 일 년 농사지어서 겨우 식구들 끼니 해결하던 시절이라, 김 대표의 아버지는 이왕 농사를 짓는 김에 쌀농사에 비해 소득이 낫다는 화훼농사에 뛰어들었다. 그때가 1965년이였다. 김 대표의 아버지는 화훼 종목 중에서도 국화를 주로 재배했다.

지금은 지천으로 널린 게 비닐이지만 당시에는 비닐하우스에 대해 알지도 못하던 시절이었다. 노지에서 국화를 재배해서 상품이 될 수 있는 꽃을 키워 낸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농기계라고 해 봐야 호미와 쟁이, 삽 정도가 전부였던 시절, 하나에서 열까지 다 사람의 손과 사람의 노동력을 필요로 했다. 농장에는 늘 일거리가 쌓여 있었고, 부지깽이도 일을 거들어야 할 정도로 늘 일손이 부족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사리 손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었다. 이런 이유로 김성도 대표의 초등학교 시절 주

요 하루일과 중 하나가 국화재배와 관련된 일이었다. 학교 갔다 오면 곧장 농장에서 국화를 돌보는 게 당연한 일상이었다. 화훼용 비료는 커녕 일반 비료도 귀했던 시절이니 거름도 다 손수 만들어야 했다. 퇴비를 발효해서 만든 거름을 주고, 암막커튼으로 일조량을 조절하고, 그야말로 지극정성 보살폈지만 상품가치가 있는 국화를 키워 내기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힘도 들고 품도 많이 드는 고된 일이었다. 그래서 그랬을까. 그는 국화를 좋아하는 했지만 아버지처럼 국화농사를 짓겠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다고 한다.

국화라고 하면 신물이 날 정도로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국화와 함께 보낸 김성도 대표는 군 제대 후, 전공을 살려 전기 관련 업종에 취업을 했고, 그 일로 중동 파견 근무를 했다. 중동에서 귀국 후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 모색하던 김 대표에게 국화가 슬그머니 들어왔다. 마치 운명처럼……. 중동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국화농장을 할 만한 땅을 찾아서 서울 인근 수도권 지역을 샅샅이 찾아 다녔다. 당시에 서울은 땅값이 비쌌기 때문에 서울 주변을 찾아다니다가 인천에 땅을 빌려 농장을 지었는데 그게 1984년이였다.

너무 일찍 성공했었어요. 질 좋은 국화재배로 이름이 알려졌고, 방송에도 많이 출연했어요.

1984년에 국화재배를 시작해서, 1987년에는 제법 이름이 알려졌고, 1988~1989년은 그야말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고 한다. 88올림픽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좋았던 덕분에 당시 화훼농가 대부분이 호황이었다. 그 중심에 김성도 대표가 있었다. 1989년의 경우에는 국화 한 해 농사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을 정도로 수입도 좋던 시절이었다. “성공한 청년 화훼 농민!” 당시 김성도 대표 앞에 붙은 수식이었다. 방송과 잡지 출연 요청이 쇄도했고, 고정출연하는 프로그램까지 생겼을 정도로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법이고 호황에도 그들이 있는 법, 농장 땅값이 해마다 뛰었다. 몇 년 호황 후 땅값 고공행진 탓에 어려움이 찾아왔다. 경기가 어렵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보통 소극적으로 대처하기 쉬운데, 그는 그렇지 않았다.

이천 동산농원의 시작

‘이 참에 내 땅을 마련해서 국화농장을 짓자. 이왕이면 고향에서.’ 그렇게 해서 고향 여주 인근 이천 호법면 동산리에 땅을 사서 2,200평 규모의 시설하우스를 손수 지었다. 고생한 보람이 있었다. 이천 동산농원의 국화는 출하되기 무섭게 양재동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등 서울에 있는 꽃 도매시장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 어깨너머로 배워온 그의 국화재배기술은 독보적이었다. 동산농원 국화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1997년도에 대한민국을 강타한 IMF의 강풍에 화훼농가들도 치명타를 입었지만, 동산농원은 끄떡없었다. 국화 품질을 인정받은 덕분이었다. 그런데 IMF 강풍도 비켜온 저력의 동산농원이 하루아침에 위기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폭설로 하우스가 몽땅 다 내려 앉아 버렸어요. 우리만이 아니고, 이 주변 하우스들은 죄다 초토화 됐었어요.

2010년 1월 4일 수도권과 강원도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 특히 수도권은 하루 동안 25.8cm의 눈이 쌓였다. 이천 역시 서울만큼 눈이 쏟아졌고, 하우스 농가들은 순식간에 주저앉는 하우스를 속수무책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김성도 대표 역시 하우스를 다 잃었다. 신년 대목에 맞춰 출하를 앞두고 있던 만개한 국화꽃이 엄동설한에 얼어 쓰레기더미로 변한 모습을 보며 김성도 대표는 자연재해 앞에 무력한 시설재배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다고 한다.

네덜란드 화훼농가 견학, 그리고 첨단 화훼농업에 뛰어들다

김성도 대표는 2005년 네덜란드 화훼농가 견학을 처음 다녀왔다. 네덜란드 첨단 화훼농가들을 견학하면서 전자동 농장시스템, 그리고 자연재해에도 끄떡없는 농장의 첨단시설이 부러웠지만 우리나라 실정과는 동떨어진 외국의 경우라고 생각했다. 처음 네덜란드 견학을 마치고 온 후 종묘의 값어치를 깨닫고 직접 자가육묘에 뛰어 들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첨단농업 스마트 팜은 시기상조라 생각했었다. 그랬던 그가 2010년 폭설로 모든 것을 잃고 난 상황에서 농장을 첨단 스마트 팜으로 짓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다. 자연재해에 대한 정부지원은 복구비용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

동산농원 온실 내부와
토양상태 측정기



이천 스마트 팜의 선구자 김성도 대표



이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절망하지 않고, 농업진흥원·농업기술센터·농수산대학 등의 연구사와 교수들을 찾아다니며 정보를 얻고, 그걸 기반으로 스마트 팜을 위한 첨단시설들을 갖추기 시작했다. 기회는 준비한 자에게 온다고 때마침 이천시도 본격 첨단농업 지원 정책을 준비하고 대상농가를 찾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2014년 지금의 스마트 팜 동산농원이 탄생했다.

‘국화 자가육종가’, ‘농촌진흥청 명예육종연구관’, ‘2015년 농식품부 선정 신지식인’

2015년 농식품부 신지식인에 선정된 사실에서 알 수 있듯, 그는 국화재배를 해오는 30여년간 끊임없이 배우고 터득한 지식을 국화재배에 도입해서 응용했다. 그 결과 그가 재배하는 국화는 서울 양재동 화훼도매시장을 비롯해 화훼도매시장 상인들이 앞 다투어 구매하는 국화라는 명성을 30년간 지켜오고 있다. 동산농원의 국화가 타 농장의 국화품질을 언제나 앞설 수 있는 것은 김성도 대표의 국화재배기술, 그리고 2005년 네덜란드 첫 견학 때부터 시작한 국화 자가육종과 품종개발 덕분이다.

2005년 국화품종개발을 시작해서 2010년도에는 화훼농업의 본고장인 네덜란드에서 본인이 개발한 국화품종을 전시해서 세계 화훼농업인들의 찬사를 받기도 했다. 김성도 대표가 지금까지 보호 출원한 국화품종은 모두 8개로, 그중 5개 품종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받고 있다.

육종 분야뿐만 아니라 국화 절화 작업자의 안전과 절화 중 발생하는 손실을 줄이기 위한 선별 및 이송장치를 개발해 약 10% 생산비용 절감효과를 거두었다. 김성도 대표는 국화품질 향상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농장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도 끊임 없이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터득한 국화재배기술과 자가육종비결을 아낌없이 나누어 준다. 지자체 단위로 스마트 팜을 견학 오는 농민들도 많지만 개인적으로 국화재배에 뜻을 두고 그에게 국화재배기술을 배우려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김 대표는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자신이 터득한 노하우를 전달해 준다. 그에게 국화재배방법을 배워 국화로 성공한 귀농인도 여럿 있다고 한다.

국화향이 왜 그렇게 강하고 좋은지 알아요? 그건 어둠의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김성도 대표 인생에서 ‘국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자, 그는 국화향이 진한 이유에 대해 말했다. 국화는 장일에서 단일, 즉 긴 일조량에서 짧은 일조량으로 이동해야만 꽃을 피울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화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긴 어둠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사람도 고난과 역경을 견뎌 사람이 아름답듯이 긴 어둠의 시간을 지나 꽃을 피우기 때문에 국화의 향은 그토록 강하고 오랜 여운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김성도 대표는 해마다 네덜란드와 일본의 화훼농가를 견학한다. 그곳에서 새로운 품종개발에 대한 지식을 얻고, 또 새로운 화훼재배기술을 배운다. 몇 년 전부터 김 대표는 이천의 화훼인들과 힘을 합쳐 만든 영농법인을 통해 일본으로 국화를 수출하고 있다. 국화의 중주국격인 일본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화훼 시장 흐름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시장에서 가격 경쟁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3세대 스마트 팜 시대, 화훼농업의 첨단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게 김성도 대표의 생각이다. 그는 그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오늘도 앞서 걸어간다.

2) 융·복합 농업을 선도하는 산수유농자 이미순

백사면 도립리는 노오란 산수유꽃으로 이른 봄을 시작하고, 새빨간 산수유열매로 겨울을 맞이하는 마을이다. 산수유와 함께 사시사철을 살아온 도립리 사람들에게 산수유는 고향이다. 산수유가 고향인 도립리에 산수유농자가 살고 있다.

산수유농자 이미순 씨는 농촌 융·복합 산업, 즉 6차산업의 앞을 달리고 있는 이천의 첨단 여성농업인이다. 6차산업은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1차산업, 농작물을 제조 가공하는 2차산업, 유통 판매의 3차산업에 여행·체험프로그램 등 서비스산업이 더해져 고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산업을 말한다. 1차산업 농업에 ICT정보기술이 더해져 가능해진 최첨단농업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창작물의 ‘원 소스 멀티 유즈 One Source Multi Use’와 같은 맥락이다. 하나의 생산물로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까지 확장해서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농촌의 소득을 높이는 산업이 바로 6차산업이다.

산수유 더하기 역사와 문화, 그리고 체험프로그램

이른 봄, 산수유가 노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하면 도립리에서는 산수유축제 가 열린다. 산수유축제 기간 동안 이미순 씨는 산수유농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축제를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조선 연산군 시절에 시작된 도립리 산수유나무의 역사와 도립리를 중심으로 이천의 향토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녀는 이천시 문화해설사이다. 문화해설사가 된 이유는 바로 도립리 산수유 때문이다. “산수유만 파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향마을 문화도 알리고 싶었다”고 말하는 이미순 씨의 산수유제품은 그녀의 바람대로 도립리의 역사와 문화가 더해져, 어느 산수유에 비해 특별한 산수유가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녀는 산수유 재배과정, 추수와 가공과정을 그때그때 SNS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소통한다. 산수유농자 블로그를 통해 누구나 이천 산수유마을의 현재 풍경, 산수유열매의 현재 성장모습, 그리고 문화가 스토리텔링된 도립리의 재미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다. 산수유농자 블로그와 SNS를 통해 도립리 산수유와 친숙해진 사람들은 좀 더 특별한 산수유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된다. “소비자들의 요구를 제때 반영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야 돼요.” 그렇다. 인터넷을



노란 꽃망울이 모여 핀 산수유꽃

백사면 산수유꽃축제 포토존



한겨울 수확기의 새빨간 산수유열매

통한 직거래라는 게 문화로 스토리텔링된 산수유제품을 파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산수유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반응 또한 정보화시대 속도에 맞게 즉각적이고 다양하다. 그런 요구조건을 제때에 반영하고 수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한다.

먼저 더 좋은 산수유를 생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미순 씨는 이천시농업기술센터 문턱이 닳도록 출입하며 산수유 품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비료와 산수유나무 관리법에 대해 묻고 배우고 또 연구한다. 그 결과 현재는 미



산수유열매 선별과정



어린이를 위한 산수유요리 실습



이미순 산수유농자의 향토음식교육



산수유로 만든 전과 차

생물 배양으로 만든 'EM활성수'와 산수유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산수유 부산물을 발효해 비료로 사용하고 있다. 그다음은 농약인데, 완전한 무농약 재배가 목표이지만 현재로서는 가능한 농약을 적게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수유는 다른 과수나무에 비해서 병해충에 강하고, 잔손질이 필요 없어 재배과정은 비교적 단순하다. 그러나 산수유는 다른 작물과 달리 눈이 내리고 난 이후 초겨울에 수확하기 때문에 추위 속에서 추수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꼼꼼한 선별과정과 다양한 제품 개발

이미순 씨는 수확한 산수유를 일곱 번의 선별과정을 거쳐 가려낸다. 그 과정에서 열매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가차 없이 골라내, 후에 발효해서 비료로 사용한다. 일곱 번의 선별과정은 일반 산수유 선별과정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다. 씨 빼는 작업도 보통은 한 번으로 끝내지만, 이미순 씨는 이 작업도 두 번을 거친다. 씨를 빼고 난 후에 다시 선별작업을 해서 품질이 좋은 열매만 남기고 기준에 맞지 않는 열매는 버린다.

그다음은 건조과정인데 건조할 때 주의할 점은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높은 온도에서 급속도로 건조하게 되면 산수유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 파괴되기 때문이다. 낮은 온도에서 건조하게 되면 건조과정에 걸리는 공정시간이 길지만, 좋은 품질을 위해서 이미순 씨는 낮은 온도에서의 건조법을 고수하고 있다. 산수유를 구매하는 소비자

들은 건강을 위해서, 몸에 좋은 식품보조제로 산수유를 구매한다. 그런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선별과정뿐만 아니라 공정 전 과정에서 청결을 유지하고 산수유의 영양소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산수유는 신맛과 짙은맛이 있고 과육이 질기기 때문에 말린 열매 자체를 먹기에는 한계가 있다. 어떻게 하면 산수유를 쉽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이미순 씨가 『동의보감』에 실린 산수유 관련 내용을 응용해서 만든 것이 산수유 환과 즙이다. 산수유제품 개발을 위해 이천의 청년농부들과 SNS 커뮤니티를 통해 끊임없이 자문을 구했으며, 산수유가 주재료가 되는 요리개발을 위해 지역 요리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다. 지역행사 때에는 산수유요리를 선보이고, 주부들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산수유요리 실습행사도 여는 등 산수유를 매개로 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열고 있다.

산수유는 어머니

산수유와 결혼했다는 이미순 씨의 말처럼 산수유나무를 빼고는 그녀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다. 산수유나무는 어머니요, 어머니는 또 산수유나무라는 이미순 씨. 그 이유를 들어보자.

1966년생인 이미순 씨가 기억하기로 도립리는 그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산수유나무가 많았던 마을이다. 초등학교에도 가기 전이었으니 다섯 살 혹은 예닐곱 살 때부터 그녀는 엄마를 따라 산수유열매를 주웠고, 또 그 열매를 까느라고 겨울 내내 손톱 밑에 까만 물이 가실 날이 없었다.

어렸을 때 이미순 씨의 집은 가난했다. 밥 한 뼤기 없었고 산수유나무도 없었다. 어머니는 원적산 자락을 다니면서 산수유열매를 주웠다. 그걸 산수유 이삭줍기라고 했는데, 그 시절에는 이미순 씨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산수유 이삭줍기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어린 이미순은 어머니를 따라 다니며 고사리 손으로 산수유열매를 주웠다. 처음에는 언제 한 바가지를 채우나 싶지만, 이삭줍기를 하다보면 어느새 바가지 가득 새빨간 산수유열매가 담겨 있곤 했다.

이삭줍기로 모은 산수유열매를 팔아 탁상시계를 샀던 날, 이미순 씨는 그때의 그 기쁨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 어머니는 산수유열매를 주워 모은



고향 도립리에 돌아와 산수유열매 제품으로 강소농이 된 이미순

돈으로 새끼돼지를 한 마리 샀다. 그 돼지를 키워서 팔고 그 돈을 종자돈으로 땅을 살 수 있었다. 어머니는 그 땅에 산수유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수확한 산수유로 3남 3녀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켰다. 그러니 이미순 씨는 어머니 하면 산수유, 또 산수유 하면 어머니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산수유로 첨단농업인이 되다

산수유와 함께 자라온 이미순 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고향 도립리를 떠났다. 당시에는 고향이 싫었다고 한다. 겨울이면 산수유를 까느라고 새까맣게 된 손을 친구들 앞에 내보이는 것도 부끄러웠고, 늘 일에 허덕이는 엄마를 보는 것도 힘들었다. 그래서 화장품 회사에 취직을 했고 멋진 도시인을 꿈꾸며 고향을 떠났다.

직장생활 10년, 서른을 넘기도록 미혼인 여성의 직장생활은 여러모로 피로감이 몰려왔다. 어머니에 대한 걱정도 끊이지 않았다. 당시 도립리 고향집에는 홀어머니 혼자 살고 있었다. 어머니 역시 혼기 짝 찬 막내딸이 대처에 혼자 사는 걸 마음에 걸려 했고, 그녀는 앞으로의 미래를 고향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설계했다. 귀향하기까지 큰 용기가 필요했지만 그녀는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때가 전 세계가 밀레니엄 축제 분위기로 떠들썩했던 2000년이였다. 귀향한 이미순 씨는 고향집에서 다시 산수유를 만났다. 그녀는 늙은 어머니를 도와 그 옛날 어렸을 때처럼 산수유열매를 따고, 선별하고 고르고 말리고 씨를 빼고, 손이 성할 날이 없을 정도로 일을 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예전보다 나아진 게 없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산수유로

될 어떻게 해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를 비롯해서 마을 사람들이 산수유열매를 너무 싼 가격에 팔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려 떠나 질 않았다.

당시 도립리 산수유열매는 대부분이 경동시장으로 도매가에 팔렸다. 지금도 농산물은 유통구조의 문제로 농민은 농민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도립리 산수유도 그랬다. 도매가로 넘기는 바람에 산수유농가들은 고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소비자들은 또 비싼 가격에 산수유를 구매해야 했다. 이미순 씨는 어깨너머로 주위들은 지식을 밀천으로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만들고, 산수유 직거래를 시작했다. 결과는 실패였다. 그때가 2003년이였다.

실패를 하고 나니 오기가 생겼다. 산수유에 대해서라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산수유로 실패를 하다니……. 그래서 실패의 요인을 분석했다. 산수유 유통과 판매는 산수유에 대한 지식 외에 또 다른 지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를 찾았다.

‘강소농’ , 작지만 강한 농업

영농 규모는 작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농업 경영체를 ‘강소농’ 이라고 한다. 강소농은 농업선진국들에 비해 농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설정된 첨단농업이다.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이미순 씨는 강소농에 대해 알게 되었고, 강소농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다. ICT정보 기술을 비롯해서 경영까지 첨단농업인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이천시 강소농으로 지정돼 지원금 혜택도 받았다. 산수유 가공공장을 지었고, 각종 기계를 구입했다. 지원금이라 해봐야 초기자본 규모면에서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농협에서 대출도 받았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의 격려 덕분에 용기를 잃지 않았다.

강소농 공부를 하면서 농산물에 농촌의 문화를 함께 팔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미순 씨는 이천문화원에서 문화해설사 과정 공부도 했다. 그리고 산수유를 가지고 융·복합 산업, 즉 6차산업에 뛰어들었다.

“산수 따라 가자, 산수 까러 가자”

예전 도립리에서는 산수유 수확철이 되면 사람들이 ‘산수 따라 가자’, ‘산수 까러 가자’는 말을 했다고 한다. 도립리 사람들이 산수유라고 하지 않고 ‘산수’라고 부른 데는 아마도 도립리 산수유를 처음 심은 엄귀인의 아들 엄용수의 어렸을 때 이름이 ‘산수’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이미순 씨는 추정한다. 그녀는 이렇게 역사를 바탕으로 한 산수유 관련 이야기들을 스토리텔링 하고, 또 본인이 어렸을 때 보고 듣고 경험했던 산수유 관련 모든 일들을 마을을 찾아온 관광객들 앞에서 구수한 이야기로 풀어 놓는다. 도립리 산수유마을을 찾은 사람들은 이미순 씨의 이야기에서 도립리 산수유의 500년 역사를 배우고 1960~1970년대 농촌마을의 향수를 추억하게 되고, 그리운 그 시절 향수가 된 도립리 산수유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농업이 먹을거리만 제공하는 1차산업이었던 시대는 이제 고리짝 과거 이야기가 되었다. 농업에 접목된 과학은 농업을 융·복합 산업으로, 1차·2차·3차 산업을 아우르는 첨단산업으로 탈바꿈 시켰다. 첨단농업이라고 해서 꼭 바이오와 로봇이 등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산수유농자 이미순 씨의 경우처럼 생산에서 가공·유통, 그리고 소비자들의 체험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6차산업은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첨단농업의 또 다른 모색이다.

3) 이천쌀의 미래, 청년농부 김상훈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진상미 이천쌀, 이천쌀의 명성은 자타가 공인한다. 옛날부터 이천은 쌀 생산지로 유명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천시의 주력 생산작목은 쌀이다. 2016년 이천시의 쌀 생산량은 4만 4,000톤으로 경기도 전체 생산량의 1/3을 차지했다. 전체 경지면적은 1만 8,000ha^{밭 8,000ha, 논 1만ha}로 약 8,800호가 있다. 농가인구는 약 2만 5,000명 정도 된다.

부밭읍 죽당리 ‘쌀맛 나는 농장’의 김상훈 씨는 청년농부로, 인터넷에서는 알음알음 이름이 알려져 있다. 농촌마을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스물일곱 살의 청년이라는 점도 소비자들에게 호기심을 주지만, 그는 청년다운 창의적인 발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진짜 청년농부다. 쌀농사만 5만 평을 경작하고 있는 그는 비료 하나

도 기존에 사용해온 비료를 답습하지 않는다. 이천시농업기술센터는 물론이고, 벼 농사 관련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는 타지역 농업 관련 연구기관도 찾아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그리고 틈만 나면 유튜브를 통해 다른 나라 농업기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자신의 농사에 적용해서 더 나은 쌀을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쌀맛 나는 농장’의 쌀은 맛있는 쌀이라는 소비자들의 평가를 얻어내게 되었고, 지금은 생산량 대부분을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있다. 생산에서 판매까지, 중간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쌀의 신선도는 물론이고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쌀농사 하나로 연간 1억 5,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청년농부 그의 농부 입성기에 대해 들어보자.

농부는 되고 싶지 않았어요

부발읍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김상훈 씨에게 농부는 낭만적인 직업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농사를 할아버지에서 자신에게로, 또 아들에게로 대물림할 천직으로 생각했지만 김상훈 씨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하면서 그 일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그럼에도 고된 만큼의 대가는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농부가 되고 싶지 않았던 그는 고등학교 진학을 하면서 처음으로 부모님과 부딪혔다고 한다.

당연히 농부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님과 달리 그의 꿈은 비행기 정비사였다. 비행기 정비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고를 가야 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처음으로 고집을 부려 공고에 진학했다. 비행기 정비사라니? 보통의 청소년들은 비행기와 관련된 꿈이라면 비행기를 운전하며 하늘을 나는 파일럿을 을 꿈꾸기 마련인데, 그는 파일럿보다는 정비사가 되고 싶었다고 했다. 어렸을 때부터 손재주가 좋아 뭔가를 고치고 만드는 것이 취미였던 터라 비행기도 조종보다는 그 자체를 분해하고 수리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고 한다.

공고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하면서 또 한 번 부모님과 의견대립이 있었다. 그때 까지도 부모님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농대 진학을 권했다. 김상훈 씨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의견을 받아들여 농수산대학 식량작물학과에 진학했다. 본인의 의사가 아닌 부모님의 권유로 진학한 농대 공부는 그의 흥미를 끌지 못했다. 대학생활

청년농부 김상훈과 농사를 천직으로 여긴 가족들



청소년기 비행기 정비사가 되고 싶었던 김상훈



에 회의가 찾아왔다. ‘농부가 되고 싶지 않은데, 농대 공부는 해서는 뭐해? 그는 군 입대를 자원했다. 그러나 그가 농부가 되겠다고 생각한 계기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찾아왔다. 해병대에 자원입대한 그는 포항에서 군복무를 했다. 군복무 중 폭설 피해를 입은 농촌복구봉사를 나간 어느 날이었다. “이상하게 모든 게 너무 익숙하더라고요.” 쌓인 눈을 치우고 폭설에 주저앉은 비닐하우스를 다시 세우는 일을 하던 중, 그는 뭔지 모를 익숙함을 느꼈다고 한다. 수고하는 장병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마을 어르신들의 주름진 얼굴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고, 눈에 파묻힌 채소를 안타까워하는 농부의 모습을 보며 가슴 저 구석에서 솟아오르는 뜨거움을 느꼈다. 그리고 그때 김상훈 씨는 농부가 되기로 결심했다

고 한다.

제대 후 복학해서 좋은 농부가 되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대학공부뿐만 아니라 벼 재배기술 관련 논문을 찾아 읽고 유튜브를 통해 다른 나라 농업기술에 대한 정보를 배우곤 했는데, 특히 쌀이 주식인 일본농부들의 쌀 재배법에 대한 정보는 꼭 챙겨 봤고 지금도 계속 보고 있다고 한다.

쌀맛 찾아 삼천리

대학 졸업 후, 본격 농부로 쌀농사를 시작한 김상훈 씨는 아버지와 다른 방식을 모색했다. 좋은 쌀 생산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EM미생물 비료는 물론이고, 소금을 이용한 미네랄 거름도 시도했다.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녹인 물을 거름으로 뿌리면 쌀의 품질이 좋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보고 실행에 옮긴 것이다. 그는 맛있는 쌀로 소문난 쌀이 있으면 반드시 구해서 맛을 보고 그 맛의 비결을 연구했다.

쌀뿐만이 아니었다. 맛있는 고구마가 있다고 하면 그 고구마를 먹어보고 맛을 연구하고 그 맛을 가능하게 한 재배과정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쌀농사에 적용했다. 그리고 몸에 좋은 쌀 생산을 위해 농약 사용을 자제했다. 현재 쌀농사를 지으면서 농약 사용을 줄이는 것은 커다란 모험이다. 하지만 김상훈 씨는 두려워하지 않고 농약 사용을 줄였다. 대신 손으로 잡초를 일일이 뽑아야 하는 고된 노동을 감수하고 있다. 앞으로 쌀농사에 ICT기술이 본격적으로 접목 되면 사람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이 자동화로 해결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소비자들은 더 맛있는 쌀을, 더 안전한 쌀을 먹게 될 것이다.

쌀농사에 정보화기술을 접목하다

아날로그 세대와 달리 디지털시대에 태어나 성장한 청년농부는 선진지식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신속하게 습득하고, 자신의 농업기술에 적재적소 접목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쌀의 품질향상을 위해 연구기관의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IT를 이용해 판매까지 직접 할 수 있다.

청년농부 김상훈 씨는 대학에서 6차산업 관련 강의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농부가 좋은 농산물 생산에만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판매와 소비자의



정보통신기술을 쌀농사에 접목시키고 있는 김상훈

체험까지 연결하는 농업의 6차산업화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때문에 어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주관하는 정보·교육과정을 이수했고, 6차산업 관련 강의나 강연이 있는 곳은 어디든 찾아서 배웠다. 그렇게 해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를 개설했다. 김상훈 씨는 낮에는 아버지 세대 농부들처럼 논에서 농사를 짓지만, 밤에는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 쌀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 하고 소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일을 한다. 주경야경인 셈이다.

이천쌀을 6차산업으로 성공시키는 게 다음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과 다른 농업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해요.

김상훈 씨는 ‘쌀맛 나는 농장’ 블로그를 통해 생산물에 대한 소개를 하고 인터넷 판매도 하고 있으며, 소비자와 소통한다. 지금 단계는 쌀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과정까지지만 그의 목표는 쌀농사의 6차산업화에 있다. 직접 생산한 쌀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생산한 쌀을 이용해 음식을 만들어 파는 로컬 푸드 음식점을 계획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쌀농사도 1차산업인 농업이 2차·3차 산업까지 아우르는 말 그대로 6차 융·복합산업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농부가 되고 난 후, 본인의 선택을 후회한 순간은 없었을까? 본격 농부가 된 지 3년 동안 그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고 한다. 어렸을 때 생각했던 농부의 이미지, 일만 힘들고 수입은 적은 업종이란 생각은 농부가 되고 난 후 바뀌었다고 한다. 오늘날 농촌은 대부분의 작업과정에 기계화가 도입됐고, 정보기술을 이용해서 판로 또한 쉽게 찾을 수 있다. 농작물의 품질을 높이면 수입 또한 웬만한 대기업 직장인에 버금간다. 우리나라 농촌이 노령화되고 있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이야말로 청년들이 농업에 진출할 때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청년농부 김상훈의 농업철학은 ‘다른 농업’을 하는 것이다. 김상훈 씨는 쌀농사를 지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다른 쌀농사를 지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연구하는 농부이다. 그래서 이천쌀의 미래는 밝다.

04

태어난 곳은 달라도
우리는 이천 사람





최현숙 | 자유기고가

제4장 태어난 곳은 달라도 우리는 이천 사람

1. 하이닉스 입사로 이천 사람이 된 직장 이주민 김영덕 씨

SK하이닉스 옛 현대전자는 오늘날 이천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기업이다. 하이닉스는 30만 평 규모의 이천 부지에 대규모 반도체공장을 설립하고 1985년 본격적으로 반도체 생산에 들어갔다. 1986년 반도체연구소를 세웠고 1995년에는 세계 최초로 256Mb SD램을 개발한다. 이렇게 대규모 기업인 하이닉스의 이천 입주는 지역경제구조를 변화시켜 왔으며 지속적인 공장의 증설로 지역경제를 발전시켜왔다. 이천시는 하이닉스의 입주로 인해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했던 전형적인 농업지역에서 도농복합도시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직장을 따라 이천으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었으며, 늘어난 인구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도 더욱 활성화되었다.

1) 하이닉스 입사로 시작된 이천살이

김영덕 씨의 직장은 이천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 바로 하이닉스다. 고향은 경기도 화성이고 대학생활은 서울에서 했다. 이천이 고향이 아닌 전형적인 타지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어엿한 이천 시민으로서 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고 있다. 김영덕 씨가 하이닉스 전신인 현대전자에 입사한 건 23년 전이다. 1994년 말 대학 전자공학 과를 졸업하면서부터다.

하이닉스 입사를 계기로 이천 시민이 된 김영덕 씨



지금이야 삼성전자 반도체가 세계적 기업으로 우뚝 섰지만 그 당시에는 아니었어요. 현대전자가 3년 연속 좋은 기업상을 받고 흑자가 나서 한참 잘 나가고 성장하는 회사였지요. 지금은 작고하신 정몽헌 씨가 회장이었고,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의 제1계열사로 성장 가능성이 무척 컸기 때문에 현대전자를 택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좋은 회사 들어갔다고 주변에서 많이 부러워했었죠.

원하던 회사에 바로 합격해서 맞본 기쁨도 잠시, 당시 하이닉스^{현대전자}는 반도체 공장이 이천에 있었기 때문에 이천으로 발령을 받았다. 사실 이천이라는 도시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말 그대로 생소한 곳이었고, 1990년대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시골이었다. 회사 건물 밖으로는 그저 논과 밭, 험한 길밖에 없었다고 회상한다. 김영덕 씨는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회사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3교대 근무를 5년간 했다.

처음 맡은 업무는 엔지니어는 아니었어요. 제 업무는 설비가 꾸준히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점검하는 거였어요. 기계들이 다운이 안 되고 24시간 유지를 해야 하니까 8시간씩 3교대를 해야 했죠.

대학을 갓 졸업해서 처음 접하는 사회생활은 누구에게나 고단한 시기이다. 김영덕 씨 또한 낯선 곳에서 가족, 친구들과 떨어져 지내는 기숙사 생활이 그리 녹록치

는 않았다. 그러나 외롭고 낯선 타향살이를 잘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나마 일찍 고향을 떠났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대학을 서울로 유학 갔으니 자취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혼자 지내는 생활은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회사 안에서의 생활은 점차 익숙해졌지만 그렇다고 회사 밖 이천이라는 도시까지는 쉽게 익숙해지지 않았다. 일화를 하나 들자면 신입사원 시절 회사 앞에서 조직폭력배들의 싸움이 크게 있었다. 5공화국 시절 주먹으로 유명했던 이정재와 유지광의 고향이 이천이었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되었다고 한다. 서울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사건이 이천에 와서, 그것도 회사 앞에서 생기니 너무 낯설었다. 곳곳에 텃세라는 것도 남아 있는 시절이었고, 지역사회 분위기에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그 당시만 해도 이천은 거의 촌이었어요. 경기도라 해도 서울과는 멀었죠.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웠어요. 상업시설도 별로 없고 물가는 비싸고 공장들만 덩렁 있
는……. 그러다보니 신입 때는 주말이면 서울이든 수원이든 대도시로 나가서 친구
들 만나 시간을 보내다 돌아오곤 했어요.

그래도 모든 것은 세월이 해결해 준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천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다. 그리고 5년의 시간이 흐른 뒤, 당시 업무가 편하긴 했지만 왠지 반도체사업과 거리가 있는 것 같았고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제 업무 자체는 반도체와는 거리가 있어요. 설비만 보다보니까 엔지니어 동료들이
하는 일은 머리 쓰는 일 같고 더 중요해 보이고 제가 하는 일은 좀 단순하게 느껴
졌죠. 뭐랄까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할까요.

그러던 차에 기회가 왔다. 2000년부터 업무를 바꿔 엔지니어로 근무하게 되었다. 다행히 일은 잘 맞았다. IMF가 터지고 신규로 진출했던 이동통신사업이 굉장히 확장되면서 많은 동료 선배들이 퇴사했다. 그 당시에 퇴사하면 ‘정보통신 쪽 가는구나’ 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김영덕 씨는 회사에 남는 길을 택했다. 그 당시 회사를 옮기지 않은 걸 혹시 후회하지는 않을까 궁금했다. 망설임 없는 대답이 돌아온다.

하이닉스에서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린 김영덕 씨
가족(늦둥이 막내아들 태
어나기 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당시
에도 제 생각은 ‘꼭꼭하게 한 회사에 있겠다’였습니다.

2) 사내 연애에서 결혼까지

결과적으로 회사를 옮기지 않은 게 어찌 보면 다행이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연 최경미 씨를 사내에서 만났기 때문이다. 하이닉스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해준 고마운 공간이 되었다. 김영덕 씨는 사내연애 끝에 1999년 초 결혼에 골인한다. 사실 아내를 만나 연애하기 전에는 ‘절대로 나는 하이닉스 여직원과는 연애를 안 하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근무를 하다 보니 사내커플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었지만, 뭐랄까 연애라는 건 일상을 벗어나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끼고 싶은 환상이 있었다. 늘 쳇바퀴 돌 듯 생활하는 회사에서 연애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다.

나와는 다른 일을 하는 다른 분위기의 사람을 만나고 싶었죠. 저뿐만이 아니라 다들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막연한 바람이었죠. 그런데 사실 환경이 어쩔 수 없었죠.

늘 회사에서 생활하다보니 다른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지금의 아내와는 인연인지 어느 날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고 있더라구요.

바람과는 달랐지만 막상 연애를 시작하다보니 같은 직종, 같은 회사에 근무한다는 게 서로의 일도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도 넓고 오히려 편한 점도 많았다. 1999년 결혼과 함께 기숙사 생활을 정리하고 사원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다. 아내는 첫 아이를 가지면서 퇴사하였다. 이후 아내 최경미 씨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서 평소 꿈이었던 유치원교사 일을 시작했다. 막내를 가질 무렵 3~4년 쉬었지만 현재도 교사 일을 하고 있다.

3) 길 위에 서서 나를 만나는 순간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공평한건 한 길밖에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셋길로 갔다가 돌아 나올 수는 있어도 여러 길을 한 번에 달릴 수는 없다. 김영덕 씨가 직장 하이닉스에서 보낸 시간은 무려 23년이다. 요즘 시대에 20년을 넘게 한 직장에 근무할 수 있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김영덕 씨는 꾸준히 한 길에 점을 찍고 달려온 셈이다.

2000년도 가정을 꾸린 후 하이닉스 생활은 좀 더 안정화되었다. 회사와 일밖에 모를 것 같은 김영덕 씨에게도 취미활동이 있었다. 하이닉스 회사 내에는 직원들의 취미활동을 위한 동아리가 여러 개 있다고 한다. 사내에서만 생활하는 직원들의 휴식과 복지를 위한 건데 처음 시작한 수영이었다. 사내에 수영장도 있었다. 근무시간 외 운동도 되고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해서 수영을 열심히 했는데 3~4년 만에 수영장이 폐쇄되었다. 반도체 공업용수로 깨끗한 물을 쓰다보니까 비용이 꽤 많이 발생해 회사 측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폐쇄를 결정한 것이었다.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택한 차선택이 체육관 트랙에서 뛰는 거였다. 회사 일을 하다 보면 직장인 누구나 그렇듯이 답답한 일, 스트레스 쌓이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운동은 가장 좋은 스트레스 해소방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근무하는 동료가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함께 나가자는 제안을 해왔다. 처음엔 망설이다가 친구의 설득에 하

김영덕 씨가 직장동료와 함께 처음으로 마라톤에 도전한 제2회 이천마라톤대회(왼쪽, 2001)와 42.195km 풀코스를 완주한 조선일보춘천마라톤 기록증(2003)



프마라톤 21km를 처음 나갔고, 첫 대회에서 완주를 했다. 그리고 그해 가을 곧바로 42.195km 풀코스에 도전해서 완주하게 된다. 이후 마라톤은 김영덕 씨의 하이닉스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취미이자 활력이었다.

마라톤은 목표가 분명한 운동이다. 여러 명이 하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만의 싸움인 것이다. 숨가쁘게 길을 달리는 동안에는 회사 일도 힘든 일도 다 잊고 가슴이 시원해지면서 머리가 깨끗해지는 기분이 든다고 한다. 누구나 살다 보면 틈틈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필요한 건데……. 김영덕 씨는 마라톤을 할 때면 달리는 길 위에서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했다.

하이닉스에는 이런 취미운동 등의 동호회가 20개 정도 있다. 하이닉스 마라톤 동호회 초창기 멤버로서 어느새 17년이 되었다. 돌아보니 가족에게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다.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취미였을지 몰라도 늘 달리기 연습한다고, 대회 나간다고 가족과 함께 한 시간이 많이 없었다. 함께 따로 놀러 다닌 적도 없고 그저 마라톤대회 응원외준 아이들과 함께 도시락 먹은 추억이 있을 뿐이라고 한다. 대신 요즘은 어린 막내아들과는 놀아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김영덕 씨는 자녀가 셋이다. 막둥이가 꽤 어린 편이다. 고2·고3 딸 둘에 5살 아들 늦둥이를 얻어서 그 재물에 요즘은 푹 빠져있다.

4) 사랑하는 내 아이들의 고향, 이천

하이닉스 입사와 동시에 이천에 와서 살면서 딱 한 번 이천이 아닌 곳으로 이주한 적이 있었다. 그 이유는 자녀교육 때문이었다. 하이닉스 선배들은 하나같이 자녀가 중학생이 되면 이주를 고민한다. 아무래도 자녀교육은 대도시에서 해야 한다는 강한 교육열풍 때문이리라. 당시 김영덕 씨 부부 또한 그 생각에서 크게 자유롭지 못해 큰 딸의 중학교 입학에 맞춰 용인으로 이사를 감행했다. 그러나 어렵게 이사를 갔는데 결과적으로 석 달 만에 다시 이천으로 돌아오게 된다. 용인으로 이사는 갔지만 김영덕 씨도 아내도 직장이 여전히 이천이었다. 아내는 보육교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후임자를 구하는 중에 그만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다. 무슨 운명인지 병원에 있던 아내는 어린이집 퇴사를 번복했고 어린이집은 한 달을 입원한 아내를 기다려주었다. 결국 용인행은 백일천하로 끝나버렸고, 김영덕 씨 가족은 다시 이천으로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돌아왔다.

떠나보니 그 진가를 알게 된 걸까? 잠시였지만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아보면서 이천이 이제는 더 이상 타향이 아니라 새로운 고향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큰 아이 교육 때문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다행히 큰 아이도 잘 성장해 주었다. 이천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본인의 특성을 살려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학교에서 4명뿐인 공무원 특채반에서 현재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이다.

이천의 교육 여건이 대도시에 비해 안 좋을 거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커 가면 교육 때문에 용인이든 어디든 나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지역사회 가점 때문에 역류 현상이 생겨 대학진학에 있어서는 그리 불리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괜히 큰물에 가면 다 잘될 거라는 그런 안일한 맘 갖고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는 앞으로 하이닉스 후배들에게 굳이 애들 교육 때문에 이천을 떠나지는 말라고 권하고 싶다고 조심스레 이야기한다. 20대 시절 대학 졸업 후 취업과 동시에 이천으로 왔던 신입사원 김영덕 씨도 어느새 50의 나이이다. 이천에 산 지도 어언 23

년이 흘렀다. 분명 짧지 않은 세월이다. 그동안 김영덕 씨는 이천에서 아내도 만났고 1남 2녀의 세 아이들도 낳았다. 오랫동안 살다보니까 제2의 고향이 되었고 생활 터전이 되었다. 이제는 이천이 편하고 너무 좋다고 한다. 왜냐하면 가족이 있고 그의 삶이 있고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천은 아이들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그는 아이들이 물 맑고 공기 좋은 문화의 고장, 이곳 이천에서 태어남을 감사히 여긴다고 이야기한다.

2. 다문화가족 모범 1세대, 고세키 에미 씨의 33년 이천사랑

고세키 에미^{이하 고세키} 씨는 일본인이다. 33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나 한국, 그것도 이천으로 시집와서 자녀 넷을 낳고 현재는 한 가정의 가정주부이자 일본어강사로, 그리고 이천의 지역 활동가로 누구보다 바쁘게 살고 있다. 2년 전에 환갑을 맞이한 고세키 씨에게 33년은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다. 이 세월을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을까. 앞으로 전개될 이 이야기는 이천 시민들 모두와 특히 새로 이주하는 결혼이주자 여성들에게 꼭 전해져야 할 중요한 자료이자 모범 사례이다.

1) 나의 꿈, 나의 청춘

고세키 씨의 고향은 일본 도쿄와 홋카이도 사이에 위치한 야마카타라는 도시이다. 무사가게의 집안에 태어나 나무로 된 복도 다다미방이 쪽 이어진 일본 전통가옥에서 자랐다. 어린 시절엔 기모노를 입고 지낼 정도로 다소 엄격한 가풍 속에서 생활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학교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고세키 씨의 꿈은 간호사였다. 사촌들 중에 간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 여러 분 계셨는데 가끔 집안에 누가 아프면 오셔서 간병을 해주곤 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꼭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다고 한다. 무엇



일본 도쿄 고향집에서 기모노를 입고 어머니(가운데), 언니(오른쪽)와 함께한 고세키 에미 씨



국제결혼으로 이천에 시집오기 1개월 전 간호사 시절의 고세키(뒷줄 가운데) 씨와 병원 동료들(1985)

보다 평범한 간호사가 아니라 아주 실력 있는 훌륭한 간호사가 되고 싶었다고 고세키 씨는 회고했다.

일본에서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 당시에 고세키 씨는 고등학교 시절 낮에는 간호학교를 다니고 밤에는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는 강행군을 하며 공부했다. 학교가 집에서 멀어 도시로 나와서 다녔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간호학교 과정을 2년 더 밟았다. 총 5년을 공부하여 국가시험을 보고 합격해야만 정식 간호사가 될 수 있었다. 시험에 합격한 고세키 씨는 동경에 있는 암전문병원에 근무하게 된다. 일본의 심장부 도쿄에서 그렇게 꿈꾸던 간호사 생활을 10년간 해 왔다.

남편을 만나게 된 건 교회에서였다. 통일교 신자인 고세키 씨는 중학교 시절부터 성경책을 가까이 하며 신앙을 키웠다고 한다. 평생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이기

같은 가치관을 가져야한다는 소신이 있었다. 연애시절 자주는 못 만났지만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워나가다 드디어 결실을 맺어 1982년 결혼하게 된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해도 바로 한국에 올 수가 없었다. 호적에 올리고 동거 비자를 취득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웠다고 한다. 게다가 고세키 씨의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다. 간호사 인수인계 과정이 오래 걸렸다.

그렇게 결혼식을 하고도 한국과 일본에서 떨어져 지내다 3년 후인 1985년 12월에 대한민국 경기도 이천에서 신접살림을 시작하게 된다. 사실 남편의 고향이 이천은 아니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석재회사인 일신석재에 근무했던 남편도 어찌 보면 직장 이주민인 셈이다. 첫 살림집은 남편 직장에 사원아파트를 새로 지어 입주할 수 있었다. 신접살림을 차렸던 그 아파트는 정말 깨끗하고 좋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 나머지는 모든 게 다 혼란스러웠다.

처음 왔을 때는 정말 멍했어요. 대도시인 도쿄에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이천이 당시 너무 시골이었죠. 도쿄에서 간호사로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한국에 와서 직장도 없으니 시간도 너무 많이 남고……. 그렇다고 말도 잘 못하니 누구랑 실컷 얘기를 할 수 있나, 어디 나다닐 수가 있나, 생활이 갑자기 확 달라지니 뭘 해야 할지도 통 모르겠더라고요.

고세키 씨가 시집와서 한국에 정착하기까지는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다. 33년 전만 해도 다문화가족이라는 의미조차 없던 시절이었다. 국제결혼도 그리 흔했던 시절도 아니고 외국인가족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커녕 오히려 결혼이민자들이라면 색안경을 끼고 보던 시절이었다.

특히 이천은 대도시가 아니라 한국어 공부를 할 곳도 없어 일본에서 책을 보내주면 독학으로 공부해야 했고, 일본에서 보내는 물건을 찾으려면 인천세관까지 가야했다. 요즘처럼 국제택배 이런 게 있어서 집에서 받아보는 건 꿈도 못 꿘다. 고세키 씨는 남는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고민하다가 그동안 바쁜 간호사 생활로 하지 못했던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뜨개질과 재봉틀을 배웠다. 물론 이것도 배울 곳이 마땅치 않아 전부 독학으로 해결했다. 현재도 사용하는 재봉틀이 그 당시 일본에서 친정엄마가 보내주신 ‘미싱’이다.

2) 이천의 봄, 잊지 못할 진달래꽃

요즘 한국으로 시집와서 정착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고단함과 외로움 등이 TV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많이 알려지고 있다. 다문화가정도 점차 많아지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도 예전에 비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지금도 이주자들은 정착이 힘들다고 토로하는데,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한국으로 시집온 고세키 씨의 고단함은 말로 다하기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신앙과 남편의 사랑이었다고 망설임 없이 말한다.

한국에 와서 처음 봄을 맞이했어요. 일본과는 조금 다른 풍경이었죠. 한국이 낮설고 고향이 그리웠으나 봐요. 일본은 벚꽃이 조금 일찍 피니까 어디에나 벚꽃이 만발해서 봄이 좀 화사했어요. 그런데 이천에서 맞이하는 봄은 기다려도 안 오는 거 같았어요. ‘봄이 왜 안 오지?’ 생각하며 그냥 슬펐죠. 그러던 어느 날 거리에서 분홍 진달래를 봤어요. 너무 예뻐서 한 줌 꺾었는데 그게 문제가 됐죠. 어떤 아저씨가 저에게 막 뭐라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당시 그 분 말을 잘 못 알아듣기는 했지만 좋지 않은 말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이야기하며 엄청 울었다. 남편은 고세키 씨를 달래며 “거리 정화작업의 일환으로 일부러 심어논건데 그걸 꺾었으니 야단을 맞은 거다. 그건 당신의 잘못이야” 하면서 이해시키고 달래주었다. 그리고는 다음 날 남편이 일부러 산에 가서 진달래를 정말 한 아름 따와 안겨 주었다고 한다. 남편의 따뜻한 사랑을 느껴서 감동의 눈물을 또 한 번 흘려야 했다. 한국에 와서 처음 맞이했던 이천의 봄은 유난히 슬펐지만 아름다운 진달래로 고세키 씨에게는 영원히 남아 있다. 이렇게 남편의 사랑은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자 이유이다. 물론 교회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며 같은 길을 갈수 있다는 것도 큰 행복이라고 한다.

고세키 씨는 신혼초 힘들었던 점을 회고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했다. 그건 바로 한국의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미안하다는 점이다. 본인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외국인 며느리가 들어옴으로써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 시어머니를 비롯해 시누이들까지 애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한다.



신혼 초 남편이 가져다준 진달래와 개나리를 받고 활짝 웃는 고세키 씨(1986)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네 아이들과 함께 한 브라질 여행(1999)

처음에 시집와서 말이 서툴다보니 시어머니께도 반말 투로 했어요. 주로 남편과 대화하고 남편이 시어머니께 하는 말을 따라 배우다 보니 존칭어를 잘 몰랐죠. “어머니 주무세요” 해야 하는데 “엄마 잘 자” 하고 시누이한테도 그냥 막 이름 부르고……. 사실 이해해 주면서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분이 아니에요 제사를 저희 집에서 모셨는데 음식 하나도 할 줄 몰라 시어머니랑 시누이들이 다 하고……. 지금 생각하면 진짜 미안했어요.

80세가 넘어 고령이신 시어머니는 안타깝게도 현재 치매로 5년째 요양원에 계신다. 시어머니 생각을 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현재 시어머니는 치매가 심해서 가족 누구도 못 알아 볼 정도이다. 그런데 아들까지 잊으셨지만 신기하고 고맙게도 며느리인 고세키 씨만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 다른 가족들과 함께 면회를 가서 “여기 이 사람 누구야” 하고 물으면 “며느리, 며느리 이름은 고세키 에미”라고 힘차게 대답하신다.

이천에서 19년간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았다. 너무나 좋은 분이지만 여느 가정처럼 고부갈등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고세키 씨는 일본인 특유의 깔끔함이 있었다. 더구나 간호사였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 살림을 하는데 있어 청결은 가장 중요하게 신경 쓰는 부분이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털털한 스타일로 깔

끔하진 못했다. 아마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깔끔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서로 다른 스타일의 두 사람이 한 살림을 하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혼한 갈등이었다. 지금은 그조차도 죄송스런 마음이 든다. 늘 면회를 마치고 돌아서려면 너무나 약해진 어머니 모습에 마음이 아파 돌아가실 때까지만 우리 집에서 모시자고 그러고 싶다고 이야기해보지만, 오히려 어머니에게 위협할 수 있다고 다른 가족들이 만류하고 있다.

3) 제2의 직업과 함께 찾아온 또 다른 인생

이천에서 살아온 33년 동안 신앙을 지키고 가정만 잘 이룬 건 아니다. 일본에선 간호사의 꿈을 이루어 생활해 왔지만 결혼해서 한국으로 오는 동시에 모든 게 새하얀 백지상태가 되었다. 한국에서 간호사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던 건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말이 서툴렀기 때문이다. 말이 안 통하면 자칫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고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재 고세키 씨에게는 간호사만큼이나 소중한 직업이 있다. 현재 고세키 씨는 이천에서 가장 유명한 일본어강사이다. 일본어강사라는 새로운 직업은 고세키 씨에게 일본에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었다.

91년도니까 셋째 애를 낳고 강사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우연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이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셔서 개인과외로 시작을 했다가 점차 사람이 늘어나니까 그룹과외가 됐죠. 당시 이천에 영어학원은 있어도 일본어학원이 없었으니까요. 간호사 시절에 간호학 같은 걸 가르치기도 했고, 발표나 연구 경험도 많아서 사람들 앞에 서서 수업을 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시작은 소박했지만 강사로서의 고세키 씨 명성은 커져만 갔다. 일본어를 가르치다보니 한국에 나온 일본어교육 책자가 엉터리도 많아서 직접 번역도 하고 출판도 했다. 이천에서 가장 큰 회사인 SK하이닉스에서 일본어수업을 14년째 진행하고 있고, 이천문화원에서도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다. 이천에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초급과 중급수업은 제자들이 맡고 있다고 한다. 사실 고세키 씨에게 일본어수업은 직

이천시여성배구단의
창립멤버인 고세키 씨
와 단원들



업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언어를 통해 일본과 한국의 교류를 잇는 문화사절의 역할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모국어를 공부하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이겨내는 좋은 시간이기도 하다. 얼마 전에는 이천문화원에서 일본어를 배우는 가족들과 일본여행도 함께 다녀왔다. 비록 고향에 들러볼 수는 없었지만 고세키 씨도 오사카와 교토는 30여 년 만에 가는 거라 감회가 남달랐을 것이다. 일본어수업 외에도 문화원 행사 때 초밥이나 우동을 직접 만들어 팔기도 하고, 일본요리 강습을 하는 등 일본문화를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고세키 씨는 일본어와 관련된 일 외에도 여러 가지 지역 활동을 하고 있다. 우선 배구활동을 들 수 있다. 일본에서는 중학교 때부터 배구를 했는데 한국에 와서는 할 수 없었다. 이천에는 배구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생활체육회 부회장 부인이 일본어강좌 학생이었다. 배구단 하나 만들자는 고세키 씨의 제안으로 직접 만들게 되었다. 창단부터 준비해서 함께해 온 ‘이천시여성배구단’은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2017년 현재 이천시에는 배구팀이 5개나 생겼다고 한다. 그중 이천시여성배구단을 포함 2개 배구단에서 고세키 씨는 가장 맏언니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이천 시민경찰 6기이기도 하다. 어찌 보면 이천의 보통시민보다 더 열심히 이천을 위해 뛰고 있는 것이다.

고세키 씨의 살아온 이야기를 죽 듣다보면, 처음에 막연하게 결혼이주자였으니 엄청 힘들었을 것이라는 편견이 와장창 어디론가 깨져버린 느낌이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듣다보니 신이 난다.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일본에서의 삶과 한국에서의 삶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두 배로 노력하고 두 배로 일하고 두 배로 행복하게 사셨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그렇다고 고세키 씨가 힘들지 않았을 리는 없다. 고세키 씨에게도 힘들었던 순간은 수도 없이 많았다고 한다.

첫 애 가져서 입덧이 너무 심했어요. 그런데다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 음식은 낯설고 입에 맞질 않았죠.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때 남편도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막내를 낳았을 때 전치태반이었어요. 빨리 수술을 해야 해서 이천터미널 부근에 있는 병원에 갔어요. 선생님은 좋은 분이었지만 작은 병원이었죠. 수술 후에 부작용이 생겼어요.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겨우겨우 신 목소리가 났어요. 큰 병원 가보니 마취할 때 성대를 잘못 건드려 혹이 생겼대요. 그래서 수술까지 받아야 했죠. 그 뿐이 아니라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겼어요. 세 번 병원 가서 찌고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염증은 심해졌어요. 안되겠다 싶어 제가 직접 치료하기로 결심했죠. 약국에서 필요한 모든 걸 구비해서 집에서 소독하고 직접 염증 안의 고름과 피를 제거했어요. 혼자 해야 해서 메스를 사용할 수 없으니 바늘로 조금씩 파내는데 그 고통을 참으며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큰애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을 뵈러 갔어요. 누구 어머니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의아해하며 그 학생은 엄마 없는데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알고 봤더니 제 일본 이름 때문에 선생님이 오해를 하셨더군요. 학기 초에 부모 이름 란에 제 이름을 썼더니 ‘엄마가 없구나!’라고 생각했대요. 웃기면서도 속상했죠.

엄마가 일본인이라고 아이들이 놀림 받거나 일본과 한국의 육아법이 다른 점에 대한 갈등 등 수도 없이 힘든 시간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슬픔보다는 기쁨만이 느껴지는지 어렵פות이 알거 같다. 그런 녹록치 않은 삶의 과정들을 고세키 씨는 이겨냈기 때문이다. 이겨내고 지금은 몇몇한 한국인으로, 또 누구보다 훌륭한 이천 사람으로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이다. 크고 작은 활동 속에서 만난 친구, 제자, 동

어느덧 성장해 어른이
된 자녀들을 보며 행
복을 느끼는 고세키
씨 부부



료들과의 시간과 관계는 그녀를 가장 모범적인 다문화 1세대이자 누구나 인정하는 이천인으로 우뚝 서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이천으로 새롭게 이주하는 결혼이민자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세키 씨의 답변은 겸손함과 미안함으로 가득했다.

저는 사실 다문화라는 말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다문화라는 말에는 이미 외국인이 라는 차별과 편견이 느껴지는 듯해서요. 다문화라고 특정하게 규정짓는 말 자체가 사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시기상조이겠지요. 이천에도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 제가 별로 도움을 못줘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지자체에서 다문화센터나 여러 단체들이 지원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아 보여요. 뭐랄까 보여주기 식이랄까. 정작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보다는 외적인 사업이 많아서 좀 아쉬워요. 그 부분에서 사실 잘 아는 제가 나서서 도와줘야 하는데 현재 제가 하는 일로도 시간이 모자라 많이 돕지를 못해서 미안한 마음뿐이죠.

겸손하게 표현했지만 고세키 씨는 오래전부터 많은 이주민들을 물심양면으로

둑고 있다. 새롭게 가정을 꾸린 다문화가족 중에 다급한 일로 연락이 오면 그게 무엇이든 간에 달려 나간다. 밤늦게 아이가 아픈데 병원에 갈 수 없거나, 행정 처리를 해야 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거나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도우려고 애쓰고 있다.

고세키 씨의 삶은 말 그대로 다문화가정의 모범이다. 많은 분들이 고세키 씨처럼 한국에서 이천에서 희망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음을 몸소 삶으로 보여준 것이다. 누구보다 고세키 씨가 행복하고 또 즐겁게 앞으로 이천 생활을 이어나가길 바라면서 더 많아질 다문화가족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본다.

3. 캄보디아에서 온 7년차 외국인여성노동자 소완티의 이천정착기¹⁾

첫인상이 옛되고 순수해 보이는 소완티는 올해 27살의 예쁜 아가씨다. 떠나면 캄보디아에서 7년 전에 한국으로 왔다. 보통 외국인노동자라고 하면 주로 공장에서 일을 하는 남성외국인을 연상하게 되는데 의외로 요즘엔 어린 여성노동자들도 많다고 한다. 7년 전이면 겨우 스무 살의 나이였다. 한국에서였다면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입학하는 어린 나이인데, 부모와 가족 정든 친구들을 두고 소완티는 어떤 이유에서 생전 알지도 못하는 멀고 먼 타국행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1) 스무 살의 가혹한 선택

소완티의 고향은 캄보디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바탐방이다. 두 번째 도시라고 해서 대도시거나 잘 사는 건 아니고 인구도 많지 않다. 이천과 마찬가지로 쌀이 유명한 지역이라 주로 쌀농사를 많이 하고 오렌지가 유명한 곳이다.

1) 2015년 기준 이천에 살고 있는 전체 외국인수는 8,243명이고 소완티와 같은 외국인근로자 4,422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그 수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 이천시에서는 외국인인력지원센터를 비롯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기관 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들을 돕고 있다. 이 인터뷰를 위해 이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그곳에서 근무하는 이애나(캄보디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음을 밝힌다.

소완티의 아버지는 군인이다. 직업군인이라면 가족 부양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듯도 한데 캄보디아는 다른 나라와 달리 군인이라는 직업이 가장 가난한 층이라 경제적으로 무척 어렵다고 한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도 빠듯한 상황이었는데 엄마까지 몸이 편찮으셔서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아픈 엄마의 병원비와 학교도 가기 어려운 어린 두 동생을 아버지 혼자 부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에서 소완티는 대학 진학은 꿈조차 꿀 수 없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소완티에게는 가혹한 선택이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걸 주저할 수 없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청년 몇몇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저희 가족의 어려운 처지를 알고 소개해 주셨어요. 캄보디아 고용센터가 있고 신청해서 시험보고 입사 지원을 하게 됐죠. 결정은 했지만 막상 평생 살아온 집과 가족을 떠나 전혀 낯선 곳으로 가야한다니 너무나 막막하고 무서웠어요. 한국말도 전혀 모르고 아는 사람도 하나 없고 난생 처음 가족을 떠나려니 겁이 났습니다.

그렇게 소완티는 잔뜩 겁먹은 어린애마냥 주눅이 든 채 한국, 이천으로 왔다. 회사는 이천의 작은 농장이었다. 고향에서도 농업은 손에 익은 편이었고 여자다보니 공업보다는 농장 쪽 일이 나을 것 같았다. 다행히 농장에는 먼저 와서 일하고 있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언니들이 일도 가르쳐주고 챙겨주고 잘해주어서 우려와는 달리 잘 적응할 수 있었다.

2) 친절한 사장님과 농장 사람들

그래도 작고 어린 소완티에게 농장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농장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한 방에 3명씩 생활하고 음식물은 농장에서 제공해주지만 취사는 직접 해야 했다. 주로 하는 일은 야채를 심고 거름을 주고 수확도 하는 전형적인 농사일이지만 소일거리로 하는 텃밭과 개념이 다르다. 새벽부터 일이 시작되어 바쁜 철에는 하루 13시간 온종일 서서 작업을 한다. 상당히 고된 노동이 아닐 수 없다.

농장에서 여러 야채를 심고 키우지만 가장 힘든 건 부추작업이에요 상추 등 다른

야채는 수확할 때 한번 따면 그만이지만, 부추는 자라면서 잘라줘야 하고 자를 때 마다 거름을 주는데 거름작업이 너무 힘들어요. 냄새도 심하고 가스 같은 게 발생이 돼서 숨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무거운 걸 나르는 작업도 힘듭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 본 도시가 이천이다. 논만 있었고 촌이었다. 상상했던 한국의 대도시가 아니라서 의아하고 실망도 했다고 한다. 농장으로 취직을 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이었지만 어린 소완티가 그전에 본 한국은 드라마로 본 게 전부였을 거다. 소완티는 이천에서만 생활하고 그동안 다른 도시까지 가볼 기회가 없었는데 얼마 전에 서울에 처음 여행도 다녀왔다. 경복궁에 가서 한복입기 체험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소완티는 음식도 잘 먹고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는 쾌활한 아가씨다. 소완티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음식은 감자탕이라고 한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말이 통하지 않는 점은 너무 힘들었지만, 이상하게 음식은 다 입에 잘 맞았다고 한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족이 보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그럴 때면 농장 동료나 언니들이 많은 위로가 된다. 소완티가 어려서 더 잘 챙겨주었는지도 모르겠다. 일이 끝나 이천 시내에 나가고 싶는데 혼자 나갈 수 없을 때는 함께 일하는 언니들이 피곤한데도 소완티를 위해 기꺼이 동행해 주었다. 이렇게 힘든 노동도 고향에 대한 향수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친절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만의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일까? 가끔 고향 꿈을 꾸다고 한다. 무더운 여름날 비온 하늘은 습하지만 넓은 대지 위로 초록초록한 벼들이 흔들리는 꿈, 그 너머로 엄마가 손을 흔들어주는 꿈.

아플 때 가장 힘들어요. 이상하게 아프면 가족이 너무 그리고 보고 싶어요. 캄보디아 겨울이 없는 더운 나라다보니 한국에서 가을만 되면 혹독한 감기와 몸살에 시달리곤 했어요. 겨울의 스산한 바람도 적응이 안 돼요. 겨울만 되면 외롭고 쓸쓸하고 아프고 그래서 겨울을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면 유난히 무더운 고향의 공기가 그리웠어요.

소완티는 이 농장에서만 7년을 지냈다. 취업비자가 만료되어 2년 전에 한 번 고

캄보디아에서 온 외국
인여성노동자 소완티
와 가족들



고된 농장일이지만 밝
게 일하는 소완티의
모습



가장 좋아하는 한국음
식인 감자탕을 먹고
있는 소완티



서울 여행 중 경복궁에서
한복입기 체험을 하며 즐거
운 시간을 보내는 소완티

향에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왔다. 물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이천 농장으로 돌아왔다. 몇 년 경험을 쌓았으니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데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다시 같은 곳으로 돌아왔냐는 질문에 소완티는 예쁜 미소로 사장님이 좋은 분이라고 말한다. 밤늦게 아프거나 하면 기숙사까지 약을 들고 달려오실 정도로 직원들을 잘 챙기신다. 일할 때는 엄격하고 공정하지만 그 외에는 가족처럼 잘 대해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니 참으로 고맙고 다행인 일이다.

3) 이천에서 살고 싶어요

소완티의 비자는 2017년 12월 기준, 앞으로 2년 10개월 남았다고 한다. 이 비자가 완료되면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야 한다. 그동안 번 돈은 꼬박꼬박 고향집으로 부쳐줬다. 그 돈으로 가족들이 생활비에 보태 살아가고 나머지 돈은 소완티 앞으로 저축하고 있다. 소완티의 미래는 2년 10개월 후 캄보디아로 간다는 사실 외에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첫 번째 고향에 돌아갔을 때 다시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주저 없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이천에 사는 게 좋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살아온 7년에 앞으로 2년 10개월까지 10년을 이천에서 살게 된다. 10년의 세월이라면 강산도 변하는데 소완티 인생에 가장 중요한 청년기를 보내는 이천을 쉽게 잊을 수 있을까?

소완티에게는 두 가지 미래가 있다. 한 가지는 어떤 식으로든 한국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고향 캄보디아로 돌아가는 것이다. 만약 고향으로 간다면 고향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어학강사가 되거나 한국여행자를 안내하는 가이드를 하고 싶다고 한다. 한국에서 보낸 10년의 세월을 헛되이 버리지 않고 남은 인생을 캄보디아에서 한국문화를 전파하는 전도사 역할을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소완티는 단호하게 여건만 된다면 이천에서 살고 싶다고 말한다. 이천에서 지내는 시간이 지금은 너무나 즐겁기 때문이다.

이천에는 제가 좋아하는 곳이 많아요. 이천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도 너무 재밌고 쇼핑도 좋아해요. 한국에는 좋은 제품이 정말 많아요. 부모님께 홍삼을 선물했는데 너무 좋아하세요. 설봉공원도 좋아합니다. 공원이 아주 넓고 깨끗합니다. 또 제가



이천 E마트에서 활짝 웃고 있는 소완티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는 이천 E마트예요. 캄보디아에 없는 물건들이 아주 많아요. 다 살 수는 없지만 구경만 해도 재밌고 즐거워요.

요즘은 이천성당에도 쉬는 날마다 갑니다. 7년이나 살았지만 주로 농장에서 캄보디아 언니들과 생활하다보니 한국어가 많이 늘지를 않았어요. 한국어를 유창하게 잘하고 싶은 욕심에 성당에서 지원하는 한국어교실에 공부하러 다닙니다. 성당에 계시는 수녀님도 너무나 잘해주시고 그곳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천다문화센터에 계시는 이예나 선생님도 고마우신 분입니다. 가끔 농장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무료 건강검진도 받게 해주시고 복잡한 일들에 관해 상담도 많이 해 주십니다. 지금은 한국에 고마운 분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지내기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말을 더 잘하기 위해 다니는 성당 한국어교실에서 수녀님과 함께

소완티가 얘기하는 동안 스무 살 시절 처음 한국행 비행기를 탔던 겁먹은 소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너무나 밝고 건강한 모습이다. 소완티가 한국에 정착하든 캄보디아로 돌아가든 고단했던 한국살이가 결코 힘겨운 노동의 시간만이 아닌 인생에 거름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길 바래본다. 거름의 무게는 가볍고 냄새 또한 역하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존재이듯이 대한민국 이천에서 지낸 10년의 세월이 남은 인생의 거름이 되어 소완티의 아름다운 미래로 화려하게 열매 맺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4. 이천에 심은 노년의 꿈, 전원주택을 짓고 귀촌한 이경택 씨

흔히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한다. 누구나 오래 살게 될수록 인생 후반부의 삶이 길어지고 중요해졌다. 대도시에서 바쁘게 살아온 현대인들이라면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 그림 같은 집하나 짓고 살아가는 노후를 꿈꾸었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새 농촌으로 가서 노년을 보내려는 이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꿈만 꾸다고, 바라기만 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결코 아니다. 귀농·귀촌을 꿈꾸어도 고향에 땅이 없거나 혹은 아무런 연고가 없거나 마땅히 어느 지역으로 갈지 정해지지 않는 등의 여러 이유로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선뜻 내려가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 요즘 시골이라 해도 땅값 안 오른 곳이 없고 또 건축비는 얼마나 비싸며 집 짓는 과정은 어쩌나 복잡하고 고생스러운지 엄두가 안 나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관들을 극복해내서 꿈을 현실로 일궈낸 사람들이 있다. 그 분들의 공통점은 일찍부터 노년의 계획을 세우고 그 꿈을 하나하나 현실 안에서 실천해 왔다는 점이다.

1) 20년 전, 이천에 심은 꿈의 씨앗

마장면 장암리 큰 도로에서 산책하듯 샛길로 15분 정도 개울가를 따라 걸어가다 보면 길 끝자락 별이 잘 드는 곳에 멋진 2층 주택 한 채가 눈에 띈다. 집 앞으로는 여유로운 정원과 300평 되는 텃밭도 펼쳐져 있다. 밭에는 김장을 하기 위해 배추들을 수확하는 중이었다. 전원주택의 꿈을 이뤄 3년 전 이주한 이경택 씨가 가족들과 김장준비를 하다말고 반갑게 맞아주신다.

건설업을 하던 이경택 씨는 서울 송파구에 살았다. 1945년생으로, 태어난 곳은 충북이지만 일찍이 서울로 올라와 서울이 고향이나 다름없다. 서울에 살 때에도 답답한 아파트를 싫어했던 이경택 씨는 일찍부터 노후에 대한 계획을 세워 왔다. 20년 전 당시 한참 사업에 매진하던 50대 시절부터 노후에는 전원생활을 하리라 마음먹었다. 이천과의 인연이랄 건 딱히 없었고 연고도 없었다. 예전부터 사업관계로 지방

을 많이 다니다보니 이천지역도 오가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다. 땅과의 인연이라고나 할까.

1995년부터 이천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우선 서울과의 인접성이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산 좋고 물 맑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쌀이 맛있는 이천이 아닌가! 땅이 기름지고 물이 좋으니 쌀도 맛있을 수밖에……. 말하자면 이경택 씨 스스로 이천을 선택한 것이다. 20년 전 은퇴하면 이천에 살겠다고 결심한 후 바로 실천에 옮겼다. 땅을 매입한 것이다. 지금 이천시청 건너편 자리였다. 이경택 씨는 20년 전에 이미 씨앗 한 알을 심어 놓은 것이다. 노년의 꿈밭이 자랄 귀중한 씨앗을 직접 이천 땅에 심고 틈날 때마다 오가며 물을 주고 가꾸듯 노년의 꿈을 키워나갔다.

2) 땅을 일구고 직접 집을 짓다

처음 매입했던 이천 땅은 도시계획에 편입이 되어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시 땅을 알아보러 다녔다. 그러다 지금 주택을 지은 장암리 땅을 매입할 수 있었다. 현재 이곳은 이경택 씨 집뿐 아니라 여러 채의 전원주택이 들어서 있고 또 공사 중인 곳도 있지만, 처음 매입할 당시만 해도 길이 없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맹지였다. 당시에는 잘 팔리지도 않아 방치된 땅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이경택 씨는 오랜 건축업 일을 하다 보니 생긴 안목으로 잘 가꾸면 좋은 땅이라는 걸 한 눈에 알아봤다고 한다.

맹지였지만 톨게이트가 있는 큰 도로가 가깝고 서울과의 인접성이 좋은데다 교통도 좋았죠. 그런데다 큰 도로에서 조금 들어와 있으니 조용하고 경관 좋고 시골 아닌 시골이랄까. 이만한 전원주택지도 드물죠. 그렇지만 없는 길을 내고 허가를 받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어려운 과정인 줄 알고 있었지만 용기를 내고 시작을 했습니다. 2,000평 되는 땅을 400평 정도씩 분할해서 허가 받고 길을 내고, 어찌 보면 이천에 없는 마을 하나를 만든 거죠. 제가.

맹지였던 이곳에 집을 지을 수 있게 터를 다 닦아놓은 후 이경택 씨는 본인 집 터를 남기고 나머지 땅을 분양했다. 분양받은 다른 이웃들도 하나둘씩 들어와 자신



마장면 장암리 이경택 씨 전원주택 전경



‘튼튼하고 저렴하게’ 콘셉트를 가진
이경택 씨의 친환경 전원주택

만의 꿈을 위해 각자의 취향대로 전원주택을 짓고 있다. 보통의 사람들은 집을 짓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집을 짓는다는 건 여러 기술자들이 필요하고 서로 다른 과정이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금도 있어야 해서 돈과 시간과의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건축주가 원하는 주택에 대한 그림과 현실과의 거리에서 오는 차이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로감도 상당하다. 이경택 씨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한 마디로 별 큰 문제없이 순조로웠다는 대답을 듣고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복잡하죠. 집짓는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집하나 짓자면 토목과도 들어가야 하고 건축과도 가고 형질변경도 해야지 여러 허가 과정을 거쳐야 해요.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지만 난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워낙 건설업으로 주택시공 관련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그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순조롭게 해 온 거 같아요. 저라고 뭐 복잡한 과정이나 예상 밖의 일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미리예상을 하고 시간도 넉넉하게 잡았어요. 마음을 여유 있게 가지고 순리대로 해나갔어요.

요즘은 개성 넘치는 외관으로 눈길을 끄는 전원주택이 많다. 건축주의 스타일이 살아있는 집이라고나 할까. 집에 이름도 붙이고 내로라하는 콘셉트를 가진 유명한 집들도 많이 소개되고 있다. 어떤 콘셉트로 집을 지었는지 안 물을 수가 없다. 더구나 전문가니까 뭔가 남다른 의미가 숨어있는 집을 지었을 것 같았다.

장암리 전원주택의 콘셉트는 그저 ‘튼튼하고 저렴하게’였다. 건물뼈대 자체는 튼튼한 구조이지만 외장재는 가장 싼 것만을 썼다고 한다. 보통은 무리를 해서라도 이왕 짓는 거 맘에 드는 외장재를 고집하는 추세인데 굳이 왜 싼 재료만을 사용했을까.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100년 살 것도 아니고 사는 사람에 따라 취향도 바뀌는데 손쉽게 인테리어를 바꾸기 위해서란다. 가구도 오래 쓰지 않고 유행 따라 바꾸기 위해 내구성 강한 것보다 가볍고 단순한 디자인을 선호한다는데, 집도 언제든 주인이 바뀌거나 혹은 유행이 바뀌면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이경택 씨 생각이다. 거실에 있는 아트월도 보통 제대로 하려면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집의 아트월은 10만 원 들여 종이로 직접 붙였다고 한다. 벽지도 일반적으로 실크벽지를 사용하지만 종이벽지를 사용했다. 그러나 ‘저렴’이라는 콘셉트는 단순히 인테리어 항목일 뿐, 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친환경주택이라는 점이다. 지열을 태양광으로 사용해서 춥지 않고 연료비가 덜 든다. 태양열로 전기도 끌어다 쓴다. 그래서 유지비가 거의 안 들어가는 착한 친환경주택이다.

3) 온화한 시간 속에 흐르는 자유로운 삶

이경택 씨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장암리 전원주택에 들어서자 반려견 2마리가 낮선 이를 맞아 꼬리를 흔들며 우렁차게 반겨주었다. 한참 가족 친지들과 김장준비로 배추를 절이고 있었는데 김장배추는 이경택 씨가 텃밭에 직접 심어 키운 것들이다. 계절이 초겨울인 터라 정원의 모습은 비록 한산했지만 아직 뽑지 않은 꽃대들과 나란히 정원 곳곳에 놓인 화분들을 보면서 한창때 화사한 꽃과 식물들로 아름다웠을 집 주변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그나마 텃밭에는 남은 배추들이 울퉁이 예쁘게 흙위에 앉아있었다. 올 한해 텃밭에는 배추·고추·상추·더덕·마늘·깨·토마토 등 수많은 작물이 자랐다고 한다. 300평 되는 텃밭을 혼자 일구고 가꾸었다. 가을에

수확한 비트를 매일 주스로 갈아서 마신다. 농사일을 무척 좋아한다고 하지만 일을 하루 종일 시간 내서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러기엔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경택 씨는 여러 가지 취미활동을 즐겁게 하고 있다. 아코디언 연주도 하고 설봉대학교에서 무료로 서예도 배운다. 이천문화원에 나가 요리도 배우는데 요리는 취미라기보다는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강좌라서 무척 유용하게 쓰인다고 한다. 와인학교에도 나가 와인 만드는 방법도 재밌게 배우고 있다.

이경택 씨는 이렇게 이천에서 시민들을 위해 만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일 하루 한 강좌씩 참여하다보니 은퇴자라 해도 한가하질 않는다. 덕분에 친구도 많이 생겼고 그러니 매일 외출하게 되고, 텃밭 돌보는 하루 한 고랑씩 틈틈이 해야 할 정도로 바쁘게 생활하고 있다. 원래도 이천이라는 고장을 좋아해서 이사 왔지만 막상 살아보니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이 많아 더 좋아졌다고 한다.

이천은 문화프로그램이 상당히 잘돼 있어요. 그 점이 아주 좋아요. 제가 서울에서도 이런 취미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천이 더 잘돼 있는 거 같아요. 서울은 강좌가 많아도 어린이를 위한 강좌가 대부분인데, 이천은 우리 같이 나이든 사람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이 많고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하죠. 여러 군데 탐방도 많이 해요. 그래서 아주 즐겁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장암리 전원주택을 완성해서 이천으로 귀촌한지 딱 세 해가 지났다. 살아보면서 특별히 귀촌생활에 불편한 점은 없었다고 한다. 아직은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병원도 자주 가지 않고 정기검진 때만 서울에 오가지만 그 거리도 30분 정도이니 멀다 느껴지지 않는다. 서울에 살 때 혈압 약을 먹었는데 이천으로 온 후부터 약도 끊었다.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

매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아직은 모든 게 새롭고 신기하다. 덜 심은 나무도 더 심어야 하고 안 해 봤던 작물도 새로 키워보고 싶다. 이천문화원에서 하는 다른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싶고 이경택 씨의 이천생활은 하고 싶은 일들로 가득하다. 하지만 이바빠 보이는 하루하루 노후생활이 전혀 바쁘게 느껴지지 않는다. 아무 것에도 쫓기지 않는 아주 여유로운 시간 속에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이경택 씨를 행복하게 해준다.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을 즐기면서 인생2막
을 이천 시민으로 보
내는 이경택 씨



이경택 씨 부부와 네 자녀

이른 아침 거실 창 안으로 오전의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진다. 탁 트인 이천의 전경을 바라보며 오늘은 무엇을 하고 몇 시에 외출해야 하는지 찬찬히 생각하며 차 한 잔을 하는 시간이 참으로 평온하다고 느낀다. 이렇게 천천히 따뜻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언제나 무엇을 하든 자유롭다는 게 전원생활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하는 이경택 씨의 표정에서 노년의 꿈을 이룬 여유와 편안함이 느껴졌다.

집필위원(가나다순)

김금향 | 건국대학교 아시아콘텐츠연구소 선임연구원
김기홍 | 이천문화원 시민기록자
김명자 | 이천문화원 시민기록자
김영옥 | 이천문화원 시민기록자
김태란 | 이천문화원 시민기록자
김희정 | 자유기고가, 전 이천시·경인일보 시민기자
박영희 | 이천문화원 시민기록자
박태현 | 방송작가, IT전문대학 강사
박형숙 | 방송작가
서정걸 | 한국도자재단 대표
송명자 | 이천 마중물 동아리·조각의 숲 동아리
이동준 | 이천문화원 사무국장
이선민 | 이천문화원 문화사업팀장
이태호 | 이천시 학예연구사
정선화 | 이천문화원 시민기록자
채기순 | 자유기고가, 이천문화원 설봉문화 편집위원
최의광 | 이천문화원 이사, 공주대학교 겸임교수
최현숙 | 자유기고가
한정혜 | 이천문화원 시민기록자
황미애 | 이천문화원 도슨트 동아리 회원

시민을 위한

이천시지 ②

테마로 보는 이천의 문화

발행일 2018년 5월 31일

발행처

이천시지편찬위원회

경기도 이천시 영창로 163번길 19(관고동)

전화 (031)635-2316, 635-2318 / cc467ic@hanmail.net

디자인·제작

홍익문화인쇄사

서울 중구 수표로 23 인농빌딩 104호

전화 (02)2274-8110 / www.hongeeg.com

© 이천시·이천문화원

발간등록번호

ISBN 978-89-87738-14-7

ISBN 978-89-87738-12-3(세트)